

학/술/대/회

평택의 문화유적 발굴현황과 과제

평택지역 선사시대 문화유적의 현황과 과제 / 이동성

평택지역 역사시대 문화유적의 현황과 과제 / 신연식

평택지역 성곽유적의 현황과 과제 / 현남주

학/술/대/회

이석영 · 이회영 육형제의 민족운동과 평택

경주이씨 우당 이회영 육형제의 가계와 독립운동 / 황원섭

이석영과 만주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고찰 / 성주현

경주이씨 육형제와 평택지역 / 김해규

경주이씨 이석영과 육형제의 콘텐츠화 방안 / 박성복

일/반/논/문

송탄 기지촌의 공간변화: 1952년-2018년 / 김희식 · 이인휘 · 장용혁

민세 안재홍의 성인교육 활동에 대한 검토 / 황우갑

평택문화연구

第1輯

제1집

평택문화연구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

발 간 사

평택지역 문화연구의 촉매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에는 평택지역의 향토사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평택문화원에서는 그동안 시사, 읍면지를 비롯해 각종 향토사 관련된 향토지가 발간되는 등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연구는 향토지 발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학술대회, 연구 등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며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번의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평택의 문화유적 발굴현황과 과제'에서는 선사시대·역사시대·성곽유적을 중심으로 고고학적인 정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삼일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석영·이회영 육형제의 민족운동과 평택'라는 주제를 통해 평택지역과 이석영·이회영 육형제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술대회 논문과 함께 일반논문을 더하여 이번 『평택문화연구』 제1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집 발간이 향토사에 대한 관심에 촉매제가 되어 더욱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평택문화연구』가 나아가는데 많은 관심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2019. 12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
소장 오중근

목 차

학술대회. 평택의 문화유적 발굴현황과 과제

- 평택지역 선사시대 문화유적의 현황과 과제 · 7

이동성

- 평택지역 역사시대 문화유적의 현황과 과제 · 35

신연식

- 평택지역 성곽유적의 현황과 과제 · 69

현남주

학술대회. 이석영·이회영 육형제의 민족운동과 평택

- 경주이씨 우당 이회영 육형제의 가계와 독립운동 · 113

황원섭

- 이석영과 만주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고찰 · 147

성주현

- 경주이씨 육형제와 평택지역 · 163

김해규

- 경주이씨 이석영과 육형제의 콘텐츠화 방안 · 185

박성복

일반논문

- 송탄 기지촌의 공간변화: 1952년-2018년 · 217

김희식, 이인휘, 장용혁

- 민세안재홍의 성인교육 활동에 대한 검토 · 255

황우갑

평택지역 선사시대 문화유적의 현황과 과제

이 동 성¹⁾

목 차

- I. 머리말
- II. 평택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
- III. 평택지역 선사시대 문화유적의 현황 및 조사성과
- IV. 평택지역 선사시대 문화유적의 연구과제
- V. 맺음말

1) 기남문화재연구원장

I. 머리말

평택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관계 개선에 따른 서해안시대를 맞이하면서 경기 남부의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대규모 택지와 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구제발굴조사로 인해 선사시대 이래 전시대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황해경제 자유구역 조성, 중국성 조성, 평택항 확장 조성, 배후단지(화양지구) 조성, 그 외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평택동부고속도로 건설 등의 다양한 대규모 건설공사들이 추진되고 있어 구석기시대 이래 역사시대에 해당하는 유적들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고고학적 자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택시 관내에서 발굴조사된 선사시대 유적들은 모두 건설사업에 따른 구제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것으로 학술발굴조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최근의 평택지역 발굴조사 유적의 급증현상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설사업들을 감안하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중요유적의 보존문제, 활용방안 등의 기준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가 전무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평택시 관내에서 확인된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발굴조사 유적을 중심으로 각 시대별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어떠한 활용방안과 학술적 조사와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II. 평택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

평택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경기도의 서

남부에 자리잡고 있다. 동쪽은 용인시 남사면·안성시 공도읍, 서쪽은 아산만을 포함한 황해와 접하며, 남쪽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천안시 성환읍, 북쪽은 화성시·오산시에 인접하고 있다.

평택시는 황해와 접하고 있으며, 한반도 특유의 노년기 최후단계인 저산성 구릉들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높은 산지보다는 낮은 구릉지와 충적평야가 대부분이다.

평택지역의 지형은 김포의 문수산에서 죽산의 칠현산으로 흐르는 북부의 한남정맥과 칠현산에서 보령의 백월산으로 내려가다 서산의 팔봉산으로 올라가 흐르는 동부와 남부의 금북정맥이 서부의 서해를 만나 평택을 중심으로 에워싸는 모습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이다. 하지만 평택지역은 산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동북부 일부의 산악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낮은 구릉지이다. 서해에 가깝고 하천이 곳곳에 형성되어 내륙평탄지와 해안성평탄지 등의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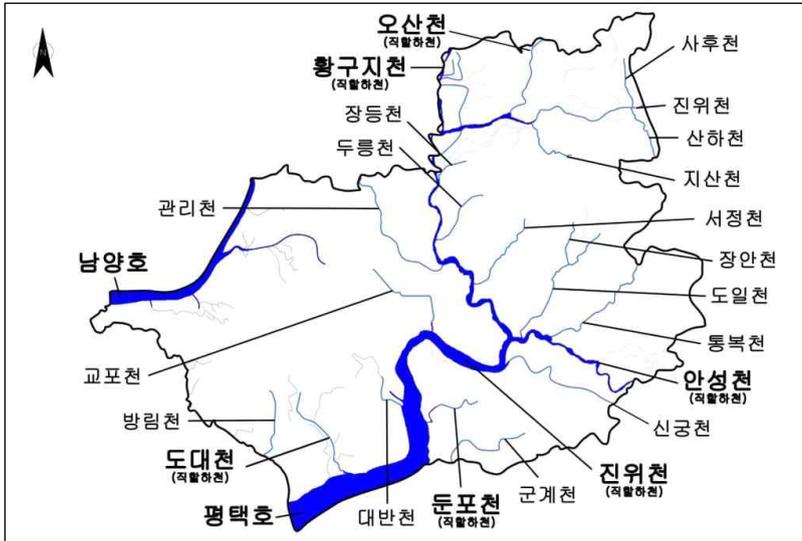
산세는 크게 한남정맥의 줄기를 이어 화성에서 평택으로 뺏는 북부산맥과 한남정맥의 줄기를 이어 안성에서 평택으로 뺏는 북동부산맥, 그리고 남부 평야지대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나눌 수 있다.²⁾

하천은 총연장 133.6km에 크고 작은 22개의 하천이 중심부를 관통하여 가지를 뺏는 형태로 수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22개의 하천은 규모에 따라 6개의 직할하천과 16개의 준용하천으로 나뉘는데, 직할하천은 안성천·진위천·황구지천·둔포천·도대천이며, 준용하천은 통북천·도일천·지산천·장안천·서정천·진위천·방림천·신궁천·사후천·장등천·두릉천·관리천·교포천·대반천·군계천·산하천이 있다.

또한 평택시의 선사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충청남도과 도계를 이루는 안성천³⁾은 가장 중요한 하천으로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차령산맥의 산록을 따라 서류하다가 한천, 진위천 등과 합류하

2) 대부분의 산지는 해발고도 100m내외에 해당하는 잔구릉성 산지이며 북동부산맥의 무봉산만이 208.3m로 가장 높다.
 3) 안성천 일대에서는 특히 본류를 중심으로 중하류 쪽으로 오면서 대규모 취락들이 공도읍 반제리·만정리와 소사동, 죽백동, 토진리, 양교리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여 아산호로 유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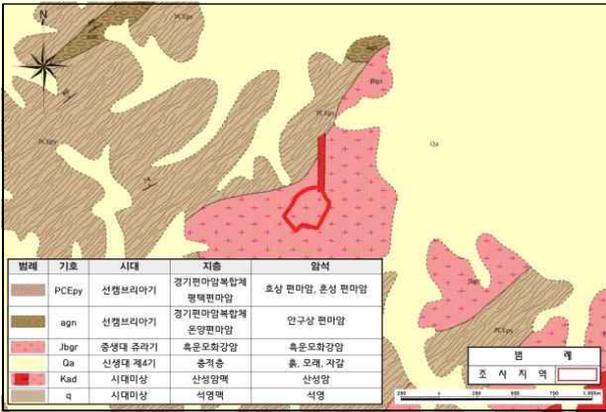
<도면 1> 평택지역의 수계도(출처: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지질은 선캠브리아대 중 시생대의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중생대 중기인 쥐라기의 화강암류, 시대 미상의 맥암류, 신생대 제4기의 층적층으로 구분되며 하부는 연천계에 해당한다. 선캠브리아대에 속하는 지역은 해안에 면한 포승면과 청북면 일대의 서산층군의 편암지대, 동북부와 진위·서탄면, 청북면 북부는 흑색을 띠는 편마암지대 등이 있다. 쥐라기에 속하는 지역은 현덕면 일대의 대보화강암지대이다. 제 4기에 속하는 지역은 진위천변 일대의 광범위한 층적층지대이다.

토양은 노년기에 해당하는 지형으로 하천이 많아 물의 운반·퇴적작용에 의한 하성층적토를 이루어 상류는 사질토, 하류는 점토층으로 되어 있다. 하구와 하천이 합류하는 삼각주 평야인 서탄면은 하구에서 유속이 감소하여 만에 들어갈 때 그 일부가 퇴적되어 점토로 구성된 비옥한 토지로 바뀐다. 대부분이 진흙이며, 크고 작은 모래와 찰흙으로 되어 있어 벼농사에 적합하다.

토층은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범람원과 하구의 발달된 퇴적토와 하천 양안의 물의 침식에 의한 하안단구와 해성충적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형적 여건으로 볼 때, 해발고도 50m 이내의 잔구릉성 산지와 그 일대 주변에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안성천 및 해발고도 10m 이하의 지역은 생활에 부적합한 입지일 것으로 보인다.



〈도면 2〉 조사지역 일대 지질도(출처: 지질정보시스템)



〈도면 3〉 조사지역 일대 경사도(출처: 휴토람)



<도면 4> 조사지역 일대 분포지형도(출처: 휴토람)



<도면 5> 조사지역 일대 퇴적양식도(출처: 휴토람)

Ⅲ. 평택지역 선사시대 문화유적의 현황 및 조사성과

1. 구석기시대

평택지역은 낮은 구릉지대와 충적지의 비옥한 토양, 하천과 바다를 끼고 있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사냥과 어로 및 농경에도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구석기시대 인류가 생활하기에 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조사 보고된 곳 중에 포승읍 원정리유적⁴⁾에서는 조개더미층과 조개더미 아래층, 그리고 조개더미 위쪽 산사면의 발달된 갱신세층에서 밀개, 굽개, 톱니날 등 석영제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희곡리유적⁵⁾에서는 토탄층 아래 갱신세층 상부에서 찌개·밀개·여러면석기·굽개 등이 출토되었고, 홍원리유적⁶⁾에서는 갱신세층 상부에서 격지 1점이 출토되었다. 현화리유적⁷⁾은 2차레 조사되어 Ⅲ지구 집터 아래 갱신세층에서 구형석기 1점이 수습되었다. 팽성읍 본정리·원정리유적은 몸돌·주먹도끼·대패·흠날 등 500여 점이 출토되었으며⁸⁾, 용이동유적⁹⁾에서는 갱신세층이 유적 사면 말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인되었고, V 지역에서는 갱신세층이 30~200cm 두께로 확인되었으며 새기개·잔손질된 석기·몸돌·자갈돌 석기·반입된 자갈돌 등 288점이 출토되었다. 양교리유적¹⁰⁾에서는 적갈색 사질점토층 상면에서 석영맥암제 굽개 3점과 몸돌 1점이

-
- 4) 아주대학교박물관, 1997, 「평택 원정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科技考古研究』 2.
 - 5) 이용조·하문식, 1995, 「평택 내기리·희곡리 발굴조사 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간(안산~안중)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6) 한창균 외, 1995, 「구석기유적조사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간(안산~안중)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Ⅱ』.
 - 7) ①충북대학교선사문화연구소, 1995, 『평택 현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②충북대학교선사문화연구소, 1996, 『평택 현화리 유적』.
 - 8) 國防文化財研究院, 2012, 『평택 본정리·원정리유적·평택 미군기지 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1, 『平澤 龍耳洞 遺蹟』.
 - 10) 中部考古學研究所, 2016, 『平澤 梁橋里 山41-3番地 遺蹟』.

출토되었다. 평택 방축리유적¹¹⁾에서는 3지층 암갈색 점토층에서 맥석영계 짙개, 굵개, 밀개, 몸돌, 격지 등이, 4지층 갈색점토층 상부에서는 맥석영계 돌조각 2점이 출토되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3단계 2공구)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¹²⁾에서는 제토과정에서 여러면석기와 양면석기가 출토되었다. 평택 안중·송담리유적¹³⁾에서는 다지점 3개 문화층(1개 유물포함층)과 라-1지점(재퇴적된 유물포함층)에서 몸돌, 격지, 굵개, 밀개, 뚜르개, 흙날, 등 5,635점이 출토되었다. 여염리유적¹⁴⁾에서는 다지구 7지점에서 49점, 9지점에서 5점 출토되었고, 이외에도 포승읍 석정리에서 몸돌과 여러면석기가 수습되었으며, 현덕면 운정리와 안중읍 대반리 직산말에서도 여러면석기가, 송담리와 용성리 비파산성에서 굵개가, 오성면 양교리에서 격지가 수습되었다.¹⁵⁾

1995년 희곡리유적의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평택의 구석기시대 석기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경기도박물관에 의해 운정리, 대반리 직산말, 송담리와 용성리 비파산성, 양교리 등지에서 지표조사를 통하여 구석기유적의 존재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유적들이 잔존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2010년 이후 대규모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구제발굴조사를 실시하던 중 다수의 중요한 유적들이 확인되었고, 좀 더 내륙쪽으로도 유적이 잔존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구석기시대 유적 조사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는 저구릉성 산지의 사면과 정상부, 그 아래 구릉과 연결되는 지형을 이루는 논과 연결되는 부분과 논 등으로 해발고도는 20~50m 내외에서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안성천과 그 지류 주변의 저구릉성 산지와 이와 연결되는 주변 논지역이 해당하며 주로 안성천 북안인 평택시의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11) 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유적』.

12) 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3단계 2공구)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3차)』.

1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 『平澤 安仲·松潭里 遺蹟』.

14) 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여염리유적』.

15) 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둘째, 층위는 갱신세층에 해당하는 명갈색 점토층, 암갈색 점토층, 암갈색 사질점토층(적갈색 점토층)을 기반으로 이루어 졌으며, 토양쇄기는 대부분 단일층 혹은 2~3층까지 켜기층이 발달된 곳도 있다. 16) 유물은 4개층 모두에서 출토된다.

셋째, 유물은 몸돌, 격지, 주먹도끼, 찌개, 밀개, 굽개, 새기개, 흙날, 톱니날 등 다양한 용도의 석기들이 확인되며, 특히 여염리유적 출토 흑요석제 격지들은 성분분석과 산지연구를 통하여 백두산 2 유형(Pecktu volcano-type2)에 해당하며 홍천 하화계리유적, 철원 장흥리유적, 남양주 호평동유적 출토 흑요석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또한 후기구석기시대 후반에 해당하는 흑요석제 격지의 존재 확인은 향후 명갈색 점토층에서 대량의 쯤돌날몸돌, 쯤돌날석기 등의 잔존 가능성 높음을 기대케 한다.

넷째, 연대는 층위와 구석기 유물, 절대연대측정치 등을 감안해 볼 때, 구석기시대 후기 후반의 명갈색 점토층과 3번의 토양쇄기층에서 후기 전반과 중기 구석기의 존재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물은 후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쯤돌날, 쯤돌날몸돌, 긴돌날 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부분 후기구석기 전반과 후반의 유물들로 보인다. 또한 일부 주먹도끼와 찌개 등의 몸돌석기와 넓은 격지 혹은 넓은 긴격지를 생산해서 만드는 굽개, 밀개 등의 존재로 보아 중기구석기시대의 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유적은 조사 예가 드문데 이는 입지상 저구릉성 산지의 정상부와 정상부 주변 능선 상부에 위치하므로 노년기 지형의 풍화암반토가 유수 등에 의해 쉽게 유실되는 특성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포승읍 원정리유적은¹⁷⁾ 서해상의 아산만과 남양만이 갈라

16) 명갈색 점토층은 평택 여염리유적에서 확인되었으며 흑요석제 4점이 출토되었으며, 연천 늘거리유적의 연대측정 결과와 여염리유적의 토양의 AMS연대측정 결과 BP1만년 전후 임을 감안하면 대체로 최후 빙기 극상기(LGM) 이후의 퇴적층으로 볼 수 있다.

17) 아주대학교박물관, 1997, 「평택 원정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科技考古研究』 2.

지는 돌출부에 해당하며, 나지막한 구릉성 산지의 남사면에 위치하는데, 구릉 아래로 내려오면서 조개더미층이 2m이상 두텁게 형성되었다. 유물은 소위 금강식토기의 구연부(之'자문토기)와 석착과 석도 등 간석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지제동유적¹⁸⁾은 유구와 층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다. 토진리유적¹⁹⁾ 구릉 정상부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유일하게 발굴조사된 동삭동유적²⁰⁾은 1지점에서 주거지 1기, 3지점에서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지형 삭평으로 인해 잔존상태가 불량하지만 잔존상태와 내부시설의 배치상태로 보아 방형계 주거지로 판단되며 내부시설은 수혈식노지, 단시설, 주공이 확인되었다. 방형의 수혈식 노지는 중서부 해안지역의 전·중기에 걸쳐 수혈식 노지가 전형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규모 및 형태에서 유사하다. 화성 석교리유적²¹⁾에서 원형과 방형의 수혈식 노지가 확인된 바 있다. 단시설은 화성 석교리유적, 인천 운서동 I 유적²²⁾, 삼목도유적²³⁾에서 확인되며, 대부분 중서부해안 및 도서지역의 유적이다. 주공은 벽을 따라 인접하여 산발적으로 배치되는데 화성 석교리유적과 유사하다. 연대는 1지점 1호 주거지의 숯을 AMS연대측정한 결과 BP4,460±40로 BC3,5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기단계에 해당한다.

신석기시대 유적 조사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는 저구릉성 산지의 정상부와 그 주변 능선 상부에 위치하며 유수 등으로 인해 잔존상태가 불량하며 즐문토기편 등의 일부 유물만 잔존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주거지는 평면형태 방형의 수혈식 노지, 단시설, 벽가 주공

18) 세종대학교박물관, 2000, 『平澤 芝制洞遺蹟』.

19) 中央文化財研究院, 2005, 『平澤 土津里 工場 新築敷地內 平澤 土津里 遺蹟』.

20)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평택 동삭동유적』.

21)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 『화성 청원리·석교리유적』.

22) 中央文化財研究院, 2010, 『인천 운서동유적 I』.

23) 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인천 삼목도Ⅲ유적 학술발굴조사보고서』.

의 내부시설을 갖춘 형태로 신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조성되었다. 이러한 주거지들은 중서부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확인된 것들과 유사하며 이는 기후 극상기에 해당하는 BC3,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보편화된 양상이다.

3.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적은 평택지역이 속한 안성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성천²⁴⁾ 일대는 차령산맥의 남쪽에 해당하며, 해발 50m 내외의 산지 및 구릉과 그 일대 범람원 충적지의 비옥한 토양, 그리고 서해와 접해 있는 자연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서해안과 인접한 구릉 및 산 정상부에, 안성천과 그 지류(황구지천, 진위천)들에 인접한 저구릉성 산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아 식량을 획득하고 사냥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²⁵⁾

유적의 분포도 안성천 중·상류지역은 안성천 주변 1km내의 잔구성 산지와 구릉상에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하류쪽인 평택지역은 좀 더 내륙이나 해안가의 저구릉성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²⁶⁾.

안성천 유역의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평택 지체동유적이 발굴된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현화리유적 등 서해안과 인접한 곳에서 주로 지표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던 것이 2000년 이후 아산만 일대의 개발과 괴를 같이하여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안성천 중·상류지역에 해당하는 안성 만정리 신기, 마정리, 만정리, 평택 소사동, 그 이후 평택 양교리, 수월암리, 용이·죽백동유적 등 안성천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발굴조사 되었다.

24) 안성천 수계에는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등도 포함되나 이하의 글에서는 안성천 본류를 중심으로 중요유적들의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25) 대부분의 유적들은 1km 범위 내에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산정상부와 구릉을 포함하여 분포하는 구릉지형 취락에 해당한다.

26)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안성 반제리유적의 경우 고지성 입지에 해당한다.

발굴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현화리유적²⁷⁾은 안성천 유역에서 처음으로 주거지 5기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 공렬토기, 구순각목+공렬문토기, 홍도, 석촉, 마제석부 등이 있다. 원정리유적²⁸⁾은 구연부 단면이 원형과 삼각형인 점토대토기의 구연부편과 축약된 외형의 저부편, 마제석부, 석촉, 석검편 등이 출토되었다.

지제동유적²⁹⁾은 주거지 7기와 노지, 수혈 1기, 무문토기와 각종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소사동유적³⁰⁾은 전기~후기까지 이르는 취락유적이 확인되었다. 유구는 주거지 81기와 저장시설로 판단되는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일단경식석촉, 이단경식석촉, 삼각만입촉, 유경식석검, 세형석착, 반월형석도, 합인·편인석부 등의 각종 석기류와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성문, 공렬, 구순각목, 구순각목+공렬 등의 문양이 시문된 각종 무문토기류가 출토되었다.

토진리유적³¹⁾은 전기~중기까지 이르는 주거지 25기와 수혈유구, 석관묘 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석관묘는 소형으로 확장된 성인인골뿐만 아니라 인접하여 불탄자리도 확인되어 이 시기 화장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또한 석관 외부 서벽과 補石 사이에서 검신부가 부러진 일단병식 석검과 석창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중기 원형 또는 방형 집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토진리1유적³²⁾은 해발 22~23m의 사면 하단부에서 평면형태는 1호가 장방형, 2호가 타원형, 3호가 방형으로 3기가 확인되었다. 내부시설도 저장공(1호), 벽주(2호), 수혈(3호)로 각기 달라 주변의 토

27)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1996, 『平澤 玄華里遺蹟』.

28) 아주대학교 박물관, 1997, 「평택 원정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科技考古研究』 제2호.

29) 世宗大學校博物館, 2000, 『平澤 芝制洞遺蹟』.

30) 高麗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素沙洞遺蹟』.

31)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平澤 土津里遺蹟』.

32) 中央文化財研究院, 2005, 『平澤 土津里 工場 新築敷地內 土津里遺蹟』.

기전문화재연구원이 2006년에 발굴조사한 유적명과 동일하여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유적명을 변경하였다.

진리, 양교리유적의 대규모 취락에서 단독주거로 분리되어 있는 경작지를 관리하던 소규모의 주거로 추정되었다.

평택 양교리유적³³⁾은 주거지 44기, 지식묘 2기, 매납유구 2기, 석관묘 2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전기 중반~후기 전반에 이르는 것으로 가락동식·역삼동식에서 송국리식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단계의 양상이 보여지며, 고인들은 판선형의 받침돌을 얹혀놓은 형태로 안산 선부동 10호, 오산 외삼미동 1호, 화성 병점리 1·2호, 화성 수기리 1호, 하남 광암동 1·3호 고인돌와 유사하다. 2호 석관묘에서는 석검 인부편과 무단경식석촉이 확인되었다.

평택 수월암리유적³⁴⁾은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의 주거지 14기, 탁자식과 개석식이 능선을 따라 분포하는 고인돌 24기, 수혈 1기, 채석장 1개소가 발굴조사되었다. 고인돌은 주장법이 화장이며, 방형 주거지 단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택 용이·죽백동유적³⁵⁾은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의 주거지 73기, 환호 2기, 석관묘 3기, 주혈군 1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주거지는 전기 후엽의 세장방형과 중기의 장방형, 방형의 단계로 보이며, 석관묘는 굴광한 후 화장을 실시하고 그 내부에 석관묘를 조성한 형태로 판단된다.

평택 당현리유적³⁶⁾은 역삼동유형 주거지 11기, 중기~후기에 해당하는 선송국리유형 4기, 송국리유형 1기 등 16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이상의 최근 발굴조사된 유적들의 주거지와 분묘, 환호를 출토유물과 비교하여 그 연대와 문화성격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는 조기(기원전 15~14세기, 화성 정문리유적)에는 각목돌대문과 절상돌대문토기가 공반하는 중형의 방형, 전기 전반(기원전 13~12세기)에는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이 결합된 토기가 공반

33) 高麗文化財研究院, 2010, 『平澤 梁橋里 遺蹟』.

34) 겨레문화재연구원, 2013, 『평택 수월암리 유적』.

35)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9, 『평택 용이·죽백동 유적』.

36) 가경고고학연구소, 2011, 『平澤 堂峴里遺蹟(II)』.

하는 평택 현화리, 소사동, 안성 반제리유적 장방형, 전기 중·후반(기원전 11~10세기)에는 퇴화된 이중구연토기, 공렬+단사선, 공렬+중선문토기가 공반하는 안성반제리, 만정리 신기, 소사동 II단계 장방형, 세장방형, 중기(기원전 9~8세기)는 공렬문토기와 무문양 심발형토기가 공반하는 소형의 방형·장방형, 후기(기원전 7~4세기)는 무문토기를 공반하는 송국리유형의 원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³⁷⁾.

둘째, 석관묘는 안성천 유역에 특징적으로 분포하는 소형의 화장묘³⁸⁾로 단독 혹은 고인돌과 조합을 이루며 조성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고인돌과 조합되어 조성된 오산 탐동·두곡동유적, 평택 수월암리유적,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이 대표적이며, 석관묘 단독으로 조성된 유적은 평택 용이·죽백동유적³⁹⁾과 평택 토진리유적(기전문화재연구원)이 있다. 조성연대는 오산 탐동·두곡동유적이 기원전 780~600, 평택 용이·죽백동유적이 기원전 800~500, 평택 수월암리유적이 기원전 650~450년의 AMS연대측정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중기에서 후기에 해당하는 연대를 보이나 오산 탐동·두곡동유적의 경우 주거지와외 중복관계로 보아 방형단계 주거지와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상한은 중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⁴⁰⁾. 출토 유물에서도 일단병식 석검과 일체형·일단경식 석촉이 주로 출토되고 있다.

셋째, 환호는 전기 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택 용이·죽백동유적과 화성 쌍송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화성 쌍송리유적 환호는 기원

37) 평택 소사동유적과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의 송국리유형 주거지만 조사된 예를 제외하면 전기 후반과 중기에 해당하는 평택 용이·죽백동유적, 평택 당현리유적 등 대부분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8) 기존의 규모상으로 보아 유아나 소아의 분묘로 인식되던 것이 평택 토진리유적과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의 경우 출토인골의 분석으로 성인의 뼈로 확인되어 성인의 뼈를 화장 후 뼈와 부산물을 추려 2차장으로 석관묘에 다시 매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39) 한얼문화재연구원, 2019, 『평택 용이·죽백동유적』.

40) 평택 용이·죽백동유적의 경우 비교적 깊은 깊이로 조성된 점, 석관묘의 형태상 송국리유형의 석관묘와 유사한 점, 시상을 마련한 점 등으로 보아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석관묘로 볼 수 있다.

전 10세기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입지는 원형으로 산 정상부를 감싼 고지성 산정형이며, 기능상 주거공간과 분리된 제의공간⁴¹⁾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평택 용이·죽백동유적의 환호는 산 정상부와 하단부에 걸쳐 총 2기가 확인되었는데, 1호는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며 원형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아 쌍송리유적 환호와 유사하므로 주거공간과 분리된 의례공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2호는 자연지형을 따라 눈사람모양으로 660m정도의 대규모로 조성된 것으로 보아 1호 환호와 취락을 보호하는 방어의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IV. 평택지역 선사시대 문화유적의 연구과제

평택지역의 선사시대와 관련된 조사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 서해안고속도로내 희곡리유적, 현화지구택지개발사업부지 내 현화리유적, 원정리 유적의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구석기시대 ~ 청동기시대의 문화에 대한 일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동반하면서 각 시기별 구체적인 문화상에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 좀 더 생소하지만 다양한 양상들이 확인되어 그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발굴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각 시기별 연구과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석기시대는 전기-중기 구석기시대를 분리하여 편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후기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좀돌날, 돌날문화가 확인되지 않은 점의 확인이 필요하다. 전자는 전기-중기 구석기시대를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석기의 공작 상 몸돌에서 격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변화한 양상이 확인된 유적이 전무한 상태인 문제로 귀결된다. 향후 발굴조사 시 기반암까지 굴토하여 제2~3 토양층기층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후자는 후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41) 정상부 주변의 소형 주혈과 환호 내에서 출토된 인위적인 토기의 훼손행위, 환호 내 불탄흔적 등으로 보아 의례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보고 있다.

좁돌날몸돌, 좁돌날, 돌날의 유물포함층인 명갈색 점토층에서 유일하게 여염리유적에서 흑요석제 격지가 확인되어 일면이 드러났지만 그 이외의 후기 후반에 해당하는 문화상은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귀결된다. 향후 명갈색 점토층과 제1 토양쌓기층의 면밀한 조사를 기대해본다.

신석기시대는 동작동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2기가 확인된 것이 고무적이며, 향후 연구과제는 유구의 분포가 구릉성 산지의 정상 혹은 그 주변에 위치하는 점, 지형 삭평으로 인한 보존상태가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제한된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된 유구 내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방법과 절대연대측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동기시대는 2000년대 이후 안성천을 중심으로 북안에 해당하는 서구릉성 산지에서 마을유적들이 대거 조사되었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소사동유적, 용이·죽백동유적, 토진리유적, 양교리유적, 현화리유적, 지체동유적, 동작동유적, 방축리·여염리·궁리유적이 있다. 이외에 무덤유적은 수월암리유적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연구된 사례는 미미하며 향후 유적 내의 주거지와 무덤의 공간분석, 주거지 간의 공간분석, 화장묘에 대한 연구, 고인돌과 화장묘의 관계에 대한 연구, 출토 석기에 대한 형식분류와 상대편년연구, 출토 토기를 통한 상대편년연구, 유구·유물에 대한 편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평택지역 청동기문화의 지역성 연구가 필요하다.

V. 맺음말

평택시의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희곡리유적 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 토탄층 조사와 구석기시대 갱신세층에 대한 발굴조사, 현화지구 택지조성부지 내 현화리유적에서 구석기시대 갱신세층 조사와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발굴조사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대

에 들어서 평택항 건설, 미군기지 이전, 삼성반도체 공장 신설, 대규모택지 개발, 도로건설 등이 성행으로 대규모 발굴조사를 통하여 구석기시대 ~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선사시대에 대한 문화상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평택시의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와 연구과제 향후 활용 방향 설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석기시대 연구는 유적의 입지면에서 안성천을 중심으로 북안의 저구릉성 산지와 저지대 논과 연결되는 부분에 위치하며 광범위한 갱신세층의 분포 범위가 확인된 것에 반해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유적은 적다. 그 중 안중·송담리유적과 여염리유적의 발굴조사로 인해 구석기시대 중기 후반 이후 후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적임이 밝혀지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전기와 중기의 문화상이 구분되지 않으며 후기 후반에 해당하는 문화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확인되었다. 향후 명갈색 점토층과 제1 토양층에서 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유물, 제 2~3 토양층에서 후기 구석기 전반 혹은 중기 구석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정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유일하게 동작동유적이 발굴조사 되어 신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방형계 주거지 2기가 확인되었으며 내부시설은 수혈식노지, 단시설, 벽가 주공이 특징적이다. 이 시기의 유구들이 드물게 확인되는 원인은 입지가 저구릉성 산지의 정상부와 주변 능선의 상부에 위치하며, 유구 조성층이 편마암 풍화토로 유수 등의 원인으로 삭평이 이루어져 유구의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유물만 확인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료의 빈약성을 인정하고 확인된 유구에 대한 정밀한 발굴조사와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한 자료(토양분석, 식물자료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다양한 절대연대측정 등을 통하여 편년 및 문화상 연구에 있어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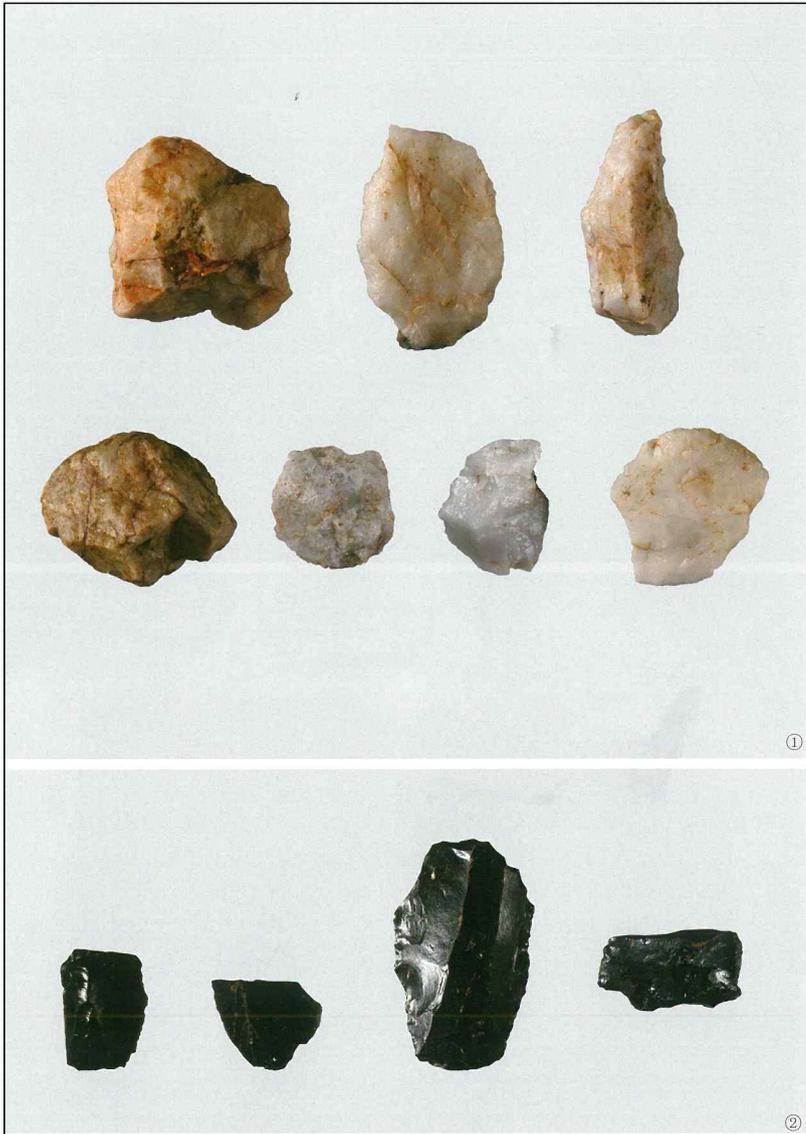
청동기시대 유적은 안성천 유역과 지류 및 해안가의 해발 50m 내외의 저구릉성 산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기 대규모 마을 유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연대는 전기 중반~후반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대부분이며, 중기에 해당하는 소형 장방형·방형 단계의 유적들이 증가하고 있어 청동기시대 전기~후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와 토기, 석기들이 발굴조사 되고 있다. 고인들은 전기에 출현하여 중기에 접어들면 화장묘로 여겨지는 석관묘들과 공반하는 특성을 보이며, 석관묘 단독으로도 조성되는 예도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중기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전기의 환호유적은 의례공간 혹은 의례공간과 방어시설을 갖춘 마을 유적의 존재가 확인된 점과 중기·후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의 발굴예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점토대토기문화와의 비교연구 및 병존현상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동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이후 축적된 방대한 양의 유구와 유물들이 끊임없이 이어진 현장조사에 밀려 발굴조사보고서에 단편적인 형식분류와 주변유적과의 편년 비교연구 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향후 연구과제는 유적, 유구, 유물의 공간분석, 형식분류를 통한 편년과 절대연대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한 편년 등의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조사성과를 정리하고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여 평택지역의 선사시대 지역문화의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구석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학술조사를 통하여 전기-중기의 시대구분 문제와 후기 문화상 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신석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한정된 자료로 보다 심도깊은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청동기시대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평택학 학술대회를 통하여 평택시의 선사시대에 대한 단편적이지만 학술적 정리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이며 이를 통하여 평택시의 선사문화에 대한 지역적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간의 연구성과를 통해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도판목록



<삽도 1> 평택 여염리유적 다지구 구석기시대 유물층 출토석기

① 7지점 도구 ② 9지점 흑요석계 돌날



<삽도 2> 평택 동삭동유적 1지점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



<삽도 3> 평택 동삭동유적 3지점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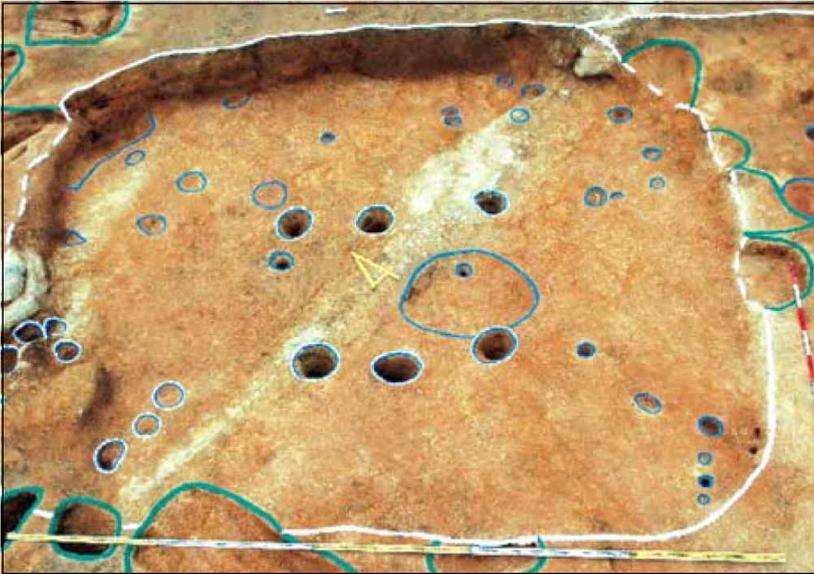
<삽도 4> 평택 용이·죽백동유적 청동기시대 1호 환호



<삽도 5> 평택 용이·죽백동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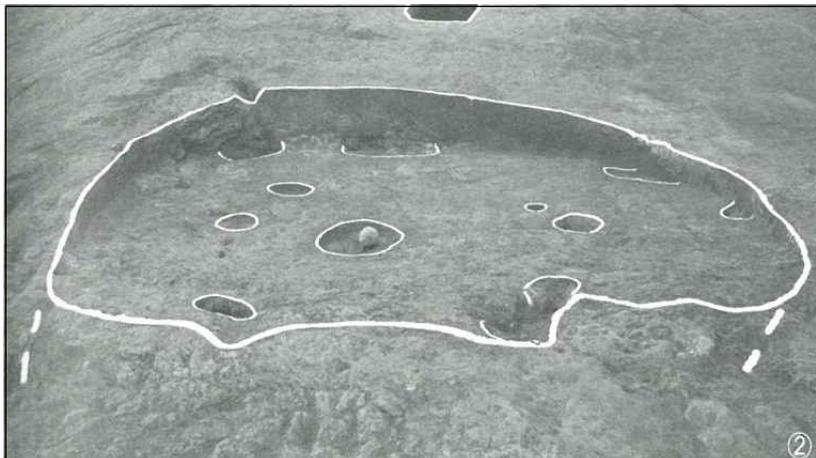
〈삽도 6〉 평택 용이·죽백동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석기



〈삽도 7〉 평택 소사동유적 라지점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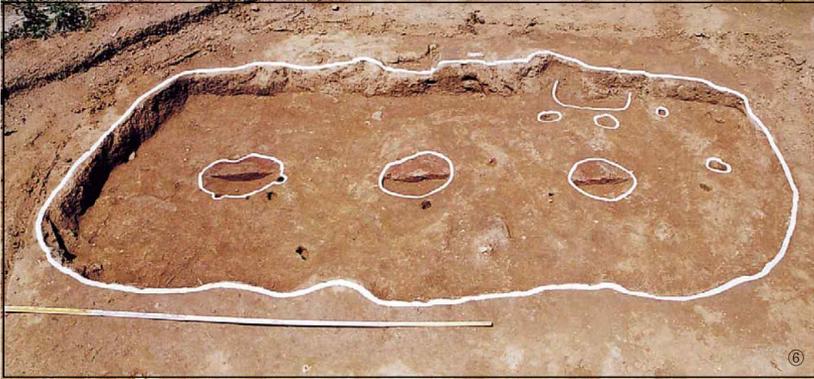
<삽도 8> 평택 소사동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유물



〈삽도 9〉 평택 양교리유적 2-2지점 청동기시대 16호 주거지



〈삽도 10〉 평택 양교리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유물



<삽도 11> 평택 토진리유적 청동기시대 14호 주거지



<삽도 12> 평택 토진리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유물

□ 참고문헌

- 이용조·하문식, 1995, 「평택 내기리·회곡리 발굴조사 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간(안산~안중)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한창균 外, 1995, 「구석기유적조사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간(안산~안중)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Ⅱ』.
- 가경고고학연구소, 2011, 『平澤 堂峴里遺蹟(Ⅱ)』.
- 겨레문화재연구원, 2013, 『평택 수월암리 유적』.
- 경기도박물관, 1999,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平澤 素沙洞遺蹟』.
- _____, 2010, 『平澤 梁橋里 遺蹟』.
-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평택 본정리·원정리유적-평택 미군기지 주변가로망 정비사업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기진문화재연구원, 2004, 『平澤 土津里遺蹟』.
- 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유적』.
- 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인천 삼목도Ⅲ유적 학술발굴조사보고서』.
- 세종대학교박물관, 2000, 『平澤 芝制洞遺蹟』.
- 아주대학교박물관, 1997, 「평택 원정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料技考古研究』 2.
-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 『화성 청원리·석교리유적』.
- _____, 2016, 『平澤 梁橋里 山41-3番地 遺蹟』.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平澤 土津里 工場 新築敷地內 平澤 土津里遺蹟』.
- _____, 2010, 『인천 운서동유적 I』.
- _____, 2017, 『평택 여염리유적』.
- _____, 2018, 『평택 동삭동유적』.
- 충북대학교선사문화연구소, 1995, 『평택 현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 _____, 1996, 『평택 현화리 유적』.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平澤 龍耳洞 遺蹟』.
- _____, 2013, 『平澤 安仲·松潭里 遺蹟』.

한얼문화재연구원, 2019, 『평택 용이·죽백동유적』 .

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3단계 2공구)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3차)』 .

평택지역 역사시대 문화유적의 현황과 과제 - 초기철기 ~ 삼국시대

신 연 식¹⁾

목 차

- I. 머리말
- II. 위치와 자연·지리적 환경
- III. 유적 현황
- IV. 시기별 유적의 변화양상
- V. 맺음말

1) 중앙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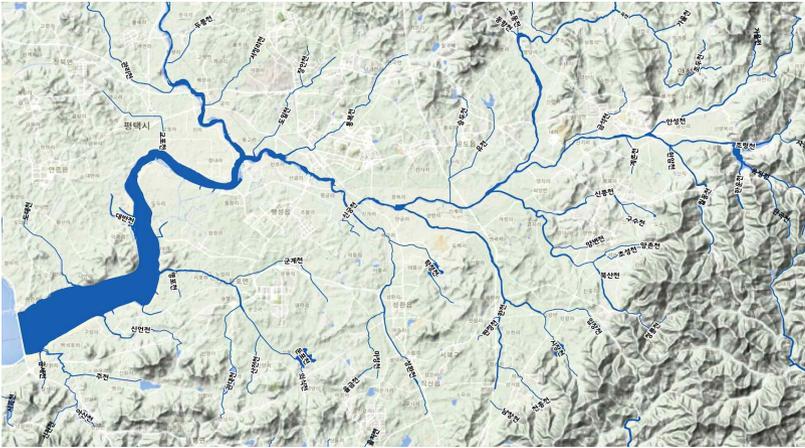
평택시의 역사시대 유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발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어 당시의 문화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평택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평택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그 성격과 규모가 확인된 역사시대 문화유적의 조사현황을 파악한 후 초기철기~삼국시대 유적을 중심으로 한 평택지역에서의 고고학적 현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위치와 자연·지리적 환경

평택시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자리하며, 경기도의 서남단에 위치한다. 동으로는 안성시, 남으로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서쪽으로는 아산만, 서북으로는 화성시, 동북으로는 오산시와 용인시에 접하고 있다. 수리적 위치는 위도는 북위 36°54′ ~ 37°08′ 이며, 경도는 동경 126°46′ ~ 127°09′ 이다.

시의 규모는 24.5km가 해안선에 접하고, 면적은 454.62km²이다. 인구는 504,363명(2019년 7월)이다. 평택시의 지형을 살펴보면 한반도 특유의 노년기 최후 단계인 저산성 구릉들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높은 산지보다는 낮은 구릉이 많은 지형이다. 동쪽에 무봉산(208.6m), 덕암산(164.5m), 팔용산(122.2m), 백운산(191.0m)이 형성되어 있으며, 산지와 이어지는 구릉지대가 자리한다. 시의 중앙에는 남북으로 진위천이 흐르며, 주변으로 넓은 충적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아산만과 남양만 일부 등 서해와 접해있으며, 주변으로 오봉산(112.0m), 무성산(104.7m), 자미산(110.8m), 비파산(102.2m) 등 나지막한 구릉성 산지들이 발달해 있다. 남쪽으로는 충청남도과 접하고 아산만이 가로 놓여 있다. 이 일대에는 부용산(33.7m) 등 일부 저산성 구릉지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평택호로 유입되는 안성천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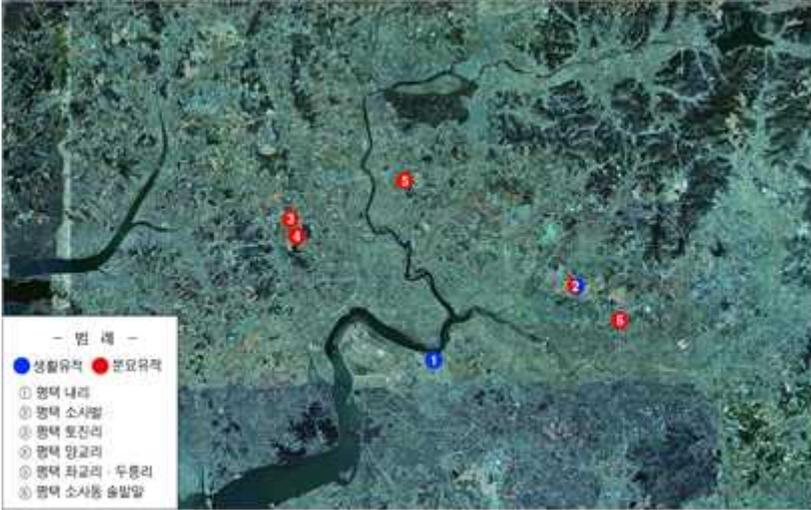
하천은 총연장 133.6km에 22개 하천이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여 전국적으로 곡창지대 및 원예주산지로 유명하다. 또한 그 부분에 따라 직할하천 6개(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둔포천, 도대천)와 준용하천 16개(통북천, 도일천, 지산천, 장안천, 서정천, 진위천, 방림천, 신관천, 사후천, 장등천, 두릉천, 관리천, 교포천, 대반천, 군계천, 산하천)로 이루어져 있다. 평택시는 한반도의 중·남부 지방에서 서울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만 해도 현재의 칠원동을 통하여 진위면 견산리 고개를 넘어 한양으로 통하는 삼남대로와 아산방면에서 해상을 경유해서 만호리, 청북면 신포를 지나 내륙으로 통하는 대로가 있었다. 개화기 이후에는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고 驛이 생기면서 교통 중심의 교차로가 되었다.



〈삽도 1〉 평택시 수계도(QGIS)

III. 유적 현황

1. 초기철기시대



<삽도 2> 평택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도

연 번	유적명	유구성격	출토유물	조성위치(m)
1	평택 소사벌유적	토광묘1, 수혈유구1	원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편, 두형토기편	구릉 정상부 (해발 44.6)
2	평택 양교리 산 41-1번지 유적	석곽묘(적석목관묘?)1	곡옥	구릉 정상부 (해발 40~41)
3	평택 토진리 산 29-1번지 유적	토광묘1	원형점토대토기	사면 상단부 (해발 32~33)
4	평택 내리유적 -11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수혈유구3, 수혈군1	원형점토대토기, 무문토기편	사면 하단부 (해발 8~9)
5	평택 소사동 솔밭말유적	토광묘1	원형점토대토기	완사면 중앙부 (해발 12.6)
6	고덕 국제화계 획지구(3단계 1공구) 사업부지 내 유적(백제)	토광묘1	점토대토기	구릉 정상부
7	고덕 국제화계 획지구(3단계 2공구) 사업부지 내 유적(호남)	토광묘5	흑도장경호, 동모	능선 사면부
8	평택 고덕 좌교리·두릉리유적	토광묘1	원형점토대토기	능선 정상부 근처 (해발 22.5)
계	토광묘 10, 석곽묘(적석목관묘?) 1기, 수혈유구 4, 수혈군 1 등 총 16기			

〈표 1〉 평택 초기철기시대 유적 현황표

1) 평택 소사벌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소사벌유적에서는 토광묘 1기, 수혈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북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정상부의 해발 약 44m에 자리한다. 토광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은 북-남(N-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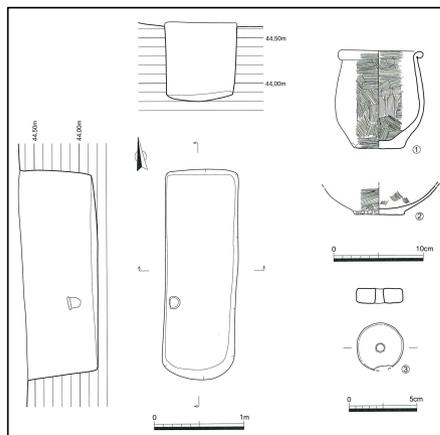
E)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바닥면은 생토면을 비교적 고르게 정지하였다. 규모는 길이 232cm, 너비 82cm, 깊이 79cm이며, 장단축비는 2.83 : 1이다. 유물은 서장벽에 인접해 점토대토기 1점이 출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흑도장경호편과 방추차 1점이 수습되었다.

수혈유구는 동일한 구릉의 구릉 정상부와 북쪽으로 흘러내린 사면부가 맞닿은 해발 약 44m에 자리한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장타원형으로 추정되며, 장축은 북서서-남동동(N-74-W)방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면은 생토층을 고르게 정지하였다. 잔존규모는 잔존 길이 645cm, 잔존너비 143cm, 깊이 34cm이다. 유물은 바닥 중앙부에서 두형토기편과, 무문토기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소사벌유적 토광묘는 토광목관묘로서 위석이 없는 대신 묘광 깊이가 1m 내외로 상당히 깊고, 묘광 내부를 흙으로 채운 것으로서, 묘광의 단벽이 둥글다. 초기철기시대 대부분의 토광묘가 이 형태에 속한다. 토광묘의 구조와 점토대토기의 형태로 보았을 때 기원전 3~2세기경으로 판단된다.

2) 평택 양교리 산41-1번지 유적(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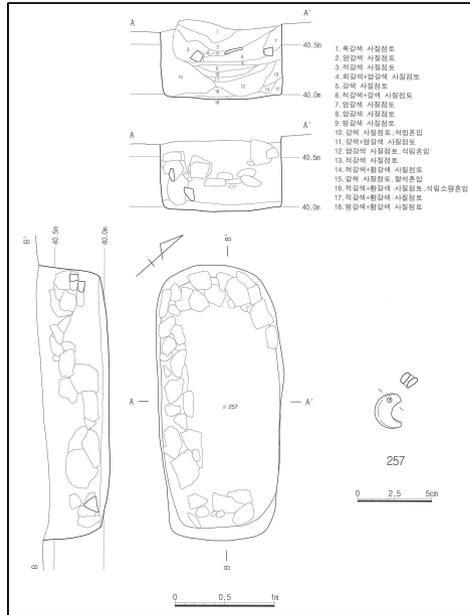
양교리유적에서는 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북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정상부의 해발 약 40~41m에 자리한다. 석곽묘(적석목관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은 북서서-남동동(N-61. -W) 방향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상부에는 목탄과 재가 활석과 함께 무질서하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내부에는



〈삽도 3〉 소사벌유적 토광묘 및 출토유물

‘U’ 자형의 함몰양상과 함께 다량의 할석이 확인되었다.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U’ 자형의 함몰양상과 북쪽장벽을 제외한 삼변에 10~60cm 크기의 할석이 채워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101cm, 깊이 78cm이며, 장단축비는 2.08 : 1이다. 유물은 바닥면에서 곡옥 1점이 출토되었다.

양교리유적 토광묘는 관 주변에 할석을 채우고 부가적으로 매장주체부 상부를 돌로 덮는 구조인 ‘적석목관묘’ 형식과 유사하며, 충청~호남지역의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에서 조사된 목관묘와 유사하다. 출토된 곡옥은 부여 송국리유적 석관묘에서 출토된 한 쌍의 곡옥 중, 두부 단면에 각이 지지 않고 원만한 형태를 띠는 것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전체 크기는 작아 기원전 3~2세기경으로 판단된다.



〈삽도 4〉 양교리 산 41-1번지 유적 토광묘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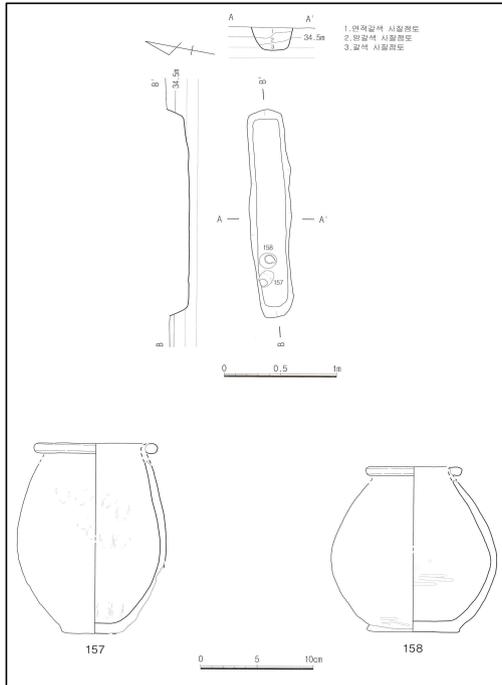
3) 평택 토진리 산29-1번지 유적(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

토진리유적에서는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북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서사면 해발 약 32~33m에 자리한다. 토광묘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장축은 북동동-남서서(N-75. - E) 방향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바닥면은 생토면을 비교적 고르게 정지하였다. 규모는 길이 191cm, 너비 37cm, 깊이 22cm이며, 장단축비는 5.17 : 1이다. 유물은 서단벽쪽 가까이에서 원형점토대

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토진리유적 토광묘는 남한지역에서 확인된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가운데 가장 폭이 좁은 형태로 파악된다. 거의 바닥부분만 남아있어 완주 갈동유적 등과 같이 2단 굴광의 하부만 잔존한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다. 유물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흑도장경호와 점토대토기의 공반되는

데 반해 토진리유적 토광묘에서 원형점토대토기 2점이 공반된 점은 극히 이례적이다. 공반된 원형점토대토기 중 1점(158번)은 흑도마연토기로, 전체적인 기형으로 볼 때 늦은 시기의 흑도장경호의 동체부와 유사한 점이 있다. 흑시 흑도장경호를 모방한 점토대토기의 등장이 라는 점으로 해석한다면, ‘흑도장경호-점토대토기’ 세트 관계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원형점토대토기에서 비교적 늦은 단계인 기원전 2세기경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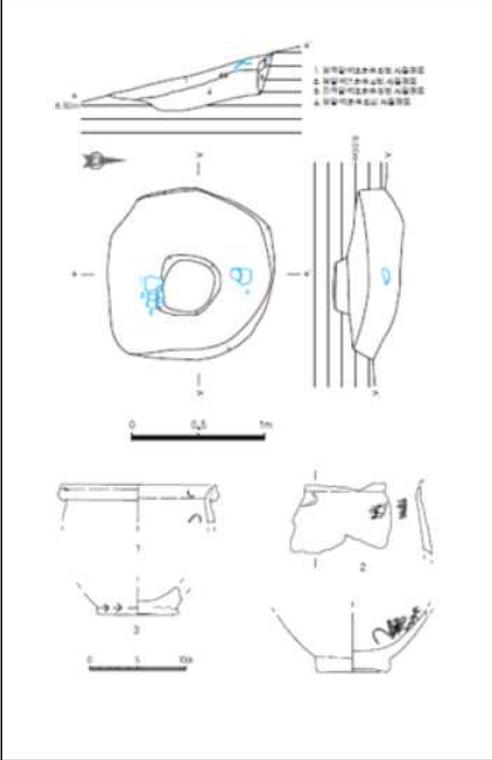
〈삽도 5〉 토진리 산29-1번지 유적 토광묘 및 출토유물

4) 평택 내리유적(기남문화재연구원 2019)

수혈유구의 입지는 조사지역의 남쪽 사면 하단부 중앙인 해발 8~9m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얇은 구릉을 넘어 안성천이 연결하여 동-서로 흐르고 있는 잔구릉성 산지의 하단부에 해당한다. 유구는

삭평된 갯신세층에서 수혈유구 3기와 수혈군(소형 수혈 7기)이 확인되었다. 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남쪽 사면하단부인 해발 8.8m 선상에 자리한다. 북쪽으로 2m 떨어져 초기철기시대 수혈 1호, 서쪽으로 2m 떨어져 초기철기시대 소형 수혈군이 자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직경 125cm, 최대깊이 28cm 정도이다. 벽면은 경사지게 굴토하였으며, 바닥면은 대체로 편평하나 가운데로 갈수록 깊어진다. 바닥면 중앙부에는 원형의 수혈 1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직경 45cm, 길이 11cm 정도이다. 유물은 무문토기 저부편, 점토대토기 구연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 저부편 2점과 구연부가 잔존하는 점토대토기 2점이 확인되었다. 이 중 유물의 편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토대토기는 구연부가 꺾임외반형이며, 점토대 단면형태는 하트형에 가깝다. 기형은 구연부에서 동체부 쪽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단면형태로 보아 호형토기로 추정된다. 유구의 조성연대는 소형 수혈군에서 출토된 숯의 AMS연대측정 결과, 점토대 토기의 단면형태가 하트형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기원전 2~1세기경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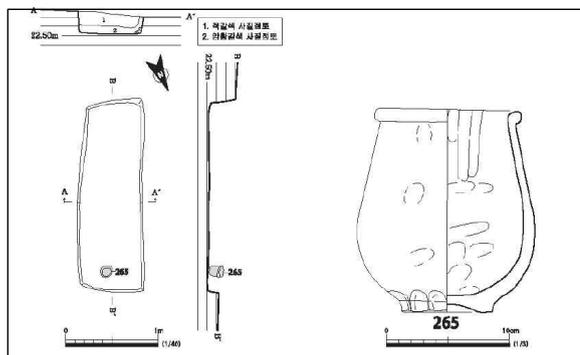
<삽도 6> 내리유적 3호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

5) 평택 고덕 좌교리·두릉리유적(백제문화재연구원 2019)

평택 고덕 좌교리·두릉리유적에서는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8-3지점 북향사면 정상부에 가까운 해발 22.50m에 자리한다. 토광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은 북북서-남남동(N-25. -W) 방향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바닥면은 생토면을 비교적 고르게 정지하였다. 규모는 길이 206cm, 너비 72cm, 깊이 60cm이며, 장단축비는 2.86 : 1이다. 유물은 경사면 하단부인 북단벽 근처에서 정치된 채 점토대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조사결과 해당유적의 토광묘는 순수토광묘로 판단되며, 점토대토기의 기형은 측사면이 완만하게 벌어지다 동하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내만하여 올라가다 단면 원형의 점토대를 부착하였다. 안성 반제리유적에서 토광묘 3기가 조사되었고, 1호와 2호에서 점토대토기와 흑색마연장경호가 출토되었다. 순수토광묘와 토광묘는 동일한 시기에 조성되

지만 세부적으로 선후관계가 있다. 주변 유적 출토품과 비교했을 때 평택지역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인 기원전 4~3세기경으로 판단된다.



〈삽도 7〉 고덕 좌교리·두릉리유적 토광묘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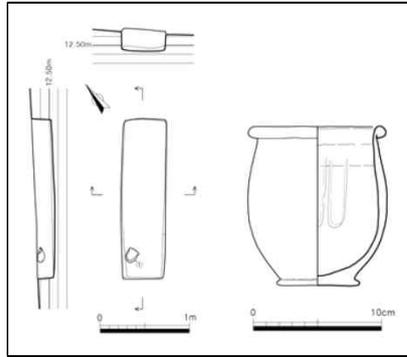
6) 평택 소사동 출발말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9)

소사동 출발말유적에서는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북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남동사면부의 해발 약 12m에 자리한다. 토광묘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장축은 북서-남동(N-52. -W)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바닥면은 생토면을 비교적 고르게 정지하였다. 규모는 길이 180cm, 너비 50cm, 깊이 21cm이며, 장단축비는 3.60 : 1이다. 유물은 서쪽 장단벽 모서리에 인접해 점토대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토광묘의 상부는 삭평으로 인해 훼손되어 상부구조가 1단인지 2단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닥면에서 석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내부 토층이 갈색사질점토의 단일토층으로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목관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토광묘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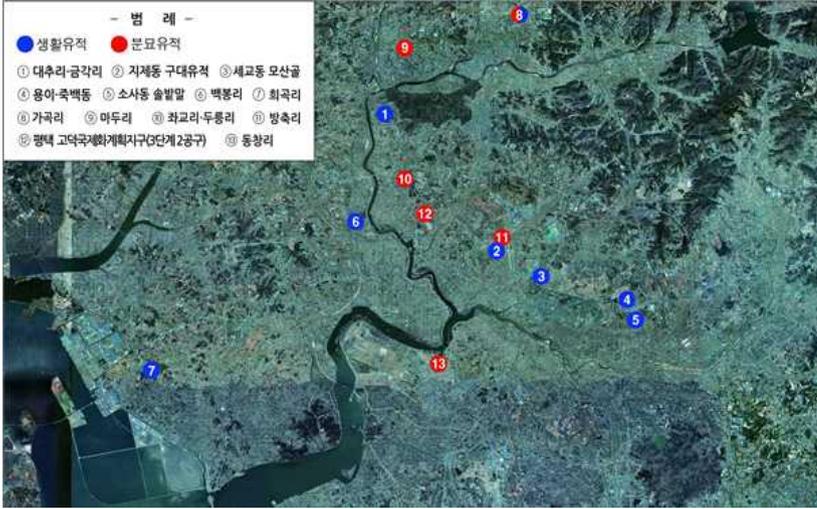
유물은 정여선의 점토대토기 형식분류안에 따라 유사 형식의 토기들을 중심으로 편년안에 대입했을 때 기원전 3세기~2세기경으로 판단된다.

그 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3단계 2공구) 사업부지 내 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17)에서 흑도 장경호와 동모가 부장된 토광묘 5기가 조사되었다.



〈삽도 8〉 소사동 술발말유적 토광묘 및 출토유물

2. 원삼국~삼국시대



<삽도 9> 평택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유적 분포도

연번	유적명	유구성격	출토유물	조성위치(m)
1	평택 방축리유적	토광묘1	타날문토기편	사면 중하단부 (해발 13)
2	평택 대추리·금각리유적	수혈유구36, 구상유구3 등 39기	대형옹(생칠 보수흔)	완사면(갯벌 인근) (해발 6.2~10.1)
3	평택 백봉리유적	주거지1, 토기 가마, 작업장 1, 수혈유구11 등 14기		사면 상단부·하단부 (해발 12~22)
4	평택 동사동유적	주거지 1		
5	평택 동창리유적	토광묘4(주구 1), 구상유구2 등 6기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사면 중앙부 (해발 28.8~30)

연번	유적명	유구성격	출토유물	조성위치(m)
6	평택 가곡리유	토광묘7(주구	원저단경호,	능선 정상부·

	적(한울)	2), 제련로1 등 7기	심발형토기, 양이부호, 환두도 철촉, 철착, 송풍관 등	사면부·곡간부 (해발 29~39)
7	평택 가곡리유적(삼강)	고상건물지 4, 토기가마1, 제철로8, 폐기장 7, 수혈유구21, 구상유구 14, 토광묘47(주구 47) 등 102기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철검, 철광석, 송풍관, 노벽체	능선 정상부·사면부·곡간부 (해발 29~39m)
8	평택 희곡리유적	주혈군 10, 수혈유구 7, 구상유구 7 등 24기	호형토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기대편	능선 정상부, 사면 중앙부(해발 11~20m)
9	평택 지제동 구대유적	주거지3, 지상건물지3, 수혈유구30, 도로유구2, 구상유구13, 주공 215등 263기	경질무문호형·발형토기, 원저단경호	사면 하단부 (해발 8~15m)
10	평택 세교동 모산골유적	주거지42, 수혈유구234, 건물지1, 대벽건물지2, 굴립주 건물지93, 구상유구97, 주공열9, 주공군 2, 매납유구 19, 미상유구 1 등 500기	경질무문토기, 심발형토기, 직구호, 단경호, 장란형토기, 시루편, 대형옹, 기와	사면 중하단부, 곡간부 (해발 8~27m)
11	평택 마두리유적	토광묘3	유개대부호, 단경호, 심발형토기, 마형대구, 철검, 철부, 철모, 철촉 등	사면 중하단부, (해발 21~23.5)

연번	유적명	유구성격	출토유물	조성위치(m)
12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2단계 1공구) 사업부지 내 유적(가경)	석곽묘5, 수혈 유구2, 구상유구1 등 8기	관정	사면 중앙부·하단부(해발 34.2~39.8)
13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3단계 1공구) 사업부지 내 유적(백제)	토광묘5, 옹관묘2 등 7기	유개대부소호,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옹형토기	정상부 부근, 사면 중하단부
14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3단계 2공구) 사업부지 내 유적(호남)	토광묘30(주구26), 옹관묘21 등 51기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옹형토기, 환두대도, 환두도자, 재갈, 철모	사면 중앙부·하단부(해발 18.5~23.5)
15	평택 고덕 좌교리·두릉리 유적	토광묘5기, 옹관묘2 등 7기	원저호, 심발형토기, 구슬	능선 정상부·사면부(해발 11~20)
16	평택 용아·죽백 동유적	주거지4, 수혈 유구9, 구상유구6, 소성유구기 등 27기	대옹편, 파수부시루,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원저단경호	능선 정상부 부근 사면 중앙부(해발 29~52)
17	평택 소사동 솔밭말 유적	주거지4, 토광묘1(주구1) 등 5기	단경호, 원저발형토기, 방추차, 철부, 철모, 철도자	능선 정상부 부근 사면부(해발 29~32)
계	주거지 55, 굴립주 및 (대벽)건물지 100, 주공(군) 236, 수혈유구 350, 구상유구 143, 토기가마 2, 작업장 1, 소성유구 8, 도로유구 2, 제련로 9, 폐기장 7, 토광묘 103(주구 77), 석곽묘 5, 매납유구 19기, 옹관묘 25 등 총 1,065			

〈표 2〉 평택 원삼국~삼국시대 유적 현황

1) 평택 대추리·금각리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평택 대추리·금각리유적에서는 원삼국~백제시대 수혈유구 36기와 구상유구 3기 등 모두 39기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대형옹, 단경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완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대추리유적은 완만한 구릉지로 남고북저의 형태를 띠며, 구릉 중앙부 해발 6~10m의 저평지에 주로 자리한다.

대추리유적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수혈유구는 여타 유적과는 달리 규모와 형태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7호·20호 수혈유구는 1개의 대형옹을 정치시킬 정도의 규모로 구덩이를 파고 대형옹 자체를 저장시설로 사용하였다. 수혈유구의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었지만 일부 수혈유구 벽면과 바닥면에 소형의 (타) 원형수혈이(5호·8호·10호·11호·13호·17호·20호) 확인되었다. 이중 17호·20호 수혈유구는 대형옹의 저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상상 대형옹 저부의 원형의 소형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된 수혈유구 가운데 대형옹이 출토된 17호와 20호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부 수혈유구 가운데 평면형태와 규모를 근거로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수의 수혈유구는 저장시설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일부 수혈유구는 생활유구와 관련된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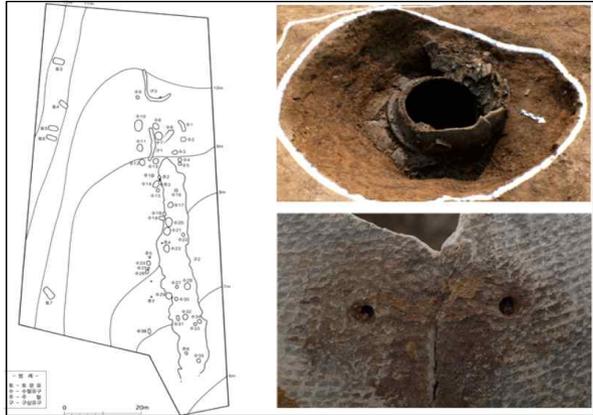
유물은 17호와 20호 수혈유구에서 대형옹이 모두 4점 확인되었는데, 특히, 대추리유적에서 출토된 대형옹은 파손된 부위에 생옷을 접착제로 이용하여 보수를 한 것으로 파손된 토기나 석기 등을 재가공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예는 많이 있지만 파손된 토기자체를 보수하여 재사용한 경우는 처음 조사된 예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보수 후에 토기 내외면에 옷칠을 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형옹편의 접합부위의 직물과 토기 고정 끈에 대한 조사결과 직물은 아마로, 고정 끈은 사슴가죽으로 확인되었다.

구상유구는 4지점에서 3기가 확인되었다. 주변에 다량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구상유구가 위치한 지형은 남고북저로 남쪽 상부에

위치한 1·3호 구상유구는 폭이 좁고 형태는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2호 구상유구는 규모가 크고 유물이 다량 퇴적되었다. 구의 깊이는 얕으며 바닥은

흑회색 점토이다. 유구의 하부인 북쪽에서 대형옹 1개체분이 편으로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을 기형과 형식 등으로 보아 대체적인 시기는 기원 후 3세기 중반대로 편년된다.



<삽도 10> 대추리유적 유구배치도 및 20호 수혈유구, 대옹 보수흔적

2) 평택 가곡리유적(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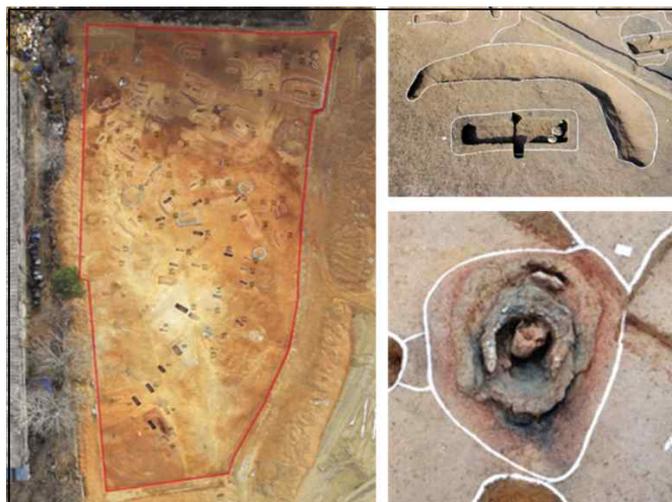
평택 가곡리유적은 무봉산에서 동서방향으로 돌출된 가지능선의 정상부와 사면부, 곡간부인 해발 29~39m에 자리한다. 조사는 모두 5區로 구분하였으며, 조사결과 원삼국시대 고상건물지 4동, 토기가마 1기, 체철로 8기, 폐기장 7기, 수혈유구 21기, 구상유구 14기 주구묘 47기 등 모두 102기가 확인되었다.

주구묘는 모두 47기가 조사되었으며, 주구의 평면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40기이다. 평면형태는 2·5區의 구릉부는 눈썹형, ‘ㄱ’ 자형, ‘-’ 자형의 빈도가 높고, 곡간지의 경우는 ‘^’ 자형, ‘∩’ 자형이 많다. 3區는 눈썹형과 ‘ㄷ’ 자형이 많다. 주구 내에 불을 피운 피혈흔이나 목탄흔이 확인(2區 67호, 3구 11호, 5구 4호) 되거나 토기와 철기를 공헌하는 경우(2구 22호·34호·36호·49호·58호·59호·65호·67호·69호, 5區 32호·49호)가 관찰되는데, 주구 내 의례와 관련된 행위로 판단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20기)과 세장방형(24기)으로 구분된다. 규모는 242~360×92~140×8~110cm이다. 매장주체부인 목관묘는 箱子形인 경우는 장방형이 많고, 壁立

形인 경우는 세장방형이 많다. 주구묘의 매장주체부가 세장할수록 벽립형을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구묘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된 것과 평행한 것이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2區 주구묘의 경우 22기 중 6기(2區 6호·22호·51호·61호·71호·72호)가 등고선과 직교되며, 그 외 나머지는 등고선과 나란하다. 3~5區 주구묘의 경우에는 25기 중 2기(3區 30호·4호)만 등고선과 직교되며, 나머지는 등고선과 나란하다. 매장주체부는 3區의 10호를 제외하고 모두 목관묘로 판단되며, 槨보다는 棺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시기는 주구의 평면형태가 ‘^’ 자형, ‘∩’ 자형을 띠고,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직교하는 점, 매장주체부가 목관인 점, 출토유물이 타날 문단경호와 심발형토기, 철검의 조합인 점 등으로 볼 때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중후반경으로 판단된다.

제철유구는 모두 15기로 제철로 8기, 폐기장은 7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철광석, 송풍관, 노벽편 등 제철과 관련된 것이 전부이다. 제철로 8기 중 爐의 방습시설인 목탄과 점토시설만 잔존하는 6기(2區 30호, 3區 1호·2호·18호·20호·21호)를 제외하면, 노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제철로는 2區와 55호와 3區 24호 제철로 2기 뿐이다. 제철로에서 원료인 철광석과 제련과정에서 생성되는 철재가 거의

출토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곡리 유적의 제철로는 제련공정이 아닌 2차 공정인 정연단야·용해와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이



〈삽도 11〉 가곡리유적 유구배치도, 68호 주구묘, 55호 제철로

이 높다. 조업시기는 2區 55호 제철로와 세트 관계인 54호 폐기장을 68호·69호·71호 주구묘가 파괴하고 조성된 것을 감안하면 주구묘보다 조금 이르거나 비슷한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평택 회곡리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평택 회곡리유적에서는 원삼국~백제시대 주혈군 10기, 수혈유구 7기, 구상유구 7기 등 모두 24기가 조사되었으며, 북동-남서방향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내리는 해발 11.5~19.8m 내외의 가지능선에 자리한다.

구상유구 7기 중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7호 구성유구를 제외하면 6기 모두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조성하였다. 이 중 정상부에 자리한 5호 구상유구와 비교적 경사면 하단부에 위치한 6호 구상유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해발 15m 내외에 일정 간격을 두고 조성되었으며, 진행방향을 볼 때 구릉 정상부와 사면 일부를 둘러싸고 있는 양상이다. 구상유구의 안쪽(능선 정상부)에는 능선을 따라 조성된 10기의 주혈군과 그 주변으로 7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된다. 5호 구상유구의 동쪽으로 인접한 1호 수혈유구를 제외하면, 모든 유구가 구상유구로 이루어진 경계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같은 시기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성 위치 및 주변 유구와의 관계 등을 통해 볼 때 구상유구는 내부시설 보호 및 경계구분을 위한 환호로 추정된다.

환호로 추정되는 구상유구의 평균 잔존길이는 1,751cm이며, 너비는 126~358cm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상유구의 잔존양상을 볼 때 축조당시 환호는 하나의 구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공백지를 두고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공백지간의 간격은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쪽은 32m, 남동쪽은 33m, 북동쪽은 22m의 거리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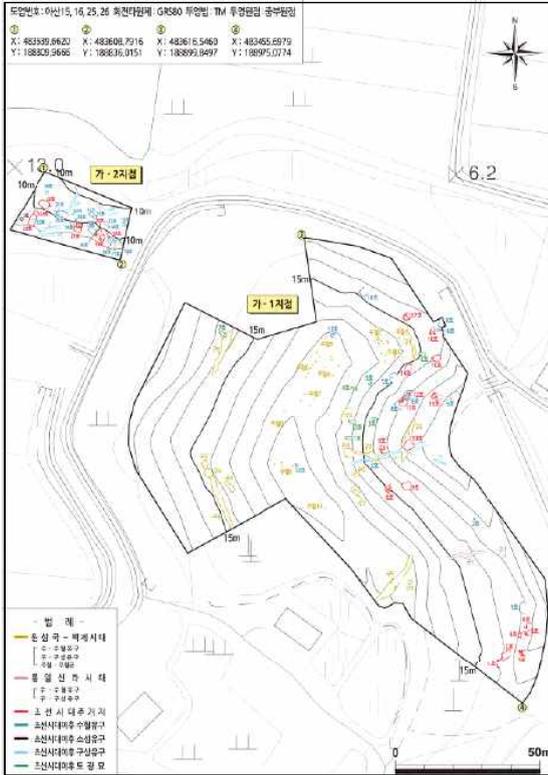
환호 내부 공간에는 확인된 주혈군은 능선 정상부를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배치양상을 볼 때 굴립주 건물지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3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된 단경호는 동체 일부와 저부가 결실된

상태지만 기형 및 토기 외부에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4세기 후반 경에 주로 확인되는 기종으로 추정된다(韓志仙 2005). 또한 2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된 단경호의 경우 동체 일부와 저부가 결실되었으나, 동체 전체적으로 승문타날과 함께 횡침선이 확인된다.

희곡리유적 환호의 중심연대는 3세기 말에서 4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2·5호에서 채취한 목탄시료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결과, 대체적으로 3세기 말에서 4세기로 결과 값이 도출되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 판단된다.

4) 평택 지체동 구대유적(마한문화재 연구원 2018)



<삽도 12> 희곡리유적 유구배치도

평택 구대유적은 낮은 구릉(해발 52.8m)의 북동사면 하단부 해발 8.6~14.5m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해발 20~40m의 낮은 구릉과 충적대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구대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주거지 3기, 지상건물지 3기, 수혈유구 30기, 도로유구 2기, 구상유구 13기, 주공 215기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3기가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계이고 내부시설인 노지는 연도구가 긴 형태의 터널식 부뚜막이 시설되었다. 이중 2호 주거지는 다른 주거지보다 규모, 조성방법, 내부시설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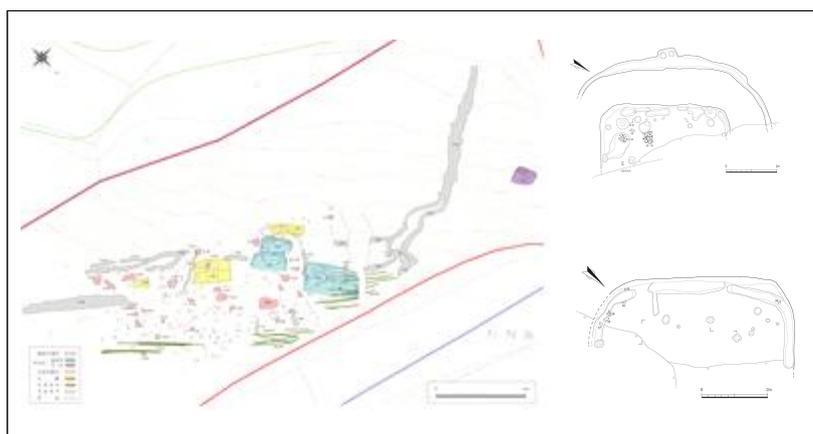
우월함을 알 수 있다. 규모면에서는 장축길이를 중심으로 2호가 3호·4호보다는 1.5~2배 정도 크며, 조성방법에 있어서는 2호가 굴광선과 벽체시설 사이에 1m 정도 뒷채움하였다. 2호의 경우 하부벽체시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벽구 경계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주기등을 세운 후 주기등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점토다짐을 하였다. 주기등 사이에 보조기둥을 촘촘하게 세우고 보조기둥 사이에는 판재를 종방향으로 세워 그 사이를 점토로 메웠다. 주거지 조성방법에 있어서는 2호가 3호·4호보다는 정교하게 조성되었다. 내부시설에서는 3호·4호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터널식의 노지와 집수정이 확인되었다.

지상건물지는 3기가 조사되었다. 규모는 2×1칸, 3×2칸이고,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띠고 있다.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거나 비스듬하다.

수혈유구는 모두 30기가 조사되었다. 2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조성되었다. 수혈유구는 주거지, 도로유구 주공과 중복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 부정형, 원형, 장타원형, 장방형 등 다양하게 확인되나, 타원형과 부정형이 주를 이룬다.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거나 비스듬하거나 직교하는 양상이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규모면에서는 8호(326×164×11cm)가 가장 크며, 15호[32×(27)×17cm]가 가장 작다. 수혈벽은 대부분 사선으로 굴착하였고, 바닥면은 기반층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비교적 고르지 않은 편이다. 내부설로는 일부 수혈에서 주공이 확인된다.

도로유구는 2군집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북쪽 하단부의 지대가 가장 낮은 해발 8.9~10.7m에 분포한다. 구대유적의 도로유구는 평탄한 자연지면에 수레바퀴자국만 일정한 방향으로 확인되고 있어 자연지면을 그대로 이용한 무시설식(IV)에 속한다. 이러한 형태는 평택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부지((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8),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3단계 2공구)((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등지에서 확인된다. 도로유구는 차륜흔의 진행방향과 밀집도에 따라 크게 2개군집으로 구분되며, 1군집은 서쪽에 2군집은 동쪽에 위치한다. 1군집의 북서쪽은 구상유구에 의해 일부 훼손되

었으나 조사지역 경계지점 밖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2군집의 남동쪽은 지형의 삭평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직선형이며, 일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 진행하는 것도 있다. 단면형태는 ‘U’ 자형이다. 도로의 진행방향은 북동-남서방향으로 등고선과 나란하다. 차륜흔의 윤거는 110~125cm, 윤폭은 6~12cm 정도이다. 도로유구는 2개군집으로 구분하였으나 도로의 진행방향, 차륜흔의 규모 등을 보았을 때 동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와 중복관계를 비교해 본 결과 주거지·수혈유구·구상유구(7호)→도로유구→구상유구(1호) 순으로 확인된다. 출토유물과 중복관계를 통해 볼 때 유적 전시기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유적 중심부보다는 외곽에 위치한 구상유구들이 늦게 조성되었다. 종합하면 주거지·수혈유구·지상건물지는 2세기 중후반~3세기, 도로유구는 3세기 중반이후, 구상유구는 3세기대로 볼 수 있다.



〈삽도 13〉 평택 지제동 구대유적 유구배치도 및 3·4호 주거지

5) 평택 세교동 모산골유적(가경고고학연구소 2019)

평택 모산골유적은 유적은 해발 약 20m 정도의 낮은 구릉과 구릉 사이에 형성된 곡부지역 주변을 비롯하여 곡부 최하단부에 해

당하는 단구 끝단과 홍적대지에서 유적이 자리한다. 조사결과, 7개 지점에서 원삼국시대 주거지 42기, 수혈유구 234기, 건물지 1동, 대벽건물지 2동, 굴립주건물지 93동, 구상유구 97기, 주공열 9기, 주공군 2기, 매납유구 19기, 미상유구 1기 등 총 500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42기가 조사되었으며, 유적 전체에 분포한다. 평면형태는 ‘凸’자형 또는 (장)방형이다. ‘凸’자형 주거지는 오각형 또는 육각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며, 남쪽에 돌출된 입구가 조성되어 있는 형태이다. 벽면은 기둥과 점성이 강한 흙을 이용하여 토담형태의 벽체를 조성하였으며, 화재폐기된 5지점 2호 주거지에서는 최소 60cm 높이의 벽체시설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구들시설과 벽구시설, 주공이 확인된다. 구들시설은 입구 반대쪽에 벽면 중앙 또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위치하였다. 대부분 아궁이와 배연부가 일직선으로 짧게 조성된 ‘一’자 형태이며, 점토를 이용하여 벽체를 축조하였다. 내부는 심발형토기를 거꾸로 세워 조성한 지각이 1개 확인되며, 5지점 4호 주거의 경우에는 2개의 지각이 횡으로 배치된 예도 확인된다. 방형 또는 장방형 주거지는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구조를 알수 없으나, ‘凸’자형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며, 일부 주거지에서는 사주식의 구조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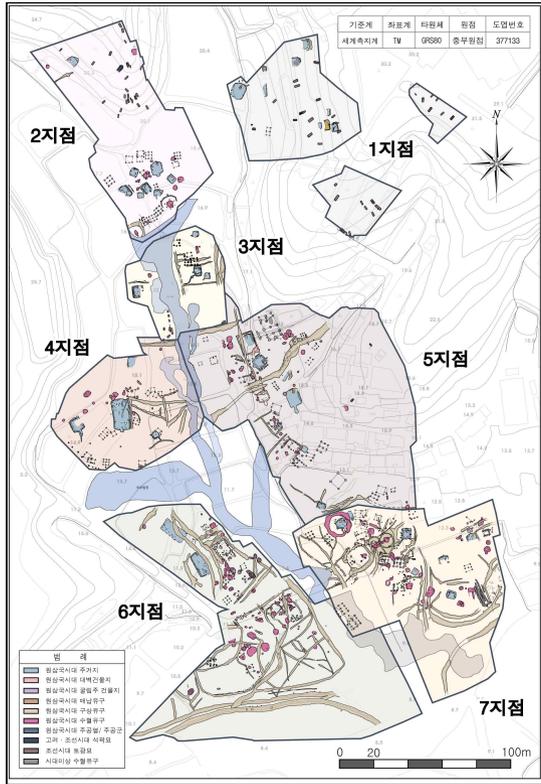
수혈유구는 모두 234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유구는 주로 조사지역 남쪽에 해당되는 5지점과 6지점, 7지점에 분포하는 양상으로 북쪽에서 확인되는 수혈유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즉 북쪽에 입지한 수혈유구는 주거지와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어 주거와 관련된 시설로 판단되는 반면, 남쪽에 입지한 수혈유구는 주거지와 별도의 공간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에 구상유구를 통해 일정한 구획이 나누어져 분포하고 있다. 또한 내부에 탄재와 소토가 퇴적되어 있고, 바닥에 낮은 수혈과 구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굴립주건물지는 모두 93동이 조사되었다. 규모는 2×2칸, 4×2칸, 3×2칸, 3×3칸 등 다양한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입지에 있어서 정연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주거지 주변과 구상유구 주변에 조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특별한 시설, 즉 취사·난방과 같은 시설 흔적

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건물의 용도에 따라 구조와 입지를 달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상유구는 모두 97개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주로 남쪽지역인 5·6·7지점에 집중되어 있다. 대체로 이들 구상유구는 내부 퇴적양상으로 보아 물과 관련된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나, 배치상에 있어서 공간 구획적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단부 일대인 6지점과 7지점에 조성된 구상유구는 사면을 감싸는 형태로 내부에 조성된 주거지와 수혈유구를 보호하고 일정한 구획을 설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중복관계가 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범위의 확대·축소에 따라 조성과 폐기를 반복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유구의 입지적 특징과 관련하여 건물지와 대벽건물지, 대형 굴립주건물지를 살펴볼 수 있다. 건물지는 6지점에서 1동 확인되는데, 다수의 주공을 장방형으로 배치한 지상식 건물로 규모는 길이 1,320cm, 너비 660~706cm로 일반 굴립주건물지보다는 규모가 크고, 주변에 길이 1,430cm 이상의 대형 주거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탄재와 소토가 퇴



[삽도 14] 평택 세교동 모산골유적 유구배치도

적된 다수의 수혈유구들이 분포하고 있어 공통적 목적의 건물로 추정된다.

대벽건물지는 건물지와 달리 장방형의 형태로 구를 조성한 후 내부에 다수의 기둥을 세운 형태의 건물로 5지점에서 2기 확인되었다. 특히 1호 대벽건물지와 대형인 1호 굴립주건물지는 나란하게 사면 상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위계성을 보이는 주거지와 제사유적이 조성된 6호 구상유구들이 위치하고 있어 특수한 목적의 건물로 추정된다. 즉 주변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여 제의적 성격의 의식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심발형토기, 직구호, 단경호, 장란형토기, 시루편, 대형 용, 기와 등이 수습되고 있어 유적의 조성시기는 대략 4세기대로 추정된다.

6) 평택 소사동 솔밭말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9)

유적 주변으로는 남쪽 2.5km거리에 안성천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안성천 북쪽으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유적은 평야가 끝나는 북쪽 낮은 구릉에 위치하며, 구릉의 주변으로는 소하천들이 흐르고 있다. 원삼국시대 유구는 구릉 정상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남사면에 위치하며, 비교적 밀집되어 분포한다. 조사결과 원삼국시대 주거지 4기, 주구토광묘 1기 등 모두 5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4기 모두 방형이며, 내부시설로는 주공과 수혈만이 확인된다. 규모에 있어서는 4호 주거지가 506cm×420cm으로 가장 크며, 3호 주거지는 386cm×377cm이다. 1·2호 주거지의 경우 일부 결실되어있으나 잔존 규모를 볼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1호 주거지의 경우 타원형의 내부 수혈 1기가 확인되었으며, 2호 주거지에서는 내부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3호와 4호 주거지는 다수의 주공이 확인되었다. 우선 3호 주거지는 내부 벽면을 따라 다수의 벽주공이 시설되어 있으며, 4호 주거지는 내부에 벽주공이 일부 존재하나, 주로 외부에 주공을 시설하였다. 2기의 주거지 간 주공 시설의 차이를 통해 구조적으로

차이점이 확인된다. 주거지의 구조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방형의 수혈주거지 외곽으로 주구를 시설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조사된 주거지의 경우 동일한 구조적 특징에 의해 조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집단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유물은 단경호와 원저발형토기, 철부·철모·철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토광묘는 나-9지점 남사면부 해발 29.20~29.90m에서 1기가 조사되었으며, 매장주체부의 주변으로 주구가 부가된 주구토광묘 형태이다. 후대 삭평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형태는 확인되지 않으나, 잔존상태를 볼 때 매장주체부 주변에 전체적으로 주구가 둘러져 있었거나, 경사면 하단부로 주구가 끊어진 형태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서쪽부분이 일부 훼손된 상태이다.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길이 174cm, 너비 63cm이다. 매장주체부는 관을 안치한 후 관의 서쪽부분에 따로 부장공간을 마련한 후 단경호 2점과 방추차 1점을 부장하였다.

주거지의 조성시기를 살펴보면, 2호 주거지 출토품인 철모의 경우 기부의 형태는 직기형으로 추정되며, 관부는 미약하게 사선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3세기 초에서 중반 경으로 판단된다. 4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원저발형토기와 공반된 토기의 경우 인근 고덕 좌교리·두릉리유적 1호 옹관묘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으며, 함께 조사된 토광묘(유개대부호 출토) 출토유물을 토대로 볼 때 연대는 2세기 후반~3세기 초반으로 판단되며, 이는 3기의 주거지에서 실시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와도 부합된다.

토광묘 출토품인 단경호의 경우 역삼각형의 동체와 평행선문+격자문(복합문)의 문양, 그리고 공반된 단경호의 형태 등을 종합해 보면 3세기 중반이후로 추정 가능하다.

종합하면 평택 소사동 솔밭말유적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2세기 후반~3세기 초반에 조성되었으며, 주구토광묘는 주거지 조성시기보다 늦은 3세기 중반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삽도 15> 소사동 솔밭말유적 원삼국시대 주거지 전경 및 3호·4호 주거지 평면도

IV. 시기별 유적의 변화양상

1. 초기철기시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평택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고고학적 자료는 조사 예가 많지 않고,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성천·진위천 일대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안성 반제리유적, 만정리 신기유적, 평택 소사벌유적, 토진리 산29-1번지유적, 양교리 산41-1번지유적, 고덕 좌교리두릉리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안성 망이산성, 평택 원정리 봉수대 패총, 기산리에서 점토대토기 등이 확인되었다. 입지를 살펴보면, 안성 반제리와 망이산성의 경우 산 정상부에 위치하며, 나머지 유적은 구릉성산지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이른 시기 원형점토대토기유적에 해당하는 안성 반제리유적의 산 정상부 입지에서 점차 늦은 시기로 가면서 구릉성평지 또는 안성천 강안 쪽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안성 반제리유적의 경우 주거근과 토광석관묘, 평택 양교리 산41-1번지 유적은 석곽묘(적석목관묘?) 나머지 유적은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주거지가 확인된 유적은 안성 반제리유적이 유일하나 향후 안성천 일대 잔구

릉성 산지에서 조사 예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토광묘는 뒤편채움식 토광묘(안성 반제리유적)와 순수 토광묘(안성 만정리 신기유적)로 구분되며, 뒤편채움식 토광묘가 선행함을 알 수 있다.(최우림 2014)

평택(안성 포함)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시대유적은 안성천·진위천 일대를 중심으로 평택 고덕 좌교리·두릉리유적→안성 반제리유적→평택 소사벌소사벌·솔밭말유적·양교리 산41-1번지 유적→토진리 산29-1번지유적→내리유적→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순으로 볼 수 있으며, 입지는 산 정상부에서 낮은 시기로 가면서 구릉성산지과 안성천 강안으로 옮겨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시기 원형점토대토기 유적은 안성천 주변의 논경작지와 연결하고 있는 구릉성산지 혹은 구릉성평지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 예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원형점토대토기의 하한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또한 토광묘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중서부지방 토광묘는 거의 대부분 등고선과 직교하여 위치하지만 공주 수촌리, 충주 금릉동의 경우처럼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된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서길덕(2018)은 토광묘의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직교하게 축조되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는 것은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에서 시작되어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하는 시기에 본격화된다고 하였다.

2. 원삼국~삼국시대

원삼국~삼국시대 유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규모 취락유적과 생산유적, 그리고 분묘유적이 조사됨으로써 그동안 공백지로 남아 있던 평택지역이 경기남부와 천안북부지역에 대한 공백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취락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조건은 입지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정주 생활을 위해서는 식수 및 식량 조달의 용이성, 경제적 활동의 편의성,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위치인가 등 다양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소사동 솔밭말유적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주 하천인 안성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평야지대의 이용에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 내부에

서 취사·난방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은 단기간 사용된, 즉 난방이 필요치 않은 계절에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는데, 이는 주거지의 주요 목적이 장기 주거에 있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세교동 모산골유적의 경우 다수의 주거지 및 건물지 등의 생활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유적의 입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교동 모산골유적의 경우 해발 약 20m 정도의 낮은 구릉과 구릉 사이에 형성된 곡부지역 주변을 비롯하여 곡부 최하단에 해당하는 단구 끝단과 충적대지에서도 유적이 입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취락의 입지는 인근지역에 분포하고 있다하더라도 지형적 여건 및 집단의 문화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교동 모산골유적은 뚜렷한 목적성을 두고 구하도(자연수로)와 구상유구를 통해 일정한 공간을 구획하고 이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북쪽에 위치한 1지점과 2지점, 3지점은 일반적 형태의 주거지와 수혈유구 등이 분포하고 있어 일반적 거주지역임을 알 수 있다. 4지점과 5지점 북쪽은 대형 주거지와 건물지 등이 조성되어 있어 개별 거주보다는 공동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지역으로 추정되며, 구상유구에 의해 대형 주거지들이 폐기된 것으로 보아 4지점으로 공간 구획이 이동·변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4지점에서는 탄화된 곡물을 매납한 유구와 남서쪽 경계지역에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주공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일반 거주지와는 확연한 구분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구하도(자연수로)의 동쪽에 해당되는 5지점에는 대형 굴립주건물지와 대벽건물지, 주변 제의가 이루어진 6호 구상유구, 특수 목적의 주거지들이 조성되어 있어 제의적 성격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위계성이 높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6지점 남쪽과 7지점에는 특수한 형태의 주거지와 소토와 탄재가 퇴적된 수혈유구들, 물의 이용과 공간 구획을 위해 반복적으로 조성된 구상유구들이 입지하고 있다. 이들 유구의 정확한 성격과 이용 목적은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생산적 목적을 위해 조성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교동 모산골유적은 처음부터 계획된 취락으로 조성

되었으며, 각 지점별로 용도에 맞는 구조물을 조성하였다. 또한 취락의 번성으로 인해 외곽으로 확장되는 과정이 확인되었다.

희곡리유적은 조사된 유구중 구상유구가 가장 주목되며, 조사된 7기 중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7호 구상유구를 제외하면 6기 모두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조성하였다. 이중 정상부에 자리한 5호 구상유구와 비교적 경사면 하단부에 위치한 6호 구상유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해발 15m 내외의 지점에 일정 간격을 두고 조성되어 있으며, 진행방향을 볼 때 구릉 정상부와 사면 일부를 둘러싸고 있는 양상이다. 구상유구의 안쪽(능선 정상부)에는 능선을 따라 조성된 10기의 주혈굴과 그 주변으로 형성된 7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된다. 한편 5호 구상유구의 동쪽으로 인접하여 위치한 1호 수혈유구를 제외하면, 모든 유구가 구상유구로 이루어진 경계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같은 시기의 유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성위치 및 주변유구와의 관계 등을 통해 볼 때 가-1지점에서 확인된 구상유구는 내부 시설 보호 및 경계구분을 위한 환호로 추정된다. 환호의 성격은 비록 의례적 행위가 이루어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입지적으로 볼 때 테뫼형 환호로 내부 공간이 협소한 점, 내부 공간에서 주거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 환호의 기본적인 기능 중 방어·배수·경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볼 때 의례행위를 위한 환호로 추정된다.

원삼국시대 분묘유적은 마두리유적, 동창리유적, 가곡리유적(한울문화재연구원), 가곡리유적(삼강문화재연구원), 고덕 좌교리·두릉리유적, 고덕 국제화계획지구(2단계 1공구·3단계 1공구·2공구) 사업부지내 유적 등이 있다. 유적 내에서는 마두리유적과 같이 관·곽 토광묘만 확인되기도 하며, 고덕 좌교리·두릉리유적과 같이 관·곽 토광묘와 주구토광묘가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평택지역의 원삼국~삼국시대의 유적은 시기에 따라 입지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지만, 조성입지는 주로 능선 사면의 중앙부나 하단부에 집중하여 나타난다. 특히 세교동 모산골유적같은 경우에는 평택지역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능선 사면 중

하단부와 곡간부 저지대에 입지하는데, 처음부터 계획된 구획아래 취락의 기능에 맞는 건축물을 조성하였다.

평택지역에서 원삼국~삼국시대 유적은 마두리유적을 시작으로 하여 고덕 좌교리·두릉리유적→소사동 솔밭말유적·지제동 구대유적·가곡리유적→동창리유적→대추리유적·용이·죽백동유적→회곡리유적·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사업부지내 유적·백봉리유적→세교동 모산골유적 순으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평택지역의 초기철기시대~삼국시대 유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대부분 분묘유적으로 확인되고, 조사지역(능선)에서 1기만 조성되었다. 최근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3단계 2공구) 사업부지 내 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17)에서는 동일한 능선에서 5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어 호남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군집묘의 출현은 이 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의 군집묘집단이 더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분묘의 입지는 산 정상부에서 점차 낮은 시기로 가면서 구릉성평지 또는 안성천 강안 쪽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낮은 시기 원형점토대토기 유적은 안성천 주변의 논경작지와 연결하고 있는 구릉성산지 혹은 구릉성평지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 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삼국~삼국시대 유적은 방축리유적에서 조사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분묘와 생활유적 및 생산유적이 중·대규모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가곡리유적에서는 제철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중부지역의 제철유적은 대부분 백제시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평택지역에서 원삼국시대의 제철유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지역 정치체의 위상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교동 모산골유적은 이 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계획된 취락유적으로 규모 면에서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평택지역은 초기철기시대~삼국시대 유적의 조사 예가 많지 않아 관련 연구도 미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조사된 유적들로 인해 이 시기 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연구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강귀영, 2013, 「담양 태목리취락의 변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7, 「嶺南地域 三國時代 住居址의 變遷과 地域性」,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새봄, 2011, 「原三國後期 嶺南地域과 京畿·忠淸地域 鐵矛의 交流樣相」,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서길덕, 2018, 『한국 점토띠토기문화기 무덤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남진, 2013, 『初期鐵器時代 中西部地域 木棺墓의 出現과 擴散過程』, 한신대학교 대학원.
- 崔雨林, 2014, 『墳墓를 통해 본 中西南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 忠北大學校 大學院.

보고서

- 가경고고학연구소, 2017,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2단계 1공구) 사업부지 내 유적 약식보고서』.
- _____, 2019, 『평택 세교동 모산골유적』.
- 기남문화재연구원, 2019, 『평택 내리유적』.
-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평택 백봉리유적』.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 『평택 토진리 산29-1번지 유적』.
- _____, 2013, 『평택 양교리 산 번지 유적』.
- 마한문화재연구원, 2018, 『평택 지제동 구대유적』.
- 백제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3단계 1공구) 사업부지 내 유적 약식보고서』.
- _____, 2019, 『평택 고덕 좌교리·두릉리유적』.
- 삼강문화재연구원, 2011, 『평택 동창리유적』.
- _____, 2017, 『평택 가곡리유적』.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평택 대추리·금각리유적』.
- _____, 2011, 『평택 소사벌유적』.
- _____, 2018, 『평택 회곡리유적』.
- _____, 2019, 『평택 소사동 솔밭말유적』.
-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평택 방축리유적』.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평택 마두리유적』.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9, 『평택 용이·죽백동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가곡리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3단계 2공구)
사업부지 내 유적 약식보고서』.

평택지역 성곽유적의 현황과 과제

현 남 주¹⁾

목 차

I. 머리말

II. 평택시의 자연환경과 고고·역사적 배경

III. 평택지역 성곽유적 현황

IV. 평택지역 성곽의 분포 및 조사현황

V. 맺음말

I. 머리말

평택지역은 서해와 동쪽의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의 지류, 남쪽의 안성천과 북쪽의 발안천 등을 경계로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남부와 북부지역, 동부와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하천 및 육상교통로상에 위치하여 과거로부터 매우 중요한 지정학

1)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적 요충지에 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나타난 인류의 흔적들이 현재 평택시 관내에 주거유적, 관방유적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성곽을 비롯한 관방유적은 그 숫자에 있어서 단일유적으로서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숫자만큼 입지·평면형태·축조방법 등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방유적들은 축성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의 종합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지리적인 특성에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지만 평택지역의 관방유적에 대한 분포와 조사연구 현황을 종합한 연구²⁾는 현재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정시대의 유적에 대해 다수의 조사 및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현재까지의 조사 및 연구가 삼국시대 유적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결과로서 이러한 지역적인 경향이 극복된다면 평택지역의 성곽유적 조사와 연구성과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평택지역 성곽유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조사연구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추후 계속될 평택지역 성곽유적연구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Ⅱ. 평택시의 자연환경과 고고·역사적 배경

1. 평택시의 자연·지리적 환경

경기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평택시는 동쪽으로는 안성시 공도읍·

-
- 2) 경기도박물관, 1999, 『平澤 關防遺蹟(Ⅰ) 精密地表面調査報告書』.
 경기도박물관, 1999,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경기도박물관, 2003, 『경기도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안성천』.
 경기도박물관, 1999, 『平澤 關防遺蹟(Ⅱ) 精密地表面調査報告書』.
 백종오·김병희·김주홍, 2001, 「京畿·서울·仁川地域 關防遺蹟의 研究 現況」, 『학예지』 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문화재단, 2003, 『京畿道の 城郭』.

용인시 남사면, 서쪽은 서해, 남쪽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천안시 성환읍, 북쪽으로는 화성시 일원과 접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안성·용인·수원·부천·김포로 이어지는 한남정맥(漢南正脈)과 금북정맥(錦北正脈)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수계를 기준으로 한강 유역권의 남서쪽과 금강 유역권의 북쪽에 위치한다. 동북부의 무봉산(舞鳳山·209m), 서북부의 덕지산(德智山·138m), 서부의 오봉산(五峰山·112m)·무성산(武城山·104.7m)·자미산(茲美山·110.8m)·비파산(琵琶山·102.2m), 남서부의 고등산(高等山·158m)·마안산(馬鞍山·101m) 등 북동부 진위면의 동부와 남서부 및 현덕면 일대를 제외하면 해발고도가 100m 이상인 지역이 드물다.

평택시의 지질은 편마암·편암·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질계통은 신생대와 중생대의 지층으로 하부연천계에 해당한다. 평택시의 동북부와 진위면·서탄면·청북면 북부는 흑색을 띠는 편마암이 나오고 현덕면 신왕리 부근은 흑운모가 많이 함유된 편암이 산출된다. 특히 오성면·포승읍 부근은 편마암질화강암에 토탄이 산출되기도 하며, 진위천변에는 광대한 제4기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평택시의 토양은 일반적인 진흙으로서 크고 작은 모래와 점토로 되어 있어 벼농사에 적합하고, 야산은 보리 및 채소 재배에 적합하다. 구릉지는 낙농·과수원이 발달하여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하천의 범람으로 생성된 범람원, 하구의 발달된 퇴적토, 하천 양안의 침식에 의한 하안단구와 해성충적토로 구분되는데 특히 하천이 많아 물의 운반·퇴적작용에 의해 생긴 하상충적토가 발달하였으며 주로 상류는 사질토, 하류는 점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구와 하천이 합류하는 삼각주평야인 서탄면 하부지역은 하구에서 유속이 감소되어 만에 들어갈 때 그 일부가 퇴적되어 점토나 미사(微砂)로 구성된 비옥한 토지로 바뀐다. 또한 포승면 서부 일대에는 해수에 의하여 운반·퇴적된 토양이 잘 발달하여 수심이 낮고 해초가 무성한 해성충적토를 이루고 있다. 하천은 22개가 있으며 총 연장 133.6km에 달해 수자원이 풍부하여 곡창지대 및 원예주산지로 유명하다.

주요하천은 안성천(安城川)과 그 지류인 진위천(振威川)·오산천(烏山川)·도대천(道岱川)·황구지천(黃口池川)·도일천(道日川) 등이 있다. 해안선은 원래 만입(灣入)이 많고 복잡하였으나 남양방조제·아산방조제 등이 건설된 뒤 단조로워졌다.

2. 평택시의 고고·역사적 배경

1) 고고학적 배경

평택지역은 낮은 구릉과 넓은 충적지, 해안에 접해있는 지형적인 조건과 안성천·진위천·발안천 등 하천도 발달되어 있어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까지 각종 고속도로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조성 등 일련의 개발로 다수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특히 평택지역은 안성천을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과 충청지역의 고고학적 문화와 접해 있어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우선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원정리 유적³⁾과 회곡리 유적⁴⁾에서 제4기 갱신세층이 확인되었으며 짝개·밀개·여러면석기·굵개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석정리·홍원리·운정리·대반리·송담리·용성리·현화리·양교리 일대에서 밀개·굵개·망치돌·여러면석기 등 구석기시대 뼐석기들이 수습된 바 있다.⁵⁾ 평택의 구석기시대 유적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토탄층 발굴조사를 꼽을 수 있다. 우선 평택의 토탄층 화분 분석⁶⁾과 포승읍 회곡리와 내기리의 토탄층 발굴조사에서 화분분석·나이테분석·출토씨앗분석·규조류분석 등이 이루어져 구석기시대의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⁷⁾

3) 아주대학교박물관, 1997, 「평택 원정리 유적 발굴조사 개보」, 『科技考古研究』2.

4)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1995,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

5) 京畿道博物館, 1999, 앞의 책.

6) 吳智泳, 1976, 「平澤地區 土炭의 花粉分析」, 『韓國考古學報』1.

7) 충북대학교박물관, 1995, 「평택 내기리·회곡리 발굴조사 보고」,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원정리 유적⁸⁾이 있다. 원정리 유적에서는 조개더미층과 야외 노지가 확인되었으며 ‘之’자 무늬가 새겨진 빗살무늬토기와 석착·석도 등 간석기가 수습되었다. 이밖에 지제동 유적⁹⁾에서는 유구와 층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평택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이 많이 조사되지 않았지만 최근 서해도서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활발히 조사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 많은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현화리 유적¹⁰⁾을 시작으로 원정리 유적·지제동 유적¹¹⁾, 소사동 유적¹²⁾, 두릉리 유적¹³⁾, 남산리 유적¹⁴⁾, 양교리 유적¹⁵⁾, 토진리 유적¹⁶⁾, 소사벌 유적¹⁷⁾, 방축리 유적¹⁸⁾, 당현리 유적¹⁹⁾ 등이 있다. 이중 소사동 유적에서는 주거지 81기와 수혈 등 대규모 취락이 확인되어 평택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토진리 일대는 지표조사²⁰⁾에서 청동기시대 유물과 묘제(고인돌)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를 통하여 토진리 유적, 양교리 유적, 양교리 산 41-1번지

8) 아주대학교박물관, 1997, 앞의 책.

9) 세종대학교박물관, 1997, 『안중-평택 구간 고속도로 공사예정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0)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1996, 『平澤 玄華里遺蹟』.

11) 世宗大學校博物館, 2000, 『平澤 芝制洞遺蹟』.

12) 高麗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素沙洞遺蹟』.

13) 中央文化財研究院, 2005, 『平澤 杜陵里遺蹟』.

14) 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南山里遺蹟』.

15) 高麗文化財研究院, 2010, 『平澤 梁橋里遺蹟』.

16) 中央文化財研究院, 2005, 『平澤 七塊洞·土津里遺蹟』.

京畿文化財研究院, 2006, 『平澤 土津里遺蹟』.

17) 中央文化財研究院, 2011, 『平澤 소사벌遺蹟』.

18)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平澤 防築里』.

19) 嘉耕考古學研究所, 2012, 『平澤 堂峴里遺蹟(I·II)』.

20) 京畿道博物館, 1999, 앞의 책.

기전문화재연구원, 2002, 『평택 청북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2004, 『平澤 梧城産業團地 造成敷地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유적²¹⁾, 토진리 산 29-1번지 유적²²⁾ 등이 조사된 바 있다. 최근에는 토진리 308-7번지 내 유적²³⁾, 토진리 314-13번지 공장부지 내 유적²⁴⁾, 양교리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부지 내 유적²⁵⁾ 등이 조사되었다. 한편 수월암리 유적²⁶⁾에서는 지석묘와 소형의 석관묘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앞서 조사된 토진리 유적의 석관묘와 비교²⁷⁾되며 이 시기 묘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조사된 예가 적으며 최근 조사된 유적으로 토진리 유적²⁸⁾과 소사벌 유적이 있다. 토진리 유적과 소사벌 유적에서는 토광묘에서 흑도장경호·원형점토띠토기·토제방추차 등이 수습되었다.

원삼국시대 유적으로는 대추리·금각리유적²⁹⁾, 마두리 유적³⁰⁾이 있다. 대추리·금각리 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대형 옹이 출토되는 수혈유구 및 구상유구가 확인되었고, 마두리 유적에서는 마형대구·철부·철검·목걸이 등이 부장된 토광묘 3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방축리 유적과 현화리 유적이 있으며 방축리 유적에서는 백제시대 토광묘 1기, 현화리 유적에서는 백제시대가마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평택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부지 내 유적³¹⁾에서는 백제시대 원형수혈 8기가 확인되었으며, 백봉리 유적³²⁾에서는 백제시대 주거지·수혈유구·토기가마 등이 조사되

21)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12, 『평택 양교리 산41-1번지 유적』.

22)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13, 『평택 토진리 산29-1번지 유적』.

23)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15, 『평택 토진리 308-7번지 유적』.

24)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15, 『평택 토진리 314-13번지 유적』.

25) 中部考古學研究所, 2016, 『平澤 梁橋里 山41-3番地 遺蹟』.

26)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13, 『평택 수월암리 유적』.

27) 수월암리에서 확인된 석관묘는 토광에 목탄 섞인 재와 인골을 채우고 상부에 상형석관 또는 개석 등의 석조물을 축조하였으며, 토진리 유적에서 확인된 석관묘는 화장을 한 후 인골만 선별하여 석관묘 내부에 매장하였다.

28)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13, 앞의 책.

29) 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大秋里·金角里遺蹟』.

30) 韓國文化遺產研究院, 2011, 앞의 책.

3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앞의 책.

32)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平澤 栢峯里遺蹟』.

었다. 최근에는 동창리 유적³³⁾에서 삼국시대 목곽묘와 나말여초의 저장용 수혈이 확인되었다.

2) 역사적 배경

『史記』「朝鮮傳」에 황해도 부근 이남을 ‘진(辰)’이라 불렀다는 기록으로 보아 평택지역은 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삼한시대에는 평택 양성 방면은 신관활국(臣慣活國)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팽성지역은 마한에 복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³⁴⁾고 알려져 왔다. 삼한시대 후기 평택지역은 마한의 목지국[目支國:직산(稷山), 성환(成歡), 평택(平澤)] 지배 아래에 있었다.

4세기 중반에는 근초고왕의 대외정복사업으로 경기·충청·전라도 등 3도와 강원·황해도 일부가 백제의 영역에 속하게 되면서 평택 또한 백제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때 진위지역은 송촌활달부곡(松村活達部曲)이었고, 양성은 사복홀현(沙伏忽縣)이었으며, 평택은 아술현(牙述縣:아산지역)에서 분리되어 하팔현(下八縣)이 되었다.³⁵⁾

5세기 후반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켜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지금의 아산, 천안, 충주 조령까지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평택지역은 고구려에 편입되게 되었다. 당시 평택지역은 북으로 연달부곡(淵達部曲:지금의 진위), 중간부에 송장부곡(松莊部曲:지금의 송탄), 천장부곡(川場部曲:지금의 서탄 서부), 백랑부곡(白浪部曲:지금의 팽성 서남부)이 있었다. 진위현은 이때 부산현(釜山縣)³⁶⁾이라 하였고, 연달부곡, 금산현, 송촌활달 등으로도 불리었다.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5년(685)에는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편제하였다. 당시 평택지역은 한산주에 속해 있었다. 한산주는 경기도와 황해도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 충청남북도, 평안남도 일부까지도

33) 三江文化財研究院, 2011, 『平澤 東倉里遺蹟』.

34) 京畿道, 1979, 『京畿道史』 第1卷, 79~82쪽.

35) 『高麗史』 卷56, 地理 天安府 平澤縣.

36) 현재는 토성이 있었다는 흔적만 남아 있는 견산리 산성을 부산성으로 일컫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견산리는 부산현의 읍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畿甸文化財研究院, 2006, 『平澤宮里遺蹟』).

포함하여 27개 군과 46개 현을 둔 가장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때의 평택지역의 취락들은 저평한 충적평야에 인접한 침식 평지를 따라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태조 23년(940)에 전국 주·부·군·현의 명칭을 개칭하였고, 이때 팽성현은 평택현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천안부의 속현이 되었다.

조선시대 한양천도에 따라 경기도역의 개편이 수반되었으며, 경기도와 접경한 다른 도역도 연쇄적으로 개편되었다. 1394년 한양천도로 양광도의 광주·수원·양근·쌍부·용구·인천·천녕·지평 등은 경기도에 귀속되었고, 평택현은 조선 태종 13년(1415) 양광도에 속했으나 1423년에 충청(우)도로 편입되었고 군사적으로는 홍주진관(洪州鎭管)에 소속되었다.³⁷⁾ 연산군 11년(1505) 6월에 직산(稷山)·진천(鎭川)·아산현(牙山縣)과 함께 경기도에 이속되었으며³⁸⁾, 동년 11월에는 진천, 직산, 아산, 평택 등 5역을 성환도(成歡道)라 불렀다.³⁹⁾ 이듬해인 1506년에 충공도를 충청도로 개칭하고 경기도에 이속된 4개 현을 다시 충청도에 이속시켰다.⁴⁰⁾ 평택현은 태종대 이후 현으로 모양을 갖추어 오긴 하였으나 내내 빈약함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¹⁾ 조선 후기 열강의 침입에 의한 문호개방으로 지방행정제도에 개편이 일어나 고종 32년(1895) 5월에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8도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23부제를 실시, 종래의 부, 목, 군, 현 등의 지방행정단위를 모두 군으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23부제는 불편한 점이 많아 시행한지 1년 2개월 만에 폐지되고, 이듬해 8월 4일 칙령 제36호 ‘지방제도 관계

3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9 平澤縣條.

38) 『燕山君日記』 燕山君 11年 6月 壬午條.

39) 『燕山君日記』 燕山君 11年 10月 乙丑條.

40) 『中宗實錄』 元年 9月 辛巳條.

41) 申埴은 『平澤郡誌』 彭城總論에서 “우리 나라의 주, 군, 현이 360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작고 초라한 고을을 일컫는 사람이라면 으레 평택을 꼽는다. 그 조간함이 8도에서 최고이다. 사면의 경계가 10여 리도 안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읍 뒤의 주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르면 경내의 사람들이 모두 모인다고 한다. 그러니 고을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봉급 경비 재정의 건'을 공포하여 13도제가 시행되었다. 13도제는 종래의 8도제를 바탕으로 경기·강원·황해도를 제외한 5도를 남북의 2개 도로 분할한 것으로,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 체제의 기반이 되었다. 이때 평택군은 충청남도로 편입되었다.

1913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이듬해 3월 1일에 시행한 조선총독부 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명칭 위치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행정 구역을 대폭 개정하여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는 대체로 이때에 확립된 것이다. 이때 평택군과 경기도 수원군에 속해 있던 고덕면 일부지역, 오성면의 일부 지역,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은 경기도 진위군에 병합되었다. 즉, 평택군 동부는 경기도 진위군 부용면으로, 평택군 서부는 진위군 서면으로 편제되면서 평택군이 경기도로 들어가게 되었다. 1932년 4월에는 부용면과 서면을 합하여 팽성면으로 하였으며, 1938년 9월 진위군을 평택군으로 개칭함에 따라 평택군 팽성면이 되었다. 이후 1962년 12월 송탄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72년 6월 평택군 조례 제 25호로 송탄읍에 신장출장소를 신설하였다.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2읍, 8면, 399리로 되어 있었다. 1979년 5월 팽성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981년 송탄읍이 시로 승격되어 평택군과 분리되었다. 1986년 1월 평택군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함으로써 평택지역은 평택시·송탄시·평택군으로 분리되었고, 다시 1995년 5월 10일에 통합되어 현재의 평택시가 확정되었다.⁴²⁾

Ⅲ. 평택지역 성곽유적 현황⁴³⁾

42) 京畿道博物館, 1999, 앞의 책.

43) 현재까지 평택지역에는 모두 18개소의 성곽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보고되어 있는데 이를 북서쪽부터 남쪽의 방향 순서대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각 성곽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경기도박물관, 2003, 『경기도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안성천』. 백종오·김병희·김주홍, 2001, 「京畿·서울·仁川地域 關防遺蹟의 研究 現況」, 『학예지』 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백종오·한준영, 2003, 「새로 찾은 안성천유역 백제유적」, 『博物館紀要』 18,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

1. 무봉산성(舞鳳山城)

- 위 치 : 진위면 동천리 무봉산(해발 208.6m)

- 시 대 : 삼국시대

- 현 황 : 1번 국도를 따라 북진하다가 진위면 하북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위향교와 만기사 입구를 지나 동천리에 들어서면 왼편으로 무봉산(일명 만의산, 해발 208.6m)을 만날 수 있다. 동천마을의 東泉齋 옆 동쪽 능선을 따라 산행하여 봉우리(해발 175.2m)를 넘으면 무봉산 정상에 닿는다.

무봉산성의 서쪽으로는 진위면 견산리에서 뻗어온 능선이 이어지고 있고, 동쪽과 북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용인시와 경계를 이룬다. 남쪽으로는 진위천이 서쪽으로 흘러 황구지천·안성천 등과 합류해 서해로 흐른다.

산성은 무봉산의 9부 능선에 축조한 석축의 테피식 산성으로 평면은 동서를 장축으로 하는 길쭉한 장타원형이다. 성벽의 둘레는 약 320m 정도이며 주방향은 북쪽과 동쪽으로 여겨진다. 남벽과 서벽은 유실이 심한 상태로 대략적인 성벽의 어깨선 윤곽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북벽과 동벽은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일부 뒷채움석이 노출되어 있어 석축으로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벽은 높이 3~4.5m이며 중간부에 성내외로 통하는 오솔길이 남아 있다. 안쪽으로는 높이 2m, 너비 3~4m의 이중의 단을 두어 회곽도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북벽 역시 너비 2~3m의 회곽도를 설치하였으며 성벽높이는 3~4m 가량이다. 성벽에 시설된 구조물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성안 정상부에는 암반이 노출되어 있고 그 위로 삼각 기준점과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이 지형여건으로 보아 장대지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추정건물지는 동벽 내부와 서쪽 능선부에 조성된 평탄대지이다. 음료유구는 찾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성내보다는 성외 북사면과 서사면의 샘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서사면에서는 노출된 암반에 다수의 채석흔적이 남아 있어 이곳에서 일정 정도의 성돌채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내의 출입로는 동천마을과 구가곡마을에서 서벽을 통해 오르는 길이 있고 동벽과 북벽에 연결된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이 있다. 특히 동천마을에서 봉우리를 지나 서벽으로 오르는 길 중간 부에는 길이 약 80m의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 암반의 서쪽 면을 수직으로 4~5m 정도 굴착하여 단애부를 형성한 인위적인 흔적이 남아있다. 이러한 흔적이 성곽의 방어와 관련이 있는지 성돌 채취와 관련이 있는지는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변유적은 남동쪽으로 안성 무양성이 근거리에 조망되며 서쪽으로는 견산리산성과 봉남리산성, 아곡마을산성이 무봉산의 가지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무봉산의 서남쪽으로 만기사와 원각사, 진위향교가 자리하고 있다.

2. 봉남리산성(鳳南里山城)

- 위 치 : 진위면 견산리 및 봉남리, 동천리 일원

- 시 대 : 삼국시대

- 현 황 : 1번 국도를 따라 북진하다가 진위면 하북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위상업고등학교와 견산4리를 지나 한국야쿠르트 공장 앞에서 나들이화장품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진위사 입구의 공터에 닿는다. 이 입구에서 좌측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진위사 북편의 경작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곳에서부터 봉남리산성에 해당하는 토루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산성은 봉남리 뒷산의 능선을 중심으로 동서로 동천리와 견산리로 이어지고 있으나 명확하게 구분되어 회절하는 부분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주변 지형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 확인되는 현상은 진위사 후편 봉우리(해발 81m)의 북1치성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350~400m 정도 토루가 진행되며, 외벽 높이는 5~7m 정도로 높게 남아 있다. 북1치성은 삼각형모양의 돌출형 대지로 북서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토루는 봉남리 아곡마을에서 가곡1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소로에 의해 끊어져 있는데 이곳이 북문지

로 추정된다. 북문지는 하단너비 2m, 상단너비 5m, 높이 2.5~3.5m이며 서측벽은 일반적인 개구부 형태이나 동측벽은 역3자모양을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이어져 오르는 토루는 해발 128.8m의 봉우리 위에 시설된 북2치성과 연결되는데 토루 상면에는 교통호와 참호가 조성되어 있다. 이 지점의 토루는 너비 3~3.5m, 외벽높이 6~7m, 내벽높이 1.5~2.5m로 다른 곳보다 높고 두텁게 축조하였으며 잔존상태도 양호하다. 북2치성은 반원형의 돌출형 대지로 북쪽으로 이어지는 가지능선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된 것으로 치성 밖으로 1.8~2.3m 아래에 너비 4.5m의 반달형 단을 설치하여 방어를 도모하였다. 이 치성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약 800m 가량 토루가 진행되며, 외벽 높이는 5~8m 정도이다. 토루의 북사면으로는 밤나무단지와 민묘가 들어서 있다. 동쪽으로 동천리 부근까지 진행되던 토루는 민묘가 2기 조성된 봉우리(해발 127.9m) 부근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민묘 동남편의 오솔길옆에는 동천리고분이 자리하고 있다.

북2치성에서 또 하나의 토루가 남쪽으로 진행하여 아곡마을산성과 연결된 후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토루의 구조로 보아 아곡마을산성은 봉남리산성보다 후대에 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채집된 유물이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남쪽의 원각사 북편에서도 토루의 일부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 토루의 성격은 보완조사가 이루어진 후 검토되어야 하겠다.

북벽부를 제외한 동벽·서벽·남벽은 그 형적이 희미하게 남아있거나 완전히 멸실되어 전체평면과 구조의 파악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건물지는 토루 안쪽 평탄대지와 성내 능선부 평탄대지에 배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백제 토기류가 다수 채집되고 있다.

3. 봉남리 아곡마을산성

- 위 치 : 진위면 아곡마을 뒷산(해발 121.5m)
- 시 대 : 조선시대
- 현 황 : 1번 국도를 따라 북진하다가 진위면 하북삼거리에서 우

회전하여 진위상고와 한국야쿠르트 공장을 지나 진위면사무소 앞에서 봉남 3리 원각사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봉남 3리 마을 바로 뒷편의 봉우리(해발 121.5m)로 오를 수 있다. 봉우리의 5부 능선에는 무봉산 자연휴양림과 봉남리 당집으로 가는 갈래길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당집방향으로 산행하면 산성에 이르게 된다. 또 다른 길로는 봉남리산성의 북2치성에서 남동쪽으로 약 500m 정도 내려오면 산성에 도달할 수 있다.

산성은 봉우리의 정상부를 감싸고 축조한 석축의 테피식 산성이다. 평면형태는 남북방향이 장축을 이루는 타원형으로 둘레는 약 180m이며 외벽높이는 1.5~2.2m 정도이다. 현재 동벽은 민묘 조성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나머지 다른 벽들도 파괴가 심하여 정확한 모습을 추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남벽과 서벽에는 할석재 성돌이 일부 남아 있으며 주변 암반에서 채석흔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상부 남쪽에는 동서 2.5m, 남북 1.5m 내외의 구덩이가 패여 있는데 이곳에는 석축이 잔존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기와·자기편이 산포되어 있다.

4. 견산리산성(見山里山城)

- 위 치 : 진위면 견산리 북쪽 능선(해발 44m)

- 시 대 : 삼국~고려시대

- 현 황 : 진위면 하북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매일유업 중부공장을 지나 청도아파트와 서 원아파트의 동쪽 담장을 끼고 좌회전하여 오르면 산성의 북벽부에 자리한 게이트볼연습장에 이르게 된다.

『世宗實錄地理志』 등의 자료를 보면 진위지역은 본래 고구려의 부산현 혹은 옛 연달부곡, 금산, 송춘활달인데, 757년(신라 경덕왕 16년) 12월 전국 9주의 군현명칭을 중국식으로 고칠 때에 지금 이름으로 고쳐 수성군의 영현으로 만들었고, 고려 때에도 그대로 두었다고 하였다. 『大東地志』에도 ‘본래 백제의 송춘활달이었다가 뒤에 부산으로 고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고려시대의 釜城縣의 읍성지라 하며 土築 周圍約二百五十間이고 南門址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붕괴되었고, 성내

에 見山里部落이 있다'고 하였다. 『文化遺蹟總攬』에는 '이 성지는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북으로 쌓여 있으며 토성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나 형태로 보아 당시 마을의 안전을 위해 쌓은 것으로 추측되며, 성지 후면 가곡리를 뒷성지라 하고 전면 하북리를 아랫성지라 부르고 있다'고 하였다.

산성은 해발 40m 안팎의 능선을 따라 축성한 토축의 평산성으로, 부성(釜城)또는 성산성지(城山城址)라고 하며, 주민들은 “성안“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 성벽은 북벽과 동벽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서벽과 남벽은 일부만이 잔존하여 있다. 서벽은 서원아파트와 청도아파트 사이의 민가 부근에서 길이 5m, 너비 6m, 높이 2.5m만이 잔존하며 단면에는 석비레층이 노출되어 있다. 북벽은 서원아파트 뒷편의 능선을 따라 게이트볼연습장과 맞은편 능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성벽이 파괴된 이유는 아파트건립을 위한 터파기공사가 이루어져 성벽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토루의 흔적만 동서로 25m 남아 있으며 서쪽 토루 상면에 마련된 체육시설의 북사면으로 유단경사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토루는 게이트볼연습장 동편에서 남북으로 개설된 도로에 의해 너비 10m 정도 끊어진 후 동쪽으로 100m 가량 진행되고 있다. 도로에서 북벽으로 오르는 구간에는 너비 9m, 높이 1.5~2.2m의 개구부가 나 있으며 이곳은 북문지로 추정된다. 북벽 중간부에는 4x4m의 방형 돌출형 고대가 시설되어 있는데 치성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치성은 방형이나 장방형에 가까운 토성의 주방어방향에 해당되는 토루 중간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며 그 외 모서리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북벽부 토루의 외벽높이는 4~6m, 내벽높이는 2~3m 정도이고 상단너비는 1~1.5m. 하단너비는 7~8m 정도로 견산리산성에서는 북벽이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북벽 외부로는 너비 8~10m의 외황 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능선을 타고 뻗어온 북벽은 견산리 공동묘지 부근의 북동회절부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며 동벽을 이루고 있다. 이 회절부와 동쪽 공동묘지 사이에는 6m·12.5m의 간격을 유지하며 2열의 토루가 동벽과 함께 전개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부가토루(附加土壘)는 견산리산성의 해발이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방어에 있어 상당한 취약지대로 작용하는 허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의 부가토루를 보완시설물로 설치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동벽은 약 85m 정도 남향하다가 능선 남사면의 경작지에 편입되어 사라지는데 이 부분에서 남벽으로 회절하는 약간의 토루흔적을 발견할 수 있

다. 이외의 남벽부는 아파트안에 일부 잔존하는 서벽과 연결지어 대략적인 윤곽선만을 추정할 수 있다.

견산리산성의 평면형태는 북벽부와 동벽부가 거의 직각으로 회절하는 점과 남동회절부와 서벽 잔존부의 추정윤곽선이 연결되는 점, 남사면 경작지의 단이 지는 지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복원하면 장축이 동서방향인 장방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성내 서편에는 아파트와 민가들이 들어와 있으며 동편에는 민묘와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어, 건물지나 기타 시설물은 확인할 수 없다.

산성의 바로 남쪽으로는 진위천이 동서로 흐르고 있으며 남양만 방조제건설과 간척사업 이전에는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왔다고 한다.

5. 좌교리산성(坐橋里山城)

- 위 치 : 고덕면 좌교리 331번지 바람산(해발 38m)

- 시 대 : 삼국시대(백제)

- 현 황 : 좌교리산성에 대한 존재여부 및 자세한 현황 등은 광역 지표조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다가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간략한 현황만이 보고되었다.⁴⁴⁾

좌교리산성은 애초에 소로 개설시 절개된 남·서쪽 사면에서 백제

44) 백종오·김병희·김주홍, 2001, 앞의 논문, 『학예지』 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3쪽.

백종오·한준영, 2003, 「새로 찾은 안성천유역 백제유적」, 『博物館紀要』 18,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73~111쪽.

토기편이 산포되어 있고 서사면의 민묘 주변에서도 백제토기편이 채집되는 양상으로 보아 생활유적 등에 해당하는 ‘좌교리유적(주거유적)’으로 보고되었다가 추후 검토를 통해 관방유적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적은 해발 38m 내외의 바람산의 정상부와 8부 능선사이를 따라 편축식 구조물로 여겨지는 토축의 흔적이 둘레 약 170m 규모로 돌아가고 출토유물과 관련된 방어시설로 추정된다고 보고되었다.

주변유적은 진위천 너머 서쪽 2.5km 거리에 백봉리산성과 백봉리유적 등 백제시대 유적이 마주하고 있으며, 동남쪽 3.5km 거리에 지제동산성과 지제동유적 등 청동기~삼국시대의 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6. 방축리성(防築里城)⁴⁵⁾

- 위 치 : 고덕면 방축리와 여염리 일원

- 시 대 : 조선시대

- 현 황 : 방축리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기호문화재연구원의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내 일반산업단지(3구역)에 대한 구제발굴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존재가 확인되었다.

방축리성(토루)은 해발 29~37m의 능선 정상부 진행방향을 따라 남동-북서로 길게 조성되어 있으며, 잔존길이는 약 136m이다. 동쪽 끝단은 고속도로에 의해 기 절개된 상태이고, 서쪽을조사지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소로에 인접하여 단절된다.

규모는 기저부의 너비 3.2~7.16m, 성토부의 높이 0.25~0.79m, 너비 3.1~5.5m 가량이다. 그리고 외벽의 높이는 1.23~1.95m, 내벽 높이 0.35~1.31m에 해당한다.

45) 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

보고자는 이 성을 조선시대 성격미상의 토루로 파악한 후 ‘방축리토성’과의 연관성, 추후 관련자료의 검토 등의 후속연구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발표자는 이 유적을 방축리·여염리 일원에 분포하는 토루로 파악하여 ‘방축리성’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기저부 축조방법은 1차적으로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기반토인 암반풍화토까지 굴토하고, 이를 정지하여 성토를 위한 평탄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이 평탄지를 중심으로 내·외측에 대한 삭토작업을 2차적으로 실시하여 기저부를 완성하였다. 삭토작업은 외벽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외측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내측은 비교적 완경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형이 평탄한 동쪽 구간은 내·외측 삭토 없이 기저부를 정지한 후 성토가 이루어져 내·외벽의 높이 차가 거의 없다.

성토부의 축조방법은 대체적으로 굴토된 암반풍화토를 이용하여, 평탄하게 정지된 기저부 위에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쌓아 올리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동시에 성토재료의 대부분은 사질성이 강한 암반풍화토로 기저부 축조과정이나 혹은 주변에서 채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조선시대 백자편·토기편·소량의 기와편이 출토되었으며, 이 중 백자편은 대부분 16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른 시기의 분청사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17세기 이후의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방축리성(토루)이 위치한 지역은 고덕면 방축리·여염리 일원으로, ‘방축리’라는 마을 지명은 마을 앞에 봄에 물을 가뒀던 논 방죽이 있어 유래되었으며, 여염리의 성두마을의 방축리성(방축리토성(추정))의 머리 부분에 위치해서 유래했다는 설과 마을 주변의 산이 마치 성같이 둘러싸여 있다는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방축리성에 관한 기록은 조선~일제시대의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984년의 『平澤郡誌』 46)에 의하면 ‘원방축마을 뒤에 둘러진 토성의 흔적이 있으며 지금은 주택과 소나무가 심어져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 마을의 안정을 위해 쌓았다고 전해온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후 『松炭市史』 47)에는 이전 『平澤郡誌』를 인용한 뒤 ‘약 400년 전 신라 경순왕 29대손이 이 마을에 정착할 때, 도적이 심하여 토족인 孔·奉氏 문중과 의형제를 맺은 후, 토성을 쌓고 도적을 방비했다는 설과 임진왜란 당시 사명

46) 평택군지편찬위원회, 1984, 『平澤郡誌』.

47) 松炭市史編纂委員會, 1994, 『松炭市史』.

당이 이끄는 승병 1,500명이 방축리의 서천사 주변에 주둔할 때 토성을 쌓고 전투를 대비하였다는 설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 토루는 『平澤郡誌』에 언급된 원방축마을의 토성과 연관성이 있으며 이미 대부분 훼손되어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7. 지제동산성(芝制洞山城)

- 위 치 : 지제동 작은말과 망현마을 태미산(해발 56.1m)
- 시 대 : 삼국시대(백제)
- 현 황 : 산성은 지제동 망현마을 남쪽 봉우리(해발 56.1m)에 위치하는 테피식의 토축산성이다. 둘레는 220m 정도이며 평면은 동서로 긴 타원형을 하고 있다 북사면으로는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어 성벽의 파괴가 극심한 편이고 서사면에서 토벽(土壁)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서벽부는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정상부에는 동서 4m, 남북 22m의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산성의 동쪽으로 접하여 동고천(東古川)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그 주위로 평택평야가 펼쳐져 있다. 평야는 동·남·서 방향으로 넓게 전개되어 있으며 남쪽으로의 시계도 양호한 편이다.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류와 백제시대 타날문토기류가 채집되고 있다.

8. 백봉리산성(柏峰里山城)

- 위 치 : 청북읍 백봉리 육자봉(해발 61.5m)
- 시 대 : 삼국시대(백제)
- 현 황 : 산성은 육자봉(해발 61.5m) 정상부를 중심으로 축조한 토축의 테피식 산성이다. 평면은 동서가 약간 긴 장타원형을 하고 있으며 지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형태를 하고 있다. 둘레는 약 220m이고 성벽 높이는 3~5m 내외로 북벽과 서벽이 다른 성벽보다 높게 쌓여 있다. 성벽은 편축(片築)으로 축조하였으며 동북 모서리 부분에서만 외벽에 유단시설이 남아있다. 동쪽은 진위천과 접한 관계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남동쪽에 치우쳐 남북방향의 가지능선이 뻗어 내려가고 있다.

9. 무성산성(武城山城)

- 위 치 : 청북읍 우사리 및 옥길리 무성산(해발 104.7m)
- 시 대 : 삼국~조선시대
- 현 황 : 무성산성은 청북읍 후사리와 옥길리의 산 4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무성산(마루산·테미산, 해발 104.7m)의 9부 능선상에 축조된 토축의 테피식 산성이다.

무성산성에 관한 기록은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무성산성이라고 하며 토루 주위 약 300間, 높이 약 2間인데 임경업이 어렸을 때 놀기 위해 쌓았다고 전한다’고 하였다. 1間을 약 1.8m로 환산하여 성벽의 둘레를 계산해 보면 전체길이는 540m로 광역지표조사에서 계측된 무성산성의 둘레 547m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이다.

『文化遺蹟總覽』에는 ‘……높이 4m, 폭 3m, 주위 800m의 이 성지는 조선 초기 임경업장군이 누이와 자미산성 쌓기내기를 한 전설과 관련된 성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 확실한 연혁이나 사적은 알 수 없으며 ……」라고 하였는데 전체 성벽의 길이에 있어 실제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또 자미산성과 함께 임경업장군의 축성설화가 전하는 곳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자미산성, 비파산성과 함께 이 지역에 퍼진 임경업장군의 전설과 관련하며 주목되는 바이다.

무성산성은 능선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남쪽의 쿵쿵채산·자미산과 이어진다. 평면형태는 남북이 길쭉한 장타원형에 서쪽에 위치한 계곡부로 인해 서벽이 서쪽으로 불쭉 돌출된 “ㄱ”자 형태이다. 단면상으로는 무성산의 정상부가 남벽에 바로 접하여 남고북저·동고서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성벽은 동·남·북벽이 능선을 감싸 돌고 있으며 서벽은 계곡을 가로질러 축조되어 성내의 유수를 이곳을 통해 배출할 수 있는 지형이다. 성벽을 따라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정상부의 북사면으로 능선을 삭토한 후에 만들어진 평탄지들이 존재한다.

무성산성은 북쪽으로 남양만으로 흘러드는 발안천에 의해 막혀있고 남으로는 자미산·비파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뻗어 아산만에 닿는 등 남북의 능선이 동서간의 교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북쪽으로 경기도 화성지역과, 서쪽은 남양만과 서해안 일대, 남쪽으로 자미산성·비파산성·아산만 일대, 동쪽으로는 송탄 일대가 조망된다.

전체 성벽의 둘레는 547m이고 면적은 10.095m²이다. 남북길이는 157m, 동서길이는 77m로 남북길이와 동서길이의 비율은 1:0.49이다. 남북 중심축의 방향은 N-52°-W이다 성내 축조된 시설물은 문지 2개소, 치성2개소, 장대지 1개소, 수구지 1개소(추정), 건물지 6개소 등이 있다.

10. 자미산성(慈美山城)

- . 위 치 : 안중읍 덕우리 산 77번지 자미산(해발 110.8m)

- . 시 대 : 삼국시대

- . 현 황 : 자미산성은 안중읍 덕우리 산 77번지 일대에 속하며. 지리좌표는 동경 126도 55분 54초~56분 1초, 북위 37도 00분 47~51초에 해당한다.

자미산성으로 오르는 길은 평택시에서 안중·아산만방면의 38번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안중읍 소재지에 약간 못 미쳐 아산만-발안방면의 39번 국도와 교차로가 나온다. 여기에서 북쪽 수원·발안방면으로 4km 정도 가다 보면 안중읍과 청북읍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주)오뚜기식품 공장이 있다. 이 공장의 북쪽으로 좌회전하여 공장 옆을 지나 포장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계속 진행하면 안중읍 덕우리 원덕우마을로 통하는 야트막한 서낭고개(琵琶峯)을 만나게 된다. 이 고개의 남쪽이 비파산이며 북쪽이 자미산에 해당한다. 서낭고개를 넘어 바로 우측으로 자미산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나 있는데 이곳을 통해 자미산성 남동회절부를 거쳐 성내로 진입할 수 있다.

산성은 자미산(재미산, 해발 110.8m)의 정상부 주위를 토축으로 축조한 내성(先代城)과 7~8부 능선을 따라 석축으로 이루어진 외성(後代城)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자미산 동쪽 능선 110m 거리에서 부성(副城)이 발견되어 내·외성과 부성의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내·외성의 시기적인 관계는 외성 북벽 부근에서 내

성의 토루가 외성의 건물지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토축의 내성이 먼저 축조되고 이후 내성이 파괴되면서 석축의 외성으로 확대·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은 동서방향이 약간 긴 장방형을 기본형태로 하여 북동사면 지맥의 영향으로 북동회절부가 동쪽으로 돌출된 모양이며, 단면은 북고남저, 서고동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성벽은 동·남·북벽을 능선이 감싸돌고 있으며 서벽부는 계곡을 막아 축조하였다.

자미산성의 남북길이는 125m, 동서길이는 167m로 남북길이와 동서길이의 비율은 1:1.3이다. 남북중심축의 방향은 정북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582m이며 면적은 16,875㎡이다. 성내부의 시설물로는 문지 1개소(추정), 치성 3개소, 건물지 9개소, 수구지 1개소(추정) 등이 있다.

자미산성의 북쪽으로 무성산성, 동쪽으로 용성리 강길마을성이 위치하며, 남쪽으로 약 100m 거리에 비파산성, 용성리성 등이 자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11. 비파산성(琵琶山城)

- . 위 치 : 안중읍 용성리와 덕우리의 비파산(해발 102.2m)
- . 시 대 : 통일신라~조선시대
- . 현 황 : 비파산성은 안중읍 용성3리 설창마을과 덕우1리 원덕우마을의 경계에 있는 비파산(해발 102.2m)의 북쪽 정상부와 동쪽 하단부의 용성리뒷골을 포함하여 축조된 포곡식의 토축 평산성이다.

비파산성에 이르는 길은 평택시에서 38번 국도를 이용해 안중·아산만방면으로 서진하다가 안중면 소재지 입구의 38·39번 국도의 교차로에서 발안·수원방면의 39번 국도로 우회전하여 4km 정도 북진하면 안중읍과 청북읍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주)오투기식품 공장이 나온다. 이 공장의 옆을 통해 서쪽으로 진행 하면 북쪽으로는 자미산성, 남쪽으로는 비파산성이 위치한다. 이곳을 통해서는 비파산성의 북문을 통해 성내로 진입할 수 있다. 또 다른 행로는 39번 국도를 3km 정도 북진하면 동쪽의 용성3리 설창마을의 입구에 이

르게 된다. 설창마을전의 북쪽 산이 비파산으로 이곳을 통해서는 비파산성의 동남벽으로 진입할 수 있다.

비파산성에 관한 기록은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토루 주위는 약 700間으로 토루가 확실한 곳은 약 300間으로 높이는 약 9척으로 용성현지(龍城縣址)라고 한다’고 하였다. 1間을 1.8m로 하여 성벽의 전체길이를 계산해 보면 총 1,260m로 광역조사 등에서 측정된 1,622m와는 약 362m의 차이가 난다.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용성현지라고 기록되었던 비파산성은 그 정확한 위치가 근래까지 밝혀지지 않아 『文化遺蹟總覽』에서는 비파산성으로 추정되는 기사가 ‘平澤龍城里城址’條에 들어가 있는데 “……높이 8m, 폭 3m, 길이 90m의 토성의 흔적이 남아있었으나 1962년 부락에서 제방공사를 하였다”고 적어 놓았다. 이는 현재 파악된 비파산성 동벽의 남측편을 파악한 것으로 비파산의 능선을 따라 1.6km 정도 축조된 비파산성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평면은 삼태기모양이며, 단면상으로는 북고남저·서고동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서벽과 북벽부는 비파산의 주능선을 따라 진행되고, 남벽과 동벽의 일부는 얇은 능선이 감싸며 돌아가고 있다. 이 양 능선사이의 계곡을 막아 동벽을 축조하였다.

비파산성의 남북길이는 375m, 동서길이는 499m로 남북길이와 동서길이의 비율은 1:1.3이다. 남북중심축의 방향은 N-45°-W이다 각 성벽의 길이는 남벽 339m, 서벽 430m, 북벽 520m, 동벽 333m로 전체 1,622m이며 면적은 125,598㎡이다. 시설물은 문지 5개소, 치성 4개소, 건물지 14개소, 음료유구 5개소 등이 있다.

비파산성은 동쪽으로는 차령산맥과 평택·오산시, 남쪽으로는 충남 아산·천안시 일대, 서쪽으로 당진시와 서해, 북쪽으로 화성시 일대가 조망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였다

12. 용성리성(龍城里城)

- 위 치 : 안중읍 용성리 468번지 일대
- 시 대 : 통일신라~고려시대
- 현 황 : 용성리성은 안중읍 용성3리 468번지 일대에 속하며, 지

리좌표는 동경 126도 56분 40초~48초, 북위 37도 00분 26초~31초에 해당한다.

용성리성에 이르는 길은 평택시에서 동서방향으로 뺨은 38번 국도를 따라 안중·아산만방면으로 서진하다가 안중읍 소재지 입구의 38·39번 국도의 교차로에서 수원·발안방면의 39번 국도로 우회전한다. 여기에서 북진하다가 우측으로 용성3리 설창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이용해 39번 국도 아래를 지나면 좌측으로 옥길정수장이 보인다. 이곳의 뒷편 구릉이 바로 용성리성이다.

용성리성에 관한 기록은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토루 주위 약 260間, 높이 1間 내지 2間, 폭이 넓은 곳은 5間인데 용성현시대의 향교지라고 전한다’고 하였다. 1間을 1.8m로 계산하여 환산하면 전체 성벽의 길이는 약 468m로 광역조사에서 계측된 449m와 거의 일치한다. 이후 용성리성은 ‘용성리 향교지토성’으로 불리워 왔으나 정확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발 30~42m 정도의 낮은 구릉을 따라 축조된 토축 평지성인 용성리성은 평면형태가 북벽이 약간 짧은 사다리모양이다. 이는 동벽을 지나는 농수로 조성시 북동회절부 부근의 동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기본형태는 장방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단면은 북고남저·동고서저의 형상을 하고 있다. 북벽은 비파산에서 뺨어내려오는 동쪽 줄기를 막아 축조하며 가장 높은 지형을 보인다. 서벽과 동벽을 따라 능선이 감싸며 돌아가고 있으며 남벽은 경작지로 이용되는 평탄한 저습지를 따라 축조하였다.

용성리성의 남북길이는 128m, 동서길이는 87m로 남북길이와 동서길이의 비율은 1:0.68이다. 남북중심축의 방향은 N-60°-W이다 성벽의 둘레는 449m이고 면적은 16,335㎡이다. 각 벽의 길이는 남벽 107m, 서벽 102m, 북벽 96m, 동벽 144m이다. 성내의 시설물로는 문지 3개소, 치성 5개소, 건물지 5개소, 수구지 1개소(추정) 등이 있다.

13. 용성리 강길마을성

-. 위 치 : 청북읍 용성리 일대

- . 시 대 : 고려시대(추정)

- . 현 황 : 평택시에서 38번 국도를 따라 안중방면으로 진행하며 안주읍 소재지 입구의 교차로에서 수원·발안 방면의 39번 국도로 우회전하여 3.6km 정도 북진하면 청북읍과 안중읍의 경계인 오투기식품 공장 동편의 강길마을에 이르게 된다.

성벽은 마을 북쪽 능선 위에 개설된 농경로와 평행하게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토축으로 축조하였으며 길이는 약 90m 정도 잔존하고 있다. 토루의 외벽높이는 1.5~2.5m, 내벽높이는 1~2m, 상단너비는 1m, 하단너비는 1~2m가량이다. 토루의 중간부에는 길이 3m 정도의 절개부가 있다. 토루는 마을길을 사이에 두고 절개되었다가 남서쪽으로 30m 정도 진행한다. 외벽높이는 5m 정도이다. 내부에는 계단식의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토루 북쪽의 경작지에서는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용성리 강길마을성은 지난 1999년경의 경작지 조성 등으로 파괴되어 현재는 그 형적을 찾기가 힘든 상태이다.

14. 목장토성(牧場土城)

- . 위 치 : 포승읍 원정1리 곡교~당두마을

- . 시 대 : 조선시대

- . 현 황 : 평택시에서 38번 국도를 이용하여 안중읍을 지나면 포승 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남양만과 조암방면의 45번 지방도로로 우회전하여 호암마을을 지나면 곡교마을에 이르게 된다. 원정리는 포승읍에서도 서북쪽으로 돌출된 반도지역에 위치하며, 목장토성(지)⁴⁸⁾은 원정리 곡교마을의 남쪽에서 시작하여 마을 동측 구릉의 사면을 가로 질러 당두마을로 연결되는데 그 중간지역의 성벽은 전부 훼손되었고 현재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성벽은 당두마을의 동편에서 ‘ㄱ’ 자형으로 꺾인 후 평택화력발전소로 향하는 도로를 넘어 남양호에 면한 구릉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일대에서는 부분적으로 흔적만 찾을

48) 한신大學校 博物館, 1995, 『牙山國家工團遺蹟 發掘調査報告書』.

수 있을 뿐 원래의 정확한 형태는 알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곡교마을 부근에 위치한 목장토성지도 단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일 서측인 곡교마을 앞 구룡의 받지역에 위치한 지역은 높이 1.8m로 성벽의 내외부가 같은 높이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벽은 예전의 해안지역에서부터 곡교마을 동편의 구룡 사면까지 연결되어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약 34m만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곡교마을 동편의 구룡 사면에 80m 정도가 만곡상을 보이면서 동편으로 연장되는데 성곽의 정상부에서 볼 때 내부의 높이가 약 1.8m이고 외부의 높이가 4m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구룡의 경사면에 성벽을 쌓고 바깥쪽을 급경사면으로 축조하였다. 이들 두 지역 사이에 위치한 작은 계곡부분은 현재 논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부분의 유구는 경작에 의해 거의 유실되어 미미한 흔적만 확인될 뿐이다. 이 논지역의 동측에 위치한 구룡사면 부분에는 약 110m 길이의 성벽이 위치하며 세 지역 가운데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이 지역의 성벽도 경사면에 축조한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내부보다 외부가 높게 되어있으며, 성벽 외부의 구룡 끝지역에는 시기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민묘들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동쪽 끝부분이 개발지역의 경계선으로서 동측은 논으로 되어 있으나 당두마을까지는 성벽이 모두 유실된 상태이다. 또한 목장토 성지와 관련된 유구로 보이는 대형 집자리가 곡교마을 바로 뒤쪽 구룡사면의 평탄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집자리가 위치한 곳은 북·동·서의 세방향으로는 구룡사면의 토양을 이용한 토담으로 되어 있고 남측은 개활지로서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원정리 일대에서 주거입지로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이 대형집자리와 목장토 성지 남편일대는 원래 갯벌이었으나 현재는 간척사업으로 가운데 염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논으로 변화하였으며 간척지의 남단지역에는 만호리와 내기리의 낮은 구룡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15. 석정리장성(石井里長城)

- 위 치 : 안중읍 성해리~포승읍 원정리 봉화재 일대
- 시 대 : 고려시대

- 현 황 : 평택에서 38번 국도를 이용해 안중읍소재지를 지나 포승방면으로 2km가량 진행하면 석정리·홍원리방면의 321번 지방도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우회전하여 약 200m 가다보면 우측으로 안중읍 성해2리 마을회관 앞에 이르게 된다.

마을회관 남쪽의 지방도와 접하여 성벽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성벽은 성해1리의 성해가든 앞을 지나 포승읍 석정3리의 (주)우성세라믹스공업, 고장말과 석정1리의 감기마을까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이외 구간은 각종 건설공사로 파괴가 극심하여 현상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석정리장성은 도곡리, 원정리를 거쳐 봉화재(해발 83m)까지 이어졌었다고 한다.

잔존성벽의 길이는 약 3.5km로 성해2리 마을회관에서 석정1리의 감기마을에 이르는 구간이다. 하지만 토루의 곳곳에 마을 진입로나 경작지에 의해 파괴되어 있고 석정1리에서 원정리 봉화재에 이르는 구간은 도로건설과 택지조성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하여 현재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실제 길이는 약 7~8km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해2리 마을회관 부근의 성벽은 내벽높이 1m, 외벽높이 약 2~3m, 상단너비 1m 내외이다. 성해1리 성해가든 부근의 성벽은 내벽높이 2.5~3m이며 외벽높이 3~4m 정도이다. 이 부근에서는 2곳의 성벽절개부가 남아 있는데 높이는 1.5~2.5m이고, 하단너비는 약 4~5m 정도이다. 절개부의 성 외부에는 조그만 평탄대지를 이룬 후 다시 높이 2m정도의 단을 지우고 하단부에는 경작지들이 들어와 있다.

석정3리의 (주)우성세라믹스공업 부근의 성벽은 내벽높이는 2~3m이나 외벽은 현상이 파괴되어 계측할 수 없으며 상단너비는 1m 정도이다. 이 곳에서 500m 가량 서쪽으로 진행된 성벽은 성 내부로 높이 3~4m의 단이 저 있으며 외부로는 외황이 조성되어 있다. 이 성벽은 석정5리 마을 진입로에 의해 끊어졌다가 맞은편의 석정3리 부근의 경작지에서 다시 이어진다. 성벽은 이 구간에서 토사채취로 인하여 곳곳이 파괴되어 있다. 여기에서 석정3리의 고장말을 지나 석정1리의 감기마을까지는 마을 진입로와 경작지에 의

해 중간중간이 끊어지면서 진행된다.

성벽위에 설치된 구조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성의 내부와 외부는 파괴가 심해 정확한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석정리장성의 내외로는 마을도로와 경작지가 펼쳐져 있다.

16. 기산리산성(岐山里山城)

- 위 치 : 현덕면 기산2리 수산마을 옥녀봉(해발 83m)
- 시 대 : 삼국시대(백제)
- 현 황 : 산성은 옥녀봉(테미봉, 해발 83m)의 8부 능선에 축조한 토축의 테피식 산성이며 평면형태는 남북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형이다. 성벽은 편축식으로 축조하였다. 둘레는 약 250m 정도이고 너비는 2~3m, 외벽 높이는 4~5m 내외이다. 성벽은 토루 위로 가지땀풀과 잡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정상부에는 산불감시초소가 들어서 있으며 남북길이 25m, 동서길이 15~20m 내외의 타원형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성안 진입로는 남쪽의 수산마을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류와 타날문토기류 등이 수습되고 있다.

17. 덕목리성(德睦里城)

- 위 치 : 현덕면 덕목리 647-1번지 일대
- 시 대 : 통일신라~고려시대
- 현 황 : 덕목리성은 현덕면 덕목4리 647-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좌표는 동성(東城)이 동경 126도 57분 54초~58, 북위 36도 56분 48초~49초이고 서성(西城)이 동경 126도 57분 48초~52초, 북위 36도 56분 48초~49초에 해당한다.

덕목리성에 이르는 방법은 평택시에서 동서방향으로 뻗은 38번 국도를 따라 안중·아산만방향으로 진행하다 안중읍 입구에 못 미쳐 아산만-발안·수원을 잇는 39번 국도가 나온다. 여기에서 39번 국도를 이용해 아산만방향으로 약 1km를 남진하다가 심복사방향의 321번 지방도를 따라 좌회전하면 덕목리에 이르게 된다. 덕목리

에서 심복사방향으로 좌회전하면 우측으로 보이는 산이 고등산(高等山)이며 덕목리성은 고등산의 북서쪽 끝자락에 자리한다.

덕목리성 자체에 관한 기록은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처음 나타난다. 그 내용은 ‘토루 높이는 1間 내지 3間이며 폭이 넓은 곳은 5間이며 주위는 180間이고 명칭은 확실하지 않다’고 적혀있다. 이것은 현재 덕목리성이 동서 2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과는 맞지 않는데 조사가 진행된 1940년대 이전에 어느 한쪽의 성이 파괴되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間을 1.8m로 계산해보면 덕목리성의 전체길이는 약 324m로 광역조사 당시 남아있는 서성의 성벽과 추정성벽의 거리를 계측한 290m와 약간의 차이를 가질 뿐이다. 『文化遺蹟總覽』에 의하면 ‘4각형의 토성으로 2개의 성지가 있으며 동쪽은 2,000평 가량, 서쪽은 약 4,000평 가량으로 일부는 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1개의 성지는 현재 형태만 잔존하고 있고…’라고 하였는데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보다 늦은 자료에 보다 정확한 현상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덕목리성은 현재 원덕목마을의 진입로를 경계로 약 60m 거리를 두고 축조된 방형의 동성과 서성으로 배치된 독특한 구조이다.

현재 동성(東城)은 마을과 경작지로 인해 모두 파괴된 상태이다. 다만 주민의 증언에 따라 대략적인 성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잔존 기저부를 계측하여 복원한 길이는 226m이다. 남아 있는 윤곽을 추정해보면 남북길이는 37m, 동서길이는 75m로 남북길이와 동서길이의 비율은 1:2이다. 남북중심축의 방향은 N-66°-E이다.

서성(西城)은 북벽과 동벽의 일부만 남아 있고 남벽과 서벽은 경작지와 농로조성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북벽은 길이가 97m 정도로 덕목리성에서는 성벽의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편이다. 동벽은 25m 정도가 남아있으며 농로조성으로 파괴되었다. 서성의 평면은 동서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이고 단면은 북고남저·동고서저이다. 서성의 남북길이는 42m, 동서길이는 100m로 남북길이와 동서길이의 비율은 1:2.4이다. 남북중심축의 방향은 N-67°-E이다. 둘레는 290m(잔존부 127m)이며 면적은 4,007㎡이다. 성내의 시설물

로는 서성(西城) 내에 문지 1개소, 치성 1개소, 건물지 1개소 등이 있다.

덕목리성의 동남쪽으로는 고등산(高等山), 서남쪽으로는 마안산(馬鞍山)과 기산리산성이 남쪽의 아산만일대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비파산일대가 조망된다.

18. 농성(農城)

- 위 치 : 팽성읍 안정리 산 41-2번지 일대(해발 24m)

- 지 정 : 경기도기념물 제74호

- 시 대 : 고려시대

- 현 황 : 평택시에서 45번 국도를 따라 팽성방면으로 팽성읍 입구에서 동창리·원정리방면으로 약 1.5km 북서진하면 도로의 동쪽으로 성터말과 소나무숲으로 조성된 작은 구릉(해발 24m)이 나타난다. 이곳 평야지대에 농성이 위치하고 있다.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는 ‘... 지방민은 임진왜란때 왜구가 이 땅에 농업을 경영하며 토성을 설축(設築)하여 농성(農城)이란 명칭이 생겼다’고 하였다.

주위에는 북쪽으로 해발 20~30m의 작은 구릉들과 안성천이 흐르고 있으며, 서쪽과 남쪽으로는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북동쪽으로 부용산(芙蓉山, 해발 34.8m)이 자리하고 있다.

농성은 구릉의 경사부를 이용하여 축성한 토축의 평지성으로, 평면형태는 남북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을 하고 있다. 농성은 이성(夷城. 里城), 성재, 성산 등 여러 가지 별칭이 있다.

성벽은 동벽 93m, 서벽 85m, 남벽 56m, 북벽 71m로서 전체 둘레는 305m이다. 외벽 높이는 동벽과 북벽이 8~10m 정도로 높은 편이고, 서벽과 남벽은 6~8m로 다소 낮은 편이다. 내벽 높이는 3~4m 정도이며 상단너비 1.5~2m, 하단너비 4~7m 정도이다.

성 내부의 북쪽으로는 소나무숲이 우거져 있으며 그 앞으로는 넓은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성내 면적은 14,900㎡이다. 문지는 동벽과 서벽의 중간부에서 확인되는데, 크기는 상단너비 8~10m. 하단너비 2m 내외이고 높이는 4~5m 가량이다. 현재 동문지와 서

문지를 통해 쉽게 성내부로 출입할 수 있다.

IV. 평택지역 성곽의 분포 및 조사현황

1. 성곽의 분포현황

평택을 비롯한 주변지역에서는 각종 문헌기록 및 조사를 통해 모두 90개소의 관방유적(성곽 72개소와 봉수 18개소)이 확인·보고⁴⁹⁾된 바 있는데, 이들 유적의 시군별 분포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 과 같다.

	평택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안산	시흥	계
성곽	18	2	9	22	1	13	6	1	72
봉수	2	1	2	8	1	1	1	2	18
계	20	3	11	30	2	14	7	3	90

<표 1> 평택 주변지역의 관방유적 분포현황

주변지역과의 분포현황을 고려할 때 평택지역에서 성곽의 존재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택지역이 서해안과 안성천, 진위천 등의 수상교통로와 육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자리한 필연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평택지역에 분포하는 18개소의 성곽들의 분포현황을 정리하면 우선 가장 서북부에 위치한 진위천 상류권(I 권역), 안성천과 진위천

49) 백종오·김병희·김주홍, 2001, 앞의 논문, 『학예지』 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이 가운데 평택 자미산성(내성, 외성, 부성)과 덕목리성(동성, 서성) 등은 이 글의 집필목적상 구분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의 성곽으로 간주하였다.

의 합류지점에 가까운 진위천 중류권(Ⅱ권역), 서해안의 산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어내린 서해안 산지권(Ⅲ권역-안성천 중하류권 포함)과 해안변(Ⅲ-2권역), 안성천과 서해가 만나는 안성천 하류권(Ⅳ권역)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분포권의 성곽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진위천 상류권(Ⅰ권역)에는 무봉산성과 견산리산성을 비롯해 봉남리산성, 봉남리 아곡마을산성 등 4개소가 진위천의 북쪽 구릉지대를 따라 동서방향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는 진위천과 안성천과의 합류지점에 해당하는 진위천 중류권(Ⅱ권역)에서는 현재까지 좌교리산성과 방축리성, 지제동산성, 백봉리산성 등 4개소의 유적이 분포한다. 이들은 진위천 동서편의 소규모 구릉상에 입지하여 진위천과 안성천의 하천교통로를 제어할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번째는 서해안의 남북방향 산지(Ⅲ권역)를 따라 무성산성과 자미산성, 비파산성 등 3개소가 일렬로 배치된 특징을 보이는데 이들 주변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용성리성과 용성리 강길마을성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무성산성 일원은 안성천 중하류와 발안·남양천 하류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2개의 하천 수계를 모두 연결될 수 있는 요충지에 자리한다. 이들 성곽 서쪽의 해안변(Ⅲ-2구역)으로는 목장토성과 석정리장성 등 2개소가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안성천과 서해안이 합류하는 하류지역(Ⅳ권역)에는 기산리산성, 덕목리성, 농성 등 3개소가 입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모두 18개소의 성곽의 현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의 <표 2> 과 같다.

연번	유적명	해발(m) (비고)	둘레(m)	축조재료	형식	비고
1	무봉산성	208(180)	320	석축	테외식	I 권역
2	봉남리산성	128	•	토축	•	I 권역
3	봉남리 아곡마을산성	121(100)	180	석축	테외식	I 권역
4	견산리산성	44(30)	•	토축	평산성	I 권역
5	좌교리산성	38	170	토축	테외식	II 권역
6	방축리성	37	136(잔존)	토축	미상	II 권역
7	지제동산성	56(45)	220	토축	테외식	II 권역
8	백봉리산성	61(55)	220	토축	테외식	II 권역
9	무성산성	104(80)	547	토축	테외식	III 권역
10	자미산성	110(70)	내성:240	토축	테외식	III 권역
			외성:582	석축	테외식	
			부성:320	토축	테외식	
11	비파산성	102(70)	1,622	토축	평산성	III 권역
12	용성리성	42(30)	449	토축	구릉성	III 권역
13	용성리 강길마을성	57	•	토축	•	III 권역
14	목장토성	31	•	토축	장성	III-2권역
15	석정리장성	83	•	토축	장성	III-2권역
16	기산리산성	83(65)	250	토축	테외식	IV 권역
17	덕목리성	27	동성:226	토축	평지성	IV 권역
			서성:290	토축	평지성	
18	농성	24	305	토축	평지성	IV 권역

〈표 2〉 평택지역 성곽 분포현황

또한 지표조사 등의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유물과 성곽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성곽의 사용시기를 추론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연 번	유적명	시대				비 고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1	무봉산성	■				
2	봉남리산성	■				
3	봉남리 아곡마을산성				■	
4	견산리산성	■	■	■		
5	좌교리산성	■				
6	방축리성				■	
7	지제동산성	■				
8	백봉리산성	■				
9	무성산성	■				
10	자미산성	■				
11	비파산성		■	■	■	
12	용성리성			■		
13	용성리 강길마을성			■		
14	목장토성				■	
15	석정리장성			■	■	
16	기산리산성	■				
17	덕목리성		■	■		
18	농성			■		

〈표 3〉 수습유물 등으로 살펴 본 성곽의 사용시기

2. 성곽의 조사연구현황

평택지역 성곽유적에 대한 1990년대 후반의 광역지표조사와 권역별 정밀지표조사, 각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등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 과 같다.

연 번	유적명	구분					비 고
		광역조사	학술조사	지표조사	시발굴 조사	기타	
1	무봉산성	A	a, b	나	•	II	
2	봉남리산성	A	a, b	나	•	II	
3	봉남리 아곡마을산성	A	a, b	나	•	II	
4	견산리산성	A	a, b	나	•	II	
5	좌교리산성	•	•	•	•	II, III	
6	방축리성	•	•	•	ㄴ(구제 발굴)	•	
7	지제동산성	•	b	•	•	I, II	
8	백봉리산성	A	a, b	•	•	I, II	
9	무성산성	A	a, b	가	ㄹ	II	
10	자미산성	A	a, b	가	ㄹ, ㄴ	II	
11	비파산성	A	b, e	가	ㄹ	II	
12	용성리성	A	a, b	가	ㄹ	II	
13	용성리 강길마을성	A	a, b	•	•	II	
14	목장토성	A	b	•	ㅂ(구제 발굴)	II	
15	석정리장성	A	a, b	•	ㄱ(구제 발굴)	II	

연 번	유적명	구분					비 고
		광역조사	학술조사	지표조사	시발굴 조사	기타	
16	기산리산성	A	a, b	•	•	I, II	
17	덕목리성	A	a, b	가	㉚	II	
18	농성	A	a, b	다, 라	㉚	II	

<표 4> 평택지역 성곽유적의 조사연구현황

<조사현황>

-. 광역조사

A: 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 학술조사

a: 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문화유적분포지도(Ⅰ)』.

b: 경기도박물관, 2003, 『경기도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안성천』.

-. 지표조사

가: 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 關防遺蹟(Ⅰ) 精密地表調査報告書』.

나: 京畿道博物館, 2004, 『平澤 關防遺蹟(Ⅱ) 精密地表調査報告書』.

다: 水原大學校博物館, 1998, 『農城遺蹟調査報告書』.

라: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3, 『평택 농성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서』.

-. 시발굴조사

㉚: 嘉耕考古學研究所, 2014, 「평택 안중 성해리 산95임 일원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ㄴ: 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 .
ㄷ: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3, 『평택 농성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서』 .
ㄹ: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평택 서부 관방산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
ㄹ: 한백문화재연구원, 2010, 『평택 자미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
ㅁ: 한신大學校 博物館, 1995, 『牙山國家工團遺蹟發掘調查報告書』 .

- 기타

- I: 白種伍, 1998, 「京畿南部地域の 百濟山城(I)」, 『京畿道博物館年報』 2, 경기도박물관.
II: 백종오·김병희·김주홍, 2001, 「京畿·서울·仁川地域 關防遺蹟의 研究 現況」, 『학예지』 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III: 백종오·한준영, 2003, 「새로 찾은 안성천유역 백제유적」, 『博物館紀要』 18,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평택지역에서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우선 1990년 후반 들어 각 시군별로 이루어진 광역지표조사⁵⁰⁾를 들 수 있는데, 이 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개략적인 관방유적의 현황과약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와 별개로 경기 서해안지역과 3대 하천(안성천·한강·임진강) 등 학술적인 목적 아래 특정한 범위를 선정하여 조사⁵¹⁾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우선 지난 1999년 평택지역에 대한 광역지표조사시 모두 15개소의 성곽유적(좌교리산성과 방축리성, 지제동산성 제외)이 확인되어 시 전역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좌교리산성과 방축리성, 지제동산성이 당시 조사에서 누락된 상태였으며 지속적인 추가확인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⁵²⁾

50) 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

51) 경기도박물관, 2003, 『경기도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안성천』 .

또한 이러한 광역의 현황조사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유적에 대한 조사 역시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크게 정밀지표조사와 시·발굴 조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정밀지표조사는 경기도박물관의 무성산성·자미산성·비파산성·용성리성·덕목리성과 괴태길곶봉수⁵³⁾, 무봉산성·봉남리성·봉남리산성·견산리산성⁵⁴⁾에 대한 2차례의 정밀지표조사와 수원대학교 박물관의 농성에 대한 지표조사⁵⁵⁾,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는 농성⁵⁶⁾에 대한 정밀지표조사⁵⁷⁾를 진행하였다. 이는 18개소의 성곽 가운데 약 55%에 해당하는 10개소의 성곽에 대한 정밀지표 조사를 완료한 셈이다.

이러한 정밀지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관방유적의 경우 무성산성·자미산성·비파산성·용성리성·덕목리성·농성과 방축리성, 목장토성, 석정리장성 등 9개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방축리성과 목장토성, 석정리장성의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구제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점에 대한 제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전체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방축리성과 목장토성, 석정리장성을 제외하곤 6개소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약 33%의 성곽에 대한 시발굴조

52) 지속적인 추가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지난 2011년 고덕 국제화지구 발굴조사시 확인된 방축리성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방축리성에서 확인된 일부 구간은 현지보존되긴 했지만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은 모두 훼손된 상태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성곽의 숫자는 18개소이지만 방축리성의 예를 보듯이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3) 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 關防遺蹟(Ⅰ) 精密地表調査報告書』.

54) 京畿道博物館, 2004, 『平澤 關防遺蹟(Ⅱ) 精密地表調査報告書』.

55) 수원대학교 박물관, 1998, 『農城遺蹟調査報告書』.

5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3, 『평택 농성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서』.

57)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대개 개별 유적에 대해 단독으로 정밀지표 조사를 진행하는 데 비해 평택지역의 경우 서부와 동북부로 구분하여 권역별 조사를 진행하여 개별 성곽에 대한 자료는 다소 영세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사가 진행된 셈이다.

3. 성과 및 향후 과제

지난 1999년의 평택시 광역지표조사 및 서부권역(청북·안중·현덕)의 관방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04년의 동부권역(진위)의 정밀지표조사 등을 계기로 시 전역에 분포하는 성곽유적에 대한 기초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이러한 조사를 통해 방축리성을 제외한 17개소의 성곽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이 파악되었고 유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평택지역 성곽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권역별 성곽의 배치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징⁵⁸⁾을 보이고 있다. I 권역의 경우 진위천 북단의 산지를 따라 동쪽부터 무봉산성-봉남리산성-봉남리 아곡마을산성-견산리산성이 동서방향으로 펼쳐져 있으며 II 권역 역시 동쪽의 지제동산성-방축리성-좌교리산성-(진위천)-백봉리산성이 진위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에 비해 III 권역은 서해안의 해안선을 서쪽으로 두고 북쪽의 남양·발안천과 남쪽의 안성천 중류 및 소하천 사이에서 북쪽의 무성산성-자미산성-비파산성-용성리성이 남북방향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분포의 특징은 각 권역별 지형적 특성(I 권역은 진위천의 교통로를 남북에서 통제, II 권역은 진위천 교통로를 동서방향에서 통제, III 권역은 해안에서 내륙으로의 진입을 남북에서 통제할 수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성곽의 입지 등이 결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둘째 축성재료의 선택에 있어서 무봉산성, 봉남리산성, 자미산성 외성을 제외하곤 모두 토축으로 축성되었으며 산지에 위치한 3개 소만이 석축을 사용하였다. 이는 원거리보다 주변⁵⁹⁾에서 쉽게 구할

58) 이들 성곽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축조·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 시기의 성곽에 대한 분류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현황을 고려할 때 정확한 축성 및 사용시기를 규명할 수 있는 유적은 몇 개소에 지나지 않아 시기별 분류는 추후 자료의 축적을 기대해 본다.

수 있는 축성재료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다른 지역보다 고대 성곽의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점이다. 정확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주변에서 수습되는 유물로 보아 삼국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유적이 모두 9개소이며 이 가운데 8개소의 성곽은 수개축되지 않은 채 폐성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각 군현의 치소성으로 비정되는 견산리산성(釜城縣), 비파산성(車城縣), 덕목리성(廣德縣), 농성(河八縣)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이다. 이 가운데 견산리산성과 비파산성은 대규모 거점성의 형태인 평산성의 모습인 데 비해 덕목리성과 농성은 둘레 200~300m 내외의 소규모 평지성을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지난 2008년 이후 자미산성과 농성을 제외하곤 성곽 유적에 대한 조사가 정체되어 유적의 입지 및 배치, 축성재료의 선택, 시대별 중심 성곽의 이동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구제발굴 등으로 인해 학술조사가 감소하게 된 원인에서 찾을 수 있지만 기존의 학술조사와 차별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에서도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정비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으로 정비 및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연차적인 조사와 기본적인 보존정비계획을 통해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V. 맺음말

59) 3개소의 석축 성곽 가운데 무봉산성과 자미산성 주변에서는 성돌의 채석과 관련된 채석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평택지역에 분포하는 18개소의 성곽에 대한 간략한 현황과 분포, 조사연구현황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선 성곽은 대개 하천의 교통로와 해발 100~200m 내외의 산지를 따라 4개의 권역에서 모두 18개소의 성곽유적이 보고되어 왔다. 진위천 상류권에는 무봉산성과 견산리산성을 비롯해 봉남리산성·봉남리 아곡마을산성 등 4개소, 진위천 중류역의 소규모 구릉지에 좌교리산성과 방축리성, 지제동산성·백봉리산성 등 4개소, 서해안변의 100m 내외의 산지를 따라 무성산성·자미산성·비파산성·용성리성·용성리 강길마을성과 서해안변의 목장토성과 석정리장성 등 7개소, 안성천과 서해안이 합류하는 하류지역에는 기산리산성·덕목리성·농성 등 3개소가 입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개별 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는 전체대상유적의 55%에 해당하는 10개소의 유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진행되었고 시발굴조사(구제발굴 제외)가 진행된 성곽 역시 6개소에 해당하여 33%에 불과한 셈이다.⁶⁰⁾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의 계속성에서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들어 각 시군에 대한 광역지표조사와 권역별 학술조사, 개별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를 통해 관방유적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국토개발에 따른 구체조사의 증가로 대부분의 성곽유적에 대한 학술조사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경기지역 다른 시군의 경우 관방유적의 복원과 관련된 학술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단편적이거나 조사성과가 나타나는데 비해 평택지역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전혀 학술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각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소규모 개발 등으로 성곽 및 주변환경에 대한 훼손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0) 대개 개별 성곽에 대해 별도의 정밀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비해 평택지역은 권역별로 정밀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실제보다 조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과 급속히 진행되는 개발의 압력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성곽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비보존되고 있는 유적만큼이나 훼손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적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개별 유적에 대한 정확한 학술조사가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와 장기적인 보존대책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조사가 시급한 유적과 문화재 지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전시킨다면 평택지역의 과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의 종합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유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참고문헌

研究論文

- 김기섭, 1997, 「京畿地域의 關防文化」, 『京畿地域의 郷土文化』(下),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金虎俊, 2007, 「京畿道 平澤地域의 土城 築造方式 研究」, 『文化史學』 27, 文化史學會.
- 白種伍, 1998, 「京畿南部地域의 百濟山城(Ⅰ)」, 『京畿道博物館年報』 2, 경기도박물관.
- 백종오·김병희·김주홍, 2001, 「京畿·서울·仁川地域 關防遺蹟의 研究 現況」, 『학예지』 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백종오·한준영, 2003, 「새로 찾은 안성천유역 백제유적」, 『博物館紀要』 18,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 정인숙, 1997, 「수원지방의 성지」, 『경기도향토사학』 2,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 차용걸·최종택·심광주·백종오·유재춘·김주홍, 2003, 『京畿道の 城郭』, 경기문화재단.

調査報告書

- 嘉耕考古學研究所, 2014, 「평택 안중 성해리 산95임 일원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
- 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
- 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문화유적분포지도(Ⅰ)』.
- 京畿道博物館, 1999, 『平澤 關防遺蹟(Ⅰ) 精密地表調査報告書』.
- 경기도박물관, 2003, 『경기도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안성천』.
- 京畿道博物館, 2004, 『平澤 關防遺蹟(Ⅱ) 精密地表調査報告書』.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3, 『평택 농성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서』.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평택 서부 관방산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 水原大學校博物館, 1998, 『農城遺蹟調査報告書』.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4, 『城郭길라잡이』 1.

한백문화재연구원, 2010, 『평택 자미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신大學校博物館, 1995, 『牙山國家工團遺蹟發掘調查報告書』.

경주이씨 우당 이회영 육형제의 가계와 독립운동

황 원 섭¹⁾

목 차

- I. 서론
- II. 경주이씨 우당 6형제의 가계
- III. 우당 6형제의 독립운동
- IV. 우당 6형제의 교훈
- V. 결론

I. 서론

1) 우당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평택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우리나라의 핵심이며, 고래로 가장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육지의 물류는 물론 해상교통에 있어서도 해운의 요충지로 명실상부하게 한반도의 핵심이며 짓줄인 것이다.

금년은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우리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유산인 독립운동 차원에서 고찰할 때에는 평택은 자주독립운동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서 “평택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선조들의 행적과 전통을 이어받아 평택인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규정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평택문화원과 평택시사신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기대가 크며, 그동안의 업적과 시도를 새롭게 평가해야 될 것이다.

평택시사신문은 “평택의 3·1운동”을 주제로 지난 3, 4년 동안 집요하게 연구하고, 취재 하여 왔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는 평택지방이 3·1 독립만세를 가장 활발하게 전개한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제는 평택 독립운동을 안성의 양성과 원곡 만세 시위, 수원군 장안면과 우정면 면사무소 습격 시위 등과 함께 가장 광폭한 시위로 인식할 정도로 극렬하게 전개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²⁾

평택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6,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현덕면 계두봉을 시작으로 15회가 넘는 치열한 만세운동을 펼쳤다. 시위가 전개되면서 64명이 순국하고, 174명이 부상했으며, 257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또한 평택신문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획 특집에서 “100년의 함성과 만석꾼의 꿈을 찾다”라는 특별 기사에서 “평택에 뿌리를 둔 경주이씨 이석영 6형제가 모든 재산을 팔아 중국 서간도에 해외 항일 독립운동의 산실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평가했다.³⁾

2) 평택시사신문 2016. 1. 20 “평택의 3·1운동”

3) 평택시사신문 2019. 11. 6 “100년의 함성과 만석꾼의 꿈을 찾다.”

오늘 발표에서는 평택의 후예인 이석영, 이회영 선생 6형제의 독립운동 과정과 그분들의 애국정신을 밝힘으로써, 평택인의 나라사랑정신과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다소라도 기여하려고 합니다.

우당 6형제의 가계에 관해서는 경주이씨 백사공파 종친회에서 2000년에 발행한 상신록(相臣錄)과 족보를 근거로 기술하려고 한다. 상신록은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최고 관직(정1품)인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 등 삼의정(三議政) 혹은 삼정승(三政丞)의 행장을 기록한 책이다.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먼저 우당 6형제가 공통적으로 참여한 신흥무관학교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하여 설명하고, 6형제 중 특히 공로가 많은 영석 이석영, 우당 이회영, 성재 이시영에 관한 개별적인 활동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경주이씨 우당 6형제의 가계

경주이씨의 시조 “알평공”은 신라의 모체를 이루던 사라(斯羅) 6촌의 연맹체 “금양부(及梁部)의 대인(大人)이었다. 그러나 신라를 건국할 때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커다란 알에서 태어났다는 박혁거세(朴赫居世)를 개국시조로 세웠지만, 명실공히 신라에 건국의 아버지라고 한다.⁴⁾

시조 알공평(일명 瓢巖公) 이후 중시조는 고려 대학자 익제 이제현이며, 조선조에는 수많은 명현과 학자를 배출하여 세인들은 이문중을 가리켜 명문거족(名門巨族), 또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이라고 일컬었다.

< 백사 이항복 >

우당 6형제의 10대조인 백사 이항복(白沙 李恒福 1556-1618)은 임진왜란사의 가장 돋보이는 인물로 전시에는 국방의 막중한 책무

4) 상신록 편찬위원회, “경주이씨 백사공파 상신록”, 뿌리문화사, 2000 P.85

를 맡았고, 전후에는 전란평정과 국란극복의 민족혼을 불태우면서 동진등화 같은 국운을 다시 일으킨 조선조 4대 명신 중 하나이다.

백사는 임진왜란 때 도승지(都承旨)로 의주 파천을 하지만 개성에서 이조참판에 임명되었고, 병조판서, 이조판서, 홍문관과 예문관 대제학을 겸하는 요직을 두루 거치며, 밖으로는 명나라 사신 양방형(楊邦亨)과 양호(楊鎬) 등의 존경을 받으며 명군과의 협조관계를 무리 없이 해결하는 외교력을 발휘했다.

백사는 대국을 아우르는 큰 외교를 펼쳤고, 공평무사한 현신(賢臣)이었으며, 옳은 일에는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친 큰 별이었다.

백사 이항복은 임진왜란사를 보면 파당에서 언제나 중립을 지켰고, 국란극복의 민족혼을 불태운 명신이며, 충신으로 선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1617년 선조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광해군(光海君)이 북인들의 농간으로 동기간에 배어 죽이고 인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키는 등 패륜을 시작하자, 백사는 목숨을 걸고 광해군의 잘못을 나무라면서 의롭게 싸우다가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불귀의 길을 떠났다.⁵⁾

< 구천 이세필 >

이세필(李世弼, 1642-1718)은 호가 구천(龜川)으로 백사의 4세손으로 이조 참판을 지내고, 관작은 증영의정(贈領議政)으로 족보나 상신록에 따르면 관직을 물러난 후 고향인 진위로 돌아와 은거생활을 하며 학문에 열중하였다.

구천은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생으로 1674년 효종 비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의 상례기간에 관한 예송으로 송시열이 삭탈관직되어 영광으로 유배되었을 때, 신원 상소하여 유배에서 풀렸으나, 자신은 영광으로 유배되었다가 1678년에 풀려나와 창능참봉(昌陵參奉)이 되었다. 1684년에는 평조 좌랑, 용안현감을 역임하고 진위현령(振威縣令)으로 승진하여 정무를 살피면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5) 상신록 편찬위원회, 같은 책, P.99-119

1689년(숙종15년) 기사환국(己巳換局) 당시 남인들이 율곡 이이(栗谷 李珣)를 출향시키려 하자 반대의결을 제시하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 진위로 돌아와 은거한 것이다.

1694년 갑무옥사(甲戌獄事)로 정권이 서인으로 넘어가자 김제군수(金堤郡守)로 복직하고, 이어서 삼척부사, 공조 참의,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되었으나 1717년(숙종43년) 이이명(李頤命)의 횡포와 부당함을 상소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면서 성리학에 몰두하였다.

저서로는 락원고사(樂院故事), 소주서(小朱書), 답문의례(答問疑禮), 왕조례(王朝 禮), 동호예설(桐湖禮說) 등 20여 권이 있다.⁶⁾

* 前提書 相臣錄 p. 165-168

< 영의정을 지낸 선조 >

이세구(李世龜 1646-1700)는 호는 양와(養窩), 백사의 증손이던 관작은 증영의정이다. 이틀 광좌(光佐)의 공헌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홍주 목사 시절에 친교를 가졌던 지방 유림의 공의로 홍주(지금의 홍성)에 혜학서원(惠學書院)을 지어 배향 하였다.⁷⁾

이태좌(李台佐 1660-1739)는 호는 아곡(鵝谷), 백사의 5세손이던 영의정 세필의 아들이다. 관작은 영의정이다.

1684년 진사가 되고, 1699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검열(檢閱)과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희빈(禧嬪) 장씨를 사사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다가 선산으로 유배되었다. 1704년 유배지에서 풀려나 정언(正言)과 이조정랑(吏曹正郎)에 등용되었으며, 경상좌우도를 담당하는 암행어사로도 활약했다. 1724년 영조가 왕위에 오르고 소론이 밀려날 때 사직당했으나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호조판서로 기용되었으며, 이후 영조가 탕평책을 펴면서 병조와 이조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아곡은 아버지 세필에 이어 2대에 걸쳐 영상에 올랐으며, 1736년(영조 12년) 조정에서 봉조화(奉朝賀)제수하고, 80세를 일기로 하세

6) 상신록 편찬위원회, 같은 책, P.165-168

7) 상신록 편찬위원회, 같은 책, P.169-170

했을 때는 특증 영의정(特贈 領議政)에 봉했다.⁸⁾

이종악(李宗岳 1668-1732)은 백사의 5세손이며, 관작은 증 영의정(贈領議政)이다.

이광좌(李光佐 1674-1740)는 호는 운곡(雲谷), 관작은 영의정이다. 1723년 정승이 되어 영의정을 세 번이나 지냈으며, 효심이 대단하여 임금이 충신이나 열부(烈婦)에게 나 내리는 정문(旌門)을 내리기도 했다. 1777년에 관작이 추탈 당하는 등 노론과 소론의 한복판에서 수난을 겪다가 1788년(정조 12년) 복관치제(復官致祭)되었으며, 묘소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있다.⁹⁾

이종성(李宗城 1692-1759)은 호는 오천(梧川)이며 백사의 6세손, 관작은 영의정이다. 오천대감은 생전에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지키려고 애쓰면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영조의 배려로 장조(사도세자)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이경일(李敬一 1734-1820)은 호는 청헌(廳軒), 백사의 6세손이며 종손이다. 관작은 좌의정이다.

이계조(李啓朝 1793-1856)는 호는 동천(桐泉), 백사의 7세손이며 관작은 증 영의정이다. 묘소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있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호는 굴산(橘山), 백사의 10세손이며, 이조판서 계조의 아들이다. 굴산은 고종 초기에 영의정에 올랐으나 대원군이 등장하면서 그와 반목이 시작되었다. 1865년 영상으로 있다가 수원 유수(留守)로 좌천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으나, 1873년 흥선대원군이 실각되자 다시 영의정이 되었고, 세자 책봉 반목이 시작되었다. 1865년 영상으로 있다가 수원 유수(留守)로 좌천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으나, 1873년 흥선대원군이 실각되자 다시 영의정이 되었고, 세자 책봉 과정에서 일본을 따돌리고 1875년 주청사(奏請使)로 청나라에 가서 이홍장(李鴻章)을 방문하여 세자 책봉을 마무리했다. 굴산은 학문이 뛰어났으며 특히 예서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다. 저서로는 임하필기(林下筆記), 가오고략(嘉梧藁略), 굴산문고(橘山 文庫), 유금석록(有金石錄), 충무공 정충신 신도비문

8) 상신록 편찬위원회, 같은 책, P.171-173

9) 상신록 편찬위원회, 같은 책, P.176-180

(忠武公 鄭忠信 神道碑文) 등 100여권이 있다.¹⁰⁾

< 우당 6형제와 독립운동 포장 >

우당 6형제는 백사의 11세손이며, 이조판서를 역임한 이유승(李裕承)의 아들이다. 1864년(고종 1)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1868년 평안도 암행어사가 되었고, 그 뒤 대사성, 예조·공조·형조·이조 판서를 역임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를 반대하고 국권회복의 상소를 올렸다.

저서인 <속소악부 續小樂府>는 전래의 시조를 한시의 형식을 빌려 한역한 작품집으로, 신위·이유원의 <소악부>를 이은 것이다. 1910년 정현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가 호정으로 바뀌었다.

이유승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는 이건영(李健榮 1853-1940)으로 정3품 통정 대부(通政大夫)를 지냈고, 1910년 6형제 전 가족이 서간도로 망명했다가 1926년 귀국하여 선산을 돌봤다. 1999년 정부에서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둘째는 이석영(李石榮 1855-1934)으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고 1885년 이유원 영의정에게 입적 되었고 1910년 망명 후 신흥무관학교 교주였으나 1934년 상해에서 순국하여 상해 홍차오루(虹橋路) 공원에 안장되었으나, 도시개발로 훼손되어 시신을 찾을 수 없고, 절손되었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셋째는 이철영(李哲榮 1863-1925)은 현릉원 참봉으로 일하다 망명하여 신흥무관 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동성한족생계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나 일찍이 풍토병으로 서거 하였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넷째는 우당 이회영(友堂 李會榮 1867-1932)으로 벼슬은 하지 않고 을사늑약 이후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독립운동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 창립을 주도했다. 1907년에는 고종황제에게 주청하여 헤이그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을 주선했다. 망명한 후에는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개교의 주역이었고 1918년에는 고종 망명계획을 추

10) 상신록 편찬위원회, 같은 책, P.198-204

진하다 독살 되자, 3·1운동 직전 망명하여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의정원 의원으로 참여했다. 1920년부터 북경을 중심으로 한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과 의열투쟁을 벌이다가 1932년 중국 대련에서 일제 경찰에 피체되어 그 해 11월 여순감옥에서 고문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다섯째는 성재 이시영(省齋 李始榮 1869-1953)으로 평양남도 관찰사, 한성 재판 소장을 역임하고 중국에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지원하다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형 우당과 함께 의정원 의원 임시정부 법무총장과 재무총장을 역임했다. 1948년 정부를 수립할 때 초대 부통령이었다. 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상했다.

여섯째 이호영(李護榮 1885-1933)은 형들과 함께 망명하여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재무를 담당하였다. 1925년 의열단체 다물단(多勿團)의 단장으로 김달하를 처단하는 데 가담했고,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벌이다가 일제에 피체되어 전 가족이 몰살되어 후사가 없다. 정부에서는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¹¹⁾

우당 6형제 가족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로 6형제분 이외에 우당의 부인 이은숙(李恩淑)여사가 2018년 애족장, 아들 이규학(李圭鶴)은 1990년 애족장, 아들 이규창(李圭昌)은 1969년 독립장, 사위 장해평(張海平)은 1963년 독립장을 받았다. 이건영의 아들 이규룡(李圭龍)은 1990년 애국장, 이시영의 아들 이규봉(李圭峰)은 건국포장을 받는 등, 가족 12명이 독립운동 관련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 가문의 명문가이다.

Ⅲ. 우당 6형제의 독립운동

11) 서울역사박물관 편, 우당6형제 독립운동 자료집, 애픽, p. 150

1.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

< 신흥무관학교 설립 >

신흥무관학교 건립의 발단은 최초의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신민회에서 태동한다. 신민회에서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의 유히(允許)를 받아 이상설(李相高)을 대표로 이준(李儁), 이위종(李緯鐘) 등 특사를 파견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준 열사가 현지에서 순국했다. 이에 따라 신민회에서는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국제 정세 아래서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무장투쟁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즉 독립군을 양성하여 일제와 싸워 독립을 쟁취하려는 것이다.¹²⁾

무장독립운동 기지건설을 위하여 우당은 경술국치 직전에 이동녕, 장유순, 이관직 선생 등과 같이 2개월 동안 독립운동 기지를 물색하기 위하여 서간도 일대를 답사 하고 귀국하였다.

마침 8월에 경술국치의 괴변을 당하자, 우당은 6형제 가족회의의 결의에 따라 전 가족 등 60여명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운동자금 40만(1969년 현재 화폐 가치 600억 원)을 가지고 12월 압록강을 건너 망명하였다. 사실 이 자금은 대부분이 이석영이 이유원 영의정의 양자로 들어가 상속받은 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한 것이다.

1911년 4월 길림성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에서 250여 망명자들이 참석한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영남 유림대표 이상용을 대표로 조선족 자치기구인 경학사(耕學社)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경학사를 기반으로 그해 6월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를 설립 하여, 신학문은 물론 군사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지인들의 냉대와 방해로 학교운영이 어렵게 되자 우당은 중국 대총통 위엔스카이(袁世凱)를 찾아가 면담하고, 그의 호의로 통화현 합리하로 신흥강습소를 이전, 1912년 새로 교사를 지어

12) 일본이 세계 최강국이지만 군국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과 전쟁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군을 양성했다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당사국과 연합으로 일제를 축출하고 자주 독립을 실현하려는 방책이다.

무관학교로 체제를 정비하여 본격적인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¹³⁾

만주로 이주하는 망명자 수가 늘어 경학사를 부민단(富民團)으로 개편하여 무관학교를 뒷받침하고, 한족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단장 허혁, 부단장 김동삼) 환인(桓仁), 신빈(新賓), 통화(通化), 유하(柳河) 등에 이주하는 한족을 위하여 환인 학교 건교 운동을 전개하여, 30여개의 학교를 설립했다.

<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역할 >

신흥무관학교 졸업생과 교직원들은 1913년 3월 교장 여준을 중심으로 “신흥학우 단”이란 항일 구국단체를 설립하고, 신흥학우보를 발간하여 민족자주정신과 독립 운동을 고취시키는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4년에는 1-4회 졸업생 등 385명이 통화현 소백차에 백서농장(白西農場)을 건립 하여 집단 영농과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장주 일송 김동삼 一松 金東三)

3·1운동 이후에는 독립운동 열기가 고조되어 국내의 애국청년들이 만주로 망명하여 무관학교 지원자가 폭주하게 되자, 본교를 고산자(孤山子)로 이전하고 합리하와 추가 가는 분교로 활용했다.

한편 부민단을 해체하고 한족회를 발족하여 자치정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흥 무관학교를 뒷받침했으나, 청산리 대첩 이후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작전(경신참변 庚申慘變)으로 1920년 폐교될 때까지 3,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¹⁴⁾

3·1운동 이후 만주에서는 독립군들이 지속적으로 국내 침공 작전 등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되다가, 1920년 6월 홍범도(洪範圖) 독립군 연합부대는 일본군을 봉오동 으로 유인하여 섬멸함으로써 독립운동사상 일본 정규군과 싸워, 최초의 대승을 달성 하였다. 일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규모의 병역을 파견하여 대대적으로 독립군 부대를 추적하게 되었다.

이 때 지청천(池青天), 김동삼이 이끄는 신흥무관학교 출신 교성

13)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년 P.69

14)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년, P.209

대 400여명은 흥범도부대의 대한의용군으로 편성되었고, 김좌진(金佐鎭)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 이장녕(李章寧)이 참모장, 이범석(李範奭)이 사관연성소 연성 대장을 맡은 등 많은 지휘관들이 참여하여 독립군 부대를 재편성되었다. 흥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은 추격하는 일본군을 청산리 골짜기로 유인하여, 전 세계 해방투쟁 전쟁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국치 이래 가장 빛나는 대첩을 달성한 것이다. 독립군 중에는 신흥무관학교 등 군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었다.¹⁵⁾

한편 만주지역의 대표적인 무장독립운동단체인 서로군정서의 독립관 이상룡(李相龍), 부독관 여준(呂準), 정무청장 이탁(李鐸), 군정청장 양규열(梁圭烈), 참모장 김동삼, 교관 지청천, 신파군(申八均), 김경천(金敬天) 등 간부 대부분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개편 후 북로군정서의 주역이 되었다.¹⁶⁾

또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1919년 11월 김원봉(金元鳳)을 단장으로 의열단을 조직하여 국내외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2016년에 상영된 영화 “암살”은 의열단의 국내 의열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한편 우당은 1922년 환인현 마권자촌(馬圈子村)에서 대규모 한민족통일회의를 주체, 통의부(統義府)를 결성하고, 의용군으로 개편하였다. 1924년 만주 통화현에서 조직된 참의부에는 백서농장 농감 출신 백광운(白光雲)이 참의장으로 참여하여 무장 투쟁을 지휘하였다.

1925년 영안현(永安縣)에서 조직된 신민부, 1929년 조직된 국민부 등 만주일대의 무장투쟁 단체에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었다.

1940년 임시정부에서 창설한 광복군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중심이었으나, 다음에 기술할 임시정부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15) 김삼웅, 빨치산 대장 흥범도 평전, 현암사, 2013년, P.168

16) 김삼웅. 같은 책 P.138

< 신흥무관학교의 전통 계승 >

1945년 해방이후 생존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귀국하여 이시영 선생을 중심으로 “만주 신흥학우단 부활위원회”를 구성하여 신흥무관학교의 후신으로 1947년 2월 신흥초급대학을 창설하였다. 초대 이사장은 이시영이 맡고, 학장은 이시영의 아들 이규창(李圭禎)이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이시영 부통령이 서거하자 재단을 조영식(趙永植) 명의로 이관하고, 경희대학교로 교명을 바꾸면서 경희대학교 역사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총동창회와 학생회에서 주도하여 역사복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⁷⁾

한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6일 74기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하여 “신흥무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라고 치사함에 따라 국군에서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의 역사를 국군의 역사로 수용하여, 국군의 연원을 재편하고 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설립되었다.

우당 이회영은 1918년 국내로 잠입하여 고종황제 망명운동을 추진했다. 우당은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취약점이 리더십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다. 만약 고종황제가 망명하게 되면 고종이 40여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권위가 있고, 재임기간 동안 서구열강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승인 받기가 용이하고, 당시 어려웠던 독립운동 자금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당은 망명계획을 고종황제 비서장 출신인 조정구(趙鼎九)와 접촉하여 설득했고 그를 통하여 고종의 망명 내약을 받았다. 또한 고종의 측근인 민영달로부터 5만 원을 받아, 북경에 있던 아우 이시영에서 보내 고종이 망명하여 거처할 가옥을 매입했다. 그러나 일

17) 2019. 6. 10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신흥무관학교 개교 108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신흥무관학교 개교일을 경희대학교 창학일로 결의하였다. 총학생회에서도 동문회와 의견을 같이하고 대학당국에 역사복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회에서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있다.

제가 고종의 망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를 독살시킨 것이다.¹⁸⁾

고종 황제의 인산일을 계기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1919년 3월 1일, 3·1독립선언을 통하여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국 각지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확산되었다. 만세 시위는 3월부터 시작하여 5월까지 100일 동안 격렬하게 지속되면서 200만 명 이상의 동포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저항과 고종황제의 독살에 대한 민족적 분노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당은 3·1만세운동 직전 조정구 조남익 부자 등과 함께 다시 북경으로 망명하여 북경에서 이시영을 비롯하여 조성환, 이동녕 등과 함께 3·1운동 사후책을 논의하였다.

3·1 운동으로 표출된 독립 의지를 수용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내외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다. 3·1 운동 후 독립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내외에서 정부수립계획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순종이 건재하고 있어서 망설이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당시 상하이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결집되어 있었다.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한 이들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했다. 먼저 임시정부 수립론이 대두되었다. 조선총독부에 맞서 민족의 망명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그러나 여운형 등은 정부를 조직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보고 당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난 뒤에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것은 먼저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에 못혔다.¹⁹⁾

상하이는 교통이 편리하고 쑨원(孫文)이 이끄는 광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조계가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었

18) 이덕일, "고종의 망명계획과 이회영", 우당학술회의 자료집(2016), 2016 P.102

19) 송승표, "우리가 몰랐던 우리 역사" 학민사 2013 P.24

다. 독립지사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프랑스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조계에 살면서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런 까닭에 독립지사들이 상하이로 몰려들었다.

상하이의 독립지사들은 프랑스 조계를 중심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숙소를 마련해 주고 고려교민친목회를 조직하여 교민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망을 만들었다. 이 무렵 만주와 연해주의 이동녕, 이회영, 이시영, 김동삼, 신채호, 조성환, 조소앙 등 명망 높은 독립지사가 상하이로 와서 자리를 잡았고, 한국에서 현순, 손정도 등이 이곳으로 파견되었다.²⁰⁾

신한청년당은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을 것을 결의하고 김규식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하였다. 그는 신한청년당의 이름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청원서를 전달하였고,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 명의로 된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아직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을 거절당했다. 김규식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표라는 신임장을 받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김규식의 파리강화회의 파견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²¹⁾

< 임시정부의 수립 >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각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밤새 논의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1919년 4월 11일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

20)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21 해방 그날이 오면" 한길사 2004, P.23

21)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P.24-25

한 뒤, 4월 11일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그 후 4월 22일에는 2차 의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국내의 8도 대표와 러시아, 중국, 미주 등 3개 지방대표가 각각 지방선거회를 통해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했다. 의정원은 법률안 의결, 임시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²²⁾

이에 앞서 1919년 3월 17일 러시아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뒤이어 4월 23일 경성(서울)에서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합문제를 제기하였다. 통합 교섭은 대한국민의회와 대한민국임시 정부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현실적으로 국내와는 연락을 할 수 없었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과도 상의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1919년 9월 11일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경성(서울)의 한성 임시 정부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통합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 중국, 러시아에 흩어져 있던 여러 독립운동단체와 국내외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단일한 통합 정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²³⁾

이회영은 임정 수립과정에서 정부라고 규정하면 자리다툼과 파벌이 조성되어 독립운동 추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독립운동의 총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임시정부가 무장투쟁 보다 외교노선 쪽으로 기울게 되자, 이회영을 비롯하여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이탈하여 북경으로 돌아가 임시정부와 달리 독자적인 독립투쟁노선을 걸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념적 갈등이 존재했다. 이승만과 박용만가 외교론과 무장투쟁론으로 독립운동 방법론으로 대립하였으며, 이념적으로도 국무총리인 이동휘는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짖었고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여 서로 충돌하

22) 이회영과 이시영 형제는 4월 10일 개최된 29명의 의정원 의원으로 참여하였다. 의정원 의원 중 이회영이 최고령자로 의장으로 추대되었으나 고사했다.

23) 이정식, 같은 책 P. 27

였다. 임시 정부 내의 사회주의자들끼리도 서로 못치지 못하고, 안병찬,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이르쿠츠크파와 이동휘를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파, 그리고 김준연을 중심으로 하는 엠엘파(ML)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이시영은 이회영과 함께 상해로 귀환했다가 주변의 간곡한 설득으로 임시정부에 머물면서 임시정부의 수립에서부터 해방 이후 귀국할 때까지 26년간 임시정부를 고수한 유일한 인물이다. 4월 11일 발표된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을 조소앙, 신익희와 함께 기초하여 법무총장이 되었으며, 가장 양심적인 인사로 평가받아 재무총장으로 선임되어 독립운동자금 모금과 어려웠던 재정을 담당했었다.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공채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이라는 명의와 서명이 남아 있다.²⁴⁾

< 광복군의 창설 >

임시정부에서는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하여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이범석을 참모장으로 임명하였다. 1942년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여, 3개 지대로 개편하였다. 지청천 사령관 아래 부사령관 겸 제1지대장은 김원봉, 제2지대장은 이범석, 제3지대장은 김학규가 맡았다. 이들 최고위 지휘관들은 우당 6형제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다. 지청천과 이범석은 군사훈련을 담당한 교관이었고, 김원봉과 김학규는 수료생이었다.

1919년에 창립된 의열단은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의열투쟁 단체이며, 의열단은 후에 의용대로 발전하여 김원봉이 이끄는 100명은 광복군으로 편입되지만 일부는 연안으로 이동하여 팔로군에 편입되면서 조선의용군이 된다.²⁵⁾

3. 영석 이석영의 독립운동

24) 박창화, “성재 이시영 소전”-을유문고 259, 을유문화사, 1969 P.65

25) 황원섭, “김원봉의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 2019년도 우당문집 p.19

< 잘 알려지지 않은 애국지사 >

영석(穎石) 이석영(李石榮 1855-1934)은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 1867-1932) 선생의 둘째 형님이다. 이석영은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양자로 들어갔다. 이유원은 만석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석영에게 상속하였다. 이석영은 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독립투쟁에 썼다. 나라가 망했는데 자기의 만석 재산을 처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은 없었다.

사회 지도층이 술선수범해서 책임을 다하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석영의 행동은 역사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만석의 재산을 가지고도 친일 반민족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석영은 빛나는 민족의 사표다.

이석영의 공적은 2001년 역사학자 이덕일의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회영으로 대표되는 6형제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정도다.²⁶⁾ 독립투쟁 과정에서 단체의 장을 맡은 기록도 없고, 투옥되어 고초를 겪은 기록도 없다. 아우들인 이회영과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 1869-1953)의 활동에 가려진 면도 있을 것이다.

이석영이 당시 서울 사람이지만 양부 이유원의 근거지는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이다. 그의 전장도 지금의 양주시와 남양주시 등 일원에 있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기려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에서 이석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 이석영의 생애와 인품 >

이석영은 1855년 지금 서울의 명동 은행화관 근처에서 태어났다. 30세인 1885년 증광시(增廣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한 과거) 문과에 급제했다. 과거 급제 이전의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알

26) 이덕일 "이회영과 젊은 그들", 역사의 아침, 2009, P.61

려진 것이 없다. 1885년 1월 10일 자 고종 실록에 의하면 전 영의정 이유원이 12촌 아우 전 참판 이유승의 둘째 아들 이석영을 양자로 들인다고 상소했다.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이유원이 이석영을 빼앗아 양자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은 이석영이 모두에게 촉망을 받고 있는 청년이었음을 시사한다. 입양될 때 이석영은 30세였는데 이는 양자로 가기는 이례적으로 늦은 나이이다. 이는 이유원에게는 아들 이수영이 있었으나 1875년 별시 문과(別試 文科)에 급제한 후 병으로 사망한 후에 양자를 들였기 때문이다.²⁷⁾

이석영은 급제 후 정언(正言), 수찬(修撰), 승지, 비서원승(秘書院丞), 소경(少卿) 등을 지냈다. 정언과 수찬은 소위 청요직이고, 홍문록에 추천된 점은 그의 인품이 강직하고 학문도 깊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홍문록에 김교헌(金敎獻) 등과 함께 추천되었다. 관직 생활은 순탄해서 종2품까지 올랐으니 역사에 뚜렷한 족적은 남기지 않았다. 기려수필(騎驢隨筆)은 “공이 벼슬에서 크게 성취할 뜻이 없더니 마침내 사직하고 돌아와 은거하였다(公無意進就 遂辭歸不出世)”고 기록했다. 이로 보아 야망이 없이 유유자적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석영이 관직을 그만 둔 시기는 1905년 을사늑약 무렵으로 보인다. 1904년 장예원(掌隸院) 소경(少卿)에 임명된 후 정부 기록에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황성신문(皇城新聞)은 1908년 1월 9일에 조종희의 장례에 이석영이 호상을 담당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같은 신문 1909년 4월 10일에는 친일파 재산가 민영휘와 한강가에 있는 천일정 문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쓰고 있다.

1910년 56세에 전 재산을 처분해서 6형제와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신흥무관학교 개교에서 교주로 추대되었다.²⁸⁾

이후 직접적인 투쟁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1913년(계축년) 10월 20일 이석영 선생이 마적에게 납치되었으나

27) 황현, “역주 매천야록” 상- 서남동양학자료총서, 문학과 지성사, 2005, P.90

28) 이은숙, “서간도 시종기”, 일조각 역주, 2017, P. 83

5일 만에 풀려났다. “만주인들이 영석 선생을 지극히 존경하여 만주왕으로 불렀는데 이런 개인의 인품이 중국 군인들로 하여금 풀려나게 한 것이라”고 이은숙 여사는 회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숙 여사의 아들 이규창은 그의 자서전 「운명의 여신」에서 “한국의 귀족으로 왜놈이 고려를 점령한 후 항일 독립운동을 하여 국권을 회복하려고 만주에 와 독립운동의 기지로 삼고 군인을 양성하여 왜놈들을 구축하려 한다는 말을 마적들이 듣고 중부께 백배 사죄하고 집으로 잘 모셔온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이 사건에서 당시 만주의 중국인과 조선인은 대일 투쟁을 중심으로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석영이 그 지역에서 훌륭한 인격자로 대접받았음을 알 수 있다.²⁹⁾

청산리대첩이 있었던 1920년 이석영은 막내 동생 이호영 일가와 함께 지금의 심양인 봉천으로 이사하였다. 만주에서 처음 정착했던 삼원포 주변에서 10년을 살고 대도시인 봉천으로 이사진데 이사해야 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심양으로 이사함으로써 청산리대첩 다음 해인 경신년에 있었던 소위 경신대참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이규창이 같은 책에서 기술한 사실에 비추어 청산리대첩에 대한 일제의 보복을 우려하여 대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추측된다.³⁰⁾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석영의 아들 이규준이 아버지를 심양에서 천진으로 모셨고, 이석영은 부인 둘째 아들과 함께 1926년 9월까지 천진에 살았다. 이 시기는 이미 지니고 있던 재산이 모두 소진된 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이석영은 나이 72세의 노인이었다. 장남 이규준에 의지하여 천진으로 이거하였다가 사정이 좋지 않아지자 북경에 사는 동생 이회영을 의지하여 이거한 것이다. 이회영은 1932년 10월 둘째 형님 이석영을 상해에서 만나본 후 만주로 가다가 11월 17일 대련에서 순국했다. 이회영이 순국한 1932년에 이석영은 신병 치료차 일시 귀국했다가 금강산 관광을 핑계로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해로 출국했다.³¹⁾

29) 이규창, “운명의 여신”, (비매품) 2004, P.35

30) 이규창, 같은 책, P.68

상해에서 발행되던 「한민(韓民)」 1936년 5월 25일자에는 ‘서간도 초기 이주와 신흥학교 회상기’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이 글 중에서 ‘이석영의 공(功)’이라는 소항목에서 “이석영이 수많은 재산을 신흥무관학교 운영에 모두 쏟아 붓고 나중에는 지극히 곤란하게 생활하면서도 일호의 원성이나 후회의 개식이 없고 태연하여 장자(長子)의 품이 있었다.”고 썼다. 그러나 「기려수필」에는 이석영의 독립투쟁을 언급하며 “일이 끝내는 실패하여 집안이 탕산하는 원인이 되었다(事竟失敗 家因蕩散)”라고 쓰고 있다.³²⁾

이석영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장남 이규준(李圭駿 1899-1927)과 차남 이규서(李圭瑞 1912-1933)다. 이규준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중형제들과 다물단에서 활동하면서 독립투쟁에 헌신하다 1927년 아버지 보다 먼저 병사했다. 이규서는 1933년 상해에서 행방불명되었다. 이석영은 후사를 남기지 못했다. 이석영이 1934년 굽주림에 시달리다 상해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부인도 1936년 5월 11일 상해의 조카 이규홍(이시영 전 부통령의 차남) 집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이석영의 사망에 대해서 동아일보 1934년 2월 28일에 “상해 객창(客窓)에서 영면, 유량 30년, 유해도 이역에 묻혀”라고 보도했다. 이은숙 여사는 같은 책에서 “세상에 우리 시숙 같은 신 분은 금세에 없으신 분이지만 어느 누가 알리오. 생각 곧 하면 원통한 걸 어찌 적으리오.”라고 이석영 선생을 회상했다. 아마도 이석영 선생이 말년에 빈한했고 두 아들을 앞세우고 객사한 것이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일 것이다.

< 이석영이 처분한 재산 규모 >

이석영이 독립투쟁에 쾌척한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덕일의 「근대를 말한다」(2012)에 의하면 6형제 일가의 전 재산을 정리해 마련한 자금이 40여만 원이었다. 이 40만원의 출처는 이규창의 「운명의 여신」 40쪽이다. 당시 쌀 1섬 가격이 3원 정도였던 사실에 비추어 현재가치가 대략 600억 원이었다. 이 금액의

31) 이규창 같은 책 P.117

32) 허성관, 이석영 선생의 독립투쟁과 고뇌(논문) 2015. 5월 P.6

대부분 이외 이석영이 처분한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매천야록」에 의하면 이유원은 “양주에서 서울로 오는데 남의 땅을 밟지 않아도 될 만큼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³³⁾

이유원은 만석꾼 또는 이 만석꾼으로 전해온다. 당시 만석꾼은 소작료로 거둔 벼가 만 섬이라는 의미다. 논 1마지기에 벼 2섬이 생산되고 이 중 1섬을 소작료로 받는다면 만 마지기를 가진 사람이 만석꾼이다. 논 한 마지기를 200평으로 계산하면 논이 무려 이백만 평이라야 만석꾼이다. 이유원이 당시 조선 10대 부자의 한사람, 서울의 3대 부자의 한사람, 서울 경기 일원의 5대 부자의 한사람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는 처분한 재산의 현재가치가 2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고, 가문에서는 6조 내지 7조원 쯤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당시 40만원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수도 있다. 이석영 가문이 출가한 1910년 같은 해 민족계 은행 3개 (천일은행, 한성은행, 한일은행)의 납입자본금이 325,000원이었다. 이석영 일가가 처분한 재산은 최소한 은행 3개를 설립하고도 남는 금액이었다(조기준, 「한국경제사신강」).

이석영 재산의 근거지는 오늘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1리다. 이 마을은 천마산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남양주시 지역에서는 외진 곳이다. 근처에 넓은 평야는 없다. 따라서 이석영의 전장은 가곡1리에서 좀 떨어진 평야지대에 주로 있었을 것이다. 당시 재산을 처분하는 현장에 있었던 이은숙 여사는 “양가(養家) 재산을 가지고 생가 아우들과 뜻을 합쳐서서 만 여석 재산과 가옥을 모두 방매(放賣)해 가지고 경술년(1910년) 12월 30일에 대소가가 압록강을 넘었다”고 회고했다. 이석영의 재산은 만 여석 재산이 가장 근접한 규모일 것이고, 짧은 기간에 비밀리에 정리했기 때문에 대부분 제 값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³⁴⁾

재산 처분에 비밀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는 아예 처분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명동과 을지로 일대의 토지(현재 명동 로

33) 황현, 같은 책 P.88

34) 이은숙 같은 책 P.22-21, 허성관 같은 논문 P.8

알호텔과 은행회관 일대) 8,000여 평은 처분하지 못한 채 망명했다. 이를 처분했다면 일제가 그 이유를 조사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망명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 결과 1912년에 시작된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에서 망명한 부채지주는 신고할 수 없어 결국 조선총독부에서 수용하였다. 2015년 6월 현재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희서비스에 의하면 로얄호텔 근처 공시지가는 평당 5,100만원 내지 1억 296만원이다. 공시지가를 시가의 65%로 보면 이 8,000평 토지는 현재 시세로 최저 6,277억원 최고 1조 2,672억원이다.

왕현종의 「우당 이회영 일가 망명이전 재산 조사사업」(2011)에 의하면 이석영 일가 가 처분한 토지는 대부분이 이석영 본인 소유였다. 그 규모는 명동, 남창동 일대 대지가 약 9,000여평, 농지가 최저 31만평에서 최고 90만평으로 추정되고, 임야가 161만평이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6형제가 처분한 토지가 726필지에 2,668,335평 이라고 밝혔다. 2012년 당시 공시지가로 환산한 평가액에 2조에서 3조원에 해당 하고 시가로는 4조에서 5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³⁵⁾

독립투쟁에서 이석영 선생의 공적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 재산을 교민 자치기관인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에 쾌척한 것이다. 신흥무관학교는 10년에 걸쳐 3,500여 명의 독립군 장교를 배출했다. 이들이 일제 강점기 무장 독립투쟁의 핵심이었다. 이석영 선생이 계시지 않았다면 독립군 간성들을 길러낸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신흥무관학교가 조국 광복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나왔다. 봉오동과 청산리의 대첩 및 의열단 투쟁 등에는 그 중심에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 광복군 제3지대장이었던 김학규는 신흥무관학교를 “동삼성 한국 혁명 결사의 개시이자 동북 한국 혁명운동의 선성(先聲)이자 효시”로 평가했다. 사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신흥무관학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³⁶⁾

35) 왕현종 “우당 이회영일가 독립운동 재산 조사사업” 결과보고 2011 P. 39-42

36) 허성관 같은 논문 P. 9

이석영은 우리 역사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장 가치 있게 쓰신 분이다. 우리 역사에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다. 목숨을 바치고,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전투에서 장렬하게 산화하신 분들 못지않게 이석영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재산을 독립투쟁에 바친 대가로 스스로 굶주림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비록 인생에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역사에서는 영원히 성공한 삶이다.

4. 우당 이회영의 독립운동

우당은 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4남으로, 1867년 4월에 서울 명례방(현 YWCA)에서 태어났다.

우당은 어려서부터 벼슬에는 관심이 없고 밀려오는 서양의 문물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신학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저동에 있는 이상설의 서재와 남산에 있는 흥업정에서 이상설, 이시영, 여준, 이강연, 이범세, 서만순 등 앞서가는 청년 지식인들과 함께 정치, 경제, 법률, 동·서양사 등 신학문을 연구하였다.

본래 혁신적인 양명학을 배경으로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여 불평등한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려는 개혁주의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 을사늑약 반대 운동-신민회 발족 >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의 음모가 진행되자, 우당은 의정부 참찬 이상설과 함께 참정대신 한규설, 외무대신 박제순, 시종무관 민영환 등을 방문하여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설득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상설, 이상재 등과 협의하여 상동교회 엠틀(Webworth)청년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애국청년들이 경운궁(현 덕수궁) 정문 대한문 앞에서 모여 을사늑약 반대 연좌시위를 주도하였다.

일제의 압력으로 감리교 엠틀청년회가 해체되자, 1905년 상동교회에 상동 청년학원을 개원하고 전국적으로 애국청년들을 모집하여

신학문과 민족의식을 교육하였고, 1907년에는 직접 학감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1906년에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 이동녕, 양기탁선생 등과 함께 최초의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신민회(新民會)를 발족하여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신민회가 1907년 안창호선생 주도로 설립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밀결사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지만 1906년 이동녕선생이 신민회 설립이후 이상설선생의 용정촌 서건서숙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06년 창립설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⁷⁾

< 헤이그 밀사 실패로 무장투쟁론 대두 >

신민회에서는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할 것을 결의하고 우당의 주선으로 고종의 윤험을 받아 이상설을 정사, 이준, 이위종을 부사로 하여 친일파의 감시를 피하여 밀사를 파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헤이그 밀사가 일제의 집요한 방해로 실패로 돌아가고, 이준열사가 현지에서 순국함에 따라 신민회에서는 외교노선을 통한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고, 무장투쟁노선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우당은 1909년 연해주에 망명중인 이상설을 방문, 만주에 해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기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망명계획을 추진하였다.³⁸⁾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사항과 임시정부에 관한 내용은 이미 2장에서 서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그러나 우당은 고종 망명계획을 추진하고, 이어서 일어난 3·1운동을 위한 계획에 참여했으며, 다시 망명하여 임시정부 수립에도 의정원 의원으로 참여하였다.

37) 서영석 신민회의 창립과 상동파의 역사적 위상, 우당학술회의자료 (2011) P. 24

38) 이정규, 이관직, "우당 이회영 약전" 을유문고 263, 을유문화사. 1985, P.33-35

< 아나키즘과 의열투쟁 >

아나키즘은 일본인이 “무정부주의”로 번역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었으나 뜻이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 “자유연합주의”라고 번역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아나키즘이 자연스럽다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나키즘은 강력한 제국주의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 하고, 대외 침략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이를 거부하고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작은 정부를 세워 자유와 평등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정치사상이다.

우당은 1922년부터 북경에서 이을규, 이정규, 유자명 등과 러시아 시인이며 사상가인 아나키스트 에루생코 등과 함께 “행동하는 자유주의” 운동을 시작 하면서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다.

이 운동에는 신채호, 감창숙 등이 참여하고 북경대학의 루원(魯迅), 대만의 범본양(范本梁)과 연대하여 인류의 자유와 평등사상을 추구하였고 1924년에는 이을규, 이정규, 정화암, 백정기 등과 아나키스트 운동의 중심이 될 “재중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고, 기관지 “정의공보”를 발간하였다.

1928년에는 상해에서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일본, 안남 등의 아나키스트들이 주최하는 “동방무정부주의자 대회”에 우당은 “한국의 독립과 무정부주의 운동”이라는 논문을 보내, 이 대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1929년 이을규, 정화암, 백정기, 김종진, 엄순봉 등을 북만주로 파견하여 “재만조선 무정부주의자연맹”을 비밀리에 결성하고, 김좌진 장군이 추진한 “재만한족연합회”를 적극 지원하였다.³⁹⁾

의열단은 김원봉 선생이 1919년에 창설되어 국내외에서 활동하였고, 1924년은 북경을 중심으로 행동조직으로 강화되었고, 우당 선생은 김창숙, 신채호, 유자명 등과 함께 후원하게 되었다.

1931년 만보산사건과 만주사변으로 상해로 철수한 동지들을 규합하여 “남화 한인연맹”을 결성하고 유자명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등 아나키즘사상을 이념으로 한 의열투쟁에 전념하였다.

39) 김명섭 “1920년 초기 북경 한인들의 아나키즘 수용과 운동방략” 우당학술회의자료(2013) P. 33-34

그해 9월에는 정화암, 김성수, 중국인 왕아초(王亞樵), 화균실(華均實), 일본인 전화민(田華民, 일본명 佐野), 오수민(吳秀民, 일본명 伊藤) 등 7인이 상해에서 “항일 구국연맹”을 결성하고, 비밀행동조직 흑색공포단 조직했다. 흑색공포단 천리방, 백정기, 원신창, 이강훈, 유기문 등은 중국국민당 친일 그룹인 왕정위(汪精衛)를 암살하려다 부관 사살, 아모리(廈門) 일본영사관 폭파했고, 1932년 에는 천진 부두에서 일본 군수물자를 적재한 일본 기선을 폭파하고, 천진 일본영사관 에 폭탄을 투척하였다.⁴⁰⁾

한편 우당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자 중국의 항일혁명 부대와 우리 독립군이 협조하여 연합작전을 추진하도록 지도하였다.

한·중 공동작전을 추진하는 중 1932년 요령성민중자위군(遼寧省民衆自衛軍) 총사령 당취오(唐聚五)와 양세봉(梁世奉) 이 지휘하는 조선혁명군 항일부대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려고 잠입하던 중,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대련에서 일본 수상경찰서에 체포 되었다. 당시 대련에는 독립군부대인 동북의용군에서 파견된 김소묵, 김효삼, 양정봉, 문화준 등 동지들이 영접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우당은 일경에게 인계되어 여순감옥으로 이감되고, 고문 끝에 1932년 11월 17일에 순국하셨다.⁴¹⁾

4. 성재 이시영의 독립운동

이시영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경력과 경륜을 가진 분이다.

대한제국에서 평양남도 관찰사와 한성재판소장을 지냈고, 임시정부에는 법무총장과 재무총장을 지내면서 임시정부를 지킨 분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초대 부통령이 되었다. 1910년 6형제가 망명했으나 다른 형제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모두 순국하고 유일한 생존자로 귀국했다.

40) 김영범,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의열투쟁” 우당학술회의 자료(2013년) P. 63-64

41) 황원섭, “우당 이회영의 생애와 독립운동”, 일제 강점과 독립운동 (2018), P. 13

17세 급제하여 세자 교육 담당했고 김홍집의 사위로 고종 및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청일전쟁 당시 고종황제의 지시로 정부대표로 중국 대련에서 직접 전쟁을 관전하고 국제정세를 파악하였다.

을사늑약을 실질적,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이 설득할 때 고종도 반대하지 못했으나, 담당 관리인 이시영은 반대했다. 1905년 11월 17일 어진회의에서 권영현은 황실의 보존을 주장하여 5개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시영은 반대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8일 박제순 외무대신이 서명하자, 책임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고위관리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외교교섭국장을 사임 했다.⁴²⁾

법관양성소 출신 아닌 판사이며 한성재판소장 이었다. 법률 전문가로 임시정부 헌장을 기초하였고,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조직한 독립운동 비밀결사 신민회에도 참여하여 을사늑약 이후 곧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임시정부 수립에서부터 1945년 귀국할 때까지 고수한 유일한 분이다. 조소앙과 신익희는 한 때 이탈했었다. 임시정부 26년 동안 법무와 재무총장을 맡아 임시정부의 법무와 행정관리 체제를 직접 설계한 관료출신의 유일한 전문가였다.

1934년 감시만어(感時漫語)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이 저술된 일차적 동기는 중국의 교육학자 황염배(黃炎培, 1878~1965)가 저술한 『조선(朝鮮)』 때문이다. 『조선』은 당시 중국이 제2의 조선으로 전락될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현실인식에서 중국인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서 1929년 상해에서 간행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이 연구한 자료에 근거하여 저술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의 현실에 대해서 왜곡된 것이 많았다. 이시영은 이러한 『조선』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한 것이다.⁴³⁾

해방공간에서 보면, 1945년 12월 3일 임시정부의 신탁통치 반대

42) 박창화, “성재 이시영 소전” 을유문고 259, 을유문화사, 1984 P.25-34

43) 박창화, 같은 책 P. 76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였다. 12월 31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임시정부 포고문” 발표하여 “미군정은 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라라! 임시정부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고 각 도별, 군별로 면지부 조직을 조직하고, 헌법 초안 및 정부 수립 준비를 선언했다.

그러나 미군정 하지 중장은 포고문 발표 후 ‘임시정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미군정에 도전하는 임정세력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병옥이 하지를 방문하여 전국임정세력이 반발하면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설득하여 중국으로 추방하겠다고 했다. 다음 해 1월 6일, 김구·하지 회답에서 반탁운동은 허용하되 폭력은 불허한다는 성명을 방송을 통하여 발표했다. 미군정은 임정을 경계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임시정부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⁴⁴⁾

1946년 2월 임정에서는 전국 각지 지역대표 196명으로 비상국무회의를 구성하고 의장에 홍순성, 부의장 최동호였다. 미군정에서 이승만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이승만이 의장으로 선출되어, 독립운동의 자문기관으로 기능은 했으나, 국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수립은 좌절되었다.

1947년 9월 이승만을 주석으로 국민회의를 소집하고 과도정부를 추진할 때 친일 성향의 김성수를 국무위원으로 보선하자 이시영은 반대하고 임시정부 국무위원 직을 사직한 임정의 순수성을 고수한 인물이다.

임시정부를 봉환하고 독립단체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임정세력을 주도하여 임정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연결시킨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이다. 김구를 비롯한 임정 세력이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정부 수립을 거부했지만, 이시영은 당시 주변 정세를 볼 때 단독정부 수립이 불가피하고 판단하여 일부 임정세력을 결집하여 1948년 8월에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이 독선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특히 1951년 거창 양민학살과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이승만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44) 박창화, 같은 책, P. 10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유명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부통령을 사임했다.⁴⁵⁾

IV. 우당 6형제의 교훈

< 선조들의 기상을 계승 >

경주 이씨의 고사를 보면 시조 알평공이 신라 건국 이전 양산촌(경주 일대)를 지배하는 여석 고을 연맹체의 촌장이었으나, 신라를 건국할 때 박혁거세를 개국 시조로 추대했으나, 알평공이신라 건국의 아버지라고 한다.

백사 이항복은 임진왜란사를 보면 파당에서 언제나 중립을 지켰고, 국란극복에 민족혼을 뜨겁게 불태운 명신이었다.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키는 패륜을 보고 목숨을 걸고 의롭게 싸우나가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었다.

이세필은 숙종때 남인들이 율곡을 문묘에서 출향시키려 하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 진위로 돌아와 은거생활을 했다.

이 집안의 전통은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고, 불의를 보면 반드시 응징하여 정의를 지키고, 파당에서는 중립을 지키며 중심을 잡았던 가풍이 있다.

우당 6형제도 그런 가풍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 양반이나 사대부들이 일신의 평안을 위하여 친일을 할 때 과감하게 독립운동에 앞장선 것이며, 이기적인 파벌 갈등에서도 중립을 지킨 것이다.

<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 >

우당 6형제는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철두철미한 헌신적인 지도자였다.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45) 박창화, 같은 책 P.111 이 성명서의 키워드는 시위소찬(尸位素餐)이다. 제사지낼 때 시동(尸童)이 하는 일 없이 자리에 앉아 공짜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벼슬아치가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 하고 국록을 받아먹는 분수에 맞지 않는 높은 자리에 앉아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버리고, 생명과 재산을 바쳐 전력투구하여, 진정한 지도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다.

서구의 역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은 프랑스 칼레의 시민대표 6명이 시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자청하는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우당 6형제의 경우는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형제들의 생명과 재산, 가족까지도 바친 경우이다. 우당 6형제와 같이 모든 기득권을 바친 사례는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사례이다.

< 화합과 통합 정신 >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폐습인 감투싸움과 계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 들은 일체의 대표직을 사양한 감투와 명예를 초월한 자세와, 개인의 공로보다는 동지와 주변을 챙기는 품성과, 화합과 통합을 지향하는 진정한 지도자였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우당은 항상 뒤에서 동지들을 지도하고 보살피는 “이면지도자” 라고 불렸다. 우당의 백의중군 정신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시대정신이며, 국민적 인 교훈이라 하겠다.

우당은 임시의정원 위원의 최고령자이기 때문에 의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자신의 화합 가치기준에 따라 이동녕에게 양보했다. 성재 이시영은 1939년 임시정부 주석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거절하고 연부역강한 김구를 내세웠다. 이시영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반발하여 부통령직을 사퇴한 것도 이 집안의 정의를 추구하는 강인한 내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재 선생은 “동서역사에서 국가가 망할 때 나라를 떠난 충신 열사가 수백, 수천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당 일가족처럼 6형제가족 40여명이 한 마음 으로 결의하고 일제히 나라를 떠난 일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장하다! 우당의 형제는 참으로 그 형에 그 동생이라 할 만하다. 6형제의 절의(節義)는 참으로 백세청풍(百世淸風)이 될 것이니, 우리 동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리라.”라고 칭송했다.⁴⁶⁾

V. 결 론

이 발표문의 주제가 “경주이씨 우당 육형제의 가계와 독립운동”이다. 주제 자체가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경주이씨 가문의 가풍과 전통을 살펴 보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배경을 조명하자는 취지에서 구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당 6형제의 집안의 전통을 보면, 선조들의 가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투철한 호국 정신과,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감, 화합과 양보의 정신, 그리고 후진 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발표문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 집안의 호국정신의 뿌리는 백사 이항복에서부터 시작된다. 백사는 임진왜란 때 왜적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했다. 우선 국가의 중심인 선조의 몽진을 수행하면서, 함경도로 피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막았고, 압록강을 건너가려는 월경을 저지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왜군과의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명나라에 가서 원병을 요청하고, 병조판서로 전국을 순회하며 의병을 독려하고 국민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도록 설득하였다.

이러한 백사의 호국정신은 고스라니, 이 집안의 가풍이 되고 내력이 되었다. 1910년 망명 할 때 우당이 임진왜란 때 일본과 혈투한 백사의 항일정신을 이어받아 항일투쟁을 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러한 호국정신의 발로였다.

둘째 불의를 거부하는 강인한 정의감이다.

백사는 1617년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키자, 목숨을 걸고 광해군을 나무라며 의롭게 싸우다가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불귀의 몸이 되었다.

구천 이세필은 1689년 숙종 때 남인들이 울곡 이이를 문묘에서 출향시키려하자 강력히 반대하며 벼슬을 버리고, 고향 지위로 낙향하

여 학문에 열중한다. 복직된 후 1717년 이이명(李頤命)의 횡포와 부당함을 상소하고 관직을 떠나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이시영 부통령이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용에 반대하며 부통령을 사임한 것도 정의를 지키려는 이 집안의 전통적인 가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화합과 양보의 정신이다.

경주이씨 시조 “알평공“은 신라를 건국할 때 가장 지역이 광활하고 물산이 풍부한 양산촌(경주 일원)의 촌장이었지만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박혁거세를 개국시조로 추대했다.⁴⁷⁾ 신라가 건국할 때는 일종의 부족연맹체 체제이고 부족 간의 화합과 단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고의 실력자로서 이면에서 화합을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화합을 위한 양보의 정신은 후손 우당 이회영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대표를 맡지 않고 양보하고 이면에서 화합을 도모하는 자세로 이어진다. 성재 이시영을 1939년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추대하려하자 연부역강한 김구를 내세워 임시 정부를 지킨 것도 화합하고 양보하는 가문의 전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경주이씨 우당 6형제가 독립운동에 일사분란하게 참여한 것은 이와 같은 가문의 전통이며, 같은 유전인자를 가져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이 학술회의는 “평택학”을 정립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평택학”은 평택지방의 차별화된 의미를 찾아서 평택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려는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한 지역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지리적 환경 과 인문적 배경을 고찰한다.

평택은 지리적인 조건에서 볼 때,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넓은 평야를 배경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왔다. 그러므로 평택인들은

47) 상신록 편찬위원회 같은 책 P.85

중심을 지키기 위하여 주인의식을 가져야 했으며, 중심세력이 되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강한 호국의지를 가져야 한다.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가장 격렬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도 자연적, 지리적 환경에게 연유된 평택인의 애국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평택인은 중심세력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유지 발전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평택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지리적인 혜택을 받은 지역이라, 자연스럽게 강인한 국가관과 호국의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자연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다르게 나라를 지키고,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평택학”의 진로나 연구 방향은 이러한 평택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평택인으로서 동질성을 찾는데 많은 비중을 두기를 기대한다. 경주이씨 우당 6형제에 대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평택인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평택학을 정립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석영과 만주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고찰

성 주 현¹⁾

목 차

I. 머리말

II. 이석영의 만주로의 이주과정

III. 만주에서의 이석영과 활동

IV. 맺음말

I. 머리말

“1910.12월 일제의 강제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되자 애국단체인 尙洞青年會의 우국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1907년 新民會를 비밀조직하고 독립운동자 양성과 독립기지를 국외에서 개척하기로 합의된 바에 따라 6형제 50여 가족이 入滿하여 柳河縣 三源堡에 정착하고 耕學社와 新興講習所를 설치 독립군 장교 양성과 국권 회복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家産 6,000여 석을 투입하여 1910년대 초기의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사실이 확인됨.”²⁾

위의 인용문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에 소개하고 있는 이석영의 독립운동 공적 개요의 내용이다.³⁾ 이에 의하면 이석영은 제국일본의 강점 이후 만주로 이주하여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독립운동 자금으로 상당한 재산을 기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석영은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이회영 6형제’의 둘째이지만, 형제 중 이회영과 이시영에 비하여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더욱이 이석영이 평택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회영 6형제’는 한국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집안으로 칭송되고 있다. 이석영은 이회영 6형제 중 둘째로 본관은 경주이다. 이석영을 포함한 이회영 6형제는 평택에서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형제의 본관인 경주이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택시 진위면 동천1리 마을 입구에는 ‘경주이씨 상서공파 세장지’가 있다. 세장지 위쪽에는 상서공파의 파조 李科의 제단과 후손들의 묘역이 있으며, 서쪽에는 재실 동천제가 있다. 인근의 무봉산 서쪽마을 진위면 가곡1리 嘉吾室 입구에도 ‘慶州李氏 阡’⁴⁾이라

2)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홈페이지(<http://e-gonghun.mpva.go.kr/>)

3) 이석영에 대한 연구는 허성관, 「이석영 선생의 독립투쟁과 고뇌」라는 글을 통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 글은 광복 70주년 기념 경기도 학술토론회 제1차 ‘망국의 길 그리고 망명 독립운동과 이석영 선생’(2015년 5월 13일)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는 표석이 있었다.⁵⁾ 경주이씨가 평택에서 세거하기 시작한 것은 백사 이항복의 증손 이세필부터이다.

이석영이 양자로 입적한 이유원은 ‘가오실 대신’⁶⁾으로 불린 바 있는데, 이는 평택 진위면 가곡1리의 가오실 마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면, 이석영 또한 ‘가오실’ 내지 ‘평택’과 전혀 인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석영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할 때 평택의 경주이씨 문중의 대지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 1백주년을 맞아 평택시사신문사에서 「100년의 함성과 만석꾼의 꿈을 찾다」라는 특별기획으로 연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평택과 직접 연고는 없지만 이석영의 본관인 ‘경주이씨의 세장지’, 그리고 ‘가오실’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만주에서의 이석영의 삶에 대하여 추적해 보고자 한다.

Ⅱ. 이석영의 만주로의 이주 과정

이석영은 1855년 저동 중신 이유승의 둘째로 태어났으나 영의정을 지낸 가오실 대신 이유원에게 양자로 입계하였다.⁷⁾ 호는 영석(潁石), 본관은 경주이다. 양자로 입계하지 전까지 이석영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30세가 되면 1885년 가오실 대신 이유원의 양자로 입계하였는데, 이는 당시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석영이 양자로 입적하게 배경은 이유원의 아들 이수영이 1875년 별시 문과에 급제한 후 사망하였기 때문이다.⁸⁾ 당시 80세였던 이유원은 제사를 맡길만한 아들이 있어야 한

4) 이 표지석은 도로공사로 현재 진위면 봉남3리 이세필의 묘 아래로 옮겨져 있다.

5) 「기획특집-100년의 함성과 만석꾼의 꿈을 찾다② 경주이씨 이석영·이회영 집안의 뿌리는 평택」, 『평택시사신문』 1919년 3월 13일.

6) 「영석 이석영씨 상해 객장에서 영면」, 『동아일보』 1934년 2월 28일.

7) 「영석 이석영씨 상해 객창에서 영면」, 『동아일보』 1934년 2월 28일; 「상해 법조계서 이석영옹 장서」, 『조선중앙일보』 1934년 3월 1일.

8) 李秀榮은 풍증이 있었다. 1875년 별시과에 급제하였으며, 待敎를 지내

다는 사회적 관념에 따라 이유원은 아들 사후 10년 후인 1885년 1월 10일 인척인 이유승의 둘째인 이석영을 양자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⁹⁾ 이유원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은 운수가 두텁지 못하여 아직 제사를 맡길 만한 아들이 없는 데 나이는 문득 80세가 가까워 오고 있으니 통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촌 아우인 전(前) 참판(參判) 이유승(李裕承)의 둘째 아들 이석영(李石榮)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 뒷일을 맡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윤리상의 큰 문제입니다. 국조(國朝)의 진신(縉紳) 간에 이미 시행한 예(禮)를 상고하여 보니, 사람을 골라서 지정하여 대를 잇게 하는 것은 비단 옛날에 많이 있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중략)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특별히 불쌍하게 여기는 은택을 베푸시어 자식이 없는 신으로 하여금 자식을 두게 하고 대가 끊어진 것을 이어서 망하지 않게 하여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¹⁰⁾

즉 이유원은 12촌 아우인 이유승의 둘째 아들인 이석영을 아들로 삼아 제사를 맡기면서 대를 잇게 하였다.¹¹⁾ 이유원의 양자로 입적한 이석영은 1885년 9월 증광시 문과에 급제¹²⁾한 후 두 차례 한림의 권점을 받았으며¹³⁾ 1887년 홍문록, 도당록에 추천되었다.¹⁴⁾ 또

고 세상을 떠났다.『매천야록』 1권 上, '이유원의 파양')

9) 이유원은 양손이 있었지만 파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매천야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유원은 아들 사후 양손을 맞이하였으나 그의 나이가 이수영의 처와 네다섯 살 차이밖에 안 되어 모자가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이유원은 고종에게 아뢰기를, "신의 손자가 그의 어머니와 간통하였으니 양손을 파기해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10)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1월 10일.

11) 상소에 대해 고종은 "대를 이은 양자의 나이가 친자식보다 많은 경우에 종(宗)으로 삼고 형으로 삼는 것은 참작하여 변통하고 권도(權道)를 취하는 도리에 진실로 부합되는 것이니, 선유(先儒)와 선정(先正)들은 이미 정론이 있었다. 더구나 경의 선조가 쓴 《예론》이 명백한 증거가 되는 만큼 나이순으로 대를 잇는 계통을 정하는 문제는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12)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9월 15일.

13) 『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3월 24일; 고종 23년 10월 10일.

한 이해 대왕대비 팔순을 축하하는 경과정시 문과의 시관을 맡기도 하였다.¹⁵⁾

1891년 동부승지,¹⁶⁾ 1903년 비서원승,¹⁷⁾ 1904년 장례원 소경¹⁸⁾ 등을 역임하였다. 이외에도 정언, 수찬 등도 역임하였는데, 정언과 수찬은 청요직으로 인품이 강직하고 학문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⁹⁾ 관직으로는 중2품, 칙임관 4등까지 올랐으나 크게 이름을 남기지지는 못하였다. 그가 관직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동학 농민혁명 당시 조선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정세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관직에 무의하게 보내다가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관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즉 1904년 이후 관직에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기려수필』에서는 “公無意進就 遂辭歸不出世”라고 하여 벼슬에 크게 나아갈 뜻이 없어 그만두었다고 한 바 있다.²⁰⁾ 이후 한동안 활동을 보이지 않던 이석영은 규장각 제학 조정희의 장례에 호상인으로 이름을 올렸다.²¹⁾ 그리고 이해 민영휘와 한강에 있는 정자 천일정의 소유권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²²⁾ 그러나 이 천일정사건은 패소하고 말았다.²³⁾

한편 이 시기 이석영은 아들 이규준을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곧바로 이를 수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생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이 남긴 『서간도 시종기』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14)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 7월 23일.

15) 『한성주보』 1887년 4월 11일.

16) 『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 8월 29일.

17)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11월 8일.

18) 『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4월 29일.

19) 허성관, 앞의 논문, 73쪽.

20) 『기려수필』, 「이석영」(19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1) 『황성신문』 1908년 1월 8일.

22) 『황성신문』 1908년 12월 11일.

23) 『황성신문』 1909년 4월 10일.

무신년은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이 되니 얼마나 완고하리오. 학교도 회소하고 남자 아들은 한문이나 가르치고 재력이 넉넉한 가정은 선생이나 두고 글을 가르치는 시대라. 우당장(이회영_필자)이 규룡, 규학, 규봉, 규면, 규촌 다섯 종형제를 식발해 입학시켰더니 둘째 영감(이석영_필자)께서 아우님을 꾸짖으셨다. 우당장은 웃으면서 “형님, 시대가 시시로 변천하니 규준도 입학시켜서 바빠 가르쳐서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처럼 부강해야지요” 영감께서는 아우님 말씀에 신용을 잘하는 지라. 모든 친구들에게도 권하여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사람이 다수이리라.²⁴⁾

이은숙의 회고에 의하면, 이석영은 상당히 완고한 인물이었다. 당시 애국계몽으로 근대적 신식학교가 설립되어 근대학문을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지만, 이석영은 이를 수용하는데 반발하는 입장이었다. 동생 이회영이 자식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형인 이석영의 아들 이규준에게도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석영은 신학문 수용을 처음에는 반발하였지만, 동생 이회영의 설명을 듣고 한 후 이내 이를 인정하고 아들을 신학문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이는 이석영이 본질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지만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 8월 29일 제국일본에 강점 당한 이후 이석영은 독자적으로 민족운동에 적극 나서지는 않았다. 이는 그의 과묵하고 보수적인 성격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동생 이회영이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그의 성격이 때로는 과단성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생 이회영²⁵⁾은 1907년 4월 초 신민회에 가담하였으며, 상동청년

24) 이은숙, 『서간도 시종기』(번역본), 일조각, 2017, 53쪽.

25) 이회영이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이호룡, 「이회영의 아나키스트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삼웅, 『이회영 평전』, 책보세, 2011; 이덕일, 『이회영과 젊은 그들』, 역사이야기, 2009 등을 참조할 것.

학원 학감으로 근무하면서 전덕기, 김진호, 이동녕 등과 함께 비밀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²⁶⁾ 1909년 봄 이회영 등 신민회 간부는 양기탁의 집에서 비밀회의를 갖고 서간도 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무관학교를 설치하기로 하였다.²⁷⁾ 이어 1910년 7월 보름쯤 이동녕, 장유순, 이관직 등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 일대를 시찰하고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 지역을 독립운동기지로 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환인현 횡도천을 임시 거처를 정하고 먼저 이동녕의 친족 이병삼 가족을 이주시켰다.

서간도 시찰을 마친 이회영은 이석영 등 6형제를 소집하여 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만주로 이주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 부동산을 방매하였다. 특히 이석영은 남양주와 평택 일대의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하여 민족운동 자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숙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 시숙 영석장은 우당 둘째 종씨인데, 백부 이유원 댁으로 양자 가셨다. 양가의 재산을 가지고 생가 아우들과 뜻이 합하여서 만여 석 재산과 가옥을 모두 방매하여²⁸⁾

이석영은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방매하여 이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흔쾌히 제공하였다. 『매천야록』에 의하면 이유원은 양주에서 서울로 오는데 남의 땅을 밟지 않아도 될 만큼 광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였다. 더욱이 경주이씨 문중에 있는 평택의 땅도 일부 처분하였다. 당시 기부한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방매한 자금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6형제가 마련한 자금이 모두 40여만 원이었으며 대략 6백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주 이주의 준비를 마친 이석영은 서울을 출발, 1910년 12월 30

26) 이은숙, 앞의 책, 53쪽.

27) 박환, 「이회영의 생애와 민족운동」, 『나라사랑』 104, 외솔회, 2002, 27쪽.

28) 이은숙, 앞의 책, 65쪽.

일 압록강을 건넜다. 이어 이회영 일가도 신의주에 도착하여 몇 시간을 머물다가 새벽에 압록강을 건너 안동현에 도착하였다. 먼저 와 있던 이석영이 이회영 일가를 맞이하였다. 이곳에서 합류한 이석영, 이회영 6형제 일가는 신해년 새해를 맞았으며 1917년 1월 9일 임시 거처인 황도천으로 향하였다. 당시를 이은숙은 아래와 같이 회고하였다.

조국을 이별한 지 일망이 되는데 무정한 광음은 송구영신의 신해년이 되었다. 정월 초 아흐렛날에 임시로 정한 황도촌으로 향하였다. 6형제 식구와 둘째 대, 출가여식의 서랑까지 데리고 와 마차 10여 대를 얻어 일시에 떠났다.

안동현에서 황도천으로 떠난 것은 입춘이 지난 시기였다. 험난한 길을 재촉하는 이회영의 따라 이석영은 황도천으로 향하였다. 당시 고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갈수록 첩첩 산중에 천봉만학은 하늘에 닿은 것 같고 기암괴석 본문의 칼날 같은 사이에 쌓이고 쌓인 백설이 은세계를 이루었다. 험준한 준령이 아니면 강판 얼음이 바위 같이 깔린 데를 마차가 어찌나 기차같이 빠른지 그중에 채찍을 치면 더욱 화살 같이 간다.²⁹⁾

7,8일 만에 황도천에 도착한 이석영은 이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가솔과 함께 이회영의 인솔로 독립운동기지로 정해 놓은 유하현 삼원보로 갔다. 삼원보 일대에는 약 8백호 정도의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³⁰⁾

이처럼 서울을 떠나 만주로 향하는 망명의 길은 이석영에게는 낯선 삶이었으며 고난의 시작이었다. 그동안 안락한 삶을 누려왔던 이석영에게는 안동현에서 황도천으로 가는 길이 훗날 상해 객창에서 영면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민족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

29) 이은숙, 앞의 책, 71쪽.

30) 「三源浦 合泥河地方의 狀況에 관한 건」, 朝憲機 제259호, 1918년 5월 4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Ⅲ. 만주에서의 이석영과 활동

이석영이 이회영과 함께 먼저 삼원보에 온 것은 무엇보다도 독립운동 기지 마련 때문이었다. “장구히 유지도 하고 우리 목적지를 정하여 무관학교를 세워 군사 양성이 더욱 급하다”고 하였듯이,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가 급선무였다. 삼원보에는 이석영, 이회영 일가뿐만 아니라 이석룡, 이동녕, 김창환, 주진수, 윤기섭 등이 있었다.³¹⁾ 이들은 우선 독립운동의 기반인 자치기관을 조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11년 4월 추가가 대고산에서 노천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5개 조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민단적 자치기관의 성격을 띤 경학사를 조직할 것

둘째, 전투적인 도의에 입각한 질서와 풍기를 확립할 것

셋째, 개농주의(皆農主義)에 입각한 생계 방도를 세울 것

넷째, 학교를 설립, 주경야독의 신념을 고취할 것

다섯째, 기성 군인과 군관을 재훈련하여 기간 간부로 삼고, 애국 청년을 수용해 국가의 동량 인재를 육성한다.³²⁾

이 결의에 따라 우선 민단적인 성격을 띤 자치기관으로 경학사³³⁾를 설립하였다. 설립에 앞서 이석영과 이회영 등 6형제와 이상룡, 이동녕, 장유순, 류인식, 이관직, 김창환, 윤기섭, 이규룡, 주진수, 장도순, 이장녕, 이규봉, 여준, 이상설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³⁴⁾ 설립 직후 임원으로는 사장에 이철영, 부사장에 이상룡, 서무

31) 채근식, 「경학사와 신흥학교」,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49, 47-49쪽; 서점영, 「우당 이회영의 민족운동」,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9쪽.

32) 「경학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2989>)

33) 경학사에 대해서는 박영석, 「일제하 재만한인의 독립운동과 민족의식-경학사의 설립 경위와 그 취지서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33, 한국사학회, 1991을 참조할 것.

34) 「경학사 취지서」.

에 김동삼과 이원일, 학무에 이광과 여준, 재무에 이휘립과 김자순, 조사에 황만영과 박건, 조직에 주진수와 김창무, 외무에 송덕규와 정선백 등이 선임되었다.

경학사의 설립 목적은 병농제(兵農制)를 채택하여 근로정신에 입각, 학술을 연마하고 구국 인재를 양성하여 무장항일투쟁을 전개하는 데 두었다. 그리하여 먼저 황무지를 개간하여 독립운동기지를 마련하고, 부설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설립, 구국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경학사는 설립 목적에 따라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석영, 이회영, 이관직, 윤기섭, 이상룡 등이 발기하여 부설기관으로 1913년 5월 14일(음) 개교하였다.³⁵⁾

그런데 한인 자치기관으로 설립한 경학사와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흥강습소 개교에 재정을 담당한 이는 이석영이었다.³⁶⁾

35) 신흥강습소는 일반적으로 '신흥무관학교'로 알려져 있다. 설립 당시 명칭은 '신흥학교(新興塾)'였으나, '신흥강습소', '신흥중학'이라고 불렸다.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연구는 이현희, 「신흥무관학교 연구」, 『동양학』 1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9;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 민족운동사 연구』, 일조각, 1991; 박환,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새로운 사료와 졸업생들의 민족운동」,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서중석,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 : 신흥무관학교와 백서농장에서 독립군 양성」,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2000; 서중석, 「후기 新興武官學校」, 『역사학보』 169, 역사학회, 200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서중석, 「이회영의 교육운동과 독립군 양성」, 『나라사랑』 104, 외솔회, 2002 등이 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회고록으로는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이 참고가 되고 있다.

36) 『韓民』 3호(1936년 5월 25일)에 의하면 이석영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 있다.

“李東寧氏를 西間島로 보내여 地點을 選擇하게 하였는데 이 使命을 맡은 李東寧氏는 庚戌年 7月(바로 合併되기 前)에 떠나 西間島 桓仁縣等地를 視察하고 도라와 報告하였다. 이때는 벌써 合併이 된 뒤임으로 急急히 同志를 移任시키기로 決定하고 爲先 根據地設定에 要할 資金을 내 노을 사람을 求하였는데 同志 中 李會榮氏와 그의 季氏 李始榮氏의 紹介와 勸告로 그의 仲氏 李石榮氏의 同意를 얻었다. 그네 羣 兄弟 中에는 李石榮氏가 財産이 있었는데 그는 일즉 科擧하고 仕路에 단니다가 國事가 글러짐을 보고 掛冠隱退하여 鬱憤이 지내던 터임으로 곳 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석영은 만주로 이주하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을 방매 즉 처분한 바 있는데, 이 처분한 돈을 경학사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신흥강습소 개교와 운영 자금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신흥강습소와 관련하여 이은숙은 다음과 같이 『서간도 시종기』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영감께서는 항상 청년들의 학교가 없어 염려하시다가 토지를 사신 후에 급한 게 학교라. 춘분 후에는 학교 건설에 착수하게 선언하시고 지단(地團) 여러 천 평을 내놓으시고 시랑까지 부담하시교³⁷⁾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석영은 한인사회 청년들의 교육기관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으며, 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학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운영 경비도 부담하였다. 이러한 이석영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석영은 신흥강습소의 교주가 되었다.³⁸⁾

이석영은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운영 경비 외에도 당시 함께 민족운동에 투신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즉 “여러 형제분은 자리를 못 잡은 모모 동지들께도 5칸 방자에 1년 지낼 땅과 1년 농사지를 시랑까지도 주어 안전하게 하셨다. 그 외의 농군 방청으로 조선서 땅 사고 소작 주면 가을에 도조 가져오듯 하는 건 외방청이고, 내방청은 일꾼 두고 자농하면 일꾼 식구는 다 먹이고 가을에 3분의 1은 일꾼의 샅용으로 주는 것이니, 우리 동포를 구하는 것이다. 세상에 우리 시속 같으신 분은 금세에 없으

諾하고 全 財産을 傾하여 7兄弟의 全 家族을 다리고 西間島로 移住하기로 決定하였다.”(『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5(한국국민당 I), 국사편찬위원회, 2009, 197쪽)

37) 이은숙, 앞의 책, 81쪽. 일본의 정보문서에도 이석영이 신흥강습소 설립에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李始榮一族ノ動靜ニ關スル件 (諜報)」, 朝憲機第五一號, 大正八年二月一日, 秘受一二九六號;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8) 이은숙, 앞의 책, 82쪽; 서중석, 「이회영의 교육운동과 독립군 양성」, 『나라사랑』 104, 91쪽.

신 분이지만 어느 누가 알리오”³⁹⁾라고 하여, 한인사회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이석영의 역할은 안정된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삼원보 추가가에 설립된 신흥강습소는 1912년 6월 통화현 합니하로 이전하여 신흥중학으로 개칭하였으며, 1919년 3월 5일 유하현 고산자 대두자로 이전하여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⁰⁾ 그리고 이석영이 참여한 경학사는 1912년 부민단으로 계승되었다. 합니하에 이전하여 개교한 신흥중학 역시 이석영의 후원이 절대적이었다. 원병상이 남긴 <신흥무관학교>에 의하면, 신흥중학 교사 건축 과정에서 이석영이 재정을 부담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1913년 봄에 학교가 이전된 뒤 황림 초원에 수만 평의 연병장과 수십 간의 내무실 내부 공사는 전부 생도들 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삽과 괭이로 고원 지대를 평지로 만들어야 했고, 내왕 20리나 되는 좁은 산길을 오가면서 험한 산턱 돌산을 파 어깨와 등으로 날라야만 하는 중노역이었지만, 우리는 힘 드는 줄을 몰랐고, 오히려 원기왕성하게 청년의 노래로 기백을 높이면서 진행시켰다. 이 교사 건축 공사에는 전기 이석영 선생의 재력과 생도들의 총력적인 노력 봉사가 절대적인 힘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 교사 앞 45도로 기울어진 경사 언덕 아래 인접되어 있는 이석영 선생 댁에서는 고국에서 단신 탈주해오는 돈 없는 생도들에게 다년간 침식 제공도 아끼지 않았고, 학교 유지에도 정신적 물질적으로 그 뜻이 지극히 크고 높았었다.

39) 이은숙, 앞의 책, 81쪽.

40) 조동걸, 「백하 김대략의 망명일기(1911~1913)」, 『한국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지식산업사, 2001, 210쪽; 박영석,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3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63쪽;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 공보처, 1948, 52쪽. 학계에서는 채근식의 저술을 근거로 1919년 5월 3일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했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논거, 즉 신뢰할 만한 1차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회영은 '신흥무관학교', 부인 이은숙은 '무관학교'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신흥무관학교'라고 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즉 함니하의 신흥중학은 이석영의 재정 후원과 학생들의 노력봉사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학교 유지에도 이석영의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그의 지원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국민당 기관지 『한민』에서도 「이석영의 공」이라는 글을 통해 신흥강습소의 설립 과정에서 이석영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西間島 移住의 先進者 - 其中에도 新興學校의 唯一한 功勞者가 李石榮 氏인 것을 아는 이가 매우 드문 듯하다. 그의 功을 可히 알만한 이들도 그의 功을 世上에 公布치 않는 것 같다. 그는 累巨萬의 財産 全部를 가져다가 移住同胞 接濟에와 新興學校 經營에 全部 蕩盡하고 말았다. 그는 本來 國內에서 累代 簪纓巨族으로 豪華로운 生活을 하다가 亡國의 恨을 품고 故國을 떠나 異域에 와서 財産 全部를 없시 하고 나중에는 지극히 困窮한 生活을 하면서도 一毫의 怨聲이나 後悔의 氣色이 없고 泰然하여 長者의 風이 있었을 뿐이다. 末년에 飢寒에 쫓리다가 2年 前 上海 一隅에서 無異於 굶어 도라가 시다싶이 되신 이가 것처럼 功勞 만흔 李石榮 氏인 줄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되는지? 또 今年 5月 11日 上海 그의 죽자 집에서 亦是 可憐한 身勢로 도라가신 이가 그의 家長을 따라 西間島에 와서 榮貴하든 몸으로써 親手로 獨立軍의 밥을 지어 먹이고 옷을 지어 뉘이든 李石榮氏의 夫人인 것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되는가.⁴¹⁾

위의 글은 이석영 사후 그에 대한 공적을 기리면서, 서간도 한인 사회와 신흥강습소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석영은 만주로 건너와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인용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국에서 단신 탈주해오는 돈 없는 생도들에게 다

41) 「이석영의 공」, 『한민』 3, 1936년 5월 25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5(한국국민당 I), 국사편찬위원회, 2009, 198쪽.

년간 침식 제공도 아끼지 않았고”라고 하여, 경제적 지원으로 민족 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한용운이 만주에 머물 때도 지원하기도 하였다.

만주를 오고 싶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와야지 생명이 위태하지 않은 법인데, 하루는 조선서 신사 같은 분이 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다정히 한다. 수삭을 유하며 행동은 과히 수상치는 아니하나, 고생 없이 온 본이라 안심은 못했다. 하루는 그 분이 우당장께 자기가 회환 하겠는데, 여비가 부족이라고 걱정을 하니, 둘째 영감께 여쭙어 30 원을 주며 무사히 회환하라고 작별했다.⁴²⁾

인용문의 ‘신사 같은 분’은 한용운으로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명하였는데, 만주에 머물면서 이석영에게 신세를 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³⁾ 동생 이철영의 생일 때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추운데 어린 것 데리고 더 머물다 가라”⁴⁴⁾ 하고, 또 “둘째 댁에서 쌀도 보내주고 혹 육종도 보내지만 어찌 이루 보내리오”⁴⁵⁾ “양식이 떨어지면 둘째 댁에서 자루강냉이 두 부대를 보낸다”⁴⁶⁾ 등 고된 망명생활의 친지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베풀었다.

이처럼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던 이석영의 망명생활은 순탄하지는 않았다. 이석영이 정착한 추가가는 삼원보에서 5キロ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한촌이다. 삼원보는 지금도 조선족이 많이 생활하고 있어 조선족향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에서 이석영 등 일가는 3칸 구조의 집을 얻어 생활하였다. 추가가는 역시 칩칩 산중으로 농사는 주로 강냉이나 좁쌀, 콩, 팥을 재배하였으며, 쌀을 구하려면 2, 3백이 떨어져 있는 삼원보 시장에서야 구할 수 있었다. 쌀이 귀한 곳이다 보니 아이들끼리 ‘종다밥’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추가

42) 이은숙, 앞의 책, 85~86쪽.

43) 이은숙, 앞의 책, 84쪽.

44) 이은숙, 앞의 책, 94쪽.

45) 이은숙, 앞의 책, 97쪽.

46) 이은숙, 앞의 책, 101쪽.

가의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현지 중국인들은 이석영·이회영 일가를 제국일본의 침략의 앞잡이로 오해하였다. 또한 1913년 10월 20일 마적에게 납치되기도 하였다. 납치당할 때 신흥강습소 학생 두 명도 같이 납치되었는데, ‘만주왕’이라는 호칭을 받고 무사히 돌아오기도 하였다.⁴⁷⁾ 이처럼 만주에서 고난의 망명생활은 1925년 천진으로 이거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이석영의 만주 이주과정과 만주에서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석영은 1855년 이유승의 둘째로 태어났지만, 늦은 나이인 30세에 인척 이유원의 양자로 입적하였다. 그가 입적하게 된 배경은 이유원의 양손이 파양됨에 따라 대를 잇고 제사를 받들기 위함이었다. 이유원은 당시 ‘조선의 10대 부자의 한 사람’으로 불릴 정도로 재력가였다. 양자 입적 이후 과거에 급제한 이석영은 청요직 등을 역임하였지만,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보면서 관직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하였지만 동생 이회영이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를 지원하는 한편 이회영 등 6형제의 결의에 따라 민족운동 대열에 참여하였다.

이석영은 제국일본의 강점 이후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이회영 등 6형제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이주하였고, 한인자치 단체인 경학사 조직과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 설립과 유지에 자신의 재산을 쾌척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활동하는 민족운동가와 신흥강습소 학생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

47) 이은숙, 앞의 책, 95~96쪽. “만주인들은 영석장 존경하기를 ‘만주왕’이라고까지 명칭하였는데, 저의 나라가 문명치 못하여 도적들이 사면으로 횡행하여 영석장을 모셔갔다 하니, 저희 군대에서 이를 미안하게 생각하여 당황히 백여 명 군대가 출동하였다. 대장이 둘째 댁까지 와서 사과하고”

끼지 않았다.

1911년 압록강을 건너 만주에 이주하여 1925년 중국 관내인 천진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만주에서의 망명생활은 이석영에게는 기존의 안락한 삶과는 전혀 다른 고난의 삶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겪은 고난의 삶은 바로 민족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전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석영은 무장투쟁 등 직접 민족운동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정신적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공로로 이석영은 1991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애족장의 서훈을 받은 바 있다.

이석영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아직도 일천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가 남겨놓은 글이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한계이기도 하다. 또한 평택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이씨 세장지’와 ‘가오실’이라는 것이 평택과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그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본 글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경주이씨 육형제와 평택지역

김 해 규¹⁾

목 차

- I. 머리말
- II. 경주이씨 백사공파 가계(家系)와 평택 입향
- III. 조선후기 이세필 계열의 정치활동과 분동(分洞)
- IV. 이석영의 독립운동자금 조성과 평택지역
- V. 맺음말

1) 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I. 머리말

국권상실의 민족적 위기에서 우당 이회영 일가, 다시 말해서 경주 이씨 백사공파 후손들의 독립운동은 만인의 귀감이다. 이석영, 이회영을 비롯한 이유승의 아들 6형제는 국권상실의 위기에서 삼한 갑족이라는 기독교와 억만금의 재산을 처분하고 서간도 삼원포로 목숨을 건 망명을 했으며 독립투쟁에 전 재산과 목숨까지 바쳤다.

그동안 이유승의 아들 6형제들의 독립운동은 학계나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²⁾ 연구 성과도 많았다. 하지만 이들 6형제의 독립운동연구는 우당 이회영과 손아래 동생 성재 이시영의 독립운동³⁾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자금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 받았을 뿐 이석영을 비롯한 나머지 4형제와 후손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또 독립운동자금 조성과 밀접히 관련 있는 6형제의 거주지 및 이유원의 거주지와 재산에 대한 이해도 중구 저동 저택과 이석영이 상속받은 남양주 천마산 일대의 재산에만 국한되어 이해했을 뿐, 그들의 고향인 경기도 평택지역과 평택시 진위면 일대의 재산에 대한 이해는 전무했다.

다행인 것은 근래 독립운동자금 조성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이석영에 대한 관심과 연구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19년에는 경

- 2) 이명영, <국운과 인간운명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제26권, 성균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 한상복, <독립운동 가문의 사회적 배경>,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한상복, <이회영과 그 일가의 독립운동>, 《나라사랑》제104집, 외솔회, 2002 ; 박성환, <우당 이회영의 애국활동과 기독교사상, 협성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환, <이회영의 생애와 민족운동>, 《나라사랑》제104집, 외솔회, 2002 ; 전택부, <우당선생과 상동교회를 통한 독립운동>, 《나라사랑》제104집, 외솔회, 2002 ; 정옥재, <독립운동가로서의 이회영과 이시영>, 《나라사랑》제104집, 외솔회, 2002 외 다수
- 3) 김희곤, <성재 이시영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백범과 민족운동연구》제9집, 백범학술원, 2012 ;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40집, 독립기념관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 4) 허성관, <이석영 선생의 독립투쟁과 고뇌>, 《광복70주년기념 제1차 경

기도 남양주지와 평택시에서 이석영 관련 뮤지컬을 공연하고 한국과 중국 현지답사를 통해 신문연재를 했으며 몇몇 학술대회에서 관련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본 논문은 이회영 일가의 뿌리인 경주 이씨 백사공파와 평택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평택지역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경주 이씨 백사공파의 입향과정과 후손들의 정치·사회활동을 살필 것이며, 그것이 이유승, 이유원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유승의 아들 6형제의 독립운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Ⅱ. 경주이씨 백사공파 가계(家系)와 평택 입향

평택시 진위면 일대는 경주이씨 상서공파의 세계(世系)다. 경주이씨는 조선후기 소론(小論) 계통으로 분류되지만 문과급제자 176명을 배출했고 다수의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다. 상서공파 중에는 ‘오신집’을 명문가로 꼽는데 그 가운데 백사 이항복 집안인 ‘백사집’이 가장 번창했다. 백사집은 백사공파 또는 백사문충공파로 분류된다. 백사공파는 조선후기에만 영의정 4명, 좌의정 2명, 대제학 2명을 배출했고 다수의 과거급제자를 배출하여 성가를 올렸다.⁵⁾

평택시 진위면 무봉산과 태봉산 일대에는 경주이씨 상서공파 집성촌과 유희가 다수 분포되었다. 또 진위면 동천1리 마을 입구와 가곡1리, 봉남3리 병풍산, 무봉산 기슭에는 ‘경주이씨 상서공파 세장지’가 있다. 동천리 세장지 가장 위쪽에는 상서공파의 파조(派祖) 이과(李過)를 모신 제단과 후손들의 묘가 있으며 우측에는 동천재라는 재실이 있다. 동천1리 북쪽 산기슭에는 이항복의 고조부 이연손과 영조 대 영의정을 지낸 윤곡 이광좌의 묘가 있다. 2018년까지

기도학술토론회 논문집》, 경기연구원, 2015

5) 경주이씨 중앙 화수회 홈페이지(<http://www.gjlee.org/>) 백사공파에서는 증직을 포함하여 11명의 정승을 배출한 것을 기념하여 ‘상신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만 해도 진위면 가곡1리 입구에는 ‘경주 이씨 천(阡)’이라고 새긴 표석이 서있었다. 또 마을 안에는 이세필의 둘째 아들 이정좌와 이우원의 조부인 이계조의 묘 그리고 경주 이씨 재실이 있다. 진위면 봉남 3리에는 구천 이세필의 묘와 신도비, 후손들의 묘역이 있다. 진위면 마산2리 수촌에도 묘역과 재실이 있으며, 지산동 동막마을에도 경주 이씨 백사공파의 유허가 남아 있다.

진위면 동천1리 경주 이씨 묘역 입구에는 ‘경주이씨 상서공파 유래비(由來碑)’가 있다. 유래비에 따르면 경주 이씨 상서공파 평택 입향조는 조선 초 전농시관관을 지낸 이승(李昇)이다.⁶⁾ 이승(李昇)은 대제학을 지낸 최양의 딸과 혼인했고 세조의 장인 윤번과도 사돈 간이었다. 이승의 아들은 동천1리 북쪽 산록에 묘가 있는 공조 참판 이연손이다.



〈사진 1〉 진위면 동천리 경주 이씨 묘역



〈사진 2〉 진위면 가곡1리 입구 표석

이연손의 아들은 승손이며 이승손의 아들은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승수다. 이승수의 아들로 안동판관을 지낸 이성무는 모두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셋째가 예신이다. 이씨 가문에 전해오기로 이성무는 안동판관에 부임하러 가던 중 진위면 인근에서 만장

6) 전 농림부 차관을 지낸 후손 이창우(2004년 인터뷰)씨는 이승 때 입향했지만 본격적으로 세거한 것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갔다 돌아온 이수종부터라고 주장한 반면,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금현3리에 거주하는 후손 이한우(2019년 2월 인터뷰)씨는 이승 때부터 동천리에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이 날아갔는데 떨어진 곳이 길지(吉地)임을 알고 사후에 묻어줄 것을 유언했다. 사후 후손들이 유언한 길지에 묘를 썼는데 그곳이 진위면 마산2리 수촌이다. 수촌에는 본래 이성무의 묘가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며 실전되었다. 나중에 후손들이 묘비(墓碑)와 묘자리를 발견했는데 온통 검은빛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거먹비 산소’라고 부른다. 지금도 이성무의 묘는 진위면 마산2리 수촌에 있다. 묘(墓) 주위에는 후손들의 묘(墓)가 있고 근래에 조성한 재실도 있다.

(17세)이 과(李 邁) : 상서, 상서공파의 파조(派祖)
(18세)이원보(李元普) : 지주사
(19세)이 승(李 昇) : 전농관관
(20세)이연손(李延孫) : 공조참판
(21세)이승수(李崇壽) : 첨지중추부사
(22세)이성무(李成茂) : 안동관관-①인신(仁臣) ②의신(義臣) ③예신(禮臣) ④지신(智臣) ⑤신신(信臣) ⑥정신(貞臣)
(23세-③)이예신(李禮臣) : 진사-①몽윤(夢尹) ②몽량(夢亮)
(24세-②)이몽량(李夢亮) : 우참찬, 정헌공-①운복(雲福) ②산복(山福) ③송복(松福) ④항복(恒福) ⑤경복(鏡福) ⑥다복(多福)
(25세-④)이항복(李恒福) : 영의정, 문충공, 권율의 사위- ①성남(星男) ②정남(井男) ③규남(奎男) ④기남(箕男)
※참고 : 경주 이씨 중앙화수회 홈페이지

〈표 1〉 경주 이씨 상서공파 계보

Ⅲ. 조선후기 이세필 계열의 정치활동과 분동(分洞)

이성무의 3남은 예신이다. 이예신은 경기도 포천에 정착했다. 가문에 전해오기로는 포천의 팍씨 택에 훈장으로 갔다가 그곳에 눌러 앉았다고 한다.⁷⁾ 이예신의 슬하에는 몽윤과 몽량 두 아들이 있

7) 포천군 가산면 금현3리 경주 이씨 백사공파 종친 이한우(2019년 2월

었다. 그 중 둘째 몽량의 넷째 아들이 백사 이항복(1556~1618)이다. 이항복은 권율의 딸과 결혼하여 성남과 정남, 규남, 기남 네 아들을 두었다. 이 가운데 이조판서를 지낸 이성남은 공주 목사를 지낸 이시현과 홍주 목사를 지낸 이세구를 아들과 손자로 두었고, 이세구의 아들은 경중, 영조 연간에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에 오른 이광좌다.⁸⁾ 이광좌는 진위면 동천리 경주 이씨 상서공파 묘역을 정비했고⁹⁾ 사후 무봉산 기슭 이연손의 묘 옆에 묻혔다.

둘째 이정남의 후손은 이조참판을 지낸 이시술이다. 이시술은 세장과 세필을 아들로 두었다. 이 가운데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세필(1642~1718)은 학행(學行)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형조좌랑, 용인현감, 진위현령을 거쳐 삭녕군수를 지냈다. 1674년(현종 15) 갑인예송으로 송시열(宋時烈)이 삭직 당하자 이를 적극 옹호하다가 5년 간 유배당했다. 1689년 기사환국 때는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묘출향(文廟黜享)에 반대했으며 이 때 관직을 버리고 진위(振威)로 낙향했다. 이세필은 어려서는 재질이 뛰어나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며, 지방관으로 나가서는 선정을 베풀어 칭송받았다.¹⁰⁾ 특히 강원도 삼척부사로 재임할 때는 교육이 부실함을 한탄하고 사비(私費)를 털어 서당을 마련했고 학생들이 지켜야 할 21조의 규칙을 만들어 벽에 걸었다. 이세필의 선정(善政)에 감동한 학생들은 뒤에 용산서원을 건립하여 배향했고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썼다.¹¹⁾

낙향 후 이세필이 처음 정착한 곳은 진위면 봉남1리 향교말이다. 그러다가 말년에 봉남3리 아곡마을로 이거(移居)했는데¹²⁾, 그것은 봉남3리를 비롯해서 무봉산과 병풍산 일대가 경주 이씨 상서공파

13일 인터뷰)

- 8) 이광좌의 묘는 진위면 동천1리 이연손의 묘 옆에 있다.
- 9) 이태좌는 6촌 동생인 영의정 이광좌와 함께 동천리 경주 이씨 묘역도 조성했다. 입향조인 이승과 부인 전주 최씨의 묘비 후면에는 당시 묘역을 정비하고 묘비를 건립한 이광좌, 이태좌의 이름이 새겨졌다.
- 10)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http://people.aks.ac.kr>)
- 11) 『강원일보』2018년 4월 19일 자
- 12) 이세필의 이거 동기에 관해서는 객관적 사료가 없다. 다만 그의 아호가 진위천에서 봉남3리로 들어가는 지류 구천(龜川)이었던 것을 보면 말년에는 봉남3리에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 사패지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세필은 1694년 갑술옥사 뒤 김재군수, 사복시정, 장악원정 등의 관직에 나아갔지만 그 뒤로는 나라에서 불렀어도 응하지 않고 학문연구에만 전념했다. 학문적으로는 『대학』을 깊이 공부했으며 예학(禮學)을 연구하여 「논변경설」, 「답문의례」, 「왕조례」, 「동호예설」 등 20여 권을 저술했다. 문집으로는 『구천유고』가 있으며 사후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이세필은 태좌, 정좌, 형좌, 경좌 네 아들을 두었다. 그 가운데 큰 아들 태좌와 손자 중성이 크게 현달했다. 이태좌(1660~1739)는 진위면 봉남리 아곡마을에서 태어났다. 아호가 ‘아곡’인 것도 아곡 마을과의 관계를 알게 한다. 이태좌는 39세 늦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삼사의 요직과 6조의 판서를 두루 거쳤으며 영조 초 좌의정에 올랐다. 『실록』에 따르면 이태좌는 사람됨이 중후하고 근신하며 남과 거스르지 않아서 세간의 평이 좋았다고 평가받았다. 또 사후에도 국가에서 두 차례나 치제문(致祭文)을 내리고 제사를 지내줄 정도로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중성은 이태좌의 장남이다. 어려서부터 이광좌에게 배웠으며 문재(文才)가 뛰어났다. 1727년 증광 별시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삼사와 6조의 요직을 두루 거쳐 1752년(영조28) 영의정에 올랐다. 사후 ‘문사(文詞)가 섬민(贍敏)하고 강명하였다’¹³⁾는 평가를 받았다. 이유원이 찬(撰)한 이중성의 신도비문(神道碑文)에는 1759년(영조 35)에 서울 회동(會洞)에서 졸했으며 풍덕 작곡(鵲谷)에 장사지냈다고 기록했다. 회동(會洞)은 남산 아래의 회현동을 말하며, 풍덕은 개풍군의 옛 이름이다. 그렇다면 이태좌, 이중성의 서울 집이 회동(會洞, 중구 회현동)에 있었다는 말이고, 같은 시기에 개풍군과 장단 일대에도 장토를 마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사공과 계보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세필의 둘째 이정좌(李鼎佐, 1663~1726)다. 이정좌는 과거에 수차례 낙방한 뒤 문음(文蔭)으로 관직에 나갔다. 사직서 참봉을 시작으로 금천군수, 선산

13) 『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1월 12일(1759) 갑오 3번째 기사

부사를 지냈고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¹⁴⁾ 그는 당대에는 크게 현달하지 못했지만 증손 석규¹⁵⁾와 현손 계조가 연달아 판서에 올랐고 5대손 이유원은 고종 때 영의정에 올라 가문을 크게 빛냈다. 이정좌의 묘와 이계조의 묘는 평택시 진위면 가곡1리에 있으며 묘역 아래에는 이정좌 계열의 재실도 남아 있다. 이석규와 이유원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에 있다. 주민들의 구전에 따르면 이석규의 묘는 본래 진위면 가곡1리에 있었는데 이유원이 천하의 명당을 구하고 조부의 묘를 이장(移葬)했기 때문에 남양주에 있게 되었다고 한다. 위의 사실로 판단할 때 진위면 가곡1리 일대는 이정좌와 후손들의 세거지(世居地)였으며 이유원 때 남양주에 장토(庄土)를 마련하고 조부의 묘(墓)를 이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세필 이후 백사공파의 계보다.

●(28세)이세필(李世弼) : 형조참판

(29세-①)이태좌(李台佐) : 좌의정, 충정공

(30세-①)이종성(李宗城) : 영의정, 문충공

(31세)이경륜(李敬倫)

(32세)이정규(李廷奎)

(33세)이계선(李啓善)

(34세)이유승(李裕承) : 우찬성, ①건영(健榮) ②석영(石榮, 이유원에게 출계)

③철영(哲榮) ④회영(會榮) ⑤시영(始榮) ⑥호영(護榮)

●(29세-②)이정좌(李鼎佐)

(30세)이종주(李宗周)

(31세)이경관(李敬寬) : 생부 이종철(李宗喆)

(32세)이석규(李錫奎) : 이조판서, 효정공

14)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http://people.aks.ac.kr>)

15) 이조판서를 지낸 이석규는 호가 동천(棟泉)으로 경주 이씨 상서공파의 세거지였던 진위면 동천1리(동천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3세)이계조(李啓朝) : 이조판서, 문정공

(34세)이유원(李裕元) : 영의정, 충문공

(35세)이석영(생부 이유승), 이수영

※참조 : 경주 이씨 중앙화수회 홈페이지

〈표 2〉 백사공파 이세필의 계보

IV. 이석영의 독립운동자금 조성과정과 평택지역

이회영 형제의 독립운동은 한국독립운동사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 형제가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이회영 일가의 독립운동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회영과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독립운동자금 대부분을 제공했고 신흥무관학교(신흥강습소) 건립 초기 교주(校主, 이사장)를 지낸 이석영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또 독립운동자금 조성과정에서도 중구 저동의 저택과 이유원이 상속한 남양주의 땅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이들의 고향인 평택시 진위면 일대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이 단원에서는 이석영의 남양주 땅의 실체와 평택시 진위면 일대 땅의 매각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말기 우찬성을 지낸 이유승의 저택은 서울 중구 저동에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동성당 앞 로얄호텔과 YWCA 일대다. 이유승에게는 모두 여섯 아들이 있었다. 여섯 아들 가운데 둘째 석영과 다섯째 시영은 심지가 끈고 학문에 뛰어났으며, 넷째 회영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실천력이 남달랐다. 이석영(1855~1934)과 이시영(1868~1953)은 학문에 힘써 문과에 급제한 뒤 관료에 들었다.¹⁶⁾ 『문과방목』에는 이석영은 31세인 고종 22년(1885년)¹⁷⁾, 이시영은

16) 허성관, 「이석영선생의 독립투쟁과 고뇌」, 광복70주년기념 제1차 경기도학술토론회, 2015

17) 『문과방목』, [문과] 고종(高宗) 22년(1885) 을유(乙酉) 증광시(增廣試) 병

23세였던 고종 28년(1891년)에 문과에 급제했다고 기록되었다. 또 관직생활은 순탄해서 이석영은 승정원 좌부승지와 우승지를 거쳐 종2품 호조참판에 올랐으며, 이시영도 동부승지를 거쳐 평안도 관찰사, 대한제국 외무교섭국장, 한성재판소수반판사를 지냈다. 이석영은 전통적 성리학자의 풍모를 갖췄다면, 젊어서 양명학을 접했고 성품이 호방했던 이회영은 제국주의 침략과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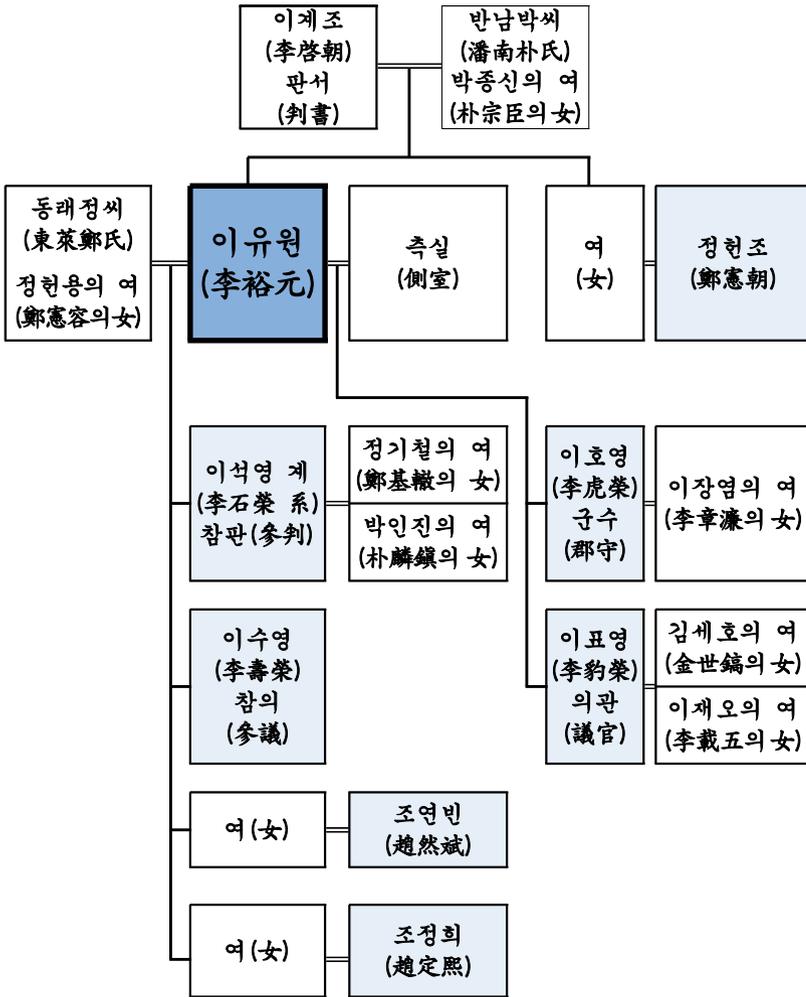
이석영의 독립운동자금 형성과정을 알려면 그의 양부 곽산 이유원과의 관계형성 및 이유원의 재산형성과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유원과의 관계 형성과정을 살펴보자. 앞서 밝혔듯이 곽산 이유원(1814~1888)가 이정좌의 후손이다. 그의 가계(家系)는 조부 이석규와 부친 이계조가 판서를 지냈을 만큼 유력했다. 25세에 문과(文科)에 급제했으며 병조참의, 의주부윤, 함경도 관찰사, 도승지를 거쳐 흥선대원군 집권 후 좌의정에 오를 만큼 관직생활도 순탄했다. 또 청나라에 사신으로 오가며 사무역(私貿易)으로 재산을 일궈 흥선대원군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남양주 일대에 별서(別墅)와 수백만평의 전답을 마련했다. 한때 흥선대원군과의 갈등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고종이 친정(親政)하며 영의정에 올랐고 개항 후 열강에 대한 문호개방과 제물포조약체결, 각종 편찬사업에도 앞장섰다.

이유원에게는 정실부인에게서 수영(1858~1880)과 두 딸을 낳았고 측실에게서 호영과 표영 형제를 얻었다. 이수영은 17세 약관으로 대과에 급제하여¹⁸⁾ 23세에 정3품 이조참의에 오를만큼 출중했다. 하지만 1880년 수영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요절하면서 양자를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다음은 이유원의 가계(家系)다.

과(丙科) 31위(41/46)

선발인원 46명 [甲3·乙7·丙36]

18)『문과방목』, [문과] 고종(高宗) 11년(1874) 갑술(甲戌) 정시(庭試) 병과(丙科) 7위(10/11)



〈표 3〉 이유원의 가계(家系)¹⁹⁾

이유원은 12촌간이었던 이유승의 둘째 석영을 양자로 들이려고 했다. 당시 이석영의 나이는 양자로 들이기에 늦은 31세여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유원은 고종에게 ‘이석영을 후사로 세우게 해

19) 이유원, 『가오고략(嘉梧藁略)』, 1871년

달라'고 간청했다.²⁰⁾ 결국 고종의 중재로 1885년 1월 이석영은 이유원의 양자로 들어갔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대과에 급제했다. 이유원은 이석영을 양자로 들이며 구천 이세필의 예론(禮論)에 따라 양자(養子)일지라도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에 따라 연장자인 이석영이 장자(長子)로 정동의 99칸 집과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의 별서와 전답, 그리고 이정좌로부터 전승된 평택시 진위면 가곡1리 일대를 상속받게 되었으며 이수영은 차자(次子)가 되었다.

독립운동자금 형성과정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천마산 일대의 장토(庄土)는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당시 매입과정을 비롯해서 매각 과정이나 정확한 면적과 금액도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2013년 왕현중은 광무양안을 분석하여 이석영의 남양주 재산이 전답만 최대 90만평이었고 임야 161만평을 포함하여 약 250만평이었다고 밝혔다.²¹⁾ 이유원이 남양주에 장토를 마련한 시기는 대략 이석규의 묘를 이장한 1855년경에서 『가오고략』²²⁾과 『임하필기』를 편찬한 1871년 사이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1855년 이전 남양주시 수동면의 명당에 조부 이석규의 묘를 이장했고, 청과의 사무역으로 재화를 축적하자 남양주의 토지를 사들이고 천마산 임하려에 별서(別墅)를 마련했으며 한양까지 80리를 오가며 관직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하려'라는 본디지명이 '가오곡' 또는 '가곡리'로 바뀐 것도 이 시기일 것이다.²³⁾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주민 이효구(남, 1935년생)²⁴⁾씨는 이유원

20) 『승정원 일기』, 고종 22년 을유(1885) 1월 10일(경술)

21) 왕현중, 「우당 이회영선생 일가의 토지재산 처분과 독립운동」, “한국의 아나카즘 수용과정과 21세기 과제” 학술회의 발표문, 2013

22) 『가오고략』에는 이유원이 1871년 경 천마산 임하려(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서 탈고했다고 말한다.

23) 주민들은 임하려를 '가곡리'로 부르게 된 것은 별서의 당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별서의 당호를 '가곡(嘉谷)'이라고 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가오실 또는 가곡리는 평택시 진위면 가곡1리의 지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20대의 청년부터 가문의 묘역을 모두 돌며 조상들을 참배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이유원의 뿌리에 대한 인식,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가져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의 별서와 장토에 대해 비교적 소상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이씨의 부친은 이유원의 장토를 매입한 백상규²⁵⁾의 마름을 봤고 본인도 그 역할을 승계했다. 이씨에 따르면 천마산 일대 이유원의 재산은 700정보(210만평 이상)였다고 말한다. 또 가곡리(가오실)이라는 이름도 이유원의 별서의 당호(堂號)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1980년 경 (주)대우로 방매되었고, 대우그룹이 해체된 뒤에는 의류업체 SG세계물산으로 넘어갔으며, 현재는 이담골드라는 회사의 소유라고 말했다.

남양주의 재산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평택지역이다. 평택지역에는 세 종류의 재산이 있었다. 첫째, 진위면 동천리 일원의 경주 이씨 상서공파의 종중산과 종중답이다. 둘째는 이세필과 이태좌로부터 상속된 진위면 봉남3리 아곡마을 일대다. 셋째는 진위면 가곡1리 이정좌로부터 상속된 재산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재산은 상서공파의 종중 땅으로 매각이 불가능했고, 이유승의 첫째 아들 이건영에게 상속된 봉남3리 아곡마을의 장토(庄土)도 종중 땅이었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재산인 진위면 가곡1리의 장토는 이정좌로부터 이유원을 거쳐 이석영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매각이 가능했다.

경주 이씨 백사공파의 후손 이창우²⁶⁾씨는 이회영 일가가 만주로 망명할 때 진위면 가곡1리 일대 5만평의 장토를 제주 고씨들에게 매각했다고 주장한다. 또 가곡1리에 거주하는 제주 고씨들도 옛 어른들에게 ‘경술국치 때쯤 경주 이씨들이 갑자기 몰락하여 모든 재산을 고씨들에게 서둘러 매각하고 마을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²⁷⁾

후손들과 마을주민들이 증언으로 심증은 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입증할 자료는 거의 없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자료인

24) 이효구(남, 1935년생), 2019년 2월 22일 인터뷰

25) 백상규(1883~1955). 경기도 장단 출신. 제2대 국회의원.

26) 전 농림부 차관, 평택시 지산동 동막마을 출신, 2003년 8월 23일 전화 인터뷰.

27) 고수웅(남, 1938년생), 2008년 2월 23일 인터뷰

「토지조사부」에도 1911년이나 1912년 자료는 있지만 매각 이전인 1910년 이전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토지대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1910년대 사료를 통해서도 가곡1리 일대의 토지들의 향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1910년대 「토지조사부」와 「토지대장」에 나타난 내용이다.

지번	면적	소유자	소재지	비고
一四九〇番	一〇六八	李泰源	上	
一四九一番	九六八	高濟康	上	
一四九二番	六〇八	高濟康	上	
一四九三番	二一〇	高濟康	上	
一四九四番	二九〇	高濟康	上	
一四九五番	六一〇	高濟康	上	
一四九六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四九七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四九八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四九九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〇〇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〇一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〇二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〇三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〇四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〇五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〇六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〇七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〇八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〇九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一〇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一一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一二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一三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一四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一五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一六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一七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一八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一九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二〇番	五二〇	高濟康	上	

지번	면적	소유자	소재지	비고
一五二一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二二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二三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二四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二五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二六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二七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二八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二九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三〇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三一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三二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三三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三四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三五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三六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三七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三八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三九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四〇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四一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四二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四三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四四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四五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四六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四七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四八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四九番	五二〇	高濟康	上	
一五五〇番	五二〇	高濟康	上	

佳谷里

月	日	番	姓名	備考
一月	二日	番	高連	
一月	三日	番	高連	
一月	四日	番	高連	
一月	五日	番	高連	
一月	六日	番	高連	
一月	七日	番	高連	
一月	八日	番	高連	
一月	九日	番	高連	
一月	十日	番	高連	
一月	十一日	番	高連	
一月	十二日	番	高連	
一月	十三日	番	高連	
一月	十四日	番	高連	
一月	十五日	番	高連	
一月	十六日	番	高連	
一月	十七日	番	高連	
一月	十八日	番	高連	
一月	十九日	番	高連	
一月	二十日	番	高連	
一月	二十一日	番	高連	
一月	二十二日	番	高連	
一月	二十三日	番	高連	
一月	二十四日	番	高連	
一月	二十五日	番	高連	
一月	二十六日	番	高連	
一月	二十七日	番	高連	
一月	二十八日	番	高連	
一月	二十九日	番	高連	
一月	三十日	番	高連	

月	日	番	姓名	備考
二月	一日	番	高連	
二月	二日	番	高連	
二月	三日	番	高連	
二月	四日	番	高連	
二月	五日	番	高連	
二月	六日	番	高連	
二月	七日	番	高連	
二月	八日	番	高連	
二月	九日	番	高連	
二月	十日	番	高連	
二月	十一日	番	高連	
二月	十二日	番	高連	
二月	十三日	番	高連	
二月	十四日	番	高連	
二月	十五日	番	高連	
二月	十六日	番	高連	
二月	十七日	番	高連	
二月	十八日	番	高連	
二月	十九日	番	高連	
二月	二十日	番	高連	
二月	二十一日	番	高連	
二月	二十二日	番	高連	
二月	二十三日	番	高連	
二月	二十四日	番	高連	
二月	二十五日	番	高連	
二月	二十六日	番	高連	
二月	二十七日	番	高連	
二月	二十八日	番	高連	
二月	二十九日	番	高連	
二月	三十日	番	高連	

<표 4> 1912년 진위면 가곡리 1-223번지 토지조사부

후손들에 따르면 제주 고씨는 고수웅(남, 1938년생)의 조부 때 용인에 거주하다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안성으로 이사하기 위해 내려가고 있었다고 한다. 길을 가던 중 가곡리 경주 이씨가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는 직접 찾아가 일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같은

입향 과정을 가졌던 제주 고씨가 어느 날 갑자기 경주 이씨의 터전이었던 가곡1리 대부분을 장악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또 위의 자료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호영(李虎榮)이다.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호영(李虎榮)은 이유원의 서자였다.²⁸⁾ 「토지조사부」에서 이석영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지만 이호영(李虎榮)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가곡1리의 이유원의 재산 중 일부가 이호영에게 상속되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것은 1910년 이회영 형제들이 만주로 망명하면서 이석영에게 상속된 재산은 모두 매각되었지만 서자들에게 상속된 재산은 한동안 남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호영이 상속한 재산 가운데는 경주 이씨 재실과 이정좌, 이계조 묘역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들 토지들도 1929년(소화 4년)에 매각되면서 진위면 가곡1리 일대 경주 이씨 토지는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28) 토지대장에는 진위면 가곡1리 70번지의 일대의 소유자 이호영의 거주지가 남양주시 화도면 가곡리 157번지로 나와 있다.



사진4)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이유원 별서 터



사진5) 평택시 진위면 가곡1리 이정좌, 이계조 묘역에서 바라본 가곡1리

V. 맺음말

이석영, 이회영 형제들의 독립운동은 이회영, 이시영의 선각자적 생각과 실천, 이석영의 재력과 결단, 형제들과 가족들의 동의가 결합되면서 이뤄진 결과다. 망명 초기 경주 이씨 일가를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착과 생활비, 신흥무관학교 부지매입과 운영비를 제공한 것은 이석영이었다. 이석영은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친 결과 말년에는 만주, 베이징, 상하이로 옮겨 다니며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상하이에서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뒤 두부 비지로 연명하며 고통 속에 살다가 사망했다. 또 사망 후 매장되었던 공동묘지가 재개발로 사라지면서 시신이 유실되었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두 아들이 사망하면서 대가 끊겼다.

지금껏 이석영, 이회영 형제들의 독립운동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대부분 이회영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독립운동자금 조성 과정도 중구 정동의 저택과 이유원이 물려준 남양주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만 집중되었다. 본인은 저간의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평택지역과 이회영 형제들의 관계문제, 평택지역의 소유 재산들의 존재유무, 그 재산의 향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평택지역 경주 이씨는 상서공파의 6대조 이승이 진위면 동천리로 낙향한 이래 진위면 마산2리 수촌마을로 분동(分洞)되었고, 조선후기에는 백사공파의 후손 이세필이 낙향하면서 진위면 봉남3리 아곡마을과 가곡1리, 지산동 동막마을로 세거지가 확장되었다. 또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의 재산도 중구 정동의 99칸 저택과 남양주의 별서, 250만평 내외의 전답, 임야와 함께 평택시 진위면 가곡1리에도 이정좌로부터 상속된 종중재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재산들은 이유원의 서자 이호영(李虎榮)이 상속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석영이 상속받아 독립운동자금 조성 과정에서 같은 마을 제주 고씨에게 매각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만주망명 후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 독립운동기지건설에 사용되었음은 앞서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료의 부족으로 진위면 가곡리 토지와 임야의 전모를 밝히지 못했고 제주 고씨에

게 매각된 수량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남양주시 화도읍의 토지도 전체적인 규모는 대략 밝혔지만 매각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경주 이씨 상서공파 대동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문과방목』
이유원, 『가오고략』, 1871
이유원, 『임하필기』, 1871
김해규, 『평택시사신문』 기획특집 「100년의 함성과 만석꾼의
꿈을 찾다」 ②③⑥, 2019년 3월 13일~4월 10일
『강원일보』, 2018년 4월 19일 자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http://people.aks.ac.kr>)
이덕일, 『이회영과 젊은 그들』, 역사의 아침, 2009
왕현중, 「우당 이회영선생 일가의 토지재산 처분과 독립운동」, 『한
국의 아나카즘 수용과정과 21세기 과제』 학술회의 발표문, 2013
이재호, 「이석영의 독립운동과 그에 대한 추모」, 우당이회영선생
순국 84주기 추모 학술회의 자료집, 우당기념사업회, 2016

경주이씨 이석영과 육형제 콘텐츠 방안

박성복¹⁾

목 차

- I. 들어가는 글
- II.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인물 선양 및 마케팅 사례
- III. 평택지역의 인물 선양 관련 단체와 활동
- IV. <서간도시종기西間島始終記>를 통해 본 이석영에 대한 기록
- V. 이석영 인물 콘텐츠화 방안과 사업 제안
- VI. 나오는 글

1) 평택시사신문 사장·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I.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6·25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처음 시행되었다. 1956년에는 기초자치의 시장·군수와 읍장·면장 선거까지 실시해 기초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했으나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뒤 장면 내각은 1960년 광역자치의 시장·도지사 선거까지 확대 시행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중단해 다시 중앙집권시대를 보내다 국민의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면서 1991년 다시 기초의회인 구·시·군의회 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인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다. 그러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운영되어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도’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995년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완벽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됐다.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을 마케팅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산과 바다, 하천 등 자연경관과 농특수산물, 문화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일부 지역에서 이뤄진 인물 마케팅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유관순 등 모든 국민이 알고 있거나 유형별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전국적인 관광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지역을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을 마케팅하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앞다투어 역사인물을 소재로 관광단지를 조성하거나 축제를 개최하고, 공연물과 책으로 발간해 그들의 명성과 업적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해 나가고 있다.

역사인물 마케팅이 지역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유용한 면도 있지만 동일 인물을 놓고 여러 지자체 간 특성이 없는 유사한 사

업을 펼쳐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탄탄한 학술조사나 연구 없이 시설 설치에만 집중하다 보니 변별력 또는 차별화 없는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역사인물 마케팅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모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료조사와 학술연구,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체계적 마케팅 방안 수립, 장기적 추진계획 수립 등 충실한 준비 없이 진행하다가는 자칫 토건 사업이나 전시성 또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역사인물 중에는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도 있지만 활동지역이 광범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양사업 또는 관광사업을 펼치는 인물도 많다. 대표적 인물이 남해안 벨트의 이순신 장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주둔했거나 승전했던 지역에서는 제각각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추사 김정희는 출생지가 충청남도 예산군, 말년 거주지가 경기도 과천시, 유배지가 제주도였다는 관계성 때문에 예산, 과천, 제주지역에서는 저마다 박물관과 기념관 등을 갖추고 다양한 선양사업과 추모사업, 축제 등을 개최해 지역을 문화예술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평택지역에는 정도전, 원균, 박문수, 이대원, 홍익한, 오달제, 임팔급, 최유립, 한은, 김육, 심순택, 조광조 등 근대 이전 인물과 안재홍, 원심창, 이석영, 박석수 등 근현대인물, 모흥갑, 이동백, 유기홍, 유세기, 방용현, 방돌근, 지영희, 성금연, 송창선, 최은창, 이돌천 등 전통예인 까지 시대적 또는 직능별 다양한 역사인물이 존재한다.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이 같은 역사인물은 공공콘텐츠로서 문화재와 축제, 전시, 공연, 교육, 도시디자인, 출판, 캐릭터, 식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 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역사인물과 평택지역 역사인물의 콘텐츠화 사례를 살펴보고 ‘경주이씨 이석영과 6형제 콘텐츠화 방안’을 연구해 이석영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상징 인

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인물 선양 및 마케팅 사례

1. 남해안권 지자체의 ‘이순신 마케팅’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역사인물 마케팅 가운데 가장 많이 진행되는 것이 ‘이순신 마케팅’이다.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이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 등으로 활약하며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으로 침략한 왜군에 맞서 23전 연승의 신화를 이룩한 세계 해전사의 유일무이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 진행돼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이순신을 앞세워 관광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동부권 지자체들은 최근 들어 이순신 장군을 활용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²⁾

여수시는 거북선을 만든 본영 선소와 돌산 방답진 선소, 여천 선소 등 세 곳을 공원화하고 거북선 체험장을 조성했다. 여수시는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고장이고, 이순신 장군이 1591년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해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 6년을 보낸 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순신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순천시도 전라남도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순천왜성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일본이 조선을 재침략하기 위해 축성한 이 성은 일본군이 축성한 30개의 성곽 중 전라도 지역에서 유일한 왜성이다.

광양시도 이순신대교가 바라보이는 광양항 해양공원에 영화 ‘명량’ 포토존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맞고 있다. 명량 포토존은 영화 속 이순신 장군 등 조선 수군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보성군은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에 다시 임명된 이후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今臣戰船 尙有

2) <세계일보>, 2015년 10월 7일자 보도내용, 지자체마다 '이순신 마케팅 전(戰)'

十二)”라는 장계를 올린 곳으로 알려진 열선루(列仙樓) 복원 사업에 나섰다. 열선루는 정유재란 때 소실됐다가 열선정으로 다시 지어졌으나 일제강점기 때 철거된 이후 정확한 위치정보조차 사라져 묻혀졌다.

해남군은 우수영 울돌목에 세워진 ‘명량의 고뇌하는 이순신 상’을 상표 등록했다. 이순신 장군 동상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표 등록된 사례다. 수많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든 모습이지만, 울돌목 이순신상은 갑옷과 칼 대신 도포를 입고 지도를 든 유일한 모습으로 제작돼 차별화된 가치를 인정받았다.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若無湖南 是無國家)”, 이순신 장군의 이 명언을 가장 잘 보여준 영화 ‘명량’이 관객수 1,600만명을 넘어서면서 영화 촬영지인 고흥군은 이순신 마케팅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³⁾ 고흥군은 영화 ‘명량’ 흥행을 계기로 이순신 마케팅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고흥에 남긴 발자취를 스토리텔링하여 테마관광으로 개발하고 있다.

테마관광사업의 하드웨어 개발분야는 이순신 장군 전승 탐방사업,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 백의종군로 개설 등 동서화합 통합지대 특화전략 기본계획에 반영된 고흥군 건의사업과 절이도 해전 재조명을 위한 기념관 건립, 청림 상징인 오동나무터 및 1관 4포 진성 복원사업 등이다.

경상남도도 이순신 장군 전적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숙명여자대학교와 마산대학교 등에 의뢰해 개발한 음식인 ‘이순신 밥상’ ‘이순신막걸리’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⁴⁾

‘이순신밥상’은 경상남도가 발굴해 낸 이순신 장군이 즐겨 먹던 밥상 77종으로 지난 2009년 처음으로 공개됐다. 덕수이씨 종가택 음식을 기초로 철저한 고증을 거쳤으며, ‘이순신밥상’, ‘충무공밥상’, ‘좌수영밥상’, ‘우수영밥상’, ‘통제영밥상’ 등 5개를 특허청에 특허

3) 고흥군 문화관광과 보도자료, 2014년 8월 25일, 영화 ‘명량’ 촬영지 고흥, 이순신 마케팅 차별화

4) <식약일보>, 2011년 4월 13일자 보도내용, 경상남도, 이순신 밥상-막걸리 홍보에 총력

출원했다. 이순신밥상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전투할 때나 평소, 훈련할 때 먹은 음식 및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중에 먹은 음식 등 모두 77종의 음식이다.

이순신막걸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마시던 막걸리를 경상남도가 마산대학교 막걸리연구센터에 의뢰해 개발한 것이다. 마산대학교 막걸리연구센터는 임진왜란 조선수군 주 개발을 위해 산가요록·수운잡방·음식디미방 등 전통주 관련 고문헌과 난중일기를 참고했으며, 통영·남해·여수 등 남해안 지역과 함양·아산 등 내륙 지역을 방문해 현지 전통주 제조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양조재료로 멥쌀을, 누룩재료로 통밀을 사용해 막걸리를 개발했다.

인물명	시대	구분	시·도	시·군	선양사유	문화유적
이순신	조선	군인 (장수)	충청남도	아산시	출생지	묘/현충사/ 이순신기념관 공원/도서관/ 대교
			전라남도	여수시	활동지	
				순천시	활동지	
				광양시	활동지	
				보성군	활동지	
				해남군	활동지	
				고흥군	활동지	
				완도군	활동지	
				진도군	활동지	
			부산광역시	-	활동지	

이 순 신	조 선	군인 (장수)	경상 남도	통영시	활동지	한산도유적/ 공원/통제영
				남해군	활동지	순국공원/ 캠핑장/영상관
				사천군	활동지	이순신바닷길
				거제시	활동지	둘레길/공원
				고성군	활동지	
				창원시	활동지	타워/리더십국 제센터
				하동군	활동지	

〈표 1〉 충무공 이순신 장군 선양사업 지자체 현황

2. 예산·과천·제주의 ‘추사 김정희 마케팅’

추사 김정희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태어나 경기도 과천에서 말년을 보냈으며,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충청·경기·제주지역에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조사·연구활동과 선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 물 명	시 대	구 분	시·도	시·군	선 양 사 유	문 화 유 적
김 정 희	조 선	학자 (서예)	충청 남도	예산군	출생지	추사고택/ 추사기념관
			경기도	과천시	활동지	추사박물관
			제주도	-	유배지	제주추사관

〈표 2〉 추사 김정희 선양사업 지자체 현황

1) 예산군의 ‘추사 김정희 마케팅’⁵⁾

추사 김정희가 태어난 충청남도 예산군에는 김정희 관련 문화재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3호 추사고택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제106호 예산용궁리백송,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4호 김정희선생 유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5호 화순옹주홍문, 충청남도 기념물 제24호 김정희선생유적, 충청남도 기념물 제151호 김정희선생 필적암각문,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88호 김정희묘,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89호 월성위 김한신 묘 등이 있다.

보물 547호로 지정된 김정희 종가유물(김정희 영정 등)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되어있다.

충청남도 예산군은 예산군관광시설사업소에 추사고택터를 두어 유물 보관과 보존 관리, 매년 2억여 원의 추사 관련 유물 구입, 특별기획전, 추사학당 운영, 관광상품 판매장 운영, 추사 김정희 선생 작품 관련 관광상품 개발, 체험관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사고택 활용 공모사업,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고택으로 문화재 경관 조성, 추사 김정희 선생 연구 및 탁본 자료 수집, 지역 출신 서예가들을 통해 서예에 대한 문화정신 고찰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추사고택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관광안내판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디지털 관광안내판은 기존 추사고택 방문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지도 안내 차원의 단순한 정보전달 관광안내판을 I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관광안내 시스템으로 전환해 입체감 있는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내판에는 추사 가계도와 고택 안내, 홍문과 묘 소개 등 추사고택 관광정보를 비롯해 예산 10경 8미 등 예산군 관광정보를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 관광 안내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유물 기증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충남 당진시 거주 심천보 심훈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추

5) 충청남도 예산군, 2019년 9월, 추사고택 종가유물 특별기획전 연계행사 계획(안) 등

사 김정희 선생 명호 완당(阮堂)과 김정희인(金正喜印), 솔진(率眞)이 새겨진 청연시경(淸蓮詩境) 문구의 편액을 예산군에 영구 기증해 추사기념관 전시와 학술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추사고택과 추사기념관에는 전담 학예연구사를 배치해 다양한 문화재적 관점이나 경관적 가치, 역사적 고증 등 추사 김정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1〉 예산 추사기념관 전경



〈사진 2〉 예산 추사기념관 전시실

2) 과천시 '추사 김정희 마케팅'⁶⁾

추사 김정희가 말년에 머물며 학문과 예술의 절정기를 맞이했던 경기도 과천시는 1996년 '과천 추사 관련 유적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사 연구 및 선양사업을 진행했으며, 2006년 일본 후지즈카 아키나오 소장 추사 관련 자료 일체를 기증받은 후 2013년 추사박물관을 개관했다.

과천시는 추사박물관을 거점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사립미술관 연계기획전 '추사의 성북동 나들이', 추사 중국전 '추사 김정희와 청조문인의 대화', 특별기획전 '추사가 사랑한 꽃' 등 세 차례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했다.

발간사업으로는 도록 <추사가 사랑한 꽃>, 번역서 <역주 석주시화(譯註 石洲詩話) 2>, 학술총서 <추사서화파의 꽃>을 발간했으며, 학술대회는 '사군자와 추사서화파'를 주제로 개최했다. 추사박

6) 경기도 과천시, 2019년 11월, 과천시 추사박물관 2019년 주요 활동 등

물관에서는 특히 유아 프로그램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가족 단위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 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 모두 13개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해 4,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해 박물관이 박제된 공간이 아닌 역동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추사박물관에서는 제11회 과천시평생학습축제에 ‘추사와 함께라면’이라는 주제로, 제23회 과천축제에 ‘묵 향기 가득한 추사박물관’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해 6,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홍보체험부스는 추사박물관 활동 내역 홍보와 함께 상설리플렛·알기 쉬운 추사해설집 배부, 2019 추사축제 ‘도전 추사골든벨’ 홍보, 추사의 글씨를 부채에 써볼 수 있는 체험 제공,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추사 작품을 그릴 수 있는 가방만들기 체험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추사 김정희의 고장 과천시를 널리 알리고 있다.

추사박물관의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중앙지와 지방지, 방송매체 등에 연간 150여회 보도해 박물관이 항상 시민의 곁에서 소통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과천시 주암동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추사박물관은 과천시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팀장 1명, 학예연구사 2명 등 모두 6명이 유물 구입 및 관리와 학술연구, 전시기획, 각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3〉 과천 추사박물관 야경



〈사진 4〉 과천 추사박물관 추사의 생애 전시실

3)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사 김정희 마케팅’⁷⁾

추사 김정희가 8년 3개월간 유배생활을 했던 곳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0년 서귀포시에 ‘제주추사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초가 4동은 국가사적 제487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대정읍성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제주추사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탐라비림 조성, 대정고를 역사자료전시, 사회교육, 휴게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김정희 종가 유물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전시했던 유물들은 국가 보물로 지정되었고, 개관 이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종가유물 진품전시’를 진행했다. 제주추사관은 세한도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과 소장 유물 특별도록을 제작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추사 김정희와 제주추사관을 홍보하고 있다.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사 김정희 서예작품과 추사 연구자료도 꾸준히 구입하고 있으며, 2억 6500만원을 들여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21점을 보존 처리하는 등 유물 구입과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제주추사관은 민선 7기 들어서 제주특별도지사 공약으로 ‘추사 김정희 서법, 석각, 비석 등 활용 탐라비림(碑林) 조성 사업’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해 현재 추사 김정희 서법·석각·비석 등 작품 활용한 비림조성과 추사관 연계 역사 교육·체험·편의시설 조성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제주 유배를 통해 예술세계를 완성하고 시대를 대표했던 추사 선생이 남긴 작품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제주에 걸맞은 ‘탐라비림’ 조성으로 추사의 예술혼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11월, 제주추사관 2019년도 운영·관리계획 등

제주추사관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고정 근무하면서 매일 6회 정시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12만명이 관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추사관은 한 명의 학예연구사가 연구와 전시,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진 5〉 제주추사관 전경



〈사진 6〉 제주추사관 전시실

역사인물을 활용한 지역 홍보와 관광자원화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 간 연계 활동이 부족하면서도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추사 김정희 관련 사업은 충청남도 예산군과 경기도 과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물 및 자료의 상호 대여, 연구 활동 공유, 학예연구사 간 정보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술연구 등 다양한 활동에서 3개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인물 콘텐츠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3. 평택 관련 역사인물의 국내 지자체 복수 마케팅 사례

시대에 따라 평택에서 태어났거나 활동했던, 또 후손들이 동족을 이루며 살아온 역사인물을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사유로 선양하거나 관광자원화 하는 사례도 많다.

인물 선양 및 콘텐츠화는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역사회 의 역량,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선택과 집중 여부에 따라 어느 지역은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중요한 콘텐츠를 가졌음에도 후발주자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손들이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에 정착하며 후대에 사당과 묘역, 전서관, 교육관을 조성해 성역화한 조선개국공신 정도전의 경우 출생지인 경상북도 영주시, 정도전의 호를 도담삼봉에 따랐다고 홍보하고 있는 충청북도 단양군, 관직에 있으면서 살았던 서울 등에서 각각 역사인물 정도전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대원, 이석영, 이승훈, 홍익한, 김육, 박문수, 최유림, 이동백, 송창선 등도 평택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 선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역사인물들이기 때문에 평택시와 인물 기념사업회, 해당 지자체가 상호 교류를 통해 콘텐츠 발굴 및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물명	시대	구분	시·도	시·군	선양사유	문화 유적
정도전	조선	정치/사상가	경기도	평택시	집성촌/중가	문헌사/삼봉집/기념관
			경상북도	영주시	출생지	삼판서고택
			충청북도	단양군	전설/설화	도담삼봉
			서울특별시	종로구	활동지	집터/삼봉길/한양
이대원	조선	군인(장수)	경기도	평택시	출생지/유적	묘/확충사/신도비
			전라남도	여수시	활동지/유적	충렬사/영당/손죽도/묘
				고흥군	활동지/유적	쌍충사
이석영	근현대	독립운동가	경기도	평택시	세거지/집성촌	경주이씨 묘역
				남양주	별서/	별장터

				시	부동산	
			서울 특별시	중구	활동지	집터
이 승 훈	근 현 대	현감/ 천주 교	경기도	평택시	활동지	평택향교/대추리 공소 터
			인천 광역시	남동구	유적	묘역/성지
홍 익 한	조 선	고위 관료	경기도	평택시	출생지/ 집성촌	묘/비/ 포의서원 터
				광주군	유적	현절사
김 육	조 선	고위 관료	경기도	평택시	활동지/ 유적	대동법시행 기념비
				남양주 시	박물관	실학박물관
박 문 수	조 선	고위 관료	경기도	평택시	출생지	외가
				안성시	유적	칠장사
			충청 남도	천안시	집성촌/ 유적	묘/고택
최 유 립	조 선	군인 (장수)	경기도	평택시	출생지/ 유적	사당/묘/고문서
				수원시	본관	수성최씨 연구
이 동 백	근 현 대	예술 인 (소리)	경기도	평택시	활동지/ 유적	이동백 집터/묘 터
				충청 남도	서천군	출생지/ 활동지
송 창 선	근 현 대	예술 인 (기악)	경기도	평택시	출생지/ 활동지	송창선 집터/평택농악
				서울 특별시	강남구	활동지

〈표 3〉 평택 관련 역사인물 선양사업 지자체 현황⁸⁾

8) 박성복 현황조사, 2019년 11월, 평택 관련 역사인물 선양사업 지자체 현황

4. 역사인물 마케팅사업의 부실운영 사례9)

역사인물 마케팅을 의욕적으로 시행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역사인물 관련 공원이나 기념관을 만들었지만, 콘텐츠가 부실해 애초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역사인물 마케팅사업이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경산시가 2014년 6월까지 총 443억원을 들여 남산면 상대로 일대 부지 26만 2774㎡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완공했다. 원효·설총·일연선사 등 경산에서 탄생한 삼성현의 역사적 업적과 일생을 기리고 문화도시로서의 경산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다. 이 공원은 삼성현 유물·유적 전시실을 비롯해 공연장, 국궁장, 산책로, 광장, 다목적 운동공간 등을 갖췄다.

그러나 공원은 완공된 지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했다. 연간 공원 유지와 관리에 예산 4억원을 쏟아붓고 있어서다. 경산시가 삼성현 관련 유물 및 콘텐츠 확보 등의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다.

예천군도 지역 출신 효자 도시복 등을 기리기 위한 충효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벌였지만 결국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감천면 포리 일대 부지 21만여㎡에 총 208억원으로 들여 조성, 2010년 개장했지만, 방문객이 평일 30~40명, 주말 100여명에 그친다. 이 공원에는 충신 정탁·효자 도시복 이야기를 비롯해 충신과 세계 충효 이야기 등 각종 체험장과 농경문화 전시실이 있다.

구미시도 2009년 구한말 항일의병장을 지낸 왕산 허위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39억원을 들여 선생의 고향인 임은동에 ‘왕산기념관’을 건립했고, 23억원이 투입된 조선조 성리학자인 여헌 장현광 선생 기념관을 개관했지만, 방문객의 발길은 뜸하다.

이런 가운데 안동시가 2016년까지 풍천면 도청 신도시 부지 3만 3000㎡에 서애 류성룡기념관을, 서후면 학봉종택 인근 2만㎡에 학

9) <서울신문>, 2014년 9월 16일자 보도내용, 내 고장 역사 인물 마케팅 사업 애물단지 전락

봉 김성일기념관을 각각 100억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하지만 지역 사회단체 등은 특정 문중을 위한 사업이라며 반발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신문>은 2014년 9월 역사인물 마케팅사업의 부실 사례를 보도해 무리하게 추진된 지자체들의 역사인물 마케팅 실패를 지적했다.

Ⅲ. 평택지역의 인물 선양 관련 단체와 활동

평택지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 가운데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1990년 출범한 ‘삼봉정도전기념사업회’가 처음이다. 삼봉정도전기념사업회는 정도전 연구 관련 학자와 봉화정씨문헌공중회 관련 인사로 구성돼 평택지역 인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공동사업 추진이 요원한 상황이다.

1.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민족운동가이자 언론인인 민세 안재홍을 선양하기 위해 2000년 창립한 단체가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¹⁰⁾이다.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는 민세 안재홍 선생의 일관되고 지조 있는 삶의 자세를 따르고, 실천이념인 신민족주의를 계승하며, 유업인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정기 확립을 창립 목적문에 담고 있다.

사업회의 주요 목적사업은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사업, 민족의 평화통일과 민세 철학 정립을 위한 사상계몽사업, 학술발표회 개최를 포함한 민족정기 선양사업, 민세 사상 정립을 위한 자료수집 보전 및 발간사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주요 추진 사업은 매년 3월 민세안재홍 추모제, 매년 11월 탄신 행사 개최, 민세 선집 완간, 분야별 단행본 발간, 민세 국내·국제 학술심포지움, 민세상 제정 시상, 매월 다사리포럼 운영, 민세 생가 보존 운동, 민세 기념관·공원 연구, 민족정기 확립을 위

10)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누리집 참조, <http://www.minse21.or.kr/>

한 선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평택지역 인물 선양 사업 단체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지영희기념사업회

2000년 창립한 ‘지영희기념사업회’¹¹⁾는 평택 출신으로 근대 민족 음악의 선각자인 지영희 선생의 업적을 계승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지영희는 홀대받던 전통예술을 계승하며 민족예술의 정신과 국악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온몸으로 실현하고자 새로운 근대성으로 연주·연구·채록·교육·보급·창작·악기개발에 힘쓴 인물이다. 전통예술의 거목이 돼 정상을 이루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며 한국 근대음악 역사에서 후학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민족예술가 지영희 선생의 예술세계를 올바르게 이어받고 선생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위해 사업회가 설립됐다.

사업회의 목적사업과 구체적인 주요 추진 사업은 지영희 선생의 예술업적 발굴 및 창의적 발전, 지영희 선생의 예술세계 연구 및 학술발표회 개최, 창작음악과 창작음악극·창작무용 등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무대공연, 전통예술 교육자료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국악경연대회 개최,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개최, 전통공연예술 기획사업, 지영희 선생의 생가복원 및 추모사업 등이다.

3.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

2013년 창립한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는 평택시 팽성읍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심창의사 조명 사업은 1978년 원주원씨대중회에서 자료집 <의사 원심창>을 발간했으며, 1993년 모교인 평택성동초등학교 교정에 동문이 뜻을 모아 원심창 의사 흉상을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사업회는 원심창의사 조명 학술행사와 7·4 원심창의사 추모식, 상

11) 지영희기념사업회 누리집 참조, <http://www.jiyeonghui.or.kr/>

해 육삼정의거 기념식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원심창의사 재조명 학술연구, 자료 발간, 육삼정 의거와 일본 원심창의사 관련 사적지 보전, 시민·청소년 리더십교육, 원심창의사기념관 조성 연구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4. 원군장군기념사업회

‘원군장군기념사업회’는 평택시 도일동에서 태어나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수사와 삼도수군통제사 등을 지낸 원군 장군의 공적을 연구하고 인물을 선양하기 위해 2014년 창립했다. 원군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공적이 왜곡된 사례가 많아 사업회는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원군 장군과 이순신 장군을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역사를 시각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원군 장군과 관련된 학술연구자료 발간, 옥포대첩기념공원 공동사당 건립, 추모 제향 개최 등 다양한 추모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박석수기념사업회

평택 출신의 요절 시인으로 알려진 박석수 시인을 조명하기 위한 ‘박석수기념사업회’는 2017년 9월 16일 창립했다.¹²⁾

박석수기념사업회는 1979년 평택시 지산동에서 출생해 소설과 시 등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해 온 문학인 박석수 시인의 문학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책을 재 발간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묘소 이장, 문학비 건립, 생가 보존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군기지와 함께했던 송탄지역, 그중에서도 쭉고개에 대한 박석수의 연작시에는 기지촌과 함께 성장해야 했던 그의 어린 시절과 민족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업회는 박석수문학예술제와 박석수의 문학사적 의미를 밝혀내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박석수의 문학세계와 문학사적 위치, 박석수의 작품세계 연구, 박석수 평전을 위한 기본자료 확보 등을 추진해

12) <평택시사신문>, 2017년 9월 20일자 보도내용, 박석수 시인 조명 문학도시 평택 ‘신호탄’

나가고 있다.

6. 그 밖의 인물 선양사업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외가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암행어사 박문수는 별도의 기념사업회는 없지만, 문화예술 공연단체 ‘송사모’와 평택시오페라단 ‘담소’가 공동으로 2018년 12월 창작오페라 ‘어사 박문수’를 공연한 바 있다.

평택 출신인 19세기 전기 판소리 8대 명창 모흥갑, 근대 5명창 중 당대 최고의 인기를 얻은 이동백, 평택농악의 첫 예능보유자 최은창과 이돌친, 경기시나위 동령제의 창시자 방용현, 전국 5대 놀이패 진위패를 육성한 유준홍과 유세기 부자, 남사당 꼭두각시 태평소 명인 송창선 등 전통예인의 고장 평택을 대표하는 명인들도 인물 선양과 콘텐츠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 통복동 자전거포 일미상회에서 점원으로 일했으며, 일제강점기 최고의 자전거 선수로 활약해 조선인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자전거왕 엄복동’, 원효대사의 깨달음을 주제로 2017년 4월 개관한 수도사 깨달음체험관을 활용한 원효대사 문화관광콘텐츠 확대 등도 중요한 콘텐츠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서간도시종기西間島始終記〉를 통해 본 이석영에 대한 기록

경주이씨 우당 6형제의 둘째 영석潁石 이석영李石榮(1855~1934)의 생애사는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조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 넷째 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의 회고록 〈서간도시종기西間島始終記〉¹³⁾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이석영의

13) 이은숙, <서간도 시종기>, 2017년 7월 28일, 일조각, <서간도 시종기—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 회고록>은 독립운동가이자 아나키스트인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이 쓴 육필본 <서간도 시종기(西間島始終記)>(1966)를 바탕으로 다시 편집하고 주석을 붙인 책이다. <서간도 시종기—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 회고록>가 정식으로 출판된 것은 세

삶, 그리고 성품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사진 7〉 이회영 부인 이은숙이 쓴 〈서간도시종기〉

이은숙이 쓴 〈서간도시종기〉에는 중국 망명길에 나선 우당 6형제가 1910년 12월 서울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 단동에 도착한 상황에 이석영이 등장한다. 이석영이 이유원의 양자가 돼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생가 동생들과 뜻을 같이해 중국 망명길에 올라 단동에서 제수弟嫂를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에서는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의 면모와 함께 인자함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시숙孀淑 영석장穎石丈은 우당 둘째 종씨從氏인데, 백부 이유원 님으로 양자養子 가셨다. 양가養家 재산을 가지고 생가生家 아우들과 뜻이 합하셔서 만여 석 재산과 가옥을 모두 방매해 가지고 경술년 12월 30일에 대소가가 압록강을 넘어 떠났다. 우리 집은 나중에 떠났는데, 우당장은 며칠 후에 오신다고 하여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신의주에 도착하여 몇 시간 머물다가 새벽에 안동현에 도착하니, 영석장께서 마중 나오셔서 반기시며 “무사히 넘어 다 행이라” 하시던 말씀 지금도 상상이 되도다”

번째로, 첫 번째 판본(1975)과 두 번째 판본(1981) 이래 36년 만에 나오게 되었다. 일반 학술서적도 아닌 수기(手記)가 세 번이나 새롭게 간행되었다는 것은 이 책이 역사적 사료로서, 그리고 수필문학으로서 지닌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가늠하게 한다.

중국 횡도촌에 도착한 이석영 일가는 이곳에서 10여 일을 머물렀지만 나라를 빼앗긴 후 타국에서 보내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구상했다. 이석영·이회영 형제는 하루라도 빨리 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해 가족들을 남겨두고 유아현 삼원보로 향했다.

“7, 8일 만에 횡도촌에 도착하여 시량(柴糧)은 넉넉하나, 5칸(間) 방자(房子)에 60명 권속(眷屬)이 한데 모여 날마다 큰 잔칫집같이 수런수런 수란(愁亂)하게 며칠을 지냈다. 둘째 댁 식구와 우당장(吳堂長) 식구가 먼저 유아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라는 곳에 가서, “장구(長久히) 유지(유지도 하고 우리 목적지를 정하여 무관학교를 세워 군사 양성이 더욱 시급하다” 하시고 신해년(辛海年) 정월 28일에 떠나게 되었다”



〈사진 8〉 경주이씨 이석영·이회영 6형제의 서간도 망명 논의



〈사진 9〉 빙천한설리 우당 일가권속 구국망명 (2017년, 백범영 작)

억만금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 만주에 온 이석영은 가장 시급한 것이 무관학교 설립이라고 여기고 토지를 사서 학교 건설 착수를 선언한다. 이후 생계가 막막한 동지들을 위해 집과 농사지를 땅을 내어주는 것을 지켜본 이은숙은 이석영을 “우리 시속 같은 분은 세상에 없으신 분”이라는 말로 높이 평가했다.

“둘째 형님께서서는 항상 청년들의 학교가 없어 염려하시다가 토지를 사신 후에 급한 게 학교라, 춘분 후에는 학교 건설을 착수하게 선언을 하시고, 지단(地團) 여러 천 평을 내놓으시고 시량(柴糧)까지 부담하

시고 아우님 오시기를 기다리셨다. 3월 초순에 우당장이 오시니, 여러 형제분은 자리를 못 잡은 모모 동지들께도 5칸 방자에 1년 지낼 땅과 1년 농사지를 시랑까지도 주어 안전케 하셨다… 세상에 우리 시속 같은 분은 금세에 없으신 분이지만 어누 누가 알리오. 생각 곧 하면 원통한 걸 어찌 적으리오”

이석영을 비롯한 6형제, 망명길에 오른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무관학교가 세워졌고, 이석영은 무관학교의 이사장 격인 교주(校主)에 오른다.

“우당장은 학교 간역(幹役)도 하시며 학교 이름을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라 하였다. 발기인은 우당 이회영 씨, 석오 이동녕 씨, 해관 이관직 씨, 이상룡 씨, 윤기섭 씨, 교주(校主)는 영석(穎石) 이석영 씨, 교장은 이상룡 씨였다”

만해 한용운이 누구의 소개나 연락도 없이 신흥무관학교에 찾아와 수개월을 지낸 후 돌아갈 여비가 없어하자 이석영은 30원을 주어 그를 보낸다. 한용운을 수상한 자로 여긴 무관학교 학도가 총상을 가해 그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귀국한 일이 있었다. 한용운은 몇 년 후 다시 찾아와 총격을 가한 청년을 찾았다는 일화가 있다.

“하루는 그분이 우당장께 자기가 회환(回還)하겠는데 여비가 부족이라고 걱정을 하니, 둘째 영감께 여쭙어 30원을 주며 무사히 회환하라고 작별했다. 수일 후 그분이 통화현 가는 도중에 굴라제 고개에서 총상을 당했으나 죽지 않고 통화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 하였다”

“우당 이회영은 “그분이 총을 맞고 최후를 마쳤으면 기미만세에 ‘독립선언서’를 누구하고 같이 짓고, 33인의 한 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은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 큰택에서 허배(虛

拜하고 둘째 이석영의 집에 가서 머물던 중 마적의 습격을 받아 총에 맞고 많은 피를 흘린 후 혼절했다. 이때 이석영은 마적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이은숙은 당시 이석영이 마적에게 잡혀갔다 풀려난 상황을 자서전에 자세히 기록했다.

“계축년… 10월 20일 오전 4시쯤 되어 마적 때 5, 60명이 총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마침 내가 용변을 보러 갔다가 그 총에 좌편 어깨를 맞아 쓰러지고 둘째 덕 영감은 마적에게 납치당하였으니, 이 같이 답답하고 흉한 일이 또 어디 있으리요”

“…영석장 모셔 간 도적놈들이 그때 학생 둘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 다시 그 학생들이 영석장을 모시고 오니, 오시는 길로 내게 들르셔서 나를 위로하셨다. 나는 그때 시숙을 뵈고 어찌나 슬피 울었던지 우리 시숙께서도 비감하신 심정이라 말씀을 하시지 못하시며, “바빠 입원하여 완치케 하여 주겠으니 너무 마음 상치 말고 계시오”라고 위로하시던 성음聲音이 지금도 역력히 들리는 듯하다. 만주인들은 영석장 존경하기를 ‘만주왕’이라고까지 명칭 하였는데, 저의 나라가 문명치 못하여 도적들이 사면으로 횡행橫行하여 영석장을 모셔 갔다 하니, 저희 군대에서 이를 미안하게 생각하여 당황히 백여명 군대가 출동하였다. 대장이 둘째 덕까지 와서 사과하고 나는 그 이튿날 들것으로 통화병원에 입원하여 40일 만에 퇴원하여 돌아오니, 재생지인再生之人이라고 기뻐들 하시고… 내 자신은 육신을 임의로 못쓰고 시숙께서 치료비까지 전담해 주시니 미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다”

1932년 이회영이 침체된 무장독립투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만주로 가는 길 대련으로 이동하다 일경에 붙잡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석영은 제수弟嫂 이은숙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별일 없을 것이라고 안심 시켰지만 자신은 그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우당 6형제는 이국땅에서 서로 보살필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형제애만큼은 더욱 끈끈함이 묻어났다.

“하루는 둘째 덕 영감께서 오시더니 나더러 당신 덕으로 가자하시

며 기색이 초창惝惝하게 보이신다… 댁에 가서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봉천에서 온 이세진李世鎭 편지를 보니 우당장이 8월 20일께 봉변을 당했다 하니 설마 별일은 없을 것이지만……” 하시며 그 시로 자리에 누워서 비감해 하시니, 뱃기 절박하여 집안이 난리였다. 신흥학교에서도 3일간을 휴교하고, 대소댁은 말할 여지도 없고 근동近洞 우리 조선인은 누구나 수선수선하니 낸들 무슨 말을 하리오”

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의 회고록 〈서간도시종기西間島始終記〉에 등장하는 이석영은 비록 조연助演으로 남아있지만 제수弟嫂 이은숙이 지켜본 그는 경주이씨 우당 6형제의 큰 어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석영은 억만금에 이르는 재산을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독립운동을 위해 함께한 이들의 곤궁한 생활에 보태는데 아낌이 없었다. 또한 가족은 물론 동료들의 내밀한 부분까지 챙겨가며 보살핀 것은 만주에서의 생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민족의 독립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한다는 가치를 아는 대인배大人輩로서의 소중한 실천이었다.

V. 이석영 인물 콘텐츠화 방안과 사업 제안

최근 들어 여러 학자들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이석영李石榮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데 자조自照하고 있다.

해외 독립운동의 동력이 됐던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이후 학교 운영을 위해 쏟아부은 이석영의 가산家産,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궁핍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배고픔을 달래 준 이석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10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억될만한 가치 있는 정신을 남긴 이석영을 체계적으로 선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를 조명하고 연구하는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주이씨와 평택, 이석영과 신흥무관학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

계이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한 이석영 조명 학술토론회, 신홍무관 학교와 이석영을 주제로 한 평택학 시민강좌, 이석영 생애사 책자 발간·홍보, 평택시 진위면을 배경으로 이석영 소개 조형물 설치, 다큐멘터리와 SNS 홍보물, 뮤지컬 공연 등 이석영 관련 콘텐츠 개발, <평택시사신문> 기획취재 보도 내용과 사진 전시회 개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석영 학술연구용역 등은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다.



<사진 10> 경학사와 신홍강습소 터(사진 왼쪽 아래)



<사진 11> 신홍중학 터(사진 왼쪽 아래)

하지만 이러한 ‘이석영 인물 콘텐츠화 방안’은 일시적이며 단편적

인 계획에 의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인물 선양사업 및 콘텐츠화 사업은 출생, 사건, 사망일 중심의 계기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사업 시행의 기초가 되는 이석영 인물에 대한 생애와 업적을 조사·발굴하고 학술연구를 통해 선양사업의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연구 실적을 토대로 계기사업과 사료관 및 박물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으로 독립운동가 이석영을 홍보하고 평택의 정체성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1. 신흥무관학교 복원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9년 <평택시사신문> 기획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이 만주 서간도 곳곳에는 신흥무관학교의 옛 터만 남아있을 뿐 안타깝게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흥무관학교 터를 특정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원하는 것은 지금의 한·중 관계와 여러 외교적이며 행정적 복잡한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는 신흥무관학교를 사관학교의 뿌리로 삼기 위해 매년 생도들이 신흥무관학교의 흔적을 찾아 중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벽돌공장과 옥수수밭으로 변해버린 학교 터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가슴에 담아내기에는 시공時空의 차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립운동가 이석영 기획취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평택시사신문> 만주취재팀도 중국 공안 당국의 계속되는 감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가까스로 취재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백사 이항복을 위시해 삼한갑족三韓甲族의 대표적 가문으로 이름을 올린 경주이씨는 구천 이세필이 진위현에 세거하면서 평택과 인연을 맺은 후 이태좌, 이유원으로 대를 이어갔다.

이석영이 양부 이유원으로부터 물려받은 평택과 남양주, 서울, 청주 등지의 억만금 재산을 급매해 마련한 돈으로 6형제와 함께 중국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평택에 뿌리를 둔

경주이씨 가문의 역할과 정신도 올곧이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 서간도에 복원할 수 없는 신흥무관학교를 경기도 평택시에 복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위치한 평택시 출연기관 평택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¹⁴⁾과 연계해 진성기 신흥무관학교의 일부 시설을 복원하고 이를 청소년 교육에 활용한다면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기존 청소년수련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기존 무봉산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과 함께 야영과 음식, 교가 등 신흥무관학교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 교육활동에 적용한다면 다른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어디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독립운동가 이석영의 정신을 선양하고, 평택을 알리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천안시에 자리 잡은 독립기념관에는 독립군체험학교가 소규모로 복원돼 있지만, 전시형 단독 시설이어서 별도 예약 없이는 견학이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석영을 비롯한 경주이씨 6형제와 신흥무관학교를 배울 수 있는 답사코스를 개발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내외 투어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

국내 코스로는 평택과 서울, 남양주, 포천 등 경주이씨 가문 생로병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과 서울 우당기념관과 명동성당 앞 고택 터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며, 통일 이후에는 중국 망명길 단동까지의 북한지역도 답사 노정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코스로는 경주이씨 일가의 망명 루트인 중국 단동과 횡도천, 신흥무관학교 관련 시설이 세워졌던 추가가, 합니하, 팔리초, 고산자, 쾌대모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석영이 거주했던 상해 등을

14)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누리집, <http://moobong.kr/>

포함할 수 있다.

특히 2021년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지 1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2년 앞으로 다가온 신흥무관학교 개교 110년에 대비한 각종 선양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클 것이다.



〈사진 12〉 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 독립군체험학교



〈사진 13〉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무봉산청소년수련원

2.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고장 평택’ 선언과 관련 사업

독립운동가 이석영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크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삼한갑족三韓甲族의 지위를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경주이씨 6형제의 애족·애국정신과 억만금의 재산을 한 치의 거리낌 없이 해외 독립운동을 위해 쏟아붓고도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객장에서 아사餓死로 생을 마감한 당대의 대부호 이석영의 정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만으로는 위로받지 못할 우리 시대, 우리 모두가 갚아야 할 큰 빛으로 남아 있다.

고종 22년(1885년) 대과에 급제해 신분이 보장된 이석영이 일제의 강점으로 나라 잃은 처지에 놓이면서 오직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선택한 중국 망명길은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석영은 억만금의 재산을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에 쏟아부어 나중에 곤궁한 처지가 되었지만 일말의 후회나 원성을 토로하지 않았다.

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그의 뿌리가 서린 평택시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도시로 선언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삼한갑족三韓甲族의 대표적 가문으로, 당대 최고의 부호로, 억만금을 독립운동을 위해 내놓은 이석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이석영 노블레스 오블리주상 제정’과 시상, 진위면 봉남리를 거점으로 ‘이석영 노블레스 오블리주 길’ 지정, ‘이석영 노블레스 오블리주 장학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진 14〉 대고산 앞의 ‘100년의 함성과 만석꾼의 꿈을 찾다’ 중국 만주특별취재단



〈사진 15〉 옛 만국공묘 외국인묘원의 ‘100년의 함성과 만석꾼의 꿈을 찾다’ 중국 상해특별취재단

3.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양사업과 콘텐츠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획 및 추진을 위한 조직체인 ‘독립운동가 이석영기념사업회’ 설립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추진 사업으로는 생몰일生歿日과 이석영 육형제 거사 협의일, 중국 망명 출발일, 신흥무관학교 개교일, 첫 졸업식 등 콘텐츠화가 될 만한 각각의 기념일을 찾아 계기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면 매우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의미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신흥무관학교 개교 110년 기념식도 이 같은 차원에서 계획,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독립운동가 이석영을 선양하

기 위해서는 중국 상해 도시개발사업으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유해를 대신해 서울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 무후선열제단無後先烈祭壇에 위패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이석영과 관련 있는 평택시-남양주시-우당이회영기념관-경주이씨대종회가 결연을 맺고 학술연구와 선양 프로그램 진행, 추모제 등 공동 선양사업을 협력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독립운동가 이석영은 평택의 인물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일 독립운동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로 확장성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점은 이석영의 삶과 인생 철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Ⅵ. 나오는 글

우리나라는 오천 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외세의 침입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 후 평가는 언제나 승자의 입장에서만 이루어졌다. 특히 대부분 역사에서 희생당한 인물에 대한 조명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항일 독립운동의 경우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와 예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1945년 8·15광복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일 청산과 독립유공자 예우라는 민족의 큰 과업을 이뤄내지 못해 이념 간 갈등만 커져 가고 있다.

당시 이석영을 비롯한 경주이씨 6형제는 일제에 협력했다면 보장 받을 수 있는 명예와 재력을 뒤로한 채 전 재산을 헐값에 팔아 많은 식솔과 야반도주하듯 망명 길에 올랐다. 또 기한도골飢寒到骨의 이국땅에서 해외 독립운동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신홍무관학교를 세워 생도들을 가르치며 끊임없이 조국의 독립을 갈망해왔다.

하지만 춥고 배곯았던 삶을 그들도 피해갈 수 없어 궁핍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으며, 둘째 이석영은 이국땅 뒷골목에서 굶어 죽는 처지에 이르렀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중국 상해 공동묘지에 묻힌 이석영은 상해 개발사업으로 인해 묘소를 찾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 글에서 경주이씨 이석영의 인물 콘텐츠화를 제안한 것은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정신문화 측면에서 이석영의 ‘애국애족 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적인 삶을 중요한 가치로 발현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평택의 역사 인물 이석영을 세상 밖으로 소환하고 그가 갖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인물 콘텐츠화를 통해 평택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송탄 기지촌의 공간변화: 1952년-2018년¹⁾

김 희 식²⁾, 이 인 휘³⁾, 장 용 혁⁴⁾

목 차

I. 서론

II. 오산공군기지(Osan Air Base, K-55)의 형성과 확장

III. 기지촌의 정착과정과 변화

IV. 기지촌 새마을 운동

V. 순환도로 건설과 갈등

VI. 미8군의 송탄이전과 K-55 확장

VII. 결론

I. 서론

-
- 1) 심사과정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 2) 서울시립대 도시사회연구센터 연구원/ u3120@naver.com
 - 3)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bobosstella@naver.com
 - 4)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junhumliji@hanmail.net

K-55기지 일대는 송탄의 원도심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K-55가 생기면서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왜관읍, 동두천시, 의정부시와 함께 군사도시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이 기지촌이라는 혼성공간을 만들어 냈고, 그 사이 송탄면에서 1963년 송탄읍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에는 송탄시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기지경제로 인해 송탄의 거점이 되었으나 송탄산업공단 조성과 미군의 증원과 감축에 따라 지금은 쇠락하고 있다.

K-55는 ‘성매매’ 문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다양한 문제를 공간에 남겼다. 주둔국과 지역민의 관계, K-55 주변 소음 및 진동, 비행안전 구역 건축제한, 전용 보급선 철도 통과, 주변 유흥업소 난립으로 인한 청소년 교육환경 저해 및 섹슈얼리티 문제, 범죄와 마약, 도시계획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서는 유흥시설과 성병 문제가 늘 화두였다. 캐서린 문(Katharine Moon)은 한미양국이 안정리와 송탄에서 일어난 인종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여성들을 민간외교관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미양국은 흑백갈등 조장하지 않기, 클럽, 바 등 유흥시설의 개선을 위해 기지촌 정화사업을 시행하였다. 기지촌 정화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을 넘어서 ‘기지주변 정비사업’으로 확대되어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송탄의 도시화와 도시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한국 속의 아메리카타운으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와 시민들에 의해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K-55 일대는 기지촌이라는 정체성에서 독특한 문화 상품 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K-55 일대는 2000년대부터 진행된 평택지역 미군기지 사업(LPP, YRP)으로 인해 기지 곳곳의 확장이 진행 중이다. 기지 확장사업으로 인해 마을을 떠난 사람들과 확장으로 인해 기대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본고에서는 송탄지역 사람들이 K-55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송탄지역 사람들의 삶에서 K-55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중요한 공간이었고, 지금

도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인 도린 매시(Doreen Massey), 질리온 로즈(Gillian Rose),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 등은 공간과 장소는 이미 젠더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젠더가 구성되고 이해되는 방식을 반영하고 그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비드 바인(David Vine)⁵⁾, 문승숙, 마리아 혼(Seungsook Moon, Maria Hohn)은 기존 연구가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영향이나 주둔국의 정치적 저항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해외 군사기지는 국가 간의 경계와 주권을 흐리게 하는 혼성적인 공간을 형성하는데 일조했고, 지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렘(Gillem)은 해외 주둔 기지들의 물리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교외(suburban)의 개발 패턴들이 주둔 국가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보려 할 경우, 오산공군기지가 좋은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⁶⁾

기지촌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사회학, 역사학, 건축학, 경제학에서 주로 다루어졌다.⁷⁾ 이들의 연구가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면 최근에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⁸⁾ K-55 연구를 위해서 오산공군기지에 대한 정보를 국방부에

- 5) 데이비드 바인, 『기지국가: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어떻게 미국과 세계에 해를 끼치는가』 유강은 역(갈마바람, 2017); 문승숙·마리아 혼, 『오버데어』 이현숙 역(그린비, 2017).
- 6) Mark L. Gillem, *America Town: Building the Outposts of Empire*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2009), pp. 209~213.
- 7) 장세훈, 「전쟁과 도시화-한국전쟁 전후 서울의 도시화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8 (2002);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3.4(2007); 이나영 「글/로컬 젠더질서와 한반도 여성의 몸: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양공주"」 『동방학지』 (2013); 김미덕, 「한국 문학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아메리시안에 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07); 김미덕, 「주한미군 기지정치에 연구에 대한 검토」 『아태연구 21』 (2013); 박정미,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 『한국사회학』 (2015); 박정미, 「발전과 섹스」 『한국사회학』 (2014); 김조영, 「기지촌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1978); 김기주, 「기지촌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 『국토리지학회지』 (1980); 김원, 「60-70년대 기지촌 계획화의 변곡점」 『역사비평』 (2015); 김희식, 『매춘공간의 포함과 배제』(서울: 서울시립대학교, 2016).

문의하였으나 국방부는 세부 내역은 군사 기밀이라고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미군’과 관련된 사안은 ‘금기’로 여기고 있고, ‘미군’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발설할 수 없다는 게 군의 전반적인 기조다.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설명의 전부이다. 이런 제약 속에서 연구자들은 지역사가 충실히 복원되어야 전체사의 윤곽과 지역의 특수성도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헌자료와 지역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송탄 기지촌의 물리적 공간변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들은 송탄지역과 K-55를 문제를 이해하는데 심층 면접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인터뷰를 하였다. 송탄 지역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평택문화원 최00과 평택시민재단 이00의 소개를 받았다. 특히 초기 기지경제의 기반이었던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면접 대상자들을 소개 받았고, 이후의 사례들은 알음알음 소개를 받는 방식(snowball sampling)으로 만났다.

-
- 8) 이석길, 『평택군 평성읍 기지촌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1985); 최병두, 「주한미군의 미시적 정치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03); 조명숙,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여성 신학적 접근:K-55 미 공군 오산기지를 중심으로』(서울: 성공회대학교, 2006); 전경수, 「일본 기지촌의 형성과 미군-주민 관계」 『지방사와 지방문화』 (2007); 오지연, 『미군 기지촌 매춘 여성들의 주변적 문화: 의정부시 송산동 기지촌을 중심으로』(서울: 서울대학교, 1997); 장원석, 「오키나와 군사기지 건설과 주민 저항의 동인」 『대한정치학회보』 (2010); 차철욱, 「하야리아부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로컬리티」 『지역과 역사』 (2011); 루인, 「캠프 트랜스:이태원 지역 트랜스 젠더 역사 추적하기, 1960-1989」 『문화연구』 (2012); 오미일, 조관연, 「부평 로컬리티와 이주민:1945-1960년대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2010); 조정민, 「두 개의 미국-오키나와 아메리칸 빌리지를 둘러싼 표상 정치」 『일본연구』 (2015); 장세룡외 『젠더와 로컬리티』 (소명출판, 2017)

사례	이름	연령	직업	경험유형
1	오00	65세	농업	적봉리 초기 정문에 2대째 거주
2	김00	90세	자영업	전 금강홀 총괄 매니저
3	최00	66세	자영업	K-55에서 클럽 경영
4	문00	75세	자영업	전 송탄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5	최00	68세	자영업	K-55에서 22년 동안 클럽 경영
6	박00	64세	자영업	K-55에서 20년 동안 클럽 경영
7	신00	52세	회사원	전 황구지리 이장
8	이00	79세	자영업	전 송탄상공회의소 회장

〈표 1〉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는 대상자에게 연락을 한 후 주로 사무실과 집으로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인터뷰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인터뷰는 한 사례 당 짧으면 1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진행되었으며, 모든 면접은 연구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로 녹음을 한 뒤 문서로 옮겨서 자료화 하였다. 녹음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송탄의 K-55 일대가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간적 변화상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송탄 기지촌이 미군, 국가, 자본가, 시민과 주민에 의해 생성 변화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Ⅱ. 오산공군기지(Osan Air Base, K-55)의 형성과 확장



<그림 1> 오산공군기지 (1952년)⁹⁾

<그림 2> 오산공군기지 (1963년)¹⁰⁾

오산공군기지(Osan Air Base)는 평택시 송탄에 있는 기지다. 한국 공군 기지 작명법에 따라 K-55라고도 불린다. 한국전쟁 중에 벌어진 대규모 건설 사업은 UN 극동공군(Far Eastern Air Force)의 비행장 건설계획이었다. 북한 지역을 포함하여 총 28개의 비행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K-지정번호’로 만들어진 명칭은 지명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¹¹⁾ 이곳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과 서탄면 일대에 걸쳐 있는 곳이고, 주한 미군의 합동 기지로, 미국의 제7공군 주력부대인 51전투비행단과 제5정찰단, 제31특수작전항공단, 제303정보단, 제631공수기동지원단, 제33구조단과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사령부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등이 있다.

오산공군기지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 ‘총검의 고지 전투(Battle of Bayonet Hill)’가 일어났던 곳이다. 그해 11월 미국은 한국에 전투지원단을 지원하는 공군부대 주둔지로 평택군 진위천 들

9) Osan AB 공보실

10) 사진을 제공한 평택향토사연구소 최치선 상임위원께 감사드립니다.

11) 김영일, 『주한미군기지 역사 -반환기지를 중심으로』 (서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지이전사업단, 2015) 14쪽.

판에 인접한 서탄면 야리·적봉리·신야리 일대를 지정했다. 그들은 이곳을 오산리(Osan-Ni)'라 했고 기지 이름을 '오산리 AB(Osan-Ni AB)' 명했다.¹²⁾

1952년 12월 1일 한국 정부는 오산공군 기지일대 1523,11에이커(약 1,864,551,76평)를 공여했다.¹³⁾ 오산공군기지는 1952년 3월 미공군이 서탄면 적봉리, 신야리, 금각리, 장등리와 송탄면의 제역·구장터 일대 평야를 가로질러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형성되었다. 이곳은 '썩고개'라고 불리었는데 '썩고개'란 '숫고개'가 변음된 이름이다. K-55 주둔과 함께 기지촌 특유의 저속한 대칭 명사인 '썩고개'라 불리기도 했다. 기지촌이 생기기 전에는 구릉진 한촌으로 농가 10여 호에 지나지 않았으며,¹⁴⁾ 미군기지가 건설되면서 기지가 주둔하는 원적봉 마을과 장등1리 긴등마을은 마을 뒤편의 산등성이로 집단 이주했다. 야리, 신야리의 주민들은 경작지와 가까운 신장1동 구장터(폐동)와 제역동, 서탄면 황구지리, 금각2리 등으로 분산 이주했다.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기지 정문과 후문이 있었던 적봉리와 사거리 일대, 신장동 제역동 마을(일명 지골)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었다.¹⁵⁾

1952년 7월 9일 서울이남 약 38km지점에 미 제839, 841, 417 항공대대가 비행기 활주로, 유도도로와 격납 경사로 등을 깔기 시작했다. 3개 항공 공병대대가 오산 839, 840, 841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공병대는 9000피트에 달하는 8인치 두께의 콘크리트활주로를 두 달 반 만에 완성했다. 유도도로가 또한 완성되고 격납경사도가 거의 완공에 즈음하여 1952년 12월 26일 제18전투-폭격비행단과 하나의 F-51 전투비행중대가 도착하였다.¹⁶⁾

12)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1』 (평택: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14) 426쪽.

13) 국방부의 정보공개요청결과 확인되었고, 같은 날에 오산부속탄약고(베타 사우스)가 공여되었다.

14) 안장현, 『송탄신흥교회 40년사』 (서울: 송탄신흥교회, 1992) 74쪽.

15) 김해규 외, 『미군 평택주둔 역사 및 생활문화에 끼친 영향』 (평택시민신문, 2017) 100쪽.

16) 오산공군기지 홈페이지(osan.af.mil)

1950년도 6월 25일 전쟁이 나고 나서 1951년도서부터 비행기장이 난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농사짓던 사람들이 뭐 어떻게 나가야될지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거라. 그냥 있었는데 정부에서 10개 호 열 집정도 그 정도가 1개 반인데 거기다가 네모진 하얀 텐트를 하나씩 주더라고. 그거 하나가지고 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지. 그리고선 한 집에 투파이프라고 각목 열두 자 짜리 이거를 다섯 개씩 한 집에 그게 집을 지으라고 준거예요. ‘안 나가면 불도저가지고 밀 테니까 집이 쓰러지는 건 모른다.’그러면서 위협을 하니까 이거 전쟁 중에 어쩔 도리가 없지. 돈 한 푼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났는데, 또 그 비행기장이 나면서 철조망을 둘렀는데 그밖에 농지들이 남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농지가 있어야 값도 안 나가도 그러니까 6.25 사변 나고 나서 1년 동안 그 전에 국가에서 토지 분배를 해가지고 5년 동안에 상환을 해서 소유를 갖도록 분배를 했었다고. 하자마자 비행기장이 없게 되니까 상환도 못하고, 가지고 있던 쌀이 몇 가마씩 있었으니까 여유가 이제 그거가지고 비행기장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니까 임시로 1년 동안은 농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년 농사하는 걸해서 한 가마에 200평 이런 식으로 샀다고. 또 그렇게 해서 농사지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더 몇 년씩 지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졌지.(김범렬, 1936년생 서탄면 야리 출신)¹⁷⁾

한국과 미국은 K-55 미 공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이 일대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미 공병대와 한국인 노무자들을 투입해 두 달 반 만에 2,740m의 비행장 활주로를 완성했다. 같은 해 11월 18일 전투폭격비행단과 그 비행단의 F-51 전투비행 중대를 비롯한 두개 중대가 배치되고 그 부대는 이후 F-86으로 전환됐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같은 해 미 제5공군 본부가 주둔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1954년 1월 ‘항공전술본부’가 재배치됨으로써 한국 내 미 공군의

17) <https://www.youtube.com/watch?v=p6e1Y8ORCGg>,

주된 허브기지가 됐다. 이때부터 부대 정문을 중심으로 미군들을 상대로 한 상점과 위탁시설이 밀집한 기지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56년 9월 공식 명칭을 ‘오산리 AB(Osan-Ni AB)’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산AB(Osan AB)’로 변경했다.¹⁸⁾ 1958년 3월 31일~8월 14일까지 K-55 기지 장교숙소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1958년 미 공군의 영구기지로 전환 된지 3년 뒤 1961년 7월 1일 미군으로부터 2개의 전투비행단과 2개의 비행전대를 예속 받아 한국공군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오산공군기지는 주한미군시설이 되었다. 1965년 2월 9일~1966년 2월 11일까지 K-55 기지내 극장 및 탄약고 공사가 완공되었다.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에 휩싸이자 미국은 일명 ‘컴배트 작전’을 계획하였다¹⁹⁾. 한국의 방위를 명분으로 주한공군력을 확충을 약속하면서 미국은 1,000여 명의 병력과 650만 파운드의 군수물자를 오산기지에 증강 배치했다.²⁰⁾ 주한미공군은 푸에블로호 사건 후 한국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68년부터 서둘러온 오산 미 공군기지를 비롯한 한국 내 미 공군 작전기지에 대한 확장공사 등을 완공하게 되었다.²¹⁾ 오산과 군산 및 한국 내 공군기지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주한미군시설은 영구화 된 것으로 보인다.

1971년 김포공항에 주둔해 있던 주한 미 공군이 오산기지로 이동하면서 김포 미공군기지가 폐쇄절차에 돌입하였고²²⁾, 1971년 11월 군산비행장에 배치됐던 3rd전술전투비행단의 36th전술전투 부대가 오산베이스로 옮겨왔고 1974년 51비행단으로 재편됐다.²³⁾

1972년 6월 27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합의가 발표되면서 오산공군기지는 계속적으로

18)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27쪽.

19) 『전우신문』, 1968년 3월 28일(1면)

20) 『전우신문』, 1968년 11월 22일(1면)

21) 『경향신문』, 1970년 1월 8일(2면)

22) 『매일경제』, 1971년 7월 6일(7면)

23)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27쪽.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²⁴⁾ 미 공군의 통신대대가 한국으로 이동하여 오산에서 다시 창설하게 되었는데, 이 통신대대는 1964년에 창설되었고, 1977년 해체되었지만 이 부대는 한국에서 재창설하게 되었다²⁵⁾. 1978년 9월 15일~1982년 12월 15일까지 K-55기지내 H-TACC(Hardened Theater Air Control Center) 신축공사가 이루어졌다. 전술항공 통제본부로 불리는 이곳은 비행기와 레이더의 총 통제본부로 공군기지내의 중심역할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1979년 서정동에 주한미군 아파트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미군들의 기지 밖 생활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1988년 오산공군기지에 F-16이 배치되면서 격납고와 군수품 저장소 및 숙소 등이 새롭게 건설됐다. 1990년 6월 5일 한미간에 용산 미군 기지를 1996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합의각서가 채택되었다. 1991년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가 폐쇄되자, 미 태평양 공군에 하 7공군 본부가 오산으로 이전해오면서 1993년 10월 1일 제51 전투비행단으로 개편됐다.

2002년 연합관리토지계획(LPP)의 일환으로 전국 4000여만 평의 토지와 용산기지를 한국 측에 돌려주는 대신, 평택지역에 349만평의 대체 부지를 미국 측에 공여키로 했다. 당시 오산공군기지 주변 64만평은 금각2리, 황구지리와 신장1동(구장터) 고덕면 장현리 5개 부락 26,800평이 포함되었다. 2008년 오산공군기지 내 새로운 아파트와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합건물이 완성되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 동안 오산공군기지는 노후화된 활주로 수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2000년 5월 한 달간 활주로를 폐쇄하기도 했다. 2009년 2월 6일 주한미군 제7공군에서 작성한 <2007년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제2활주로 설치, 송탄공군기지>에 따르면 서탄면 회화리 방향으로 길이 2,745m, 폭 45m의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새로운 활주로는 C-17, C-5등 대형수송기를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며 건설비용은 한국 정부가 970억 원을 들여 무상 제공한다. 2009년부터 공

24) 『동아일보』, 1978년 3월 17일(1면)

25) 『경향신문』, 1981년 1월 22일(6면)

사는 1,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²⁶⁾ 2018년 활주로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고 잔여공사를 하고 있다.

오산공군기지의 확장은 북한의 도발과 베트남전, 걸프전 등 국외의 분쟁으로 인한 요소와 1960년대 제3세계에 대한 원조가 군사부문에 있어서 경제부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미국정부의 방침 전환에 따른 정치적·군사적인 고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군이 증원하고 감축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Ⅲ. 기지촌의 정착과정과 변화



<그림 3> 신장동 정문(1957년)²⁷⁾



<그림 4> 적봉리 초기 정문(2018년)²⁸⁾

1952년 본격적으로 미공군기지가 운용되면서 서탄면 적봉리에 있던 부대정문을 현재 위치인 신장동으로 옮겼다. K-55는 주둔 초기 만해도 적봉리에 정문을 두었고 곳곳에 소통문을 설치했다. 기지촌은 적봉리 정문 초입의 ‘사거리’에 먼저 발달했다. 그러다가 정문이 신장1동 제역동 일명 지골 부근으로 옮겨가면서 신장쇼핑몰 일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²⁹⁾

26) 현호헌, 「송탄 미군 활주로 신규 건설 대응 투쟁」 『평화누리 통일누리』 (2010), 16쪽.

27) Osan AB 공보실

28) 사진을 제공한 평택향토사연구소 최치선 상임위원께 감사드립니다.

29) 『평택시사신문』, 2016년 3월 2일(7면)

여기가 우리 집인데 옛날에는 흠이었어. 여기서부터 사거리까지 흠이 있었다. 원래 기지 정문은 저기 차가 서있는 도로변이 원래 부대 담이었다. 점점 확장하면서 엄청 커졌다. 옛날에는 보상이 없고 거의 다 뺏기다 싶이 했다. 논이고 밭이었는데 그게 확장 되서 지금에 이르렀다. 원래는 원적봉리라고 해서 활주로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다시 이곳으로 왔는데 다시 확장하면서 땅 뺏기고 쫓겨나게 되었다. 우리 집은 저기 부대 안에서 살다가 또 나왔고, 우리집 논이 다시 미군부대로 편입될 때가 1970년대였다. 당시 우리 아버지가 평당 250만원 받았다. 원주민들은 대부분 지금은 나가서 살고 있다.³⁰⁾

오산공군기지는 우리나라의 다른 군사도시처럼 비슷한 형성과 쇠퇴기를 가지고 있다. 미군부대는 주민들의 집터, 논, 밭, 산 등에 자리를 잡아 부대시설을 건축하였고, 주민들은 부대 근처에 살거나 다른 동네로 옮겨 가기도 하였다. 미군부대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서비스업, 유흥업, ‘매춘’업 등이 생겨나면서 미군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K-55 건설당시 이 지역은 인가보다는 산과 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전란의 와중에서 미군기지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제 토지가격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구장터의 주민 유모씨는 “보상 받을 금액이, 서울로 버스타고 가서 제 경비를 쓰고 내려오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보상비 수령을 포기 했었다.”고 말하면서 “수용된 진위천 주변의 토지는 그야말로 기름진 논인데……”라고 지금도 아쉬워했다. 미 공군 기지는 건설 당시 전방을 지원하는 전술비행단의 주요 작전기지로 쓰였으며, 계속 시설 확장을 했다.³¹⁾

당시 오산공군기지 주변마을은 오산공군기지 건설로 수용당하거나 이전을 해야만 했다. 신장동은 19세기 초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구장터(舊장터)는 신장1동의 마을로 미군기지확장으로 마을 규모가 축소되고 전투기 착륙으로 인한 소음으

30) 오대철(65세), 인터뷰 날짜(2018년 3월 10일)

31) 송탄시, 『송탄시사』(송탄: 송탄시사편찬위원회편, 1994) 2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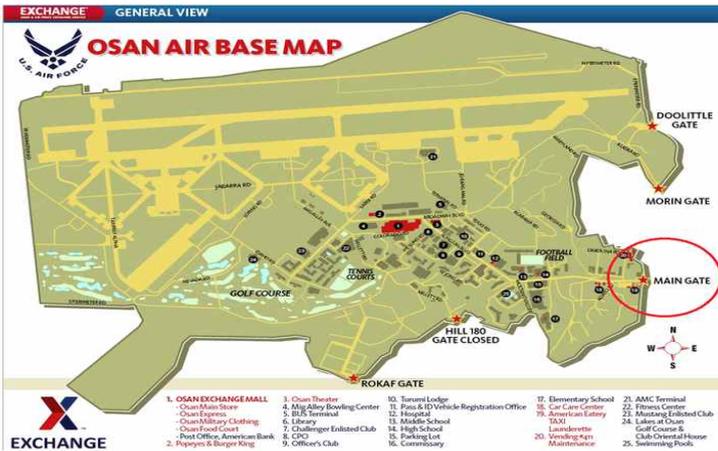
로 2007년 집단 이주하였다. 밀월(密月)마을은 K-55 경계에 따라 산등성이에 피난민들이 집을 짓고 살면서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고, 복창(福昌)마을은 K-55가 건설되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신창(新昌)부락은 K-55가 형성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마을로 통상적으로 ‘황해도촌’이라 불린다. 주로 미군부대에 취업하였고, 기지 정문에 모여 살았다. 피난민과 실향민들은 미군부대에서 나온 각종 군수품과 수송박스를 주워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이어 집의 형태를 만들어 살았는데 이를 부로박스 집이라 부른다.

적봉리는 K-55 건설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 원적봉(原赤奉)은 미군기지 안쪽에 있던 마을로 1952년 미군주둔이 시작되자 마을 뒷산으로 이동했지만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야리(野里)역시 미군기지주둔으로 마을 빼앗기고 주민들은 구장터, 목천동, 적봉리로 흩어졌다. 신야리(新野里)역시 야리와 마찬가지로 활주로 건설로 없어지면서 주변지역으로 흩어졌다. 장등리(長登里)는 미군기지 내 골프장 인근에 있었던 마을이다. 1952년 미군기지 확장으로 1리 원장등 마을이 2리 구역리 마을 동쪽 산기슭으로 강제 이주 당하였다. 주민들은 강제이주당하면서 옛 마을에 있던 가옥들의 자재로 거처를 마련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밀가루로 연명하였다.

1992년 추진되던 미 8군 용산기지 이전 토지로 예정되어 이농민이 많았으나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었다. 구역리 마을은 강제 이주당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북쪽의 경작지 상당부분을 빼앗겼다. 금각리(金角里)는 미군기지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금각1리와 금각2리로 형성되어 있었다. K-55 확장으로 농소부락이 없어지고 금각 1리의 경우 농토가 수용 당하였으며, 금각 2리의 경우 미군기지 활주소에 위치해 있어 비행기 이착륙소음으로 피해가 컸다. 여기서는 미군기지 확장반대투쟁이 처음 전개되었으며, 마을동쪽에 평화의 논(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1135번지 2000.3㎡)이 있었던 곳이다.

〈그림5〉을 보면 K-55로 통하는 문은 메인 게이트를 비롯해서 총 4개가 있다. 초기 정문은 적봉리 이었으나 1950년대 후반 지금의 신장동이 메인 게이트로 정해졌다. 메인 게이트가 확정되자 적봉리에 있던 서비스업,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면서

인구가 집중되게 되었다. MORIN GATE는 모린(MORIN) 헌병을 기리기 위해 게이트 이름으로 명명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송탄역에서 모린 게이트로 들어가는 선로명은 ‘보급선’이다. 송탄역에서 K-55 기지로 연결한 선로거리는 600m이며, 1952년부터 오산부속탄약고(베타 사우스)로 기능하였으며, 이후에는 주로 유류수송과 군용기 화물 및 각종 화물을 서울 이남으로 옮기는 역할을 했다. 지금도 월 3~4회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베타 사우스(탄약고)는 LPP계획에 따라 2004년 우리 측에 반환되었으며 지금은 평택국제 교류센터와 신장공원이 들어서있다. K-55의 후문인 두리틀 게이트(DOOLITTLE GATE)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에서 활약했던 두리틀 중령(James Harold Doolittle)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다. 두리틀 중령의 폭격대는 B-25 미첼(Mitchell) 중폭격기 16대로 출격하여 도쿄, 고베, 나고야, 요코하마에 위치한 목표물에 대해 임무를 완수했다. 오산 미 공군 비행단에서는 두리틀 중령의 역사적인 임무 완수를 기록하기 위해 부대로 들어가는 게이트를 ‘두리틀 게이트’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HILL 180 GATE는 ROKAF GATE(공군작전사령부)가 생기면서 폐쇄되었다고 한다.



<그림 5> 오산공군기지

기지촌이 안정화되고 확장되면서 K-55는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일거리를 제공했다. 부대 정문을 중심으로 한 경계는 신장쇼펍물 중심가가 생겨났다. 본래 이곳은 낮은 구릉이었고 제역동이 있었으며 우측에는 하천과 논밭이 있었다. “1952년 철로가 갖 들어선 이곳은 이름도 없던 신호장(信號場)역이었다. 여객이나 화물을 위한 역이 아니라 열차의 교행을 위해 설치되었다. 이름 없는 역, 사람들은 이 역 보다 이 역에서 이어진 부대보급철로의 차단기 소리를 먼저 알았다. ‘땡땡’사람들은 차단기에서 ‘땡땡’소리가 난다 해서 ‘땡땡 거리’라 불렀다.”³²⁾ 일명 ‘보급선’이 부설되면서 미군들을 위한 공간과 한국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지금의 모린 게이트로 들어가는 보급선과 경부선으로 이어지는 철로로 갈라지는 길목에 철도 건널목이 만들어졌다. 경부선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서 기차길 주변으로 집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미군들의 유흥공간인 클럽이 신장동과 좌동과 지산동을 중심 들어서게 되었다.

1950년대 미군 홀이 처음 생긴 게 좌동에 생겼어요. 지금의 송탄파출소 근처 인데. 거기에 홀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세븐업 클럽이었고, 다른 이름은 기억이 안남. 이후에도 좌동에 3~4개 정도가 유지되었고, 흑인들이 제일 드나들었던 클럽이 바바조였고, 여기가 장사가 제일 잘 되었어요. 1973년쯤 바바조 홀이 없어졌지만 좌동과 지산동에는 금강홀 이라든지 파이버스팟이 있었는데 금강홀은 1969년 정문 쪽으로 이전했고, 1980년 초까지 지산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있다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정문 쪽으로 이전했었어요.³³⁾

지금 경부선 철로 양쪽으로 흥등가가 있었다. 흥등가. 송탄역이 거 있었거든. 역전 앞 양쪽으로 빨간 불이 켜 있어. 그런 내국인들을 위한 흥등가. 또 이쪽에는 이제 그 저게 미군들 상대하는 클럽들이 있었어.³⁴⁾

32) <http://www.pyeongtaek.go.kr/tour/contents.do?mId=0304020200>(검색일: 2018.06.13.)

33) 김00(90세), 최00(66세), 인터뷰 날짜(2018년 6월 23일)

34) 이00(79세) 인터뷰 날짜(2018년 4월 12일)

K-55가 들어서면서 미군들의 유흥공간인 클럽들이 좌동에 최초로 생겼고, 인근인 지산동으로 확산되었다. 정문 쪽 신장동 클럽은 엘간 골목을 중심으로 한 백인들이 모여들었고, 좌동과 지산동에는 흑인들이 모여들면서 유흥공간이 형성되었다. 신장동쪽 클럽은 엘간 골목으로 대표된다. 엘간 골목은 남산터로 나가는 골목 끝에 ‘엘간 클럽’이라는 있어 유래됐다. 엘간 클럽이 유명해지자 ‘aloha (알로하)’ 같은 수많은 클럽들이 문을 열었다. 현재 부대 좌측으로는 큰 하천이 있었고, 우기 때마다 홍수의 피해가 극심하여 1970년 초에 복개하였으며 그 위에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저녁시장이라고 불렸다. 1970년대 말쯤에는 골목 안과 밖에 30여 개의 클럽이 성업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좌동과 지산동은 ‘바바조’, ‘빅조’ 라는 클럽이 있었고, 좌동 경기관광호텔 건너편에는 흑인들을 고객으로 하는 양복점과 식당들이 즐비했다. 또한 송탄에는 미군들을 위한 유흥공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신장1로를 중심으로 남서쪽에는 엘간홀골목, 영천관광호텔골목, 송탄관광호텔골목이 기지촌의 중심이었다. 송탄역 땡땡 거리 인근에 한국인을 위한 매춘공간이 2개가 형성되었다.

1960년대 생존과 상업적 필요에 따라 집과 상가를 짓다보니 곳곳에 건물이 들어섰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골목이 형성됐다. 하꼬는 일본어로 상자를 뜻한다. 하꼬방은 그 모양새가 상자처럼 작은 방과, 부엌만 딸린 집이다. 송판으로 벽을 하고 미군수품포장 박스를 잘 퍼서 지붕을 덮었다. 그 재료에 빗대어 판잣집이라고 했다. 판잣집은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은 송판을 살 정도의 여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다. 1970년대 중반, 새마을 운동과 함께 브로쿠 집이 등장했다. 새마을 주택이라고도 불리는 브로쿠 집은 시멘트로 찍어낸 블록을 쌓아 벽을 만들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집이었다. 슬레이트는 골판지처럼 구불구불하게 주름진 석판을 말한다. 브로쿠 집들은 지금의 집들보다 훨씬 낮고, 단층이며, 도화지만한 창문을 가지고 있었다. 또, 블록으로 이은 담장 안엔 손바닥만 한 마당도 생겨났다.³⁵⁾ 하꼬방들은 1960~70년대 기지촌이 활황기를 맞고 정부가 기지촌 정화사업을 추진하며 상가가 밀집한 중심가로는

슬래브, 뒷골목은 벽돌슬레이트 건물로 바뀌었다.

송탄은 1966년 8월 31일 건설부고시 제2702호로 첫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 당시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일부 지역(신장리, 서정리, 이충리, 지산리, 독곡리, 장당리)을 대상으로 면적 15,407,000㎡, 계획인구 90,000명을 목표로 가로, 공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업무지구로 나누어 계획을 추진할 만큼 인구가 급증세였다. 송탄의 인구는 1950~1960년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1961년 인구는 34,470명(남:16,749, 여:17,721) 6,597가구였으며, 1964년에는 40,005명(남:19,494, 여:20,511) 7,234가구였으며, 10년 뒤인 1974년에는 55,363명(남:26,832, 여:28,531)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³⁶⁾ 늘어가는 인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였다. 1971년 송탄읍에서는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고 원활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송탄읍 철도횡단 과선교’가설공사를 하기로 했다.

본 공사는 송탄읍 신장리의 K-55 비행장을 위시해서 형성된 소도시로서 일익 발전하여 현재 인구 5만을 헤아리는 도시를 이루게 됨에 따라 철도 양쪽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가 불과 1개 밖에 되지 않아 교통소통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던 바 우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철도횡단 육교의 교각교대를 설치코저...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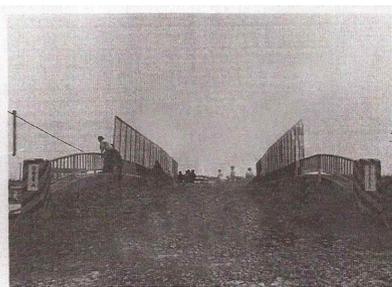
35) <http://www.pyeongtaek.go.kr/tour/contents.do?mId=0304020200>(검색일: 2018.06.13.)

36)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14쪽.

37) <송탄읍 신장리 철도횡단과선교 가설공사 시행승인신청> 경기도 평택군 건설과, 1971,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07118.



〈그림 6〉 신장고가육교 시공지점 (1971년)



〈그림 7〉 신장고가육교 완공(1972년)

출처 : 국가기록원(BA0007118) 출처 : 국가기록원(BA0007122)³⁸⁾

신장고가육교는 송탄읍의 예산으로 1971년 처음 발주와 공사를 시작으로 1972년 3차의 공사 끝에 일부 완성을 하였다. 공사가 지연된 데에는 예산의 문제가 컸었다. 1972년 당시 상판 1경간과 난간 1기로 완공되었다. 송탄의 도로교통은 1950~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군기지에서 남동쪽으로 직진해 경부선철도 건널목을 건너는 길이 중심도로였다. 이제는 송탄고가육교가 건설되면서 K-55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다.

K-55가 형성되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1차 산업 중심이었던 농촌마을에 미군을 상대로 하는 클럽을 비롯한 시장이 개설되고,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 이들의 개척에 의해 주거지가 개발되고 교통, 수도, 전기 등의 편의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송탄의 원도심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기지촌 주민들은 송탄시를 만들어온 개척자라 할 수 있다.

IV. 기지촌 새마을 운동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국은 내부 갈등과 안보 전략 수정으

38) <송탄과선교 3차 공사 시행건>, 경기도 평택군 건설과, 1972, 국가 기록원 관리번호 BA0007122.

로 주한 미군 철수를 적극 고려하고 있었다. 1971년 3월 미7사단 철수로 미군 2만 명 감축이 현실화되었고, 같은 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까스로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외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미국의 요구사항이었던 기지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1년 12월 31일 ‘기지촌 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정부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형태였고,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1972년 기지촌정화사업으로 11억 5천만 원이 투입되었고, 주로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었다. 민군관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특정 인종의 고객에 대해 차별적인 행동을 삼가도록 여성들을 훈련시킬 것을 요구했고, 여성 등록제와 정기적인 성병검사 강화, 성병에 감염된 여성을 격리시켜서 치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³⁹⁾ 이런 정부의 시책에 따라 송탄 성병진료소가 1975년 신설되었다.⁴⁰⁾ 또한 외국군 주둔지역의 주변 정화를 위한 각종 범죄단속계획이 마련되었다. 목적은 외국군 주둔 지역에 성행하고 있는 보건의범죄, 강력사범, 경제사범, 퇴폐풍조 사범, 군용물 절도사범을 엄단하여 기지촌 주변의 생활환경을 정화하여 외국군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보호와 우호적 자세확립을 위한 토대를 이룩하여 외국군인들의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국에서의 근무의욕을 북돋우어 국가안보에 기여토록 한다.⁴¹⁾ 파주, 평택, 오산은 중점 관리대상 지역이었다.

1972년부터 시작된 기지촌 정화사업은 K-55일대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지검 수원지청은 관내 미군주둔지역인 평택군 송탄읍과 평성면 안정리에 대한 기지촌정화위원회를 조직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⁴²⁾ 경기도는 금년도 기지촌환경정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이 6,331만원을 들여 양주군과 평택군관내 기지촌에 도로 및 뒷골목 포장을 비롯하여 주택개량, 하수도시설 등 환경정화사업

39)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섹스동맹 기지촌 정화운동’ 2003. 2. 9 방송

40) <송탄 성병진료소 공인신조>, 경기도 평택시 기획재정실 기획감사담당관, 197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663201.

41) <외국군 기지촌 주변 정화를 위한 장기계획>,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1970,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A0210058.

42) 『경인일보』, 1975년 3월 26일(3면)

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기지촌정화위원회로 하여금 주도적 참여를 유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기지촌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새마을운동의 시범 도장이 되게 가꾸어 나가게 했다.⁴³⁾ 정부의 시책에 따라 기지촌 새마을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1972년 오산-송탄간 비행장선 건널목 수도관 보호 흙관 설치공사가 기지촌 정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K-55 기지촌에 상수도 급수관을 설치하는 공사로 경부 본선 인근과 군용철도 인근에 각각 시공되었다.⁴⁴⁾ 1977년에는 성병의 완전 퇴치를 위해서 경기도내 지방공무원 인력증원도 이루어졌다. 평택의 경우 송탄성병진료소에 의사 1명 증원, 간호원은 송탄진료소 2명, 안정리성병진료소 1명 증원, 임상병리사도 평택성병관리소 1명, 송탄성병진료소 2명, 안정리성병진료소 1명 등 총 8명의 정원 증원이 이루어졌다.⁴⁵⁾

K-55는 한국방위를 명분으로 기지를 확장해 나갔고, 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도 늘려나갔다. 한국 정부는 기지촌 정화사업을 명분으로 기지촌에 물질적이고 행·재정적인 혜택을 주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로교통 시설이 열악했던 신장고가교를 확장 및 포장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공사에 따른 이해득실관계와 토지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에 카츄사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일을 했으나 월급이 너무나 적어서 1971년도에 송탄에 와서 미군부대에서 일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오산비행장 순시를 왔다. 당시 음장과 ‘개발위원’들이 모여서 전달한 건의사항은 송탄파출소에서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길을 내달라는 얘기였고 지원이 결정되었다. 1974년부터 도로 편입과 관련된 논의를 거쳐 1976년 고시를 거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원래는 금강홀에서 정문으로 가는 직선거리계획이 있었는데 소위

43) 『경인일보』, 1975년 2월 8일(3면)

44) <오산-송탄간 비행장선 건널목 수도관 보호흙관 설치공사>, 철도청 철도건설본부 건설계획국 계획과, 197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10930.

45) <기지촌지역 성병진료소 인력증원 요구>,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 자치제도과, 1977, 국가기록원(BA0840404)

‘개발위원’들의 이권을 따져서 경기은행으로 꺾어서 정문으로 가도록 했다. 당시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여기에 응하지 않았으나 집을 강제로 부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사를 했다. 당시 공권력이 무서웠다.⁴⁶⁾

이 사업은 총공사비 5억3천5백만 원을 들여 송탄읍 지내에 고가교연장 180m를 15니비로 시설하고 도로연장 587m를 15~23m 너비로 포장하는 일이었다.⁴⁷⁾ K-55 진입로 고가교 및 포장공사는 1976년 9월 27일에 시작하여 1977년 5월 10일 완공하였다. 지금도 지역 내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기지촌 정화사업에서 미군들이 제기한 불만은 위생에 대한 불만이었다. 특히 미군들이 먹고 마시는 물과 얼음의 위생에 문제제기를 했을 뿐 아니라 외관과 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시설공사를 하는 업소에게는 금융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과거 업소들은 적고 미군숫자가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되었다. 건물이 반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스테레오 클럽, 오비하우스 이곳에만 새로 지은 건물이었다. 미군에서 나온 양철지붕을 덮어서 사용했다. 미군업소가 음악과 여자위주로 장사를 했고,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게 오디오시스템이었다. 실내인테리어는 형편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면세혜택이 가장 컸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했었다. 관광업을 하고 있으면 감면해줬다. 지금의 쇼핑몰 거리가 정화가 된 것이 1988년 올림픽 때였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니 허가 기준 때문에 두 건물이 합쳐야 가능했고, 그래서 지금도 지분이 두 명이상 사람도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오산공군기지를 방문했다가 낙후된 것을 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당시만 해도 건물다운 건물이 4-5개 밖에 없었다. 금문교클럽은 올림픽 전에 건설되었다. 1980년대 장사하면 25불짜리를 4분의 1을(quarter)라고 한다. 25불이면 맥주한 병 가격이다. 클럽허가는 미군 비례로 허가를 내주는 건데 관광진흥기금 용자를 받을 수 있었다. 단지 담보가 있으면 가능했다. 당시 허가받은 업소는 12개 인데 뒤늦게 7개가 합류해서

46) 문00(75세), 인터뷰 날짜 (2018년 8월 6일)

47) 『매일경제』, 1976년 9월 13일(6면)

19군데가 되었다.⁴⁸⁾

K-55의 주둔으로 지역개발을 비롯한 혜택을 받는 반면, 미군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관계는 미군에게 더욱 더 종속되는 형태로 진화되었다. 미군의 범죄가 있어도 그들은 소파 규정에 의해 치외법권의 혜택을 받았고 미군은 지역사회를 오프리미트(Off-Limit, 미군장병 출입금지)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다. 오프리미트는 미군 부대 내 군기조정위원회(Armed Forces Disciplinary Control Board:AFDCB)에서 이 장병들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미성년 장병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미군출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군기조정위원회에서는 절차상 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있으나 미군 관계자 10여명이 앉아 있는 회의실에 업주가 한 명씩 들어가 해명을 하고 미군 측 인사가 통역을 해주고 있지만 마치 군사재판을 받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명이 어려운 실정이며, 해당 업주는 이러한 절차와 결과에 대하여 항의할 수도 없다. 업소나 상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나 근거 제시를 요구하면 미군 측은 오프리미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둔국과 지역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기지촌 정화사업은 공식적으로 1972년~1976년으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77년부터는 새마을운동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지속되었다. 오산공군기지는 한국방위를 명분으로 기지를 확장해 나갔고, 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도 늘려나갔다. 한국 정부는 기지촌 정화사업을 명분으로 기지촌에 물질적이고 행·재정적인 혜택을 주었다. 기지촌 새마을 운동은 계도화된 지역민들의 불만무마와 미군으로부터 안정적인 외화획득을 위해 동원한 국가사업으로 보인다.

V. 순환도로 건설과 갈등

48) 최00(68세), 박00(64세) 인터뷰 날짜(2018년 6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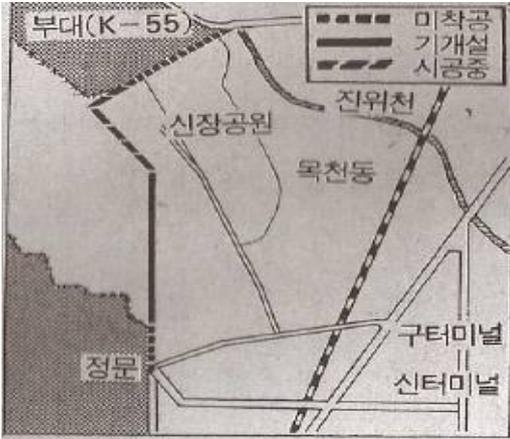
1981년 시가 된 송탄시는 도로개설공사 용역을 시작으로 도로건설과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송탄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은 송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평택지역 최초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 면적은 521,490m²이었다. 1979년에 이어 1984년에도 서정동 미공군임대아파트 조성을 서두르고 있었다.⁴⁹⁾ 1985년 기지주변 정비 사업으로 서정동 중 2-2호선 도로개설, 지산동 소 2-65호선 도로개설, 송탄역 육교설치 공사를 시행하였다.⁵⁰⁾ 1980년 구장교 건설을 시작으로 지역 내 도로 체계 구축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1987년 6,082,597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과선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과선교를 확장 신설하였다.⁵¹⁾ 특징적인 점은 K-55를 중심으로 도로연계망이 구상되어 있다는 점이다.

1985년부터 K-55 후문 두리틀 게이트 진입로 확장공사가 진행되었다.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송탄 건널목 확장과 입체화 공사에 따른 예산 부족문제가 발생하였다. 송탄시와 K-55측 철도청간에 협의가 필수적이었는데 K-55측의 비협조로 공사가 늦게 진행되었지만 K-55기지 후문으로 이어지는 송탄육교는 1987년 6월 18일~1988년 12월 28일에 완공하였다. K-55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K-55정문에서 구장터로 이어지는 순환도로 건설에서도 나타났다.

49) <송탄 외국인 임대아파트단지 조성에 관한 건의>,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택지개발과, 1984,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862192.

50) <1985 기지주변 정비사업 설계용역>, 경기도 송탄시, 1985,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890992.

51) <경부선 송탄-서정리간 기점 65k 부근 복창과선교 확장공사>, 철도청 서울지방철도청 시설국 건축과, 198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11967.



<그림 8> 순환도로 건설 현황(1992년)

출처: 송탄신문, 1992년 3월 22일자

<그림8> 을 보면 이미 개설된 구간과 미착 공된 구간으로 구분된다. K-55 정문 앞과 모린게이트에서 구장터로 향하는 구간은 착공되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 측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해서이다. 1987년 당시 순환도로는 15미터 소방도로로 계획되었다. 신장1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하기 힘든 점과 남산마을과 구장터 사이의 베타사이트에 가로막혀 있어서 멀리 돌아서 가야한다는 점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던 K-55정문에서 남산부락간 순환도로 개설이 정문옆 부대토지와 탄약고 토지에 관한 미국 측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완공이 늦어지고 있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에 의하면 도로개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상당수 되는데 그중 신장1동 남산터에 도로 공사 중이던 지난여름, 흙을 파놓은 상태에서 장마가 저 집 전체가 침수된 어느 주민은 시에서 보상을 해주었으나 절반정도 밖에 못 미치고,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이 여럿이라 그에 따른 문제로 인해 전세가 빠지지 않아 반허리가 잘린 채 침수 피해로 쓰러져가는 집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전세가 빠지기만을 기다리

며 살고 있다.⁵²⁾

순환도로는 송탄의 도시발전 구상에 따라 K-55 정문 일대의 도로교통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계획 선상에 포함된 군부대 당국과 협의하여 K-55 정문-남산부락-탄약고를 연결하는 중로 2류 2호선과 중로 2류 10호선을 개설하여 2500세대, 8200명의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정문 오른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었다.⁵³⁾ 1990년부터 시작된 K-55측과의 협의에서 K-55측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K-55측은 정문 앞 도로 개설로 기지진입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점, 부대 내 시설물이 편입되므로 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 토지협이는 미8군 이전계획과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는 등 3가지를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⁵⁴⁾ 1990년 4월부터 국방부와 협의를 시작으로 총 11차례 거쳐 진행되어 왔으나 지난 3월 말부터 정문 신축을 단행한 미군 측의 태도에 순환도로 건설 협의가 미궁에 빠져들게 되었다.⁵⁵⁾ 결국 K-55측의 양보로 정문이 완성되었고, 순환도로 공사가 재개되었다. K-55정문과 모린 게이트를 지나 구장교를 넘어서 비행장사거리로 가는 길이 완성되었다. 2002년 10월 베타사이트 부지를 반환받아 지금은 신장공원과 평택 국제교류센터가 들어서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지는 확장과 공간재편을 반복해 왔다. K-55를 둘러싸고 주거지와 생활기반시설이 형성된 까닭에 남산마을에서 구장터 사이에 있는 베타사이트(탄약고)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K-55는 송탄시의 순환도로 공사로 인해 기지 및 훈련장과 주변 환경의 질이 저하되면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주한미군의 시설의 잔존가치에 대한 무보상 조항으로 인해 K-55측은 한국정부로부터 더 많은 비용과 대체시설을 받아내

52) 『송탄신문』, 1992년 3월 22일(2면)

53) 『송탄신문』, 1992년 4월 11일(1면)

54) 『송탄신문』, 1992년 3월 22일(2면)

55) 『송탄신문』, 1992년 4월 25일(3면)

기 위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었다. 그 사이 지역민들의 불편함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갈등들은 전국의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VI. 미8군의 송탄이전과 K-55확장

1987년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본격화되었고, 유력 이전지인 대전의 반대로 평택이 후보지로 결정되게 되면서 안보논쟁이 시작되었다. 미8군 기지 이전확정 이전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반목 조짐이 있었고, 실제로 무기한 연기가 결정될 때까지 지역사회는 분열되어 있었다.

미8군 이전부지로 떠오르고 있는 송탄평택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전이 확정된 뒤 주민들 중 상공인과 행정기관에서는 미8군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재야단체와 농민들은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찬성 측인 송탄상공인회는 미8군 유치작전에 온 힘을 쏟아왔다. 상공인회 간부들은 송탄에서의 관광과 쇼핑을 소개하는 활동을 벌여 외국인 쇼핑객이 88년 3만6천4백 명에서 89년에는 6만3천여 명으로 73%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택상공인회 역시 미8군 기지 이전소식이 전해진 뒤 이 지역에도 건물 신축 붐이 일어 8월 현재 건축허가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배 이상인 1백6건이나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역상공인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공인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재야인사와 농민들은 퇴폐문화 확산, 미군범죄증가, 이농사태, 마약확산, AIDS 감염우려등과 함께 만일의 사태시 이 지역이 핵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⁵⁶⁾

1991년 7월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이 공식 발표되었다. 반대 측인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과 찬성 측인

56) 『동아일보』, 1990년 8월 29일(12면)

<송탄상공인회>로 나뉘어서 장외여론전이 시작되었다. 당시 고덕면 당현 2,3,4리의 경우 128가구에 530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서탄면 장등 1,2리의 경우 119가구, 490명이 살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행사를 못했을 뿐 아니라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시세에 못 미치는 가격이 책정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주민들은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덕면 당현2리에 사는 현상윤씨는 현씨 시조부터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곳에서 선친은 30여 년간을 미군부대에서 근무했으나 미군들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겨야 하니 억울하다고 말하며 그 동안 비행기 소음도 감수하며 살아왔는데 정말 불쌍한 서민들만 당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성영(44)씨는 왼쪽팔이 불구로 비생산자로 인정. 지난해 까지 영세민으로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해 수해로 살고 있던 토담집이 헐리는 바람에 빚을 내어 겨우 집장만을 했다는데 이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됐고, 빚으로 겨우 마련한 집을 이제 기지이전으로 떠나야 한다는데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반대에 대한 뚜렷한 의사 표시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단지 주민들의 요구대로 보상해 주겠다는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을 뿐 결속이나 연계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⁵⁷⁾

K-55 인근 지역은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수질오염에 시달려 왔다. 황구지리와 회화리 지역은 전투기 이착륙시 전화통화를 할 수 없고, TV시청 장애와 어린이의 놀람현상, 학교수업지장과 수면지장, 젓소 등 가축의 유산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황구지리입구 다리 아래로 비행장에서 유출되는 기름이 흐른다는 이유로 20여 년 전부터 ‘석유다리’로 부르고 있으며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아 논농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 비가 오면 기지로부터 폐수가 흘러나오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⁵⁸⁾

1991년 11월 15일 평택군청 회의실에서 ‘용산사업 추진을 위한 대

57) 『송탄신문』, 1991년 8월 10일(3면)

58) 전경일, 「한국땅 더럽히는 주한미군기지」 『월간 말』 (1992. 2), 180쪽.

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에게 국가시책이며 군사비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기피한 채 토지의 매수범위와 보상, 이주 등 대략적인 통보를 받았다. 회의 이후 '용산 미8군 기지 평택이전반대 추진위원회'를 꾸렸으며, 18일 국방부 용산사업단 관계자와 고덕면장 등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주민 2백여 명이 모여 마을 진입을 저지하기도 했다. 미군기지 발표 이후 인근지역 땅값이 대폭 상승하여 이곳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⁵⁹⁾ 주민들은 8군 이전 반대 주민시위를 벌였다.

미8군 이전지역으로 정부에서 공식 확정된 서탄면과 고덕면 주민들의 '용산 미8군 기지 평택이전반대 결의대회'가 9일 12시 30분 고덕면 당현리 현지에서 열려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어 각 마을 이장, 부녀회장등의 선창으로 '미8군 이전 철회하라', '나가면 거지 된다', '실망임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구호 제창이 있었으며 시가행진을 결의 오후 1시50분부터 가두시위를 시작으로 250여 주민들이 송탄시내까지 진출하여 경찰과 대치하다가 최초집결지인 고덕면 동청리로 돌아가 각 마을로 해산하였다.⁶⁰⁾

주민들의 반발은 기지 확장 때마다 생활터전을 쫓겨나야 했으며 심지어는 10여 차례 이상 되는 주민도 있었다. 5~6차례 옮겨 다닌 경험에 있는 80을 바라보는 할머니는 여러 차례 쫓겨 다니면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서러웠는데 20여년 고생해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 내 손자대에 와서 똑같은 철거민의 신세를 겪고 있다고 통곡한다. 52년 비행장설치 이후 기지를 13차례나 확장했는데 그 가운데 10여 차례는 현 주민들에게 해당 특히 그 가운데 7차례(1978년 이전)는 기지 수용토지 및 가옥에 대한 재산 소유권 대가보상을 채권, 그것도 20년이라는 장기증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농민들은 가계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4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경제적, 문화적 제한을 받으며, 군부대의 소음 및 폐수로 인해 피해를 받으며 살아왔고 선친의 조상묘역을 이전 할 수

59) 『송탄신문』, 1991년 11월 30일(1면)

60) 『송탄신문』, 1991년 12월 14일(1면)

없다고 하면서 현 K-55내의 골프장 부지를 확장기 위해 농사짓고 소 먹이는 것이 생계수단인 주민들을 내쫓는 것은 지나치다고 전하면서 여기가도 죽고 저기가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로인데 내 땅에서 죽겠다고 울분을 토로한다.⁶¹⁾

주민대표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돈수)와 서탄지구지원개발사업소는 보상 문제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5차례 걸쳐 개최하였으나 양측의 의견차이로 결렬되고 있었다. 1993년 6월 국방부는 K-55 인근인 서탄면, 고덕면 5개리의 26만8천여 평을 총 매입 비용 1~2조원을 들여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지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 측도 반미감정을 우려해 이전을 합의했으나 용산기지 잔류를 희망해왔다는 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K-55 주변은 한미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투기 이착륙 등 각종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기지 인근에서 농사짓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상단가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 되었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부대이전계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은행대출 등을 통해 송탄시 등 인근지역에 새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분묘를 이장하는 등 이사채비를 해왔다.⁶²⁾ 일부 주민들은 또 보상발표와 함께 2~3배가량 올랐던 땅값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됐으며, 그동안 보상과 관련 주민들끼리 찬성과 반대파가 갈라져 현재는 후유증을 치료할 수 없을 지경으로 갈등과 이해대립의 골이 깊어지는 정신적 피해마저 입고 있는 형편이다.⁶³⁾ K-55 기지는 1952년 이후 13번이나 확장되었지만 2001년 시작된 14번째 확장기도는 막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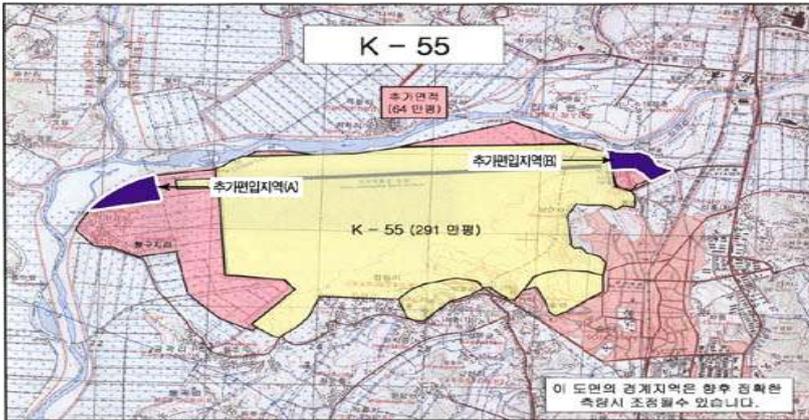
2001년 7월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제안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검토하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전국에 산재해있는 주한

61) 『송탄신문』, 1992년 10월 24일(3면)

62) 『동아일보』, 1993년 6월 19일(21면)

63) 『경인일보』, 1993년 6월 17일(15면)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체결된 LPP협정은 2002년 10월 국회비준을 받았고, 이에 따라 평택지역에는 74만평 규모의 기지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림 9〉 K-55 공여지역(총 공여면적 64만평)

K-55 미공군지기지 활주로 양 끝에 위치한 황구지리·금각리·구장터는 평소 전투기 이착륙 등 각종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집단으로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던 지역이다. 2003년 11월 미군기지 확장 반대 서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해 이주하고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⁶⁴⁾

89년부터 평택 지역 농촌활동 했고 황구지리 마을에는 1995년 정착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것은 싫어 했습니다. 마을에 수질이 안 좋고 전투기 비행시 소음이 있지만 그것조차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인 것일 뿐이지요. 정부의 이전계획이 진행 되면서 현실임을 자각하고 반대는 하지만 싸울 엄두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반대한다고 되겠냐는 패배의식과 불안

64)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33쪽.

감이 있었고, 중앙정부와 경찰, 공무원 등 회유작업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요인들이 얽혀 가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었지만, 저희 마을은 이 전을 무산시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그동안 국가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희생당해 왔던 애환을 부각시키려 노력했고, 한국전쟁당시의 농지 강제 편입과 전투기 소음 피해 등에 대해 역학조사 요구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만 편입하고 활주로 밑에 있는 마을만 남게 되는 상황 보다는 차라리 마을도 편입시켜서 이주하자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안보라면 무엇보다 우선으로 국민들에게 강요되거나 희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면, 이것을 기점으로 국민들에게 강요되었던 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⁶⁵⁾

서탄주민대책위원회는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주단지 조성해 줄 것 둘째, 이주 후 영농 희망시 대토 보장할 것 셋째, 마을공동시설 지원 할 것 넷째, 소음피해 등 과거 보상할 것 다섯째, 대책위로 단일 청구화 할 것 등을 내세웠다. 서탄대책위가 협상대책위로 전환하면서 주민들로 동의로 토지와 주택 등 ‘물건(物件) 조사’를 받고,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실시가 이루어졌다. 토지의 경우 평당 평균 6만5000~7만5000원을 받았으나 이보다 2만~3만 원가량 높게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대책위는 2005년 3월 서탄지역 후보지 결정을 위한 협약서를 2005년 3월 체결하고 집단이주를 결정했다. 이후 이주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150여세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였고, 황구지리와 금각리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는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52세대, 구장터 주민들은 지산동 44세대로 결정되었다. 이주조성단지와 준비 끝에 2007년 하반기 황구지 마을 분들이 두릉리로 이전해갔고, 2008년에 구장터 주민들은 지산동 동안마을로 이전해가면서 이주가 마무리되었다. 일부 세대는 시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후 K-55는 확장된 기지에 탄약고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시설을 설치가 진행중이다.

미8군의 평택 이전이 결정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다. 한미양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결정이었고, 미군기지 이전결정은 전적

65) 신00(52세) 인터뷰 날짜(2018년 2월 19일)

으로 소수의 엘리트들이 결정하였다. 1991년 평택이전이 결정되자 지역사회는 분열되었다.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측은 미8군 이전이 될 경우 퇴폐문화확산, 미군범죄증가, 이농사태, 마약확산, AIDS 감염우려, 핵 공격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찬성 측인 정부와 <송탄상공인회>는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을 하며 맞섰다. 올림픽 이후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미8군을 유지하여 경기호황을 본인의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였다.

당시만 해도 국가안보를 위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나 저항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는 아니었다. 미군기지 편입예정 지구인 고덕면 당현 2,3,4리와 서탄면 장등 1,2리의 주민들은 시위를 포함한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일구어온 땅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저항하고 맞섰다. 그러나 3년이 지나지 않아 한미양국은 슬그머니 미8군 용산이전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다. 1천억원이 넘는 부지 매입비용, 이전비용 마련 문제, 주한미군 감축계획의 변동 가능성이 큰 점을 들었지만 이전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무기 연기된 줄만 알았던 미군기지 이전계획은 2001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2003년 미군기지 확장 반대 서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했지만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데가 대토를 지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싸우는 것 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VII. 결론

송탄은 K-55기지 건설로 탄생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피난민과 전재민들이 정착하면서 미군부대주위를 둘러싸면서 마을이 형성되어갔다. 미군을 상대로 하는 클럽을 비롯한 시장이 개설되고,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되었다. 이들의 개척에 의해 주거지가 개발되고 교통, 수도, 전기 등의 편익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송탄의 원도심이 탄생했

다고 볼 수 있다. 기지촌 주민들은 송탄시를 만들어온 개척자라 할 수 있다.

오산공군기지는 한국방위를 명분으로 기지를 확장해 나갔고, 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도 늘려나갔다. 한국 정부는 기지촌 정화사업을 명분으로 기지촌에 물질적이고 행·재정적인 혜택을 주었다. 기지촌 새마을 운동은 계도화된 지역민들의 불만무마와 미군으로부터 안정적인 외화획득을 위해 동원한 국가사업으로 보인다.

송탄 기지촌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남산마을에서 구장터 사이에 있는 베타사이트(탄약고)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참았다. 시 승격 이후 순환도로 건설을 하려고 할 때도 K-55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미군측은 안정적인 주둔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주한미군 시설의 잔존가치에 대한 무보상 조항으로 인해 K-55측은 한국정부로부터 더 많은 비용과 대체시설을 받아내기 위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내 땅에서 나갈 수 없다며 주민들은 집회와 거리시위 등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당시만 해도 국가안보를 위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나 저항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2001년 LPP와 YRP 계획에 따라 다시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전의 갈등양상이 재현되었다. 양쪽의 갈등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동안 황구지리·금각리·구장터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집단이주를 결정했다. 14번째 이주는 국가안보를 고려하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타협책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K-6는 대추리 투쟁으로 저항하면서 투쟁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송탄 지역은 주한미군과 국가권력의 의해 제약받는 공간적 틀을 유지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송탄 기지촌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기지촌의 변화와 굴곡이 여타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국가기록원, 『송탄읍 신장리 철도횡단과선교 가설공사 시행승인
신청』 관리번호 BA0007118 문서
_____, 『송탄과선교 3차 공사 시행건의』 관리번호
BA0007122 문서
_____, 『송탄 성병진료소 공인신조』 관리번호 BA0663201
문서
_____, 『외국군 기지촌 주변 정화를 위한 장기계획』
CA0210058 문서
_____, 『오산-송탄간 비행장선 건널목 수도관 보호휨관 설
치공사』 관리번호 BA0110930 문서
_____, 『기지촌지역 성병진료소 인력증원 요구』 관리번호
BA0840404 문서
_____, 『기지주변정비사업』 관리번호 BA0392970 문서
_____, 『송탄 외국인 임대아파트단지 조성에 관한 건의』
관리번호 BA0862192 문서
_____, 『1985 기지주변 정비사업 설계용역』 관리번호
DA0890992 문서
_____, 『경부선 송탄-서정리간 기점 65k 부근 복창과선교
확장공사』 관리번호 BA0111967 문서
『경인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전우신
문』 『송탄신문』 『평택시사신문』

2. 2차 자료

- 김영일, 『주한미군기지 역사 - 반환기지를 중심으로』 (국방부 주
한미군기지지이전사업단, 2015)
국무총리실 용산공원건립추진단, 『주한미군재배치사업 백서』 (국
무총리실 용산공원건립추진단, 2007)
김해규 외, 『미군 평택주둔 역사 및 생활문화에 끼친 영향』 (평

택시민신문, 2017)

데이비드 바인, 『기지국가: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어떻게 미국과 세계에 해를 끼치는가』 유강은 역(갈마바람, 2017)

문승숙·마리아 혼 편, 『오버데어』 (그린비, 2017)

장세룡외, 『젠더와 로컬리티』 (소명출판, 2017)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1』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14)

안장현, 『신흥교회 40년사』 (송탄신흥교회, 1992)

송탄시, 『송탄시사』 (송탄시사편찬위원회, 1994)

Mark L. Gillem, America Town: Building the Outposts of Empire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2009.

3. 연구논문

김조영, 「기지촌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8.1(1978)

김기주, 「기지촌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 『국토리지학회지』 5.1(1980)

김미덕, 「한국 문학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아메리시안에 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2(2007)

김미덕, 「주한미군 기지정치에 연구에 대한 검토」 『아태연구』 21』 21.1(2013)

김희식, 『매춘공간의 포함과 배제』,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16)

김원, 「60-70년대 기지촌 계도화의 변곡점」 『역사비평』 112 (2015)

박정미,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 『한국사회학』 49.2(2015)

_____, 「발전과 섹스」 『한국사회학』 48.1(2014)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3.4(2007)

_____, 「글/로컬 젠더질서와 한반도 여성의 몸: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양공주”」 『동방학지』 161(2013)

- 오지연, 『미군 기지촌 매춘여성들의 주변적 문화: 의정부시 송산동 기지촌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97)
- 오미일, 조관연 「부평 로컬리티와 이주민:1945-1960년대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46(2010)
- 장세훈, 「전쟁과 도시화-한국전쟁 전후 서울의 도시화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8(2002)
- 이석길, 『평택군 팽성읍 기지촌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5)
- 최병두, 「주한미군의 미시적 정치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3(2003)
- 조명숙,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여성 신학적 접근:K-55 미 공군 오산기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2006)
- 전경수, 「일본 기지촌의 형성과 미군-주민 관계」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2007)
- 전경일, 「한국땅 더럽히는 주한미군기지」 『월간 말』 (1992. 2)
- 장원석, 「오키나와 군사기지 건설과 주민 저항의 동인」 『대한정치학회보』 17.2(2010)
- 차철욱, 「하야리아부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로컬리티」 『지역과 역사』 28(2011)
- 루인, 「캠프 트랜스:이태원 지역 트랜스 젠더 역사 추적하기, 1960-1989」 『문화연구』 1.1(2012)
- 조정민, 「두 개의 미국-오키나와 아메리칸 빌리지를 둘러싼 표상 정치」 『일본연구』 39(2015)
- 현호현, 「송탄 미군 활주로 신규 건설 대응 투쟁」, 『평화누리 통일누리』 (2010)

4. 기타

- 오산공군기지 홈페이지(osan.af.mil)(검색일: 2018.03.07.)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섹스동맹 기지촌 정화운동’ 2003. 2. 9 방송 <http://www.pyeongtaek.go.kr/tour/contents.do?mId=0304020200>(검색일: 2018.06.13.)

<http://www.pyeongtaek.go.kr/tour/contents.do?mId=0304020200>(검색일: 2018.06.13.)

<https://www.youtube.com/watch?v=p6e1Y8ORCGg>

민세 안재홍의 성인교육 활동에 대한 검토

황 우 갑¹⁾

목 차

I. 서론

II. 안재홍의 생애와 성인교육 활동

III. 결론

1)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사무국장

I. 서론

성인교육은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여 사회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적 실천을 강조한다(한준상, 1999). 따라서 성인교육은 개인의 자기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학습의지의 실천과 성찰을 통해 공공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서구 근대 성인교육 사상은 17세기 성인교육사상의 선구자 코메니우스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주창하고 지성·덕성·신앙의 조화를 강조하며 그 토대를 놓았다(최진경, 2010). 이후 서구 성인교육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신념의 실천 하에서 빈민과 노동계급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며 인간은 누구나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다는 신념의 구체적 실천에 기반을 두었다(Jarvis, 2001). 그러므로 성인교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이들의 계속 학습에 대한 다양한 형식·비형식·무형식 학습 지원을 통해 모든 이를 위한 학습의 정신을 실천해왔다.

한국의 근대 성인교육은 1876년 개항 이후 자주적 근대화 노력의 좌절, 그 결과로서 일제 강점이라는 민족의 수난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일제는 식민지배 이후 조선인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 정치적 독립의지가 높아질 것 우려하고 의도적으로 식민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 조선인에 대한 교육을 제한했다(노영택, 2011).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제 강점기 여러 선각자들은 식민지배에 맞서 교육을 통한 절대 독립의 토대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민중의 각성과 계몽에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런 민중 계몽을 위한 민족 교육의 실천은 3.1운동, 6.10만세 운동, 신간회운동, 문자보급운동, 한글 운동 등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확산되어 1945년 광복의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민족의 자주 독립에 버팀목이 된 한국 근대 성인교육 활동과 사상에 대한 관심은 이상재·서재필·이승훈·안창호·심훈 등 몇몇 선구자들에 국한되어왔다(한준상 외, 2000; 오혁진,

2016). 한국 근대 성인교육 사상 연구는 성인교육의 올바른 지향과 관련해서 쓰임새를 고려하는 성인교육 이론 개발, 성인교육을 통한 사회 개조의 실천, 새로운 전통 세우기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한준상 외, 2000). 이에 비추어 볼 때 새롭게 주목하고 연구해야할 인물로 안재홍을 들 수 있다.

경기도 평택출신의 민세 안재홍(1891~1965)은 일제 강점기 국내항일운동을 이끈 민족운동가·언론인·역사학자로서 해방 후에는 정치가·정치사상가로서 그 분야마다 굵직한 자리를 차지한 ‘고절(高節)의 국사(國土)’였다(천관우, 1981). 또한 그는 ‘동경삼재’, ‘조선삼재’로 알려진 이광수·최남선·홍명희(류시현, 2016) 등과 함께 근대 석학의 대명사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안호상, 1981). 1998년 각계 전문가 200인 선정한 ‘한국사 천년의 100인’에 선정됐고(김성환, 1998), ‘20세기 100년을 밝힌 9인의 지성’에 유길준·신채호·이광수·백남운·홍명희·김창숙·박종홍·장준하와 함께 선정되기도 했다(한겨레21, 1999).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선구회의 가상 초대 내각 선호도 조사에서 안재홍은 초대 문교부장관 선호도 1위에 오르기도 했다(서중석, 2005). 해방공간에서 좌우합작의 민족국가수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중도와 지식인 안재홍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조소앙·김규식·정인보 등과 함께 납북돼, 1965년 3월 1일 평양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후 60~70년대 반공·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재홍 등 납북인사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 됐다. 1978년 사학자·언론인이었던 후학 천관우가 『창작과 비평』에 ‘민세 안재홍 연보’를 발표하면서 안재홍 연구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이후 『민세 안재홍 선집』 간행, 『안재홍 전집 자료집성 DB』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다(김인식, 2017).

그 동안 안재홍 관련 연구는 활동 분야가 깊고 넓은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안재홍의 생애 전반의 활동과 사상에 대한 개괄적 조명이 이루어졌다(김인식, 1998; 정윤재, 2002; 윤대식, 2018). 또한 민세주의·신민족주의론을 주창한 정치사상가 안재홍에 대한 조명도 꾸준하게 이루어졌다(정윤재, 1983; 윤대식, 1992; 정윤재, 2001; 박찬승, 2002; 박찬승, 2010; 진덕규, 2011; 김인식,

2011).

일제강점기 신간회 창립을 주도하며 국내 독립운동을 독립운동가 안재홍에 대한 심층 조명도 있었으며(김항도, 2007; 윤대식, 2010) 해방 후 좌우합작의 통일 민족국가 수립운동 과정에서 중도와 민족지도자 안재홍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정미현, 1998; 안미현, 2002; 김인식, 2012). 또한 역사학자로서 안재홍의 조선 상고사 연구, 일제 식민사관 비판에 담긴 역사의식, 대안으로 제시한 신민족주의 역사학의 사학사적 위치에 대한 조명도 있었다(김종원, 1996; 이진한, 2005; 이진한, 2010). 이 밖에도 안재홍의 언론사상 조명(조맹기, 2002; 김영희, 2012), 안재홍의 근대문화사상과 조선학운동 재조명(이지원, 2007; 정운재, 2005), 남북이후 재북 평화통일 활동(이신철, 2010) 등의 연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성인교육의 관점에서 1929년 일제강점기 최대 문자보급운동인 조선일보 문자보급운동을 주도하고, 1945년 12월 미군정기 교육이념분과위원장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제시했으며, 1949년 서울중앙농림대학 학장을 지내는 등 다양한 성인교육을 실천했던 안재홍의 활동과 사상에 대한 성인교육학 차원의 연구는 본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 근대 성인교육 사상 연구는 성인교육학의 흐름과 사상 체계화, 사회교육으로 상징되는 식민지 잔재 청산, 성인교육의 학문적 맥인 실학 정신 재조명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한준상 외, 2000). 이런 측면에서 안재홍은 한국 근대 지도자 가운데 성인교육 실천을 통한 절대 독립과 신국가건설에 평생 헌신한 인물이다. 안재홍의 성인교육 활동과 사상을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은 첫째, 일제 잔재 청산과 항일성인교육사상의 정신 계승 차원에서 독립운동가 안재홍의 성인교육 활동·사상에 대한 재조명이 요청된다. 일제 강점기 수많은 지식인들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친일을 길을 걸어 갈 때 안재홍은 1919년부터 1943년까지 9 차례 걸쳐 7년 3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한국의 성인교육은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독립운동과정에서 성인교육을 실천한 민족지도자들에 대한 다각적 조명이 필요하다. 둘째, 안재홍은 일제강점기 ‘실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1934년 정인보와 함께 ‘조선학운동’을 주창하고 고향 평택으로 낙향하여 1938년까지 당시 필사본으로만 전해오던 정약용의 방대한 저작집 『여유당전서』 76책을 교열·간행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잡지 신조선에 ‘다산의 경론’, ‘현대사상의 선구자로서 다산 선생의 지위’, ‘다산의 한시와 사회편편’과 같은 글을 통해 다산과 실학의 재조명을 역설했다(안재홍 선집 간행위원회, 1992). 4년간 이루어진 다산과 실학재조명을 위한 열정은 “치열한 학습의지(the will to learn)와 학이시습(學而時習)을 실현하려고 배움에 의지하는 인간, 호모에루디티오”(한준상, 1999) 안재홍의 모습이었다. 안재홍은 다산 실학 재조명과 함께 스스로 실학적 사고를 가지고 민중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인교육 활동을 했다.

셋째, 새로운 전통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안재홍은 자기문화의 전통위에서 서구의 발전한 선진문화를 수용해 나가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리 자신의 문화 및 그 사상에서 조선인이면서 세계적이요, 세계적이면서 조선 및 조선적인”(조선일보, 1936. 1. 1) ‘민족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민족으로의’ 민세주의를 구체화시켜 나갔다. 오늘날 성인교육이 전통에 대한 재발견에 기초해서 서구의 다양한 성인교육 사상을 받아들여 한국적인 성인교육 사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 안재홍의 활동과 사상은 성인 교육적 관점에서 조명해볼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 강점기 국내 항일민족운동을 이끌고 해방 후 통일민족국가수립에 힘쓴 민족지도자 안재홍의 성인교육 활동의 대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문헌고찰 중심의 역사적 사료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안재홍선집 간행위원회 편 『안재홍 선집』 1~5권과 고려대박물관편 『안재홍 선집』 6~7권, 시대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등 신문자료와 삼천리, 청년 등 1차 분석 자료로 활용하면서 그의 생애와 활동을 조명한 다양한 2차 사료를 살펴보았다.

Ⅱ. 안재홍의 생애와 성인교육 활동

1. 안재홍의 생애

안재홍은 1891년 11월 30일 경기도 평택에서 출생했다. 1910년 서울 황성기독교청년회(현 서울YMCA의 전신) 중학부를 졸업하고 월남 이상재의 권유로 일본에 유학, 와세다대 정경학부를 졸업했다(천관우, 1978). 일본 유학중 조선인 유학생 학우회를 조직, 당시 메이지대학에 유학중인 고당 조만식과 함께 동경 제일 유학생 사회에 뿌리 깊은 지역 분파주의를 비판하고 통합운동에도 힘썼다(장규식, 2009). 1913년 중국여행을 하며 상해에서 독립운동단체 동제사에 가입했으며 귀국 후 1915년 중앙학교 학감, 1917년 중앙기독교청년회 교육부 간사를 역임하며 민족 인재 양성에 힘쓴다. 1919년 5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을 조직 총무로 활동하다가 11월 1차 옥고를 치른다. 1924년 9월 조선일보 주필, 1927년 신간회 총무 간사, 1931년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했다. 1934년 9월 일제 식민사관에 맞서 조선학운동을 주도했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당 당수, 한성일보 사장, 좌우합작 우측 대표, 미군정청 민정장관, 서울중앙농림대학 학장, 2대 국회의원 등으로 민족통일국가수립에 힘쓰다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납북되어 1965년 3월 1일 평양에서 생을 마감했다. 198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천관우, 1978; 김인식, 2007).

2. 안재홍의 성인교육 활동 양상

1) 교육기관을 통한 성인교육 지도자 활동

안재홍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 걸쳐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성인교육지도자로 활동을 했다.

(1) 서울 중앙학교 학감

그는 1914년 일본 와세다 대학 졸업 후 돌아와 일본 와세다대 동창인 인촌 김성수의 권유로 1915년 첫 직장인 중앙학교 학감으로 청년 인재양성에 힘쓴다. 학감은 현재의 교감 직위였다. 그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그는

수신(도덕)과목을 맡아 학생을 가르쳤는데 매일 아침 조회 때는 꼭 훈화를 통해 무엇인가 절절히 학생들의 마음속에 파고 드는 감명을 주었다. 또한 점심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학생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담임반 학생의 회고에 의하면 안재홍을 소소한 일에 구애되거나 이끌리지 않고, 머릿속에 항상 차원 높은 선이 굵은 일을 생각했던 스승으로 기억하고 있다(이희승, 1991). 중앙학교 시절 그가 교육을 통해 항일의식을 일깨운 대표적인 제자가 의열단을 이끈 민족운동가 약산 김원봉이다. 훗날 안재홍은 1936년 김원봉의 요청으로 그가 중국 상해에 세운 군관학교에 독립운동에 참여할 청년 학생들의 모집을 돕다가 2차례 옥고를 치른다(한상도, 2017). 한글수호와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 국어학자 이희승도 중앙학교 시절 제자이다. 안재홍은 1942년 그와 함께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수난을 겪는다(이희승, 1991; 이희승, 1996). 안재홍 담임반 학생이었던 이희승은 입학 당시 20살이 넘는 성인으로 만학도였다. 이 시기 안재홍은 일제를 비판하는 불온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2년 만에 학교를 그만둔다(중앙교우회, 2009). 안재홍은 학교를 그만두고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을 조직 활동하던 1919년 8월 중앙학교 시절 제자였던 백강 이병우의 중국 상해 망명을 지원 요청을 받고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항일의욕 고취에 힘썼다(이희승, 1991). 이병우도 중앙학교 재학당시 스승 안재홍보다 세 살 많았던 제자로 이 시대 후반의 성인학생이었다.

(2) 중앙YMCA 교육부 간사 활동과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 추진
 중앙학교 학감 사직 이후 그는 1917년 모교인 중앙YMCA(현 서울 YMCA) 교육부 간사로 잠시 활동한다. 민세의 청년기 사상 형성에서 기독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안재홍은 기독교가 정신의 길, 신념의 길, 사상의 길을 열면서 구제와 자기구제를 위한 해방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청년, 1931).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은 민족구원 사상, 민주민권 사상, 구민경제 사상, 민족문화보존 사상에 입각해 비폭력, 정신적 각성의 도덕주의, 독

립을 위한 점진주의 방법론을 실천했다(노치준, 1995). 1913년 독립협회 계열 청년들의 요구로 창립한 황성기독교청년회(중앙YMCA의 전신)는 서당교육이 아닌 기초근대 교육과 직업교육 연계의 실업교육을 실천 민족교육 발달에 기여했다. 안재홍이 간사로 활동하던 1917년은 일제의 탄압으로 1916년 중앙YMCA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학부는 폐지되었고 영어, 일어, 공예과와 노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노동야학이 있었다(김희진, 2017).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안재홍은 여기에서도 항일지도자 초청 강연 등 성인교육을 통해 청년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든든한 기독교 인맥을 형성하게 된다. 1917년 봄 안재홍은 훗날 신간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만해 한용운을 초청 ‘활수양(活修養)’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기독교 중추 기관에서 불교명사를 초청 강연한 것은 최초의 일이었고 이 때문에 일제의 감시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삼천리, 1949. 3). 또한 그는 1934년 12월 여자의학전문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재)여자의학전문학교 발기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당시 추진의 핵심인 고계(高啓)재단과의 교섭에도 핵심 교섭위원으로 적극 나선다(동아일보, 1934. 12. 21).

(3) 고향 평택에서 간이 야간학교 운영

안재홍은 1934년 9월 조선학운동 제창과 함께 고향 평택 고덕면 두릉리로 내려와 저술활동에 몰입한다. 그는 이곳에서 정신적으로 바쁜 가운데도 무형식 학습의 하나로 야간학교를 열어 마을 청년·여성들에게 문자보급·상식보급 등 성인기초교육을 실천했다. 당시 학생들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평소에는 인자했으나 마을 성인학습자들이 과제 학습을 게을리 하면 회초리를 들었고, 조선 백성이 배우지 않으면 조선의 독립은 어렵다며 호되게 야단을 쳤다고 한다(황우갑, 2017).

(4) 국학전문학교 대학 승격 ‘지성회’ 조직 활동

해방 후 안재홍은 1946년 5월 당시 국학전문학교를 국학대학으로 승격 시키려는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지성회를 조직하고 위

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대학 교육발전에 토대를 놓았다(동아일보, 1946. 5.29).

(5) 서울중앙농림대학 설립 운영

또한 그는 1949년 1월 서울 돈암동에 2년제 초급 대학으로 농업 실습과 이론을 배우면서 저비용으로 공부하는 서울중앙농림대학 학장으로 부학장 주세중과 함께 인재 양성에 힘썼다. 이 대학은 100명 정원으로 개척과와 실습과를 두었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했고 개척과는 남미 브라질에 황무지 개간을 위해 선발대를 파견했다. 실습과는 농번기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한기에는 축산, 임업, 과수 등 관련 분야의 이론을 공부했으며 에스페란토어를 배웠다. 안재홍은 학장으로 농업국가 조선의 입체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과 교육을 했다(이기연, 2018). 안재홍은 일제강점기에도 줄곧 실현 가능한 민립대학의 하나로 농민대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70%가 넘는 농민이 대다수인 조선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농촌·농민을 지도 교양할 농민대학 설립은 경비가 많이 필요치 않고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과목은 농림 지식, 실습 중심의 3년 과정이며 농한기를 이용하는 특설과를 구상했다(삼천리, 1930. 4). 이러한 신념의 구체적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 해방 후 서울중앙농림대학 설립 운영이었다.

2) 사회단체를 통한 성인교육 활동

안재홍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 걸쳐 성인교육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도 했다.

(1) 태평양 문제연구회

우선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직과 활동이다. 그는 1925년 윤치호·유억겸 등과 함께 9개 나라 대표자들이 모여 태평양연안의 교육·산업·정치·종교·경제 등 여러 문제를 연구하는 태평양문제연구회에 핵심 위원으로 활동했다(동아일보, 1925. 11.30).

(2) 조선사정조사연구회

또한 백관수, 조병옥 등과 함께 조선사정조사연구회를 조직해서 교육을 비롯해 상업, 공업, 농업, 법제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학술 조사, 연구를 통해 식민당국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료 발간과 계몽에도 노력했다(시대일보, 1925. 12.27).

(3) 조선교육협회

그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재건과 조선교육협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는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 본위의 민립대학을 설립하자는 운동이었다. 이상재·이승훈·김성수 등이 1922년 창립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26년 3월 안재홍은 한기악·이종린 등과 함께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부활을 시도했다(김형목, 2009).

또한 1927년 조선일보 주필로 11월 ‘조선교육주간’을 설정 홍보하는데 참여했다. 이는 11월 11일 1차 세계 대전 종전을 기념해서 미국에서 시작한 교육주간의 정신을 수용해서 조선인 본위의 교육, 문맹타파 운동을 고조, 대중교화의 수립을 촉진하고자 했다. 안재홍은 ‘조선교육주간’ 결의문 기초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사업은 미국 교육회에서 당시 조선일보 주필 안재홍에게 조선에서의 교육주간 설치를 권고해와 이루어진 일로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조선교육협회와 함께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천을 내 걸었다(조선일보, 1927. 11.11; 중외일보, 1927.11).

(4) 좌우합작 항일운동단체 신간회

신간회는 1927년 2월 15일 자치론을 배격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절대독립을 목표로 창립한 일제강점하 최대의 항일민족운동단체였다. 신간회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훈련 도장으로 일제 통치 세력에 대한 일정한 압력 수단이 될 수 있는 민족협동전선이었다(이균영, 1994). 신간회는 자치운동 등 타협운동을 배격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좌익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출발했고 여기에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운동의 주동성을 인정하면서 민족협동전선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김인식, 2012). 신간회는 문자보급과 야학 개설,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획득, 노동 단체 지원, 농민 운동 고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제 식민지배에 큰 타격을 가했다(신용하, 2017). 안재홍은 홍명희, 신석우, 이승복 등과 함께 신간회 초기 창립의 핵심인물이었다. 그는 전국 신간회 지회 창립을 위해 상주, 대구, 하동, 밀양, 산청, 함양, 고성, 나주 등 남도지방을 돌며 농민교양에 적극적 노력하고 조선인의 문화적 생명의 적절한 발육을 위하여 조선인 본위의 교육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1981).

(5) 언론 민족지도자로서 문자보급운동

안재홍은 1929년 5월 조선일보 부사장 시절 민중과 접촉하기 쉽고 그들에게 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식·의식의 씨를 뿌려줄 수 현실 가능한 실천운동으로 색의단발, 건강증진, 상식보급, 허례허식 폐지, 소비절약 전개라는 5가지 과제를 실천했다(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1981).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오늘의 일, 현재의 일을 가장 충실 또 엄숙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1981), 현재 조선의 긴박한 과제가 문화의 수직적 상승운동이며 그 대안으로 상식보급운동이 민중 속에 뿌리박는 것이 긴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1981).

또한 안재홍은 1929년 7월 14일부터 실시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조선일보 문자보급운동도 적극 추진했다. 한국의 문해교육은 일제 강점 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중 각성을 위한 수단인 민중교육운동에서 시작되었다(윤복남, 2001). 일제강점기인 1930년 10월 국세조사에 의하면 당시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황해 등 6도에서 한글·일어 독서 불능자는 남자 63.5%, 여자 89.5%로 총 76.1%가 문맹자였다(이계형·전병무, 2014). 이 운동에는 첫째인 1929년에 409명이 참여했으며 이 때 기초 한글을 깨우친 사람은 2천 849명이었다. 1930년에는 1만 567명이 한글을 깨우쳤다. 1931년에는 문자보급반 강좌를 개설하고 한글원본 20만부를

인쇄하여 전국 300여 지국에 무료 배포했으며, 강습생은 2만 8백 명으로 늘었다(정진석, 1999). 안재홍은 민족교육의 기초를 문맹퇴치로 보고, 민중의 배움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야 진정한 민족독립의 토대가 형성 될 것으로 보았다.

(6)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

그는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934년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에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등과 함께 참여, 일제 강점기 민족문화와 한글수호에 힘쓰고 한글 맞춤법 제정과 우리말 큰사전 간행에 힘썼다(매일신보, 1934, 12. 30). 안재홍은 일제가 말살하려고 하는 민족정신의 상징인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성인 교육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한글을 빛낸 33인이기도 한 그는 우리말 사전 기초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다(박용규, 2012). 안재홍은 한글은 조선 사람의 운명 그것과 한가지이며 이를 옹호·선양하는 것은 민족적 자주정신을 발휘하는 제일보라고 강조했다(안재홍, 1981). 그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어 편중 교육을 하는 일제를 맹렬히 비판하며 이를 ‘의붓자식 교육’, ‘노예 교육’이라고 비판했다(안재홍, 1981). 대안으로 그는 일제의 언어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 수호의 방책으로 한글보급운동 고조, 조선어사전의 편찬촉진, 한글날 신획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안재홍, 2005). 안재홍은 민족 정체성의 핵심어로 ‘민족정기’를 주장했으며 그 뿌리가 되는 것은 한글과 조선 역사라고 확신했다.

(7) 조선교육연구회

안재홍은 해방 후 조선교육연구회를 조직·활동했다. 신교육 운동을 표방한 이 단체의 중심인물은 안재홍을 비롯해서 안호상·손진태·최현배·조운제 등이다. ‘새 조선은 교육에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주주의, 역사·문화교육 연구를 목표 활동했으며 민주주의 교육과 민족 교육을 강조하였다(홍웅선, 1992).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은 일제 강점기 안재홍과 조선어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조선학운

동 등에 상호 교감이 깊던 인물들이었다.

(8) 미군정청 조선교육심의회

미군정은 1945년 9월 6일 조선교육위원회를 11월에는 이를 확대해서 조선교육심의회를 조직 신생 한국의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방향을 수립 한다. 6-3-3-4학제, 미국식 대학제도에 기초한 한국의 대학제도 등이 조선교육심의회에서 결정돼 현재까지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해숙, 2009). 안재홍은 조선교육심의회에서 교육이념 분과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다(김석준, 1996). 현재 교육기본법 2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가교육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이것은 1945년 12월 20일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확정되었다. 안재홍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에 기초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생국가의 공민 양성을 조선교육의 근본이념으로 제시하였다(동아일보, 1945. 12. 25: 허대녕, 2009).

(9) 국민후생협회

안재홍은 1946년 6월 해방 후 귀국한 수백만의 해외동포와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린 전 국민의 보건과 후생에 힘을 쓰고자 교육·체육·종교계 인사가 창립한 국민후생협회에 주요 발기인으로 참여 보건 후생에 관한 연구조사와 보건 교육에도 힘썼다(동아일보, 1946. 6. 3).

3) 강연을 통한 성인계몽 교육활동

안재홍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 걸쳐 경향 각지를 다니며 계몽 강연을 통해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이러한 강연 활동은 당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는 1925년 1월 천도교재경학생간친회 주최 강연에 ‘사안으로 본 동양의 현하’(매일신보, 1925. 1. 30)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같은 해 2월에도 서울청년회 주최 신춘대강연에 ‘현하 사회상의 체관(諦觀)’(동아일보, 1925.2.1.)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6월 22일 문우수양회 주최 강연회에는 ‘역경의 청년’(동아일보, 1925. 6. 22)이

라는 강연을 통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올바른 민족의식 정립을 강조했다.

1926년 4월에는 통영청년회관 강연회에 ‘남조선의 시각에서’(동아일보, 1926. 4. 24)라는 주제로, 연이어 지리산 쌍계사에서 열린 영호양남기자대회에서는 ‘일념봉공의 기자생활’(동아일보, 1926. 4. 26)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신간회가 창립 본격적으로 활동한 1927년에는 4월에 관서기자대회에서 ‘언론계의 유래와 사회의 필요’(동아일보, 1927. 4. 27), 6월 개성학생과학연구회에서 ‘자연생장과 사회’(동아일보, 1927. 6. 24), 9월에는 상주신간회 지회에서 ‘변동하는 조선’(동아일보, 1927. 9. 8), 12월 평안도 광산 신간회 지회에서 ‘민족주의에 관한 운동’(동아일보, 1927. 12. 1), 용암포 지회에서 ‘금일의 민족운동’(동아일보, 1927. 12. 3),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조선과 신간운동’(동아일보, 1927. 12. 6)이라는 주제로 신간회 운동의 필요성과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그는 1934년 9월 다산 정약용 서세 99주기 기념강연에서 ‘조선사상의 정다산의 지위’(동아일보, 1934. 9. 5)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선학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당시 사회에 식민사관에 맞서 조선정신의 회복을 일깨웠다.

해방 이후에도 1946년 5월 청년지도훈련강습회 ‘건국이념 지도원리 함양’(동아일보, 1946. 5. 30), 1948년 12월 단국대부속 교외대학에서 영등포지구 근로독학자 대상 강연(동아일보, 1948. 12. 12), 4월 경남 거창읍 주최 ‘한민족의 기본의 길’(동아일보, 1949. 4. 27)이라는 주제로 전국 각지를 다니며 당면 공동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강연을 통한 교육에 힘썼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안재홍 성인교육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안재홍의 성인교육 활동은 크게 교육기관을 통한 활동으로 서울중앙학교 학감, 중앙YMCA 간사,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 추진, 고향 평

택에서의 간이 야간학교 운영, 국학전문학교 대학 승격을 위한 ‘지성회’ 조직 활동, 서울중앙농림대학 설립 등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단체를 통한 성인교육 활동으로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사정조사연구회, 조선교육협회, 조선어학회와 조선어 표준사정위원회, 신간회, 언론민족지도자로서의 문자보급 운동, 조선교육연구회 참여, 미군정청 조선교육심의위원회 활동,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한 민중계몽 등의 활동성과를 분석했다.

이러한 안재홍의 성인교육 활동은 오늘날 한국 성인교육의 과제 해결에도 세가지 측면에서 지혜를 제공한다. 첫째, 성인교육자 안재홍의 활동과 성인교육 사상은 오늘날 성인교육 지도자들에게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지도자는 학습자와 함께 호흡하며 이상적 모델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알기 위한 학습에 그치지 않고 변화되고 실천하기 위한 학습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안재홍은 성인교육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개조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확신했으며, 민세라는 호처럼 백성과 함께 호흡하며 성인학습자에 대한 개별적 배려에도 힘썼다. 또한 솔직 소탈한 성품으로 성인학습자와 추종자들에게 성인교육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는 성인교육을 통해 독립과 통일이라는 겨레의 비원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를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추구했다. 안재홍은 다양한 학습실천을 통해 일제 식민 통치의 근본을 파악하고 냉철한 현실인식,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당대 소외 받은 민중에 대한 애정을 실천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훈련된 인격에 바탕을 둔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경이적인 9차례 7년 3개월의 옥고를 견뎠다.

둘째, 한국 성인교육이 계승해야 할 실학적 전통의 계승 문제이다. 안재홍은 실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약용 저작 간행과 연구에 힘썼으며 실학 대중화에도 토대를 놓은 인물이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그가 일관되게 추구한 신간회, 조선학운동, 민세주의, 신민족주의는 실학 정신의 구체적 실천이다. 안재홍은 형무소를 드나드는 고단한 삶속에서도 부단히 학습하고, 방대한 저술과 신문 기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펼쳤으며, 성인교육자로서 다

양한 조직을 만들어 시대의 과제에 구체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일제에 타협적인 자치론자에 맞서 철저 항일을 강조했다, 민중과 함께 가라, 민중의 일을 함께하라는 다짐 속에 사회 변화, 사회 개조에 노력했으며 일제 식민지배의 정책 변화를 예단하고 교육과 강연을 통해 민중 계몽에 힘썼다. 성인교육은 학습자가 당면한 삶의 과제 시대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수단일 때 학습 결과와 확산 효과가 크다. 실학적 사고에 기반을 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성인교육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셋째, 새로운 성인교육의 전통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안재홍은 전통적 가치의 바탕위에 서구적 가치, 현대적 가치를 받아들여 노력했다. 안재홍은 민주주의가 서구적 전통에서만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주체적 인식을 가지고, 한국 고대사를 탐구하며 민주주의 전통의 요소를 찾으려 했다. 또한 순우리말 어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구 개념을 우리말로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되 타문화나 전통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려고 했고 이것이 민세주의로 구체화되었다. 21세기 한국의 성인교육도 한국적 토대 위에서 서구의 지혜를 조화롭게 융합해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

평택지역 인물사 연구에서도 성인교육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해볼 여러 인물들이 있다. 특히 평택과 직간접적 인연을 맺으며 살아온 역사인물들로 민세를 비롯해서 자료가 충실한 원효, 정도진, 조광조, 이동백, 지영희와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이 청년기 어떤 학습경험을 했는지와 성장후 성인교육지도자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안드라고지(성인교육)의 관점에서 재평가 해볼 필요가 있다. 안재홍 연구도 그 폭을 넓히기 위해 예를 들어 동경 유학 시절 어떤 스승을 만나 무슨 공부를 했는지 등 학맥과 영향관계 파악을 통해 인물에 대한 입체적 조명이 가능해 질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평생교육학의 관점에서 평택지역 인물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선보, 정혜진 (2012). 그룬트비의 평생교육 사상과 실제. 한국교육학연구, 18(2), 5-23. UCI : G704-001273.2012.18.2.001.
- 고려대박물관 (2005). 민세안재홍선집 6. 서울: 지식산업사.
- 고려대박물관 (2008). 민세안재홍선집 7. 서울: 지식산업사.
- 곽삼근 (2007). 한국평생교육의 사회철학적 과제. 아산재단연구총서 제183집. 서울: 집
- 김귀성 (2004). 생활교육운동의 선구자 타오싱즈. 동아시아 근대교육사상가론. 서울: 문음사.
- 김석준 (1996).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김성환 (1998). 한국사 천년의 100인. 서울: 오늘의 책.
- 김영희 (2013). 일제점기 언론사연구와 안재홍의 조선신문소사. 안재홍 언론사상 심층연구. 서울: 선인.
- 김은아 (1993). 민세 안재홍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식 (1998). 민세 안재홍의 사상과 행동.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김인식 (2007). 중도의 길을 걸은 신민족주의자. 서울: 역사공간.
- 김인식 (2008). 광복전후 국가건설론. 서울: 경인문화사.
- 김인식 (2012). 안재홍의 신국가건설운동. 서울: 선인.
- 김인식 (2012). 신간회의 창립과 민족단일당 이론. 안재홍과 신간회의 민족운동. 서울: 선인.
- 김인식 (2015). 1930년대 안재홍의 조선학론. 1930년대 조선학운동 심층연구. 서울: 선인.
- 김인식 (2016). 민세 안재홍 저작의 전집화·DB화 사업의 의의와 남은 과제. 안재홍 자료 집성과 기념사업. 서울: 선인.
- 김인희 (2014). 안재홍의 고조선 연구 성과와 한계. 근대 한국사상가들의 고조선 인식. 고조선 단군학회 제61회 학술발표회. 2014. 10. 2. 국립고궁박물관. 51-65.
- 김종원 (1996). 해방후 안재홍의 고대사인식.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항도 (2007). 일제시기 안재홍의 민족운동. 경성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목 (2009). 교육운동. 서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희진 (2017). 초기 YMCA 교육운동의 전개와 특징. 숙명여대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영택 (2011). 일제하민중교육운동사. 서울: 학이시습.
- 노치준 (1995). 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운동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 연구소.
- 동아일보 1925년 2월 1일자. 모임 신춘대강연회. 2면 6단.
- 동아일보 1925년 6월 22일자. 문우수양강연. 3면 9단.
- 동아일보 1925년 11월 30일자. 개인자격으로 참가시켜 교육 정치등 토의. 2면 3단.
- 동아일보 1926년 4월 24일자. 통영서 三氏 강연. 4면 1단.
- 동아일보 1926년 4월 28일자. 영호 양남기자대회. 4면 1단.
- 동아일보 1927년 4월 27일자. 관서기자대회. 4면 6단.
- 동아일보 1927년 6월 24일자. 개성 양씨 강연. 4면 4단.
- 동아일보 1927년 9월 8일자. 상주의 양씨 강연. 4면 9단.
- 동아일보 1927년 12월 1일자. 광산 강연 성황. 4면 10단.
- 동아일보 1927년 12월 3일자. 용암포 강연회. 4면 12단.
- 동아일보 1927년 12월 6일자. 신간회 강연회 팔일 밤에 연다. 4면 8단.
- 동아일보 1934년 9월 5일자. 다산선생 기념강연회. 2면 11단.
- 동아일보 1934년 12월 21일자. 여의전 발기회에서 고계재단을 교섭. 2면 9단.
- 동아일보 1945년 12월 25일자. 교육이념을 재수정. 2면 7단.
- 동아일보 1946년 5월 29일자. 국민전문대학으로 준비. 2면 3단.
- 동아일보 1946년 5월 30일자. 청년지도자 훈련강습. 2면 1단.
- 동아일보 1946년 6월 3일자. 국민후생협회 사일에 결성식. 2면 4단.
- 동아일보 1948년 12월 12일자. 이동강좌. 2면 11단.
- 동아일보 1949년 4월 27일자. 거창읍에서 안재홍씨 강연. 2면 8단.
- 류시현 (2016). 동경삼재. 서울: 산처림.
- 매일신보 1925년 1월 30일자. 모임. 2면 9단.

- 매일신보 1934년 12월 30일자. 조선표준어 사정위원회. 2면 6단.
- 박용규 (2012). 조선어학회 항일투쟁사. 서울: 한글학회.
- 박찬승 (2002). 1930년대 안재홍의 민세주의론. 민족에서 세계로. 서울: 불명.
- 박찬승 (2010). 민족주의의 시대. 서울: 경인문화사.
- 삼천리사. 삼천리. 1930년 제4호.
- 삼천리사. 삼천리. 1930년 제5호.
- 삼천리사. 삼천리. 1931년 제9호
- 삼천리사. 삼천리. 1949년 제4호
- 서중석 (2005). 한국 현대사. 서울: 경인문화사.
- 시대일보 1925년 11월 30일자.
- 신용하 (2017). 신간회의 민족운동. 서울: 지식산업사.
- 안미현 (2002). 해방 직후 안재홍의 통일민족국가 건설운동.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40-42.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1981). 민세안재홍선집 1. 서울: 지식산업사.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1983). 민세안재홍선집 2. 서울: 지식산업사.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1992). 민세안재홍선집 4. 서울: 지식산업사.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1999). 민세안재홍선집 5. 서울: 지식산업사.
- 안호상 (1981). 간행사. 민세안재홍선집 1. 서울: 지식산업사.
- 오혁진 (2016). 한국사회교육사상사. 서울: 학지사.
- 오혁진 (2015).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서울: 집문당.
- 윤대식 (1992). 안재홍의 정치사상과 정치노선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대식 (2010). 안재홍의 정합적 삶: 신간회 참여와 해소 과정을 중심으로. 안재홍의 항일과 건국사상. 서울: 백산서당
- 윤대식 (2018). 건국을 위한 변명: 안재홍. 서울: 신서원.
- 윤복남 (2001). 해방전 우리나라 문해교육운동. 한국문해교육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38-40.
- 이광수 (1948). 나의 고백. 서울: 생활사.
- 이계형 · 전병무 (2014). 숫자로 본 조선. 서울: 역사공간.
- 이균영 (1994). 신간회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이기연 (2018). 서울중앙농림대학 시절 회고 인터뷰 자료. 민세안재홍 기념사업회.
- 이상오 (2008). 리더십: 역사와 전망. 서울: 연세대 출판부.
- 이신철 (2010). 전쟁 이후 안재홍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안재홍의 항일과 건국사상. 서울: 백산서당
- 이지원 (2007). 한국 근대문화사상사연구. 서울: 해안.
- 이진한 (2005). 민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사관에 대한 일고찰. 민세안재홍 심층연구. 서울: 황금알.
- 이진한 (2010). 민세의 한국중세사 인식과 유물사관 비판. 안재홍의 항일과 건국사상. 서울: 백산서당
- 이혜숙 (2009). 미군정기의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서울: 선인.
- 이희승 (1996). 딸각발이 선비의 일생.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장규식 (2009). 민중과 함께 한 조선의 간디, 조만식. 서울: 역사공간.
- 정미현 (1998). 해방후 안재홍의 정치활동.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윤재 (1983). 안재홍의 정치사상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윤재 (2002). 다사리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정윤재 (2002). 안재홍의 조선정치철학과 다사리이념. 민족에서 세계로. 서울: 불명.
- 정윤재 (2005). 1930년대 안재홍의 문화건설론 연구. 민세안재홍 심층연구. 서울: 황금알.
- 정윤재 (2018).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역사인식과 평화통일의 과제.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17(1), 221-257.
- 정진석 (1999). 문자보급운동 교재:조선일보·동아일보 1929~1935. 서울: LG상남언론재단.
- 조맹기 (2002).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언론사상. 민족에서 세계로. 서울: 불명.
- 조선일보 1927년 11월 11일자.
- 조선일보 1936년 1월 11일자.
- 중앙교우회(2009). 인물로 본 중앙 100년. 서울: 창미.
- 중외일보 1927년 11월 13일자.

- 진덕규(2011). 권력과 지식인. 서울: 지식산업사.
- 천관우 (1978). 민세 안재홍 연보. 창작과 비평 13권 제4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천관우 (1981). 해제1. 민세안재홍선집 1. 서울: 지식산업사. 청년 제 106호 1931년 2월호.
- 최은희 (1990). 교우반세기. 민세안재홍선집 3. 서울: 지식산업사.
- 최진경 (2010). 평생교육학의 선구자 코메니우스의 ‘Pampaedia’(범교육학)에 나타난 평생 교육 이해와 시사점. 평생교육학연구, 16, 113-132. UCI : G704-000781.2010.16.1.004.
- 한겨레 21 1999년 4월호.
- 한상도 (2017). 독립운동시기 김원봉의 통합·연대 활동. 민족운동가들의 교류와 협동. 서울: 선인.
- 한영우선생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3). 한국사인물열전 3. 안재홍편. 서울: 돌베개.
- 한준상, 기영화, 김대용, 김복영, 이상오, 이희수, 정영수, 최병익(2000). 근대한국성인교육사상. 서울: 원미사.
- 한준상 (1999). 호모에루디티오. 서울: 학지사.
- 허대녕 (2009). 오천석과 미군정기 교육정책. 한국학술정보: 서울.
- 홍용선 (1992). 광복후의 신교육운동. 서울: 대한교과서.
- 황우갑 (2016). 민세 안재홍기념사업의 성과와 과제. 안재홍 자료집성과 기념사업. 서울: 선인.
- Elias, J. L · Merriam, S (1994). *Philosophical Foundation of Adult Education*. 기영화 역 (2012). 성인교육의 철학적 기초 서울: 학지사
- Freire, P & Macedo, D (1987). *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the Taylor & Francis Group. 허준 역 (2014). 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읽기와 세계읽기. 서울: 학이시습.
- Jarvis, P (2001). *ENTIETH CENTURY THINKERS IN ADULT & CONTINUING EDUCATION EYA*, 강선보, 노경란, 김희선, 변정현 옮김 (2011). 20세기 성인교육철학. 서울: 동문사.
- Jarvis, P (2005). *ADULT EDUCATION AND THE STATE*. the Taylor & Francis Group.

Lindeman, E. C (1961). *The Meaning of Adult Education Montreal: Harvest House Ltd.* 김동진, 강대중 역 (2013) .성인교육의 의미. 서울: 학이시습.

평택문화연구 제1집

발행일 : 2019년 12월 20일

발행인 : 김은호(평택문화원장), 오중근(평택향토사연구소장)

발행처 : 평택문화원, 평택향토사연구소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화 : 031-655-2002

팩시밀리 : 031-654-8807

인쇄 : 나무기획

저작권자 2019 평택문화원, 평택향토사연구소

ISSN 2713-6884

※ 이 책의 저작권은 발행처와 저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